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종교학박사학위논문

#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박 인 규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연구  
-차월곡의 보천교와 조정산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중 성

이 논문을 종교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박 인 규

박인규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원장	尹元澈	
부위원장	金志珪	
위원	朴光洙	
위원	李京源	
위원	崔鍾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증산(甌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종교적 가르침을 계승하여 그를 신앙하는 종단(宗團)을 창설한 창교주(創敎主)들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신종교 운동의 역동적 전개와 그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종교사에서 증산을 교조(敎祖)로 하여 창시된 교단을 총괄하여 ‘증산교’, ‘증산계 신종교’, ‘증산종단’, ‘증산계 교단’ 등으로 칭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증산의 가르침을 봉행(奉行)한 창교주들의 후속 종교 운동을 ‘증산계 종교운동’ 또는 ‘증산 신앙운동’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통해 창설된 종교 조직을 ‘증산종단’이라 하였다.

증산계 종교운동의 기원은 증산 강일순에 대한 신앙과 그의 가르침이다. 삼계대권의 권능을 주재하는 ‘일하는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에 대한 신앙이 증산계 종교운동의 핵심 원천이었다. 이러한 증산이 세상과 창생을 구하기 위해 실시한 작업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는 증산계 종교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 교의이며 여타의 종교 신앙과 구별되는 증산계 종교운동만의 독창적 교리이다. 일제강점기 해원 이념을 기반으로 한 천지공사론은 신앙인들에게 민족의 구원과 민중해방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다. 또 증산은 천지공사 가운데 교운공사를 통해 자신의 참다운 계승자를 대두목이라 칭하고 이 대두목이 펼치는 종교운동을 진법이라 하였다. 이러한 진법을 수행할 때 신앙인들은 종교적 목적인 의통과 도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증산계 종교운동은 교조인 증산의 권능과 교설을 토대로 그의 화천 이후인 일제강점기에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는 증산계 종교운동이 태동하여 성장 발전한 시기로, 해방 이후 전개된 증산계 종교운동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증산종단을 자신들의 전사(前史)로 여기고 있으며, 적어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거나 그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은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일제강점기는 초기 역사인 동시에 운동의 특성과 기틀이 형성된 시기이므로 증산 신앙운동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한 종단은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의 보천교(普天敎)이며 그 다음 교세를 보였던 종단은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의 무극도(無極道)이다. 월곡 차경석은 증산의 직계 종도로서 증산의 가르침을 근거로 포교에 힘쓰고 종단

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며 단시간에 천도교의 교세에 상응하는 종단을 형성하였다. 3.1운동 실패 후 민족 해방의 염원이 좌절된 민중은 속속 보천교에 입교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성금을 모으면서 보천교는 막대한 자금력과 신도를 보유한 조선의 거대 종단이 되었다. 월곡의 보천교 운동에 대한 연구 의의는 이처럼 민중의 대대적 호응을 받았던 종교 운동이었다는 점 외에 상당수의 증산종단이 보천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에 있다.

보천교가 증산의 직계종도에 의해 창시된 종단인 데 반해, 무극도는 증산의 종도가 아닌 창교주의 종교체험을 통해 시작된 종단이다. 무극도의 창교주 정산 조철제는 계시와 득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극도를 일제강점기 증산종단 가운데 보천교에 다음가는 교세를 지닌 종단으로 발전시켰다. 당시 언론은 무극도를 보천교의 후속 주자로 보천교와 견주어 논하였으며, 일경도 보천교 다음으로 무극도를 경계하며 주시하였다. 이 점에서 보천교와 무극도는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양대 산맥이라 볼 수 있다.

월곡은 1919년 교단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1921년에는 고천제를 실시하며 교단명을 ‘보화’라 천명하였고, 1922년에는 ‘보천교’라는 명칭으로 교단을 공개하였다. 이후 보천교는 전국적으로 교세가 확대되었지만, 1924년 시대일보 사건을 계기로 청음 이상호를 중심으로 한 신파가 혁신운동을 일으키며 보천교는 내홍에 휩싸이게 되었다. 월곡은 교단의 내분을 잠재우고자 일제와 조율하여 시국대동단을 조직하였지만, 친일 논란에 휘말리면서 언론의 비난과 민중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후 보천교는 내홍과 해체의 역사를 그리게 되었다.

보천교 신파의 지도자인 청음 이상호와 남주 이정립은 지식인으로서 보천교의 교리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이들은 시대일보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등 보천교를 조선 사회에 안착하려 하였으나 월곡과 의견을 달리하며 보천교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음과 남주 형제는 증산의 언설을 담은 경전을 처음으로 편찬하고 교단을 창립하는 등 증산 신앙운동에 매진하였다.

정산 조철제는 배일사상가인 조부의 뜻을 받들어 일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던 도중 상제로 화현한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후 정산이 증산을 신앙하고 교단을 창립하는 등 종교운동을 전개할 계기가 되었다. 정산이 1925년 창설한 무극도는 활발한 포교 운동을 전개하여 ‘제2의 보천교’라 불리며 보천교에 견주어지는 교단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유사종교단체해산령과

치안유지법에 따라 무극도는 1941년 해산되었다.

정산은 해방 후 부산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신앙촌을 형성하였다. 1950년에는 종단의 명칭을 태극도로 개칭하고 공부와 포교에 힘쓰며 교단의 기틀을 다졌으며, 1958년 우당 박한경에게 종통을 계승하고 별세하였다. 우당은 정산의 유명을 계승하여 10년간 태극도를 영도하다가 종교 활동의 중심지를 서울로 옮기고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

주제어: 증산 강일순, 월곡 차경석, 정산 조철제, 보천교, 무극도, 대순진리회, 청음 이상호, 남주 이정립, 일제강점기, 민족종교, 독립운동

학번: 2014-30954



# 목 차

제1장 서론 .....	1
1절 문제제기 .....	1
2절 연구사 검토 .....	5
3절 연구방법 .....	26
4절 연구의의 .....	34
제2장 증산계 종교운동의 기원: 증산에 대한 이해와 해석 .....	38
1절 증산의 신격론 .....	38
2절 천지공사론 .....	44
3절 도통론 .....	57
4절 구원론 .....	60
제3장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운동 .....	66
1절 월곡의 생애와 종교 운동의 전개 .....	66
1. 교단의 형성과 발전 .....	68
2. 시대일보 사건 .....	92
3. 보천교 혁신운동 .....	100
4. 시국대동단 사건과 보천교의 해체 .....	106
2절 월곡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	114
1. 보천교도들의 종교 신앙 .....	115
2.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특성 .....	127
3절 월곡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 .....	137
1. 보천교계 개괄 .....	137
2. 청음 이상호와 남주 이정립의 종교 운동 .....	140
3. 청음과 남주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	156
4절 소결 .....	163

제4장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 운동 .....	169
1절 정산의 생애와 종교 운동의 전개 .....	170
1. 교단의 형성 .....	170
2. 일제 · 언론의 압박과 교세의 확장 .....	179
3. 제민 사업의 실시와 무극도의 해산 .....	183
4. 종교 활동의 재개 .....	185
2절 정산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	189
1. 정산의 도통론 .....	189
2. 종교 활동의 의의 .....	195
3절 정산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 .....	207
1. 무극도계 개괄 .....	207
2. 우당의 생애와 종교 운동의 전개 .....	208
3. 우당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	226
4절 소결 .....	236
 제5장 결론 .....	 240
 참고문헌 .....	 246
ABSTRACT .....	264





# 제1장 서론

## 1절 문제 제기

본 논문은 증산(甞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종교적 가르침을 계승하여 그를 신앙하는 종단(宗團)을 창설한 창교주(創敎主)<sup>1)</sup>들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신종교 운동의 역동적 전개와 그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종교사에서 증산을 교조(敎祖)로 하여 창시된 교단을 총괄하여 ‘증산교’, ‘증산계 신종교’, ‘증산종단’, ‘증산계 교단’ 등으로 칭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증산의 가르침을 봉행(奉行)한 창교주들의 후속 종교 운동을 ‘증산계 종교운동’ 또는 ‘증산 신앙운동’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통해 창설된 종교 조직을 ‘증산종단’이라 부르고자 한다. ‘증산종단’이라 칭하는 것은 증산계 단체들이 여러 차례 일명 ‘초교파운동’<sup>2)</sup>이라 불리는 통합 운동 또는 친목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실로 1975년 ‘증산종단연합회’를 결성하였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sup>3)</sup>

차후 연구사 검토를 통해 상술하겠지만, 그동안 학계에서는 증산종단의 교조인 증산 강일순의 생애 및 사상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진척시켜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관심의 중심을 교조 증산으로부터 후속 창교주에게로 전환하고자 한다. 1인의 교조(증산)가 아닌 창교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교리의 수렴성보다는 ‘증산계 종교운동’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증산 사후 등장한 창교주들은 저마다 독특한 해석의 틀로써 이상화 된 교조와 현실 속의 신자를 매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증산 신앙운동은 결코 단일할 수 없었다. 교조의

- 
- 1) 막스 베버(Max Weber)는 종교직능자를 유형화하여 이를 ‘이념형(ideal type)’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학문적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가 제안한 종교직능자는 ‘예언자(prophet)’, ‘사제(priest)’, ‘주술사(magician)’, ‘승려(monk)’ 등이다. 베버는 또 기존 종교 전통 내에서 새로운 종교적 혁신을 일으키는 인물을 ‘종교적 혁신가(religious innovator)’라 명명하였다.(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4, 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trans. Ephraim Fischhoff,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439-50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창교주(founder)는 베버의 분류에서 ‘종교적 혁신가’와 유사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와 다른 유형으로 기존의 전통종교 외에서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며 단체를 창설하고 조직하는 ‘종교 지도자(religious leader)’라 할 수 있다.
  - 2) 홍범조, 「증산종단의 초교파운동」, 『한국종교사연구』 9, 한국종교사학회, 2001.
  - 3) 증산종단 중 최대 규모인 대순진리회도 자칭 ‘종단 대순진리회’라고 하고 있듯이, ‘종단’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은 현장 용어이다.



원천으로 회귀하기보다는 그 원천으로부터 분기하는 종교운동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조 자체보다는 교단 조직가인 창교주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증산종단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전통에서도 교조를 잇는 후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의 발전이 교조 당대보다 후대의 교단 조직가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세계종교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바이다. 즉 교조의 생전에도 교조의 언행과 사상이 대중에게 크게 공명(共鳴)하여 교단이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후대의 뛰어난 종교가 또는 사상가 등에 의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 증창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교조를 잇는 걸출한 인물이 부재하여 해당 종교의 구심점이 상실되고, 그 종교적 가르침이 민중으로부터 호소력을 잃게 되면서 자연스레 역사 무대의 뒤편길로 도태되기도 하였다.

증산종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증산종단은 한국종교사에서 두드러진 분파과정<sup>4)</sup>을 거치며 각 종단마다 각기 다른 성쇠의 궤적을 보였다. 이는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의 양상 및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교조 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기 다른 종단 운동을 전개하며 성장, 발전, 소멸 등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 것은 창교주들의 종교적 카리스마와 리더십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물론 창교주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종교운동을 이해하는 관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신도 대중의 호응과 결코 괴리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sup>5)</sup>

연구사를 검토하며 상술하겠지만, 제 증산종단에 대한 조사보고서나 증산종단사의 기록은 각 증산종단의 창교주, 교리, 의례, 교세,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를 평면적으로 나열하여 보여주지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며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증산 신앙운동의 역동성의 측면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4) 김홍철, 「증산종교사상」, 『한국종교사상사』 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4.

5) 이와 관련하여 종교사회학자 R. Stark는 ‘혁신(innovation)’ 개념으로 신종교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며 두 단계를 제시했다. 첫째는 창시자의 새로운 종교적 사유의 개발이며, 둘째는 그러한 사유를 수용하는 집단의 조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적 아이디어를 제창하는 창시자와 이를 수용하는 집단이 존재하여야 하나의 신종교가 탄생할 수 있다는 자명한 설명이다. R. Stark & W. S. Bainbridge, *A Theory of Religion*, New York: Peter Lang, 1987, 156.

먼저, 창교주들이 벌인 종교운동의 동기와 근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 대체 그들은 왜 증산 신앙운동에 주목했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대중들에게 표출하며 조직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일까? 종교의 행위에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종교의 동기라 할 수 있다. 종교 활동과 신앙운동이 사회적인 조직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종교의 내적인 근거를 찾는 것은 종교연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하게 표출된 증산 신앙운동 속에서 각각의 창교주들이 지닌 차별성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교조의 가르침을 계승했다고 간주하는 여러 창교주들은 자신만의 특장성과 우월성을 전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창교주나 그들의 신앙공동체와 견주었을 때, 자신만이 지니는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교조와 창교주를 잇는 올바른 계승관계(true transmission)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도통설(道統說)과도 연쇄되었다. 후속 창교주들은 자신이 바로 증산이 말한 진법(眞法)의 계승자이며 자신을 추종하는 것이 곧 증산을 올바르게 신앙하는 요체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다.

셋째, 창교주들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거쳐 형성된 증산 신앙운동의 다양한 전통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창교주들이 각각 증산의 교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였느냐는 물음과 관련된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교조 증산의 동일한 발언에 대해 창교주들이 내놓은 다양한 해석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다양한 해석은 개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교단의 방향성과 특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즉 창교주들의 실험적 해석을 통해 신도들은 증산을 이해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물음을 의식하면서 창교주들의 역동적인 신앙운동과 그 창교주들의 가르침에 공명한 신앙인들의 신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창교주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자칫 평면적일 수도 있고, 양적으로도 본 논문의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시기를 제한하여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을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는 1909년 증산의 서거 후 증산계 종교운동이 태동하여 성장·발전하던 시기였다. 해방 이후 전개된 증산계 종교운동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증산종단을 자신들의 전사(前史)로 여기고 있으며, 적어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거나 그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은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일제강점기는 초기



역사인 동시에 운동의 특성과 기틀이 형성된 시기이므로 증산 신앙운동을 연구하는 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발전한 종단은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의 보천교(普天敎)이며 그 다음 교세를 보였던 종단은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의 무극도(無極道)이다. 월곡 차경석은 증산의 직계종도로서 증산의 가르침을 근거로 포교에 힘쓰고 종단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며 단시간에 천도교의 교세에 상응하는 종단을 형성하였다. 3.1운동 실패 후 민족 해방의 염원이 좌절된 민중은 속속 보천교에 입교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성금을 모으면서 보천교는 막대한 자금력과 신도를 보유한 조선의 거대 종단이 되었다. 월곡의 보천교 운동에 대한 연구 의의는 이처럼 민중의 대대적 호응을 받았던 종교 운동이었다는 점 외에 상당수의 증산종단이 보천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에 있다. 증산종단친목회에서 편찬한 『증산종단개론』에는 총 33개의 증산종단이 소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보천교를 포함 13개 단체가 보천교에서 유래된 단체이다. 그러므로 증산계 종교운동사에서 보천교는 후속 종교운동의 모태가 되며 동기를 제공한 주요한 증산계 종교운동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보천교가 증산의 직계종도에 의해 창시된 종단인 데 반해, 무극도는 증산의 종도가 아닌 창교주의 종교체험을 통해 시작된 종단이다. 무극도의 창교주 정산 조철제는 계시와 득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증산종단 가운데 보천교에 버금가는 교세를 보이며 발전하였다. 당시 언론은 무극도를 보천교의 후속주자로 보천교와 견주어 논하였으며, 일경도 보천교 다음으로 무극도를 경계하며 주시하였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朝鮮の類似宗教』에서 흙치계 즉 증산종단으로 총 11개 단체를 언급하면서 보천교 다음으로 무극도를 기술하였고, 그 외 9개 단체는 교세가 미약하고 쇠퇴 중이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 보천교와 무극도는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양대 산맥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창교주를 중심으로 증산 신앙운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증산 신앙운동의 태동기인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와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증산종단 전체를 증산과의 물리적·직접적 접촉의 여부로 양분하자면 증산의 종도·혈족에 의해 창시된 유형과 계시 등의 종교적 체험에 의해 창시된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보천교 운동은 곧 전자의 대표로 무극도 운동은 후자의 대표로 삼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월곡 차경석과 정산 조철제의 종교 운동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증산계 종교운동의 전개와 특성을 고찰하고 두 종교의 후속 교단의 운동과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양상과 그 종교성을 고찰하여 한국종교지형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2절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를 평가·비판하고 선행 연구를 보완하거나 넘어서 수 있는 연구방법을 다음 절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이경원 등이 증산 신앙운동에 관해 정리한 연구사에 따르면, 학계에 발표된 연구논문이 근 8백여 편에 달하고 개별 교단에서 발간한 경전 자료도 백여 권이 넘는다. 그러나 8백여 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학회지에 총 152편, 『증산사상연구』 1집-22집까지 총 196편(증산사상연구회 발간), 『대순사상논총』 1-29집까지 총 412편(대순사상학술원 발간), 『대순진리회 학술논총』 1-14집까지 총 127편(대진학술원 발간)이 발간<sup>6)</sup>되어 특정 종단<sup>7)</sup> 및 학술지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사를 대략적으로 조망해 보더라도 특정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었다. 선행 연구를 상세히 살펴보려면 모든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정리하여야겠지만 전체적인 조명을 위해 두드러진 연구를 위주로 서술 하겠으며 생략된 연구 성과는 본론의 서술과정에서 다룰 것이다.

### 1. 일제강점기 연구

언론 외에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최초의 학적 기술은 이능화에 의해 이루어졌

---

6) 이경원·백경언, 「증산계 신종교 운동의 역사와 사상적 변천에 대한 조명」,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15, 328.

7) 『증산사상연구』는 증산진법회에서, 『대순사상논총』과 『대순진리회 학술논총』은 대순진리회에서 발간되었다.

다. 이능화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일제강점기 일본이 한국 신종교에 대해 가졌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를 살펴볼 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도 한국 신종교를 ‘미신’, ‘유사종교’ 등으로 폄하하였던 일제의 종교관과 공명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식민지인 조선에 대한 종교정책<sup>8)</sup>에서 ‘유사종교’ 개념을 사용하였다. 일제는 종교의 선포규칙에서 종교를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고, 공인종교 외에는 모두 규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1911년 『總督府施政年譜』에 다음과 같은 규제방침을 밝혔다.

宗教取締에 관해서는 명치 35년 통감부령 제45호 일본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布敎所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天道敎, 侍天敎, 大倭敎, 大同敎, 太極敎, 圓宗宗務院, 孔子敎, 大宗教, 大成宗教 등의 종이에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sup>9)</sup>

위 『시정연보』에는 정확히 ‘유사종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천도교 등의 신종교에 대해서는 취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종교정책은 1915년 8월 16일 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된 ‘포교규칙(布敎規則)’<sup>10)</sup>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포교규칙’<sup>11)</sup>의 내용 중 ‘유사종교’ 관련 부분만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에 종교라 칭함은 신도, 불도 및 기독교를 말함.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종교유사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음.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함.<sup>12)</sup>

8)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규제법령에 대해서는 성주현, 『식민지 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15-46.

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譜』, 朝鮮總督府, 1911, 77.

10) 포교규칙에 대한 연구는 윤선자, 「1910년대 일제의 종교규제법령과 조선천주교회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7; 윤선자, 「1915년 포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기관 설립 현황」, 『한국기독교와 역사』 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98;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신종교」, 『한국근현대사연구』 1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안유림,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한국기독교와 역사』 28, 2008 등.

11) 조선총독부는 포교규칙을 일반에 홍보하기 위해 그 당위성을 《매일신보》에 다섯 차례 연재하였다. 《매일신보》 1915년 8월 17-19일 및 8월 24일.



위 내용을 보면 신도, 불교, 기독교는 ‘종교’라 칭하고 그 외는 ‘종교유사단체’로 지칭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종교유사단체’라는 어구가 ‘유사종교’로 변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라는 표현은 ‘신흥, 의사(擬似)’의 의미일 뿐 부정적인 함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sup>13)</sup> 그러나 일제가 공인종교는 종무국(宗務局)에서 ‘유사종교’는 이른바 경찰국인 경무국(警務局)에서 관리하고 실제 ‘유사종교’로 지목된 단체와 신도들을 탄압하면서 사실상 그 ‘사교(邪敎)’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sup>14)</sup>

흥미로운 점은 조선에서의 사교로서의 유사종교 개념이 역으로 일본으로 수입되어 일본 내의 신종교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 문부성은 비공인단체를 회유하는 의미로 ‘유사종교’를 지칭하였고, 사법성은 ‘국체(國體)’<sup>15)</sup> 관념을 바탕으로 단속·처벌의 대상인 사교의 의미로 사용하여, 개념상 혼동을 겪다가 조선으로부터 유사종교의 개념이 유입됨으로써 사교로 정립되었다.<sup>16)</sup>

일제가 한국 신종교에 대해 이처럼 ‘유사종교’라는 왜곡된 시선을 가졌다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신종교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당시 이능화는 『백교회통(百敎會通)』 서문에서 “작금의 세상에는 손가락을 꼽을 교(敎)만도 수십 종을 헤아릴 정도가 되어 있으며 또 조선인이 만든 교(敎)도 적지 않으니 오래지 않아 한 사람이 한 가지 씩의 교(敎)를 만나게 될 날도 있을 것이다.”<sup>17)</sup> 라고 하였다. 즉 이능화는 신종교를 ‘조선인이 만든 교’라고 지칭하면서 외래에서 들어온 유교, 불교, 기독교 외에 조선인들이 스스로 만든 교(敎)가 번성하고 있으며 각자 하나의 교를 만나게 되는 종교적 다양성이 확대된 조선 사회가 도

12)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上卷,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2, 22-24 참조.

13) 아오노 마사아키, 『제국 신도의 형성: 식민지 조선과 국가신도의 논리』, 배귀득·심희찬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17, 384.

14) 일제강점기 한국 신종교 운동이 ‘공인종교’와 대별되는 ‘유사종교’라는 낙인과 굴레 속에서 많은 꺾박을 받았음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다. 윤이훈,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과 자료』, 서울: 고려한림원, 1997;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성주현, 『식민지 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등.

15) ‘국체’는 곧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주의와 일왕의 신격화 등을 아우르는 관념을 말한다. ‘국체’에 관해서는,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국체의 본의’를 읽다』, 형진의·임경화 편역, 서울: 어문학사, 2017.

16) 아오노 마사아키, 『제국 신도의 형성: 식민지 조선과 국가신도의 논리』, 384-385.

17) 이능화, 『百敎會通』, 경성: 조선불교월보사, 1912, 1. “今宇内に 屈指之敎 | 有十數種 ㄱ며 且朝鮮人所創之者도 亦屬不少ㄱ야 不久에 將見 人各一敎라”

래할 것을 예측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인이 만든 교로 태극교(太極敎), 대종교(大倥敎), 대종교(大宗教), 천도교(天道敎)를 제시하고 이들 종교와 불교를 대조하였다.<sup>18)</sup> 『백교회통』에서 이능화의 신종교에 대한 평가는 ‘유사종교’보다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증산 신앙운동과 관련하여 이능화는 1918년 출판한 『조선 불교통사』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은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최초의 객관적 기술로 평가된다.<sup>19)</sup> 그는 신종교를 잡교라고 표현하였고,<sup>20)</sup> 동학과 남학 그리고 ‘태을교(太乙敎)’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조선불교통사』 이전에는 증산종단 측 기록이 없었으므로 그의 기록은 종단 측의 기록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들은 바를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태을교의 창교주가 증산 강일순임을 밝히며 증산의 구도행, 신자들의 수행, 태을교에서 사용하는 주문인 태을주, 신비체험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sup>21)</sup> 이는 초기 증산 신앙운동의 의식과 교리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대중 및 지식인들의 증산계 신종교 운동에 대한 시각을 확인시킬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증산 신앙운동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리와 상반되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주장을 하거나 신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능화는 1928년 출간한 『조선기독교급외교사』에서 증산종단의 대표적인 교파인 보천교에 대해 기술하면서 교주인 차경석 및 보천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록하였다.<sup>22)</sup> 그의 사후 출판된 『조선도교사』의 제28장 ‘自謂儒佛仙合宗之敎(자칭 유불선 합종의 교)’에는 신종교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18) 이능화, 『百敎會通』, 48-56. 여기서 태극교는 유교계 신종교이며, 대종교(大倥敎)는 단군계 신종교, 대종교(大宗教)는 남학(南學)이라고도 불리는 일부 김항의 정역(正易)계 신종교를 말한다.

19) 김탁, 「이능화와 한국신종교의 연구」, 『종교연구』 9, 한국종교학회, 1993, 153. 신문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의 기록이 확인된다. 《신한민보》 1917년 11월 8일 기사에는 ‘태을교’에 대해 언급되었으나 교리 및 신앙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하였다.

20)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중편, 新文館, 1918, 3. “朝鮮古代固有之神敎. 後代輸入之儒敎, 道敎, 回回, 基督等敎. 及近今新出之雜敎以至巫瞽等流.”

21) 이능화, 「朝鮮古代神敎已行」, 『조선불교통사』 하편, 新文館, 1918, 1098.

22)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18. “普天敎(一名太乙敎亦云吡哆敎)主車景錫은 皆以鷄龍爲目的地호야 卽以立見新都로 祝作往生天國호고 而以爵祿之說로 欺愚蠱之徒호야 傾家破産而猶不之惜호니 此因鄭鑑錄之迷信 而實爲仕宦熱之餘波也라. 所謂 鄭鑑錄者는 果何如物고 卽不過虛誕之一風水說, 而我朝鮮人은 素信風水說이라.”

능화는 이 장에서 “근자 십년간에 있어서는 잡교가 여러 가지로 생겨서 반드시 자기네가 말하기를 유불선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지를 만든다고 하니 동학, 남학, 태을교, 백백교 및 삼성무극교 등이 즉 이것이다.”<sup>23)</sup>라 하고, 동학의 천도교·시천교·청림교와 남학, 보천교, 백백교의 교리·역사·신행에 대해 상술하였다. 특히 보천교에 대해서는 교조 강증산, 태을주, 교주 차경석, 차경석의 종교 활동, 김형렬의 종교 활동, 태을교의 수행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sup>24)</sup> 『조선기독교급외교사』와 『조선도교사』에서 나타난 이능화의 신종교 및 증산 신앙 운동에 대한 시각은 ‘잡교’라는 표현과 관련 내용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고려할 때 비판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의 신종교 운동에 대한 가장 이른 저술은 1921년 출판된 요시가와 분타로우(吉川文太郎)의 『朝鮮の宗教』이다. 이 책은 다음해인 1922년 『朝鮮諸宗教』라는 제목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요시가와와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가 한국에 들어와 2년간 머무르면서 총독부의 촉탁으로 일하였었다.<sup>25)</sup> 『朝鮮の宗教』에서 그는 당시 조선의 종교를 조선불교, 천주공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도, 종교유사단체(宗教類似の團體)로 나누었고 종교유사단체로 천도교, 시천교, 단군교, 태을교, 통천교에 대해 기술하였다.<sup>26)</sup> 『朝鮮諸宗教』에서는 ‘종교유사단체’라는 표현 대신 ‘朝鮮特有의 宗教’라 지칭하였고, 위의 5개 단체에 대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태을교에 대해선 태을교의 유래, 勸行, 공덕, 포교방법, 현황 등에 대해 8쪽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하였다.<sup>27)</sup>

일제강점기 한국 신종교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이룬 인물은 바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다. 그는 『朝鮮の宗教及信仰』에서 「朝鮮の類似宗教」라는 논문을 저술<sup>28)</sup>하였는데, 논문에서 유사종교의 발생유래·신교(信敎) 상황·교세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해 논문과 같은 제목인 『朝鮮の類似宗教』의 저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주도 하에 최초로 신종교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이뤄냈으며, 그러한 조사를 종합분석한 성과물로서

23) 이능화,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서울: 보성문화사, 1986, 319. “至近十年, 雜敎並興, 必自稱統合儒佛仙, 爲一宗旨, 東學·南學·太乙敎·白白敎及三聖無極敎等.”

24) 이능화, 『조선도교사』, 336-345.

25)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74.

26)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株式會社, 1921.

27) 朝鮮興文會, 『朝鮮諸宗教』, 京城: 京城新聞社, 1922, 361-368.

28)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の宗教及信仰』, 京城: 朝鮮總督府, 1935, 68-90.



본서를 출간한 것이다.<sup>29)</sup> 그는 유사종교의 계통을 1) 동학계 2) 흠치계 3) 불교계 4) 승신계 5) 유교계 6) 계통불명의 여섯 계통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그의 분류는 해방 이후의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나 신종교 연구가들의 분류에 그대로 수용되었다.<sup>30)</sup>

위 분류에서 흠치계는 곧 증산계 단체이며 보천교·무극대도교·미륵불교·증산대도교·증산교·동화교·태을교·대세교·원군교·용화교·선도교 등 11개 단체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천교 관련해서는 입교, 연혁, 교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무극대도교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이중 대세교, 원군교, 선도교의 교세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책에는 유사종단의 분포, 교세의 성쇠, 입교 및 탈교 동기, 유사종교의 영향, 지역별 교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당시 신종교 운동 및 증산 신앙운동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이외 식민권력에 의해 생성된 보고서 형식의 자료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자료는 평안남도에서 생성한 『양촌급외인사정일람(洋村及外人事情一覽)』<sup>31)</sup>과 전라북도에서 생성한 『보천교일반(普天敎一般)』<sup>32)</sup>과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概況)』<sup>33)</sup>으로 모두 일본 가쿠슈인(學習院大學)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양촌급외인사정일람』은 1924년 6월, 『보천교일반』은 1926년 6월, 『무극대도교개황』은 192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촌급외인사정일람』과 『보천교일반』은 증산계 종교운동 중 보천교에 대해 집중 다루고 있어 일제강점기 보천교 운동 연구에 주요한 자료이며, 『무극대도교개황』은 일제강점기 증산종단 중 보천교 다음의 교세를 보였던 무극도를 집중 다룬 자료이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증산계 신종교 운동은 조선인이 만든 종교이자 새로운 종교 또는 유사종교로서 당시 지식인들과 일본학자 및 식민 지배 관료의 시야에 중요한 종교 운동으로 포착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태을교’로 통칭되었다가

29)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278.

30) 강돈구는 한국의 신종교 연구가 무라야마 지준이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유사종교의 조사와 분류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강돈구, 「신종교 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7, 201-202.

31)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M2-100, 1924.

32)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33)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M2-87, 1925.

1930년대에는 여러 개의 갈라진 교파 단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만 신종교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유사종교의 관점에서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비판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종교학계의 연구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계에 종교학이 정착되면서 일련의 종교학자들에 의해 증산 신앙운동이 연구되었다. 단행본을 중심으로 그 대략적인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증산 신앙운동연구에 있어서 선구에 위치한 학자가 장병길이라 할 수 있다. 장병길은 ‘근대 종교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종교 현상을 분석한 종교학자요, 이 땅에 근대 학문으로서의 종교학을 정착시킨 선구자’<sup>34)</sup>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연구 영역은 한국종교 연구였으며 주된 분야는 무속, 민간신앙, 신종교였다. 1970년대 출판된 『한국고유신앙연구』는 토속신앙, 신종교, 무속의 세 분야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분석한 저술이다.<sup>35)</sup> 후학들이 그의 글을 엮어 2003년 출간한 『한국 종교와 종교학』은 한국종교의 종교사, 민간신앙, 민족종교에 대한 연구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민족종교와 관련하여 장병길은 그 창립동기를 “사회가 변동하는 이른바 사회적 아노미 상황에서 일어난 생민층(生民層)의 한계상황에서의 해방욕구, 혁세(革世)욕구, 그리고 보람이 있는 삶을 찾고자 하는 재생(再生)욕구”<sup>36)</sup>라 보고 여러 신종교들의 사상 및 세계관적 특징을 규명하였다.<sup>37)</sup>

1976년에는 『증산종교사상』을 출판하여, 증산 신앙운동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성과를 이뤘다. 그가 ‘외삽법(外挿法)’이라 칭한 종교에 대한 환원적, 무공감적 태도를 비판하며,<sup>38)</sup> 현지조사와 내부 신앙인에 대한 공감(empathy)의 중요성<sup>39)</sup>을 강조하였다.<sup>40)</sup> 장병길의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공감적 기술(description)

34) 신광철, 「장병길의 비교종교학적 관점과 한국종교 연구」, 『종교문화비평』 12,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7, 105.

35) 장병길, 『한국고유신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0.

36) 장병길, 『한국 종교와 종교학』,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엮음, 서울: 청년사, 2003, 428.

37) 장병길, 『한국 종교와 종교학』, 427-642.

38)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1976, 4.

39) 종교학에서 신자의 종교 경험 및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지된 바이다. W. B. Kristensen, *Religionshistorisk studium*, Oslo, 1954, 27. (Eric Sharpe, 『종교학 그 연구

을 중시하는 종교현상학적 방법에 해당한다. 그는 또 증산사상을 동학사상에 대비되는 비중 있는 사상 및 종교 운동이라 평가하며,<sup>41)</sup> 증산 신앙운동을 한국 고유의 종교성을 체계화 한 것이라고 보았다.<sup>42)</sup> 장병길은 증산을 서구 문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개화인(開化人)’, 세계개조를 주장한 ‘보편구제설(universalism)의 선구자’, 종교제도적으로 ‘형제제도를 구상한 신인(神人)’이라 평가하며, 증산의 종교사상을 해석하고 증산 신앙운동의 의례와 조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sup>43)</sup> 그는 이후 대순진리회의 종단 관계자와 함께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 편찬을 주도하였으며,<sup>44)</sup> 대순진리회 관련 교리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sup>45)</sup>

한국종교학계에서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주요한 성과는 원광대학교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시발점은 류병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류병덕의 주 연구 분야는 원불교 교학과 한국 신종교로 특히 한국 신종교 연구에도 업적을 남겼다. 1974년 출간된 저서에서 그는 신종교 단체를 현지 조사하여 상당한 자료를 통해 각 신종교 단체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신종교를 계룡산하의 신종교와 모악산하의 신종교로 양분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sup>46)</sup> 즉 한국 신종교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공간’ 개념을 통해서 계룡산 중심의 신종교와 모악산 중심의 신종교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일찍이 무라야마 지준이 ‘유사종교의 사회운동’ 중 하나로 지적한 ‘성도(聖都) 운동’<sup>47)</sup>과 맥락을 잇는 신종교 운동의 특징 중 하나로, 류병덕은 현지 조사를 통해 좀 더 상세히 분석하였던 것이다. 두 분류 중 모악산 중심 신종교가 바로 증산을 신앙하는 여러 종교 단체이다.

---

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280-281 재인용) W. C. Smith도 종교연구에 있어서 개개인의 신앙(belief)이 종교공동체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았다. W. C. Smith,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246.

40)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5.

41)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5.

42)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28.

43)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11-209.

44) 『전경』의 초판은 1974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45) 장병길, 『대순진리강화』,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8; 장병길, 『대순진리입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장병길,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46) 류병덕, 『한국신종교』,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4, 211-381.

47)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박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872-875. 무라야마 지준은 신종교에 의해 전개된 성도 운동으로 첫째, 계룡산 성도건설운동을 둘째로 보천교 본소인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를 지목하였다. 이는 표면상 왕도건설 운동으로, 실제 종교공동체가 건설된 곳은 수운교의 충청남도 대전군 탄동면 추목리, 금강대도의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등을 언급하였다.



류병덕은 또 한국 신종교를 ‘민중종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민족종교’ 개념은 ‘국가종교’라고도 불린 개념으로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이념에 교리형성의 근거를 일치시키면서 때로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형성된 종교”<sup>48)</sup>를 이룬다고 비판하며, ‘민중종교’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중종교가 곧 한국의 신종교이며 한국의 신종교가 곧 한국의 민중종교라고 하여 민중종교와 신종교 개념을 일치시켰고, 한국 민중종교운동의 5대맥을 선별하였다. 5대맥으로 1) 수운의 동학계 종교 2) 김일부의 정역계 종교 3) 강증산의 신명계 종교 4) 나철의 대종교 5) 소태산의 원불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5대민중종교의 공통 사상으로 후천개벽사상·종교회통사상·민족적 민중사상·인본위사상·사회개혁사상을 들었다.<sup>49)</sup> 곧 류병덕은 증산 신앙운동을 5대민중종교의 하나로 한국 민중에 의해 일어난 개혁적, 혁신적 종교운동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사상의 특징을 ‘신명사상’임을 제시하였다.<sup>50)</sup> 정리하면 류병덕은 증산 신앙운동에 대해 한국 신종교를 지역적으로 양분할 때 하나인 모악산 중심의 신종교로 또 5대 한국민중종교 중 하나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김홍철도 한국 신종교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였다. 1989년 간행된 단행본 저서에는 그는 천도교·증산교·원불교의 사상을 비교하고 그 공통적 특질을 후천개벽사상·종교회통사상·민족주체사상·인본위사상·사회개혁사상으로 제시하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세 종교에 나타난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sup>51)</sup> 그는 한국문화사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각 종교들의 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한 저술로서의 『한국종교사상사』 시리즈 가운데 ‘증산종교사상’에 대해서 집필하기도 하였다.<sup>52)</sup> 증산 신앙운동에 연구에 있어서 그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로는 규모가 작은 증산종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위 단행본 저서에서 ‘순천도(順天道)’의 역사와 중심사상을 연구하였고,<sup>53)</sup> 연구논문에서 ‘대한 불교 미륵종’ 등 여러 종단과 창교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54)</sup>

48) 류병덕,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 현황」, 『한국종교사연구』 5, 한국종교사학회, 1996, 134.

49) 류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25-99; 류병덕, 「개화기 일제시의 민족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의 제 문제』 3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50-293; 류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상 연구』, 서울: 마당기획, 2000, 145-214.

50) 류병덕, 「한국 신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 현황」, 136-139.

51)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70-348.

52) 김홍철, 「증산종교사상」, 『한국종교사상사 4』, 199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3-118.

53)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349-392.

근래에는 박광수가 한국 신종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며<sup>55)</sup> 한국 신종교의 한 분야로서 증산교 및 증산사상, 의례 등에 대해서도 저술하였다. 2012년에 출간된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에서 그는 한국 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를 밝히기 위해 대표적인 신종교로서 동학·증산교·대종교·원불교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시자의 종교체험과 교단 형성·사상적 특징·개혁사상과 이상적 세계관·의례·사회참여운동 등을 고찰하였다.<sup>56)</sup> 또 제주도에서 자리 잡은 증산종단 중 하나인 단군성주교(檀君聖主敎)를 현장 조사하여 그 유래·제주도 토착화 과정·신앙의 특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sup>57)</sup>

원광대와 함께 증산 신앙운동 연구에 주요한 연구 성과를 이룬 곳은 서울대 종교학과이다. 먼저, 윤이흠은 주 연구 분야를 한국종교 전반으로 하여 많은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특히 총 6권으로 간행한 『한국종교연구』<sup>58)</sup>에서 한국종교 전반에 대한 연구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한국 신종교를 ‘한국민족종교’ 또는 ‘민족종교’라 칭하며 「민족종교육성방향」(1권), 「민족종교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2권), 「근세민족종교의 유형과 사상적 전개」(3권)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5권에서는 민족종교의 역사적 실체, 일제의 탄압, 미래의 진로와 역할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sup>59)</sup> 이러한 글에서 그가 ‘민족종교’라는 통칭으로 포함하였던 주요 종단은 동학계, 증산계와 대종교였으며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의 역사적 현실에서 민족을 구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민족 정체성 확립의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60)</sup> 이러한 관점을 일제강점기 최대 증산종단인 보천교로 옮겨 일제의 보천교에 탄압과 보천교의 수난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하였다.<sup>61)</sup> 이외 윤이흠은 17개의 증산종단의 성립과 분열의 원인을 유형별

54) 김홍철, 「대한불교 미륵종」, 『한국종교』 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5; 김홍철, 「한국신종교 인물전 2」,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55)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지형과 종교문화연구 서설」,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15, 1-49; 박광수 외, 『‘사상위보’ 민족종교 관련 기사-조선총독부 고등법원(1934-43년)』, 서울: 집문당, 2016 등.

56)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집문당, 2012.

57) 박광수, 「제주도 단군성주교 현장 조사 연구」, 『한국종교』 3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6, 3-26.

58)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1, 서울: 집문당, 1986;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2, 서울: 집문당, 1988;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4, 서울: 집문당, 199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5, 서울: 집문당, 2003;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6, 서울: 집문당, 2004.

59)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5, 199-352.

60)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5, 226.

61)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과 자료』, 서울: 고려한림원, 1997.

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교일반의 분파 유형을 신성가족형·종도계위형·신비체험형·성물형·사상전통형의 5개로 나누고 이것을 17개 증산종단에 적용하여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sup>62)</sup> 이는 각 교단사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전체 증산종단의 유형별 특징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증산종단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종교, 한국 신종교, 종교사회학 분야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던 김종서도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종교학적 평가를 하였다. 그는 한국 전통종교문화와 서구 종교문화가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런 충격을 흡수하고 포괄하려는 움직임으로서 19세기말 새로운 종교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첫째로 동학을 언급하고 창교주 최제우의 종교체험을 한국 전통종교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종교 체험의 유형으로 보았다.<sup>63)</sup> 그리고 이 종교체험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격신 개념을 기반으로 일신교적인 종교를 감히 창교할 만큼 독특한 카리스마”<sup>64)</sup>라고 하였다. 또 동학의 최제우가 “스스로 하느님(上帝)라 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 개념을 한국의 전통적인 하느님 신앙 속에서 일종의 동양적 자기 성찰 방법인 내면적 수행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소화”<sup>65)</sup>했다면, 증산 강일순은 스스로를 ‘상제’라고 선포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카리스마를 지니는 이른바 초월적 ‘화신(化身)’ 개념이 완성된 것은 한국종교의 역사상 강일순에서 처음이다.”<sup>66)</sup>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증산을 믿는 신도들은 증산은 인간이 신이 된 것(化神)이 아닌 본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성육신(incarnation) 개념과 상통한다고 하였다.<sup>67)</sup>

한편, 노길명은 종교사회학적 입장에서 한국 신종교에 대해 연구하였고, 증산

62) 윤이흠, 「종교집단 내의 갈등해소대책-증산교 분열원인의 유형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91-240.

63)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9, 28.

64)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29.

65)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29.

66)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30.

67)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30. 한편 최종성 또한 동학의 교조 최제우의 종교 체험에서 나타난 하느님(上帝)은 기존 동양전통에서의 제천(祭天)이나 고천(告天)의 대상으로서의 지고신(至高神)과는 다른 일신론(monotheism)에 가까운 하느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하느님은 인간사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일하는 하느님으로서 ‘테우스 인두스트리우스(deus industrius)’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31-32.



신앙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글을 출판하였다. 한국 신종교를 교리나 사상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종교사회학 이론을 적용하여 발생원인·계보와 유형·조직·기능·사회운동 등을 다뤘다는 점<sup>68)</sup>에서 주요한 학문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1988년 출판된 단행본에서는 한국의 주요 ‘신흥종교’(저자의 표현)로 통일교·여호와의 증인·증산교의 3종교를 제시하고 증산교의 주요 종단으로 보천교·증산교 본부·태극도·대순진리회·증산진법회·증산도를 나열하여 그 교리와 특징을 분석하였다.<sup>69)</sup> 1996년 출판한 저서에서는 한국 신종교 운동의 발생, 성격과 변용을 정리하였고 신종교를 천도교·증산교·원불교·통일교로 제시하고 각각의 교리와 대사회운동에 대해 고찰하였다.<sup>70)</sup>

이외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던 이강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한국 신종교 단체를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966년에 증산교계 전반과 보천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sup>71)</sup> 이후 이강오는 한국 신종교 전반에 대한 자료와 연구를 총망라한 『한국신흥종교총감』을 1992년 발행하였다. 무려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로 신종교를 동학계·남학계·증산계·단군계·봉남계·불교계 계통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고, 또 각 지역별로 신종교의 교세 및 활동에 대해 분석하였다.<sup>72)</sup> 그러나 이강오 사후 전북대학교에서 그의 뒤를 잇는 신종교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의 학자들이 종교학적 배경으로 한국종교, 한국 신종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차원에서 증산 신앙운동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 접근하였다면, 증산 신앙운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으니 김탁과 홍범초를 들 수 있다. 김탁은 한국정신문화원(현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증산교의 교리 체계화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sup>73)</sup> 이후 증산

68) 노길명,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사상연구』 2,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75; 노길명, 「신흥종교 창시자와 추종자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 간의 관계: 증산교를 중심으로」, 『증산사상연구』 3,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76;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25-85; 노길명,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증산종교 운동」, 『한국종교』 20,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외 다수 논문.

69)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288-314.

70)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71)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 증산교계 총론 그 연혁과 교리의 개요」, 『논문집』 7, 전북대학교, 1966; 이강오, 「보천교 :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 『논문집』 8, 전북대학교, 1966.

72)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73) 김탁, 「증산교의 교리 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원 석사, 1986;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원 박사, 1995.

신앙운동 관련 다수의 논문과 저서<sup>74)</sup>를 출간하였다.

홍범초는 예산농업전문대학 교수이자 증산종단 중 하나인 증산교본부의 대표인 종령을 역임하며 증산 신앙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물을 발표하였다.<sup>75)</sup> 학계의 학술활동 외에 그는 증산종단의 화합을 위한 초교파운동에 앞장섰으며 그 일환으로 제 증산종단의 잡지로 1988년 10월에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를 발행하였다.<sup>76)</sup> 겉표지의 제목 위에 ‘증산종단의 교양지·증산사상의 연구지’라는 부제처럼 여러 증산종단의 소식을 게재하고 주요한 교리적 쟁점을 내부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어 증산종단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근래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대순진리회 연구기관 및 4년제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이다. 대순진리회의 연구기관으로는 교무부와 대순종교문화연구소가 있으며 대순진리에 관한 교리연구서 및 월간 잡지<sup>77)</sup>를 발행하고 있다. 대진대학교에는 7개의 단과대학 중 대순종학대학이 있으며 소속학과로 대순종학과를 두고 있다. 대순종학과 교수인 이경원은 한국 신종교와 대순진리회의 사상인 대순사상과 교리에 대해 주요한 연구 성과를 이뤘다.<sup>78)</sup> 특히 여러 단행본 저서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신앙, 교리체계, 종학적 원론을 다뤄 대순진리회의 교리 및 신앙체계를 학계에 정립하였다.<sup>79)</sup> 같은 학과에 재직

---

74) 김탁,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김탁,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 『한국종교』 1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3;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도교와 증산교의 만남」, 『도교문화연구』 8, 한국도교문화학회, 1994;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불교와 증산교의 만남」, 『동양고전연구』 3, 동양고전학회, 1994;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 서울: 한누리미디어, 2000; 김탁, 「한국 신종교의 조상숭배」, 『종교연구』 20, 한국종교학회, 2000;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증산교와 민간신앙의 만남」,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김탁, 『증산 강일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등.

75) 홍범초,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 증산종단의 기본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사연구』 3, 한국종교사학회, 1973; 홍범초, 『증산교 첫걸음』, 서울: 한누리, 1981; 홍범초, 『증산교 개설』, 서울: 창문사, 1982; 홍범초, 「보천교 초기 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 10,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5;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홍범초, 「증산의 천지공사에 나타난 미륵사상」,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홍범초, 「증산종단의 종교사상으로 본 단군」, 『고조선단군학』 2, 단군학회, 2000; 홍범초, 「증산종단의 초교파운동」, 『한국종교사연구』 9, 한국종교사학회, 2001 등.

76)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이 《월간 천지공사》는 2001년 114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

77) 대순진리회 교무부는 1983년 이후부터 월간 잡지로 『대순회보』를 발행하고 있다.

78)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궁극적 실재의 제 문제』, 서울: 문사철, 2010;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Gyungwon Lee, *An Introduction to New Korean Religions*, trans. by Key Ray Chong, Seoul: Moonsachul, 2016.

중인 고남식도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연구하였다.<sup>80)</sup> 또한 대진대학교 산하 학술기관으로는 대순사상학술원이 있으며 매년 2회 『대순사상논총』을 발간하고 있으며 관련 학술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3. 역사학계의 연구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자면, 동학에 비해서는 참여 연구자 숫자와 그 학문적 배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한국종교나 한국 신종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으며 역사학계 등 다양한 학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의 참여가 미진하였다. 특히 동학과 비교할 때 역사학계는 1990년대까지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역사학자 김정인의 견해를 살펴보자.

보천교는 오늘날에도 종종 제기되는 사이비종교, 사교 논쟁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일제시기 대표적인 신흥종교의 하나다. 보천교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보천교와 천도교가 일제에 의해 동일하게 유사종교, 사이비종교로 분류되었지만, 천도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보천교에 대한 그것과 판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천도교와 달리 보천교는 왜 전근대적이고 나아가 반민족적인 사교집단이라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었을까. 보천교는 3.1운동 이후 교세의 급속한 신장에 힘입어 근대종교로의 개편과 민족운동진영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시국대동단이라는 친일단체를 결성함으로써 탈락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보천교 내 혁신 세력들이 이탈하고 일제로부터는 반체제적인 사교집단으로 탄압받고, 좌우를 비롯한 민족운동진영으로부터 전근대적이고 반민족적인 사교집단으로 공격받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존속하는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어갔다.<sup>81)</sup>

79)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80) 고남식, 「구천상제의 강세신화와 지상천국」, 『대순사상논총』 15, 대순사상학술원, 2002; 고남식, 「증산의 도가적 경향과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 『대순사상논총』 17, 대순사상학술원, 2004;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 『종교연구』 50, 한국종교학회, 2008;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한국신종교학회, 2010 등.

81)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

인용문에서, 역사학계 및 일반 지식인들에게 대표적인 증산종단인 보천교는 여전히 사이비종교의 원조격으로 인식되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이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즉 보천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과거 이래 지금까지 전근대적, 반민족적인 사고라는 것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역사학계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기술에서 보천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서술이 일제의 침탈과 민족의 수난과 고통, 독립운동 등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때, 특히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보천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76년 출간된 『독립운동사』 시리즈의 8권 ‘문화투쟁사’에서 종교편에는 기독교, 천도교, 대종교, 불교, 유교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만 당시 천도교에 버금가는 세력을 가졌던 보천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sup>82)</sup> 1995년 출간된 『독립운동총서』 6권 ‘종교·교육 투쟁’에서도 기독교·개신교, 천도교, 대종교만 기술되어 있다.<sup>83)</sup>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역사학계에서도 보천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선두에 선 연구자로는 안후상과 김재영을 들 수 있다. 안후상은 보천교 운동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신종교연구』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84)</sup> 그의 연구는 교주 차경석의 출생, 보천교의 물산장려운동, 보천교 공개 배경, 보천교 십일전 해체 및 조계사 대웅전의 건축, 보천교와 연관된 제주 법정사 항일 투쟁, 보천교의 항일(抗日) 등을 주제로 역사적 자료를 충실히 활용하였다. 김재영도 『신종교연구』 등에 다수의 보천교 관련 논문<sup>85)</sup>을

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160-184.

82)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권: 문화투쟁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3)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독립운동총서6 종교·교육 투쟁』, (주) 민문고, 1995.

84)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안후상,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6, 한국종교사학회, 1996;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 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6; 안후상, 「보천교와 동학」, 『황토현』 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8; 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안후상, 「보천교-차월곡(車月谷) 출생에 관한 소고」,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 4, 한국신종교학회, 2001; 안후상, 「강장산의 사상과 보천교운동」, 『식민지 시대 사회상에 비친 동학 관련 신종교·민간 신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07; 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 26, 한국신종교학회, 2012; 안후상, 「보천교의 반일성(反日性) 연구를 위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종교』 3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6.

게재하였으며,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보천교의 형평사운동, 교육활동, 농악활동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아 단행본을 출판하였다.<sup>86)</sup> 두 학자의 연구는 『신종교연구』, 『종교학연구』 등 종교학 관련 학술지에 많이 발표되었지만,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타 연구를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김용곤의 보천교 취락에 대한 석사논문<sup>87)</sup>, 황선명의 연구<sup>88)</sup>가 있으며, 특히 제주도 법정사 항일투쟁과 관련해서는 2002년 제주학회에서 발행하는 『제주도연구』에 5편의 연구논문<sup>89)</sup>이 게재되었다. 5편의 연구논문 저자 중 김정인은 그해 1920년대 보천교와 민족운동에 대한 논문<sup>90)</sup>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장원아는 1920년대 보천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논문<sup>91)</sup>을 받았으며, 김철수는 일제의 종교 정책과 보천교에 대해 분석하고<sup>92)</sup> 연구 성과를 모아 단행본<sup>93)</sup>을 출간하였다. 이외 해외에서의 연구로 조경달(趙景達)의 논문<sup>94)</sup>과 송형목(宋炯穆)의 학위논문<sup>95)</sup>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85) 김재영, 「풍수와 땅 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보천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 2000; 김재영, 「형평사와 보천교」, 『신종교연구』 21, 한국신종교학회, 2009; 김재영, 「보천교의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9, 한국종교사학회, 2001; 김재영,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행방」, 『신종교연구』 5, 한국신종교학회, 2001; 김재영, 「정읍농악과 신종교」, 『한국종교사연구』 10, 한국종교사학회, 2002; 김재영, 「입암산과 종교」, 『신종교연구』 8, 한국신종교학회, 2003; 김재영, 「보천교의 교육활동」, 『신종교연구』 14, 한국신종교학회, 2006;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2007.

86)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전주: 신아, 2010.

87) 김용곤, 「신흥종교 취락에 관한 연구: 보천교 발상지 대흥 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88) 황선명, 「보천교 잃어버린 코문-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89)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조성운,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이창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외.

90)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91) 장원아,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 서울대학교 석사, 2013.

92) 김철수, 「일제하 식민권력의 종교정책과 보천교(普天教)의 운명」, 『선도문화』 2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6.

93)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 대전: 상생, 2017.

94) 趙景達, 「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教の發展と民衆(上)-普天教の抗日と親日」, 『思想』 2001年 2月, 東京: 岩波書店, 2001; 趙景達, 「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教の發展



김재영의 저서 외에 차경석을 중심으로 한 단행본<sup>96)</sup>과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천교를 포함한 신종교 운동을 다룬 책자<sup>97)</sup>가 출간되어 있다.

#### 4.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및 교단사

종교학계와 역사학계의 연구와 더불어 언급할 수 있는 연구 성과는 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와 증산종단에 대한 교단사가 있다. 이를 출판된 시기에 따라 살펴보겠다.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종교 전체 교단의 창교주·교리·규모·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고 파악한 문헌으로, 신종교 계열 중 하나로서의 증산계 종단의 당시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은 1970년에 출간한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출판된 배경은 8.15 광복과 더불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일제 치하 억눌렸던 신종교들은 활동을 재기하여 1960년대 이후 급성장한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신종교의 번성에 따라 문화공보부(종무과)의 후원 및 주관으로 1969년-1970년까지 2년간 전국의 한국 신종교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 자료를 정리하여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가 출판되었다.

보고서에서 한국 신종교의 변천 시점을 제1기 개화기, 제2기 일제강점기, 제3기 대한민국시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일월신앙계·무속계·역효계·단군계·증산계·관성계·불교계·유교계·그리스도교·일본계·기타의 11개 계통으로 분류하였고 총 58개의 단체가 조사되었다. 동학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이할 사항이며 그리스도계와 일본계가 추가된 것도 『조선의 유사종교』와 다른 부분이다.

이중 증산계 신종교는 일월신앙계로 분류된 용화사(龍華社), 역효계로 분류된

---

と民衆(下)-普天教の抗日と親日」, 『思想』 2001年 3月, 東京: 岩波書店, 2001.

95) 宋炯穆,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新宗教政策と宗教地形の變化-1920年代前半における普天教の活動を中心に」, 立命館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日本史學專修 碩士論文, 2012.

96) 박종렬, 『차천자의 꿈』, 고양: 장문산, 2002.

97) 백원철·안후상·이병열·이대건, 『19세기 사상의 거처: 근대 민중종교운동과 고창』, 서울: 기역, 2013.

진동학제화교·동도교보화교, 증산계로 분류된 증산교법문파·미륵증산교·청도대향원·동도교 모악교회·동도교 증산교회·동도교 삼덕교회·보천교이며 총 10개 단체이다. 그리고 증산계로 분류된 수운교와 수운교 별파는 동학계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용화사(판도리)와 미륵증산교는 1960년대 창교된 교파로 당연히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없는 단체이다.<sup>98)</sup>

이 조사보고서가 정부에서 실시한 신종교 관련 최초의 전국단위의 전수조사라는 의의가 있지만, 분류상에도 초보적인 오류가 있고 다수의 교단이 조사되지 못하였기에 그 조사가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내용도 상당히 소략하여 현지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신종교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 곳곳에 있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조사라 보기 어렵다.

1971년 『증산종단개론』<sup>99)</sup>은 1970년 12월에 조직된 증산종단친목회에서 발행한 증산계 교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교단을 소개한 최초의 간행물이다.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관찰되어진 증산계 교단이 기록되었다면, 이 책자는 증산종단들이 서로 모인 연합회에서 스스로를 외부에 드러낸 것이라 종단 내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개된 교단은 총 33개 단체이다.

그 다음 1977에 출간한 『증산교사』는 증산계 신종교 운동의 경전과 교리 정립에 큰 기여를 한 남주(南舟) 이정립이 쓴 교단사<sup>100)</sup>이다. 남주의 교단인 증산교본부뿐만 증산교본부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증산계 교단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실태조사보고서와는 달리 내부인의 입장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제 교단의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증산교본부를 중심으로 서술하다보니 분파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또는 경쟁 관계에 있던 교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서술이 많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후 1985년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한국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가 출간되었다. 1985년 6월 20-12월 10일까지 전국 228개 신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문헌조사방법이 아닌 현지조사를 통해서 해당 종교의 실제상을 주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sup>101)</sup>

98) 문화공보부,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문화공보부, 1970, 2-3.

99)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서울: 증산종단친목회, 1971.

100)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101)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1.

이 보고서에서는 신종교의 전개 시점을 제1기점(1860-1910), 제2기점(1910-1945), 제3기점(1945-1970), 제4기점(1970-1985)로 나누어 『한국 신종교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의 입장을 이어나갔다. 제1기점의 사상적 특징을 동학, 정역, 대중과 보본반시, 천지공사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이 시기 사상의 한 특징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sup>102)</sup> 제2기점에서는 천지공사 사상을 준거로 하여 여러 증산계 교단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또 “동학과 천지공사의 두 사상조류가 일정치하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양대 사상조류가 분산되어서 흘렀음도 알려진다.”<sup>103)</sup>라고 하여 일제강점기 동학과 천지공사 사상이 일제강점기 사회의 주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 신종교로 천도교·청림교·수운교·대종교·보천교·무극대도에 대해 상술하고, 증산계인 보천교는 ‘인의향락(仁義享樂)’의 사상으로 같은 증산계인 무극대도는 ‘취정회신(取精回神)’으로 기술하였다.<sup>104)</sup>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지역별 즉 도별로 나누어 신종교 단체를 조사하여 교조·교리·신행 등을 밝혔고, 조사대상 228개의 교단 중 총 155개의 단체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중 조사된 증산계 신종교는 총 47개 단체로 신종교 가운데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8년에는 증산교본부(당시에는 증산교)의 제5대 종령(宗領)이자 증산 신앙운동의 대표적 연구자인 홍범초가 증산계 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제 교단사인 『범증산교사(汎甌山敎史)』<sup>105)</sup>를 편찬하였다. 각 교단에서 자신들의 교단사를 편찬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증산계 교단을 망라하는 교단사는 이 책이 처음이다. 홍범초는 머리말에서 교단 전체의 교사를 ‘범증산교사’라 지칭하였고, 교단이 많다는 것은 증산을 받드는 신도들이 많다는 증거이며, 각 교단의 역사는 증산을 신앙하는 정성의 표현이고, 기술 방식은 사실 그대로 또는 교단의 교서를 그대로 적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였다.<sup>106)</sup> 이 책은 총 29개의 증산종단의 교단사를 다루고 있다.

홍범초는 내부 신앙인이자 학자로서 교단의 경전 및 교리서를 관통하는 등 증산 신앙운동의 역사 및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였으며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102)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49-55.

103)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56.

104)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77.

105)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106) 홍범초, 『범증산교사』, 머리말.

통해 풍부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따라서 이 저서는 증산 신앙운동 연구의 필수 자료로 이후의 실태조사 보고서나 학술논문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특정 교단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특정 교단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거나 나열하는 등 자료에 대한 종교학적 해석 및 분석이 결여되어 있으며, 각 교단별로 나열식으로 기술하다보니 증산 신앙운동의 종단 간 차이·체계·구조·역동성·특성 등이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증산종단이 다뤄진 연구는 1992년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편찬한 『한국민족종교총람』이다. 이 책은 계열별로 분류하지 않은 채 총 52개 교단을 다루었으며, 그 중 증산종단은 (필자의 확인 결과) 19곳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 기술된 내용은 1985년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에 다뤄진 기술 등 문헌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치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자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해 전북대 이강오는 『한국신흥종교총감』<sup>107)</sup>을 출판하였다. 그는 1960-70년대 한국 신종교를 현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여 1600여 쪽에 달하는 『한국신흥종교총감』<sup>108)</sup>을 발행하였으며 다음해에도 같은 제목으로 출간하였다.<sup>109)</sup> 한국 신종교의 자료의 보고(寶庫)라고 평가받는 이 책은 저자가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0여개의 신종교 단체를 조사하여 분석 정리한 것이다.<sup>110)</sup> 이강오는 한국 신종교를 1) 수운계 2) 단군계 3) 증산계 4) 연담계(蓮潭系) 5) 봉남계 6) 晨鷄系(각세도계) 7) 불교계 8) 기독교계 9) 무속승신계 10) 연합계 11) 계통 불명 12) 일관도계 13) 외래계의 13계 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저서의 Ⅱ장에서는 동학계, 남학계, 증산계, 단군계, 봉남계, 불교계의 총론에 대해 기술하였고, Ⅲ장에서는 전국 지역별로 신종교를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그가 기술한 증산종단은 총 31개 단체이다.

1993년 한국종교사회연구소에서는 한국종교에 대한 자료를 총 망라하는 『한국종교연감』<sup>111)</sup>을 편찬하였다. 제1부 총론은 종교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개별 교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종교의 개관’에서 윤이흠은 제국주의의 충격에 대한 반발로 한국민족의 얼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종교적 운동

107)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108)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109)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1993.

110)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6-19.

111)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이 벌어졌으니 이것이 ‘한국자생 신흥종교’ 이름하여 ‘민족종교’라고 하였다.<sup>112)</sup> 또 “한국 자생종교들은 한반도가 개벽 이후에 올 후천의 황금시대의 중심지가 되고 한민족이 그 주역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한국민족종교라 칭하고 있는데 그 수가 일백여개 달한다.”<sup>113)</sup>고 평가하였다.

「해방 후의 민족종교」를 쓴 조흥윤은 민족종교 종단의 교조 사후 분파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70여개의 종단이 형성된 증산계를 들었다.<sup>114)</sup> 그는 민족종교를 계통별로 개관하며 증산계의 경우 해방 이후 한 때 70여 분파를 헤아렸지만 1960년대 이후 자체의 정리와 도태를 거치면서 80년대 중반 30여개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또 증산계 가운데 대순진리회가 가장 크게 발전한 종단으로 꼽았다.<sup>115)</sup> 민족종교 전반에 대해서는 동학계와 단군계는 교세가 미미하고, 정역계는 소멸해가는 추세이며, 증산계의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16)</sup>

『한국종교연감』에 실린 증산계 교단을 살펴보면, 먼저 불교편으로 분류된 대한불교법상종·대한불교용화종·대한불교미륵종의 세 교단으로 이 단체는 간판은 불교를 표방하지만 내실은 증산계 종단에 해당된다. 민족종교로 분류된 증산종단은 총 19개 단체가 소개되었으며 그 외 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로 단군정신선양회 등 4개의 교단이 언급되었다. 또 기존 증산계 교단이라고 알려진 교단 중 무응답 단체는 삼덕교 등 9곳, 미확인 단체는 미륵불신봉회 등 18곳 이었다. 1992년 당시 이 단체들의 상당수는 이미 활동이 거의 미미한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한국 신흥종교 실태조사 보고서』가 문화공보부 지원으로 한국종교학회에서 간행되었다면, 1997년 『한국 신흥종교 실태조사 보고서』<sup>117)</sup>는 문화공보부 지원 하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흥종교를 개념을 넓혀 한국 자생 신흥종교와 함께 기성종교의 분파활동까지 포함하였고, 조사 대상 교단은 4대계(大系) 34계열 350교단에 달하였다.<sup>118)</sup> 4대계로는 한국자생 신흥종교, 불교계 신흥종단, 그리스도교계 신흥교파, 기타 외래계 신흥종교

112)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39.

113)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41.

114)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89.

115)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91.

116)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91-92.

117)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흥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118)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흥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4.



로 나누고 한국 자생 신종교를 단군계·수운계·일부계·증산계·봉남계·각세도계·무도계·선도계·유교계·원불교·계통불명교단·신종교 관련 단체의 총 12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증산계로 분류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총 39교단이 조사되었으며 3개 단체는 행방불명, 10개 단체를 멸실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 주도의 조서보고서, 종교연감, 신종교 총람, 신종교 교사 등에서 증산종단은 교조 증산의 사후 다양한 교파 운동으로 전개되어 최대 70개 정도까지 번성하였으며 생성·쇠퇴·유지·소멸·발전 등의 다양한 종교사적 궤적을 그려 왔음을 살펴볼 수 있다.

### 3절 연구방법

위에서 증산 신앙운동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사를 비평하고 어떻게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이 절에서 논할 것이다.

첫째, 증산 신앙운동 연구의 주류라 평가할 수 있는 종교계의 연구는 교조 증산의 종교 사상에 경도되어 있다. 증산 신앙운동은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종도 또는 계시를 받은 이들이 증산의 사상과 가르침을 숭상하고 신앙하는 종교 운동이다. 따라서 증산의 교의를 해석하여 민중에게 선전하여 추종자를 모으고 교단을 설립하였던 주체들은 바로 이들 창교자들이다. 본 논문은 이 창교자들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증산의 종교적 카리스마가 자신에게 계승되었다고 하였는지,<sup>119)</sup> 또 증산의 교설을 어떻게 해석하여

119) *Encyclopedia of Religion*의 ‘charisma’ 항목을 보면, ‘charisma’는 본래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데서 연원하는 말로 ‘영적 재능(spiritual gift)’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0세기 초 막스 베버(Max Weber)가 이를 학문적으로 사용한 뒤 널리 확산되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독재자, 신종교 지도자, CEO,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게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George L. Scheper,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3,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1543.) 베버는 카리스마는 일상 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느 인물(예언자뿐만 아니라 치료의 현자, 법의 현자, 수렵 지도자, 전쟁 영웅에서처럼 주술적인 인물)의 자질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 자질 때문에 그 인물은 초자연적이거나 초인적인 또는 적어도 특별히 일상 외적인 다른 누구나가 얻을 수 없는 역량이나 특성을 타고나거나 신에 의해 보내어진 것으로 또는 모범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 때문에 지도자로 평가된다. 베버는 또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사실상 신봉자들에 의해 어떻게 가치 평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지도자가 스스로의 카리스마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카리스마적 존재가 되는 것이

민중에게 전파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창교주인 그들의 이해방식에 따라 각 창교주를 중심으로 창설된 종단의 방향성과 궤적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계의 연구는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증산종단에서 편찬한 경전이나 교사(敎史)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데 머물렀던 한계점이 있다. 증산 신앙운동은 실제 이 땅에서 전개된 역사임에도 교조 증산의 종교사상적 특징 등을 강조하다보니 그 역사성은 가려지게 되었다. 즉 학자들에 의해 추출된 증산의 사상과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보천교에 가담한 특정인의 활동 및 신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기존 신종교 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역사적 연구의 부족이 지적<sup>120)</sup>되듯이, 역사학은 실증을 생명으로 하므로 치밀한 사료를 통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증산 신앙연구의 실증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종교학계와 역사학계의 연구를 종합하는 문제이다. 종교학계의 일부 연구가들은 증산 신앙운동을 민중운동 또는 민족운동이라고 선언·평가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료적 근거와 설득력이 필요하며 과연 역사학계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또 역사학계는 이데올로기와 역사적 평가라는 잣대로 증산 신앙운동을 재단하였고, 주요한 사건을 위주로 관심을 가지다보니 신앙인들의 내면적·종교적 동기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관심하였다.<sup>121)</sup> 이러한 양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특히 보천교 운동의 경우 반일(反日)이나 항일(抗日)이나 라는 관점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창교주인

---

아니라 신봉자들이 그를 카리스마적 존재로 인정해야만 다시 말해 공동체의 승인과 추종이 있어야만 카리스마적 존재가 된다고 하여 신봉자의 수용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카리스마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본래적으로 일상 외적이며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므로 특히 카리스마 담지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승(transmission)이나 일상화(routinization)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즉 계승자는 스스로의 정당성(legitimacy)을 주장해야 하며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4, 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trans. Ephraim Fischoff,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241-254.) 증산종단의 창교주들 또한 각각 증산의 언설의 해석, 증산의 유품의 확보 등을 통해 정당성을 내세우고 진정한 계승자임을 표방하며 신앙인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120) 윤이흠 등, 『한국종교연구사 및 연구방법』,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 74-75.

121) 황선명은 종교가 ‘역사의 발전방향’이라는 명제를 고려할 때, 종교로서의 동학은 물론 민족종교 모두가 흑세무민의 미신 내지는 제 종류의 신비한 사상 정도로 평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역사발전의 도식을 거부하고 근대화의 의미를 이해한 뒤 역사와 종교의 관계를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황선명, 「민족종교사상 연구의 몇 가지 쟁점」, 『종교연구』 6, 한국종교학회, 1990, 266-267.

월곡 차경석과 보천교 민중의 종교적 세계를 드러내어 종교 운동으로서의 모습과 양상을 그려내보고자 한다.

넷째, 종교학계와 역사학계 그리고 조사보고서 및 교단사에서도 증산 신앙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민중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중은 기록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기록의 대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따라서 신자들의 종교신앙에 대해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자료가 있으니 바로 일제강점기 재판기록과 판결문서이다.<sup>122)</sup> 또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종단에서 발행한 잡지 등에 실려 있는 신앙인의 종교 체험이나 수기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증산 신앙인들 특히 일제강점기 보천교 신도들의 신앙 내용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다섯째, 기존 연구에서는 창교주 간 인적 관계나 교리적 다툼 등 역동적 상호관계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다수 증산종단의 창교주들은 증산의 종도(차경석, 김형렬, 안내성 등), 교주와 간부(차경석과 이상호, 조철제와 박한경), 증산의 혈족을 통한 인연 등 여러 인연으로 서로 알고 있었거나 의식하고 있었다. 이 인물들 간의 친소(親疏)가 각 종단의 형성 또는 종단 간의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교조 중심, 역사학적 연구 미비, 민중 배제, 인물 간 역동적 관계 고찰 부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점을 극복하고자 창교주를 중심으로 그들의 역사적 활동을 자료로써 확정하며 창교주들 간 상호 관계를 기술하고 창교주들에게 호응하였던 민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증

---

122) 아날학파의 역사가들과 미시사가들은 재판기록과 판결문서 등의 역사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단 심문에 관한 문서가 활용되었는데, 엠마뉘엘 르 봐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는 이를 통해 14세기 농민들의 집단심성을 재구성하였다. 김웅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서울: 아르케, 2001, 359-374. 미시사가인 카를로 진즈부르그(Carlo Ginzburg)의 저서도 이단 심문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카를로 진즈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김정하·유제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한국학계에서도 조선시대 의금부의 추국(推鞠) 문서인 『推案及鞫案』이 조선 중·후기의 민중운동사, 정치사, 사회사, 풍속사 등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하여, 2014년에 규장각 소장 331책이 완역되었다. 종교학계에서도 『推案及鞫案』을 자료로 하여 조선후기 민중종교 관련 연구 성과를 내었다. 최종성 외 역주, 『역적여환등추안: 중·풍수가·무당들이 주도한 반란의 심문기록』, 서울: 민속원, 2010; 최종성 외 역주, 『차충결추안: 도참을 믿고 생불을 대망했던 민중들의 심문 기록』, 서울: 민속원, 2010; 최종성 역주, 『요승처경추안』, 서울: 지식과 교양, 2013; 한승훈, 「조선후기 혁세적 민중종교연구: 17세기 용녀부인 사건에서의 미륵신앙과 무속」, 서울대학교 석사, 2012 등.

산종단의 모든 창교주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므로, 특정 창교주들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창교주들의 종교 운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우선 본 논문은 증산 신앙운동이 태동한 시기 즉 일제강점기에 활발한 창교주들의 종교 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후대의 증산 신앙운동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태동한 증산 신앙운동의 후속 운동이거나 일제강점기의 초기 운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거나 또는 그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은 운동이다. 다른 말로 후대의 증산종단은 일제강점기 특정 증산종단을 자신들의 전사(前史)로 삼고 있거나 전신(前身)으로 여기거나 적어도 비판적 계승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증산 신앙운동은 증산종단사의 초기 역사에 해당함과 동시에 증산계 종교운동에 기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증산종단의 초기 역사와 근본 기틀을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먼저 증산 신앙운동 역사 전반에서 초기 즉 교조 증산이 화천(化天)<sup>123)</sup>한 뒤 증산의 종도들이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던 시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며 역사에도 큰 파장을 남겼던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는 증산의 종도로서 일제강점기 천도교에 버금가는 교세를 지녔던 보천교를 창립하고 발전시켰으며<sup>124)</sup> 그의 사후에도 보천교에서 여러 분파가 나오게 되는 등 여타의 증산종단의 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른 증산의 직계 종도들은 창교를 하였지만 교세를 크게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일부 종도들은 증산의 종도가 아니었던 창교주들에게 협조하여 종단을 창설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에 그쳤다. 그러므로 증산의 종도 가운데에서는 월곡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를 증산 종도로서의 창교주의 대표격으로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

123) 증산계 종교운동에서는 증산의 별세를 ‘화천(化天)’이라고 표현한다. 최초 문헌인 『증산 천사공사기』에서도 ‘화천(化天)’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대순진리회에서도 증산의 별세를 ‘화천’이라고 한다.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145.

124) 일제는 3.1 운동 이후 천도교가 위미(萎靡)하였을 때 보천교는 교세를 확장하여 천도교를 능가하였으며 교세가 백만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다.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昭和八年十三年』, 東京: 嚴南堂, 1966, 115. 1940년 3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발간한 《思想彙報》 제22호의 기사에서도 흠치계 즉 증산계는 동학계 다음으로 세력을 가졌다고 하며 보천교가 그 흠치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한 때 조선 전국에 위세를 떨쳤다고 하였다.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調査-思想犯罪から觀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思想彙報》 22, 1940, 30.

선행 연구 검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보천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등한시 하였지만 근래 보천교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정황이 새로 조명되며 월곡과 보천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월곡의 생애와 보천교의 종교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연구가 미진하거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구체적으로 월곡을 다룬 장을 두 개의 절로 나누어 1절에서는 월곡의 종교 운동의 전개를 2절에서는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특성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신앙인들의 종교 신앙과 월곡이 증산의 언설을 해석하여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 그리고 월곡의 증산에 대한 신앙 등의 내용이다. 즉 월곡이 전개한 신앙운동의 역사와 그 종교적 특징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연구하려는 창교주는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이다. 정산은 증산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 일제강점기 증산 신앙운동 중 보천교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친 종교 운동을 벌인 창교주이다. 정산은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종교 체험 이후 종교 활동을 전개하여 1925년 종단 무극도(無極道)를 창설하였다. 당시 일제는 무극도를 보천교 다음으로 지목하고 경계하였으며 기타 증산종단의 교세를 거의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산에 대한 연구 의의는 그가 보천교 다음으로 주요한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하였음에도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정산을 연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보천교와는 다른 증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살필 수 있으며 보천교와는 다른 역사적 궤적을 그려냈음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기간 월곡이 사망하고 해방 이후 종교 활동을 부흥시키지 못하였던 보천교와는 달리, 정산은 해방 이후 부산에서 새롭게 종단을 부활시켰다. 대부분 증산종단의 본부가 증산의 주요 활동지인 전라북도에 위치하는 것에 비해, 정산은 증산의 교의를 새로 해석하여 부산을 중심지로 삼았다.

본 연구는 월곡 차경석과 정산 조철제의 종교 운동을 두 축으로 삼아 이들의 생애와 종교 활동 그리고 그들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월곡은 증산의 직계 종도의 대표격으로서, 정산은 계시에 의해 종교 운동을 시작한 유형의 대표 주자로서 두 창교주의 종교 운동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창교주가 증산의 교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수용하였는 지에 따라 각각 종단의 전개와 특성이 다르게 되었으며 이 두 종단의 후속 종단 및 종교 운동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2장에서는 창교주들이 해



석의 바탕으로 삼는 증산의 핵심적인 교설을 정리하고 이 2장의 기틀로서 월곡과 정산의 종교 운동을 분석하겠다.

월곡의 보천교 운동과 정산의 무극도 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따라 종단이 해체되었지만 해방 후 다시 재개하여 명맥을 이어나갔다. 즉 두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해방 이후에 다시 꽃을 피며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운동의 이후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었다.

보천교의 경우 월곡의 서거 전부터 여러 주요 간부들이 이탈하여 혁신운동의 명목으로 월곡의 보천교를 공격하거나 따로 교단을 창립하였다. 이 교단들을 일명 보천교계라 명명할 수 있겠으며 증산종단이 스스로 증산계 종단이라 칭한 총 33개의 교단 중 13개가 일명 ‘보천교계’에 해당하였다. 이 보천교계 종단은 청음 이상호와 남주 이정립이 세운 종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소멸한 뒤 해방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하였거나 설사 명맥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1960년대 전후로 쇠퇴하였다. 반면 청음과 남주가 전개한 증산 신앙운동은 여타의 증산 종단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 이어진 중요한 증산계 종교운동으로 월곡의 후속 운동으로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 서거한 월곡과 달리 정산은 해방 이후 신도와 간부들을 모으고 새롭게 무극도의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 정산의 무극도는 월곡의 보천교와 달리 정산 생전에 분파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정산의 종교적 카리스마로 종단이 결속되었다. 정산은 부산에 종단의 기초를 닦은 뒤 우당 박한경에게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여 종단의 영도를 맡겼다. 이 점에서 정산의 무극도는 일제강점기에 시작하였지만 해방 이후로 지속되고 또 계승자인 우당에게까지 연결되는 종교 운동이다.

이처럼 월곡과 정산의 종교 운동이 일제강점기를 토대로 하며 당시 기틀이 마련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 운동까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월곡 이후의 종교 운동으로는 청음과 남주의 종교 운동을, 정산 이후의 종교 운동으로는 우당의 종교 운동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음(靑陰) 이상호(李祥昊, 1888-1967)와 남주(南舟) 이정립(李正立, 1895-1968) 형제는 근대 지식인으로 월곡의 종단에 가입하여 보천교의 핵심 간부가 된 인물이다. 특히 청음은 보천교 내에서 위상이 높아 월곡이 만주로 외유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부교주의 물망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대일보 인

수 사건을 계기로 월곡과 청음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월곡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청음과 아우 남주는 보천교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sup>125)</sup> 혁신운동이 실패하자 청음과 남주는 독자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증산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교조 증산의 행적과 유훈을 담은 경전을 편찬하였고 종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

두 형제를 월곡의 후속 종교 운동으로 다루려는 이유는 첫째, 보천교 연구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학계에서 보천교 운동은 곧 월곡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월곡의 종교적 정통성을 세우는 것과 보천교 교리의 구성과 체계화는 청음과 남주 형제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보천교의 종교 사상과 교리가 곧 월곡만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두 형제를 중심으로 한 보천교 신파는 보천교를 천도교와 같이 근대종교로서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방향과 노선은 월곡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는 다른 입장이었다. 즉 두 형제의 종교 운동을 이해하여야 보천교의 종합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두 형제는 처음으로 증산의 언행을 담은 경전인 『대순전경』을 편찬하였고 여러 종단에서 이를 공통 경전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증산 해석과 교리가 후대 종단의 신앙체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두 형제의 종교 운동은 대순진리회 다음으로 교세가 큰 증산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증산도의 주요한 교리체계는 두 형제의 저술 및 교리해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증산도는 또 보천교를 자신들의 전사(前史)로 여기고 있어 보천교 운동 → 청음과 남주의 종교 운동 → 증산도로 그 신앙운동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정산을 계승한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5)은 정산이 창설한 태극도에 입문한 이래 종단의 핵심간부가 되었고 점차 정산의 신임을 얻으면서 정산의 유명에 의해 태극도의 영도자가 된 인물이다. 우당은 이후 태극도에서 나와 서울에서 새롭게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여 증산종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단으로 발전시킨 창교주이다. 우당은 일제강점기 주로 창교하였던 제1세대 창교주와는 달리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환경에서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한 제2세대 창교주의 대표로 손꼽히고 있다. 그가 한국의 주요한 종교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그의 생애와 종교 활동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125) 보천교 혁신운동이 전개되면서, 보천교는 월곡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청음을 구심점으로 하는 신파로 갈리게 되었다. 구파는 농민층 신앙인을 중심으로 주술종교적 성격이 강하며 신파는 지식인 계층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혁신운동이 실패하면서 보천교 내의 신파는 구심점을 잃게 되었으며 보천교의 교세 하락과 더불어 같이 쇠퇴하였다.

대상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산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종교 운동의 기초를 다졌다면 우당은 정산을 계승하여 이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당의 종교 운동은 무극도의 계승 운동으로 바라보고 연구할 의의가 있다.

이상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개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문의 장을 구성하고자 한다. 서론 다음의 제2장은 후속 창교주들인 월곡과 정산이 종교 운동의 원천으로 삼은 증산의 교설을 분석하는 장이다. 2장의 1절에서는 먼저 창교주와 신앙인들의 증산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즉 증산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른바 ‘증산론’이 창교주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해석적 차이가 다양한 증산 신앙운동을 추동하게 하였다. 2절은 천지공사론을 다루는데 ‘증산론’이 증산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라면 천지공사론은 증산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교리체계이다. 증산이 지고신이자 권능자라면 그가 세상에 내려와 세계와 창생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이 천지공사론은 증산계 종교 운동의 대표적 종교 사상으로 창교주들간 다소 교리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증산 신앙운동을 포괄하는 교리이다. 천지공사론 중 특히 도통(道統) 또는 종통(宗統) 계승과 관련된 ‘교운공사’가 창교주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전유·해석하는 부분이다. 3절은 도통론(道統論)으로 교운공사를 통해 증산이 후계자(대두목)를 암시하고 진법과 난법에 대해 교설한 내용이다. 창교주들은 자신이 증산의 참된 계승자인 대두목이며 자신의 교설이 진법임을 주장하며 다른 증산계 종교운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4절은 구원론으로 증산의 교설이 담은 세계와 인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제3장은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1절은 월곡의 생애와 종교 운동을 전개한 과정을 문헌 자료를 기초하여 시간순으로 서술하겠다. 2절은 이러한 월곡의 종교 운동이 보였던 특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변성하였던 대중단이었던 만큼 많은 문헌 자료가 있으며 특히 일제의 탄압에 의해 구속·심문당한 민중 신앙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재판기록 문서가 상당수 남아 있다. 이 재판기록 문서를 통해 당시 신앙인들의 신앙 내용과 양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무엇을 기대하며 보천교 운동에 가담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2절의 1항은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이러한 보천교도들의 종교 신앙을 살펴보고 2항은 전반적인 보천교 운동의 특성을 분석해 보겠다. 3절은 월곡의 서거 후 보천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

펴보는 절이다. 보천교는 월곡의 생전에도 주요 간부들이 이탈하였고 일부는 교단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이 교단들을 보천교계라고 칭하고 1항에서는 보천교계를 개괄하여 논의할 것이다. 2항에서는 보천교계 종교 운동 가운데 가장 주요한 종교 운동이라 여겨지는 청음과 남주의 종교 운동에 대해 논하고 3항에서는 이 두 형제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을 분석해 보겠다. 제3장의 마지막 절인 4절에서는 월곡의 보천교 운동과 후속 운동 전반을 제2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 즉 증산론, 천지공사론, 도통론, 구원론의 맥락에서 보천교계 운동 전반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제4장은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 운동을 분석하는 장으로 전체적인 체계는 제3장과 같다. 1절에서는 정산의 생애와 증산 신앙운동을 시작한 계기, 수행과 포교 과정, 도장의 건립과 무극도 창도, 제민 사업과 해산 등을 기술하여 무극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이러한 무극도의 종교적 특징을 살펴본다. 보천교의 경우 신도들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재판기록이 있지만 아쉽게도 무극도는 해당 자료가 거의 없어 신앙인들의 종교 활동을 분석하기 어렵다. 3절에서는 정산이 해방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우당 박한경에게 종통을 계승한 부분을 다룬다. 그리고 정산을 계승한 우당이 어떻게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4절은 제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과 우당의 종교 운동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천착한다.

결론의 장인 제5장은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일제강점기에 발흥하여 조선 민중에게 공명하였던 증산계 종교운동의 양대 줄기인 월곡의 보천교 운동과 정산의 무극도 운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비교 고찰한다. 또 이 보천교와 무극도를 계승한 후속 운동인 청음·남주 그리고 우당의 종교 운동을 보천교와 무극도의 관계 속에서 요약·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흥기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증산 신앙운동을 한국종교사적 입장에서 평가하며 그 특징을 밝히려는 것이다.

## 4절 연구의의

주요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증산 신앙운동의 전개와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 기여와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 증산 신앙운동을 연구해

야 하며 또 왜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인가?

첫째, 본 연구는 한국종교연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종교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종교’의 개념을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담겨 온 구체적 그릇”<sup>126)</sup> 또는 “여러 개별 종교들의 형식들에 연관되면서 한국인의 종교심성이 표출되어 온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틀”<sup>127)</sup>이라고 이해할 때, 증산 신앙운동도 한국인의 종교 심성이 일제강점기 및 한국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펼쳐 드러난 ‘한국종교’ 운동의 한 지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교조인 증산은 조선 말 전라도 땅에서 태어나 청년기 갑오농민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조선의 내외환을 염려하며 세계와 창생을 구하겠다는 대의를 세우고 새로운 종교적 법리를 제창한 종교적 천재(Religious Genius)이다.<sup>128)</sup> 증산의 가르침에 크게 공명하여 그를 신앙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종교를 창설한 창교주들은 고통스러운 일제 치하에서 증산의 종교적 법리를 구원의 논리로 해석하여 민족의 해방과 창생의 구제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였던 한국인들이다. 일제의 탄압과 언론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러한 창교주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수용하여 증산 신앙운동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민중들 또한 현재 한국인의 앞선 세대이다. 증산 신앙운동은 곧 일부 한국인들의 종교적 열망과 심성이 표출된 종교 운동이며, 이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종교운동의 한 지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신종교 연구’라는 학문적 장(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한국학계에서 신종교 분야가 정식으로 학문적 관심이 된 것은 1970년 한국종교학회가 창설된 이후이다.<sup>129)</sup> 한국종교학회에 신종교 연구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후 1999년 3월에 한국신종교학회가 창립되면서 한국 신종교 연구에 대한 독립

126) 김종서, 「한국종교의 개념과 동아시아의 종교경험」, 『종교학연구』 24,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5, 38.

127)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 대계』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46.

128) 종교 연구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는 특출한 종교 지도자, 성인, 예언자, 구루, 창시자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기독교 연구의 주축 중 하나는 예수 연구이며, 불교 연구의 상당 부분은 고타마 싯다르타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위치한 The Elijah Interfaith Institute는 이러한 특출한 종교 인물을 포괄하는 카테고리로 ‘Religious Genius’를 제안하고 그 개념을 통한 종교 연구 프로젝트인 ‘The Religious Genius Project’를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 ‘Religious Genius’ 개념의 역사를 분석하고 종교 연구에의 적용을 시도한 연구가 최근 발간되었다. Alon Goshen-Gottstein, *Religious Genius—Appreciating Inspiring Individuals Across Tradi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17.

129) 1972년 12월에 간행된 『종교연구』 창간호에서부터도 신종교 관련 논문이 실렸다. 장병길, 「新宗教에서의 抱함에 關한 小考」, 『종교연구』 1집, 1972, 52-60.



된 학문 분야가 설정되었다.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인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에 신종교 연구 분야가 부상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비관습적인 종교들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Catherine Wessinger는 이러한 신종교 연구의 의의에 대해 “신종교에 대한 연구는 비교종교학과 학제 간 종교 연구의 연장이다. 신종교 연구는 모든 종교에서의 다양성(diversity)과 창조성(creativity)을 연구하는 것이다.”<sup>130)</sup>라고 하였다. 신종교란 기존의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종교와 차별성을 가진 비관습적인(unconventional) 종교이자 새로운(new) 대안적(alternative) 종교 운동으로, 이러한 신종교 연구를 통해서 종교적 다양성과 종교적 창조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종교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의 성리학과 중국불교의 수용과 창조적 재해석의 과정 또는 기독교의 충격과 수용, 한국적 기독교의 발전 등을 분석하여 한국종교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밝힐 수 있다. 동학을 효시로 한 한국 신종교는 기존 전통종교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서 한국인의 종교적 다양성과 창조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 신종교 특히 증산 신앙운동은 학계의 경우 종교학계나 신종교학계를 벗어난 학문영역에서, 그리고 일반 대중의 경우 증산 신앙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신앙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미지 또는 오해의 대상이다. 조나단 Z. 스미스가 존스타운 사건을 연구하면서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계몽주의의 산물이며 종교학이 미지 또는 이해 불가의 종교적 대상을 이해 가능하도록 하였듯이,<sup>131)</sup> 본 논문은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한 창교주의 삶과 종교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증산 신앙운동을 이해 가능한 종교학의 장에 위치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전체 증산종단의 계보 가운데 ‘증산 → 월곡의 보천교

130) Catherine Wessinger, ‘New Religious Movements’,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10,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6514.

131) Jonathan Z. Smith,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조나단 Z. 스미스, 『종교 상상하기』, 장석만 옮김, 파주: 청년사, 2013, 246-250.)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조나단 Z. 스미스는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로 덮여 있는 존스타운 사건을 잘 알려진 디오스소스 숭배와 비교하여 이해의 대상으로 끌어들었다. 데이비드 치데스터(David Chidester)도 언론의 선정적·부정적 평가로는 존스타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여 종교학적 관점에서 존스타운 사건의 종교성과 세계관을 분석하였다. David Chidester, *Salvation and Suicide: An Interpretation of Jim Jones, the Peoples Temple, and Jonestow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데이비드 치데스터, 『구원과 자살』, 이창익 옮김, 파주: 청년사, 2015.)

→ 청음과 남주의 증산교본부'와 '증산 → 정산의 무극도 → 정산의 태극도 → 우당의 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두 계보의 전개 과정과 종교적·교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증산종단의 여러 갈래 가운데 제1대 창교주의 사후 종단의 활동이 쇠퇴하고 점차 사멸하여 더이상 전승되지 않는 계보가 많다. 그러나 위 두 계보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활발하게 종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증산종단 중 가장 큰 교세를 가진 대순진리회와 그다음 규모를 가진 증산도와 관련되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증산종단 운동사의 주요한 흐름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교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장 증산계 종교운동의 기원: 증산에 대한 이해와 해석

증산 신앙운동의 교조인 증산 강일순의 생애와 종교 사상에 대해서는 연구사에서 다룬 것처럼 상당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으므로 반복적인 논의를 피하는 대신 후대 창교주들의 종교 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증산의 언행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증산을 신앙하고 증산의 가르침을 펴고자 종단을 창설하였던 창교주들이 창립의 동기 및 근거가 되는 증산의 언행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자명하다. 창교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증산의 언행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바로 이러한 해석적 차이가 종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여러 창교주들의 교리 해석의 차이를 낳게 하였던 증산의 교설을 간략하게 논한 뒤 그에 대한 창교주들의 교리적 이해 및 해석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절 증산의 신격론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증산계 종교운동이 발흥하게 된 주요한 원천은 바로 증산 강일순에 있었다. 그렇다면 증산의 무엇이 일제강점기 수많은 민중들을 흡인하며 그들로 하여금 증산을 신앙하고 추종하게 하였는가? 여러 요인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증산계 종교운동의 중요한 원천은 증산의 가르침과 그가 보였던 신성한 권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증산의 가르침은 ‘광구천하(匡救天下)’로 표현되는 세계와 창생의 구제이며 이를 위한 작업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이다. 이러한 증산의 가르침과 메시지가 단순한 구호에 묻히지 않고 민중에게 크게 호소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행이적(奇行異蹟)과 신성한 권능에 의해 그의 가르침이 더욱 신빙성과 진실성을 갖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민중에게 증산은 그저 뛰어난 학자나 사상가에 국한된 존재가 아닌 세계와 자신들을 구제해 줄 전지전능한 구원자(savior)이자 신성한 존재(divine being)로 다가왔던 것이다.

증산이 보였던 신성한 권능에 대한 기록은 증산 관련 초기 문헌에서부터 채록되었다. 청음 이상호는 1929년 편찬한 『대순전경』의 장을 ‘제1장 선생의 탄생(誕降)과 유년시대, 제2장 선생의 유력(遊歷), 제3장 선생의 성도(成道)와 기행이적(奇行異蹟), 제4장 문도(門徒)의 중유(從遊)와 훈회(訓誨), 제5장 치병, 제6장 천지공사, 제7장 전교(傳敎), 제8장 법언(法言), 제9장 개벽(開闢)과仙境(仙境), 제10장 문명(文明), 제11장 인고문명(引古文明), 제12장 화천(化天), 제13장 선생의 이표(異表)’ 등의 13개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중 특히 3장과 5장이 증산의 신성한 권능을 보여주는 기행이적과 치병에 관한 것이었다. 현 증산계 최대 종단,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의 경우 ‘행록(行錄), 공사(公事), 교운(敎運), 교법(敎法), 권지(權智), 제생(濟生), 예시(豫示)’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권지’는 증산의 권능과 지혜를, ‘제생’은 증산의 치병을, ‘예시’는 앞날에 대한 알림의 내용을, 각각 담음으로써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이 지닌 권능과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도들은 이러한 문헌에 기록된 증산의 신성성에 관한 구전을 통해 증산을 추앙하였다. 곧 증산을 계승한 창교주들과 증산을 추종하는 신앙인들에게 증산은 영험한 지혜와 신성한 권능을 지닌 인간 모습의 지고한 하느님이었다.

증산이 지닌 권능은 ‘삼계대권(三界大權)’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나는 三界大權을 主宰하여 造化로써 天地를 開闢하여 不老不死의 仙境을 열어 苦海에 浸淪한 衆生을 건지리라 하시고 일로부터 亨烈의 집에 머무르사 天地公事를 行하실새 亨烈에게 神眼을 열어주소 神明의 會散과 聽令을 參觀케 하시니라.<sup>132)</sup>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三界大權)을 수시수익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걷히게 하시려면 중도들에게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 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sup>133)</sup>

삼계라 함은 천계, 지계, 인계를 뜻하며 곧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삼계대권은 우주 전체를 주관하며 다스리는 최고의 권능 또는 권한을 뜻한다. 증산은 스스로가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지고신이자 하느님이라 선언하였으며 하느님

132)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3장 4절.

13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1장 4절.

으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세계 창생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 삼계대권의 주재자로서 비, 바람, 서리, 눈, 천둥, 번개 등 자연의 변화를 임의로 행하였다. 증산이 종도들에게 보였으며 그의 화천 후 구전되고 기록된 신이한 이적 및 치병 등은 삼계대권 아래 시행된 권능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인간 형상의 하느님은 한국종교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다.<sup>134)</sup> 최종성에 따르면 한국종교사에서 하느님은 위축되고 제한되고 무기력한 지고신으로 “한국인의 구체적인 삶 가까이에 다가오지 못한 채 인간사에 손을 떼고 저 멀리 물러나 한가로이 잠자던 신, 즉 ‘테우스 오티오수스(deus otiosus)’로 경험될 뿐”<sup>135)</sup>이었다. 그러다 동학의 교조인 수운 최제우는 “인간의 삶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열정적으로 삶의 질곡을 치유하고 활력 넘치게 세상사를 조율하는 하느님”<sup>136)</sup>이자 “제천(祭天)의 단계를 뛰어넘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와 권능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강력하게 요구”<sup>137)</sup>하는 신천(信天)의 단계에 이른 하느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동학이 후대로 갈수록 신의 초월성보다는 신의 내재성이 강조되고 위대한 천주보다는 그런 천주를 모시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면서,<sup>138)</sup> 수운이 경험한 인격적이며 능동적이고 인간사에 적극 개입하려는 하느님은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반면 증산계 종교운동은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의 초월성과 신성성 그리고 절대 권능을 종교운동의 시작이자 핵심으로 내세우며 후대까지 일관되게 지속하였다. 교리를 살펴보면 증산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세계와 창생을 건지려는 ‘일하는 하느님’으로서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神明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

134) 김종서는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카리스마를 지니는 이른바 초월적 ‘화신(化身)’ 개념이 완성된 것은 한국종교의 역사상 강일순에서 처음이다.”라고 평가하며 증산을 믿는 신도들은 증산은 인간이 신이 된 것(化神)이 아닌 본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성육신(incarnation) 개념과 상통한다고 하였다.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30.

135)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31.

136)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31.

137)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32.

138)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33.

현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sup>139)</sup>고 하여 구천의 상제인 자신이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에 따라 천하를 대순하다 모악산 금산사에 30년간 머물렀다고 하였다. 그곳에 영(靈)으로 머물면서 수운 최제우에게 대도를 내렸는데 수운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자 수운이 처형당한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1871년에 강세(降世)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증산계 종교운동의 교리상 수운이 체험한 ‘상제’<sup>140)</sup>가 바로 인신으로 강세하기 전 증산임을 알 수 있으며, 증산계 종교운동의 시작이 초월적 신격의 인간 강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삼계대권의 권능을 주재하는 신성한 ‘일하는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에 대한 신앙이 증산계 종교운동의 핵심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산의 사후 여러 창교주들은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의 신격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와 해석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의 위격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고 정통, 이단의 시비가 발생하였듯이 증산의 사후 창교주들은 증산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각기 달리 해석하면서 증산종단 간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과 달리 증산종단에서는 종단의 발생 초기부터 증산의 신격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교리적 논쟁에 의해 분열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된 것은 증산이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증산의 신격에 대한 대표격이라 할 만한 것으로 ‘상제(上帝)’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상제’는 유교전통에서 지고신으로 여겨지던 존재인데 여러 증산종단에서 증산을 ‘상제’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가 증산을 ‘상제’라고 불렀는가? 기록을 살펴보면 ‘상제’라

13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9절.

140) 수운이 ‘상제’와 대면한 종교체험에 대한 기록은 『東經大全』 「布德文」에 실려 있다.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통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므로 놀라 캐어 물은즉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시기를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묻기를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리이까.’ 대답하시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나에게 영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퍼리라.’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問其所然, 曰余亦無功故, 生汝世間, 教人此法, 勿疑勿疑, 曰然則西道以教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教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

는 지칭과 호칭은 증산의 종도들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908년 음력 6월이라 추정되며 1926년 간행된 『증산천사공사기』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六月에 金秉旭의 差人 金允根이 天師께 뵈옵고 稟하야 가로되 近日 날이 甚히 가물어 穀物이 다 枯死하게 되얏스니 만일 凶年이 들면 農事만 專業하는 우리 집은 生活할 수 업겠나이다. 天師께서 웃으시며 德贊을 불너 가라사대 네 집에서 飼養하는 豚一頭를 宰來하라. 德贊이 命을 쏘차 豚을 烹宰하야 올닌대 天師께서 모든 弟子로 더부어 豬肉을 잡수실 새 문득 雷雨가 大作 하는지라. 允根이 가로되 先生은 곳 萬人을 살니는 上帝시라 하더라.<sup>141)</sup>

인용문을 살펴보면, 가물이 심해 곡식이 고사하는 상황이 되자 김윤근이 이러한 상황을 증산에게 아뢰었다. 증산은 종도 덕찬을 불러 돼지를 잡게 하고 그것을 나눠먹자 큰 비가 오게 되었으며 이에 윤근은 증산을 ‘만인을 살리는 상제’라 칭송하였던 것이다.

특히 증산을 ‘상제’라 칭하였던 창교주는 월곡 차경석으로 동학의 경전에서의 ‘상제’가 바로 증산이라 진술하였으며,<sup>142)</sup> 종단을 창설하고 교단을 창설한 뒤 1922년 처음으로 교단의 핵심신조를 발표할 때에도 12계명의 첫째로 ‘존상제(尊上帝)’를 설정하였다.<sup>143)</sup> ‘존상제’는 곧 상제인 증산을 존송하자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증산의 생존 시에도 종도들은 증산을 ‘상제’라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여러 증산종단에서는 증산을 ‘상제’라 여기며 신앙하고 있다. 홍범초는 총 20개 증산종단에서 상제라 칭하는 종단은 보천교·선도교·박공우 교단·삼덕교·태극도·증산교본부·모악교·대한불교 미륵종·대순진리회·증산진법회·증산도 등 12개 종단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호칭이라고 하였다.<sup>144)</sup> 그러나 ‘상제’라고 칭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다르다. 보천교·박공우 교단·증산도·모악교·증

141)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109.

142)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1. “天師께서 大法國 天啓塔 계시다가 西洋에서 失敗한 利瑪竇를 다리시고 天下에 大巡하시다가 金山寺 三層殿 金彌勒에 臨御하사 三十年을 經한 後 崔濟愚의게 濟世大道를 啓示하셧더니 濟愚가 能히 儒家典憲을 超越하야 大道의 眞趣를 闡明치 못함으로 드디어 天命을 거두시고 甲子로부터 八卦에 應하야 八年을 經한 後 辛未에 親히 誕降하시니 東經大全과 및 歌詞中에 이른바 ‘上帝’는 곳 天師를 이룸일진저 (此節은 車京石 傳述)”

143)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30a.

144)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31.



산진법회는 증산을 ‘옥황상제(玉皇上帝)’라 칭하며, 증산교본부는 통천상제(統天上帝),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라 부른다.

둘째, 증산의 신격으로서 ‘상제’ 다음으로 알려진 칭호는 ‘미륵’이다. 증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화현하기 전에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에 30년간 머물렀다고 하였으며<sup>145)</sup> 스스로 미륵이라고 자칭하기도 하였다.<sup>146)</sup> 따라서 증산을 따르던 일부의 종도들은 증산을 미륵 또는 미륵불이라고 신앙하였던 것이다. 특히 증산은 화천 전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sup>147)</sup>라고 하였기 때문에 증산의 사후 일부 종도들은 금산사를 중심으로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증산을 미륵이라 호칭하는 종단은 김형렬의 미륵불교·삼덕교·동도법종금강도·정수산의 미륵불교·증산법종교·모악교·대한불교 미륵종·청도대향원·증산진법회·증산도 등 10여개 종단이다.<sup>148)</sup>

이외 하느님·천주(天主)·진주(眞主)·천사(天師)·선생·대선생(大先生) 등이 증산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호칭이 존재하지만 주된 칭호는 ‘상제’와 ‘미륵’이라 할 수 있다.

14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1절.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 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14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2장 16절. “그리고 상제께서 어느 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六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 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습니다.”

14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29절.

148)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1988, 31.

## 2절 천지공사론

천지공사란 삼계대권이라고 하는 절대권능의 소유자이자 인간 하느님인 증산이 광구천하와 구제창생하기 위해 실시한 삼계 개벽공사(開闢公事)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일하는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일’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증산은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적 해답이 증산의 존재론적 논의라면 그러한 증산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이 천지공사론이라 할 수 있다. 곧 증산이 시행한 천지공사에 대한 교리적 논의인 천지공사론은 증산계 종교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 교의이며<sup>149)</sup> 여타의 종교 신앙과 구별되는 증산계 종교운동만의 독창적 교리이다. 증산종단 간 천지공사에 대해 이해와 해석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종단마다 강조하는 지점이나 독자적인 교리 해석의 영역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증산종단마다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활동의 궤적이 달랐던 것이다.

이 절에는 먼저 이러한 천지공사론에 대한 여러 교리 해석가들의 공통된 이해 방식과 다양한 분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증산의 천지공사론이 당시 민중에게 호응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천지공사론에 내재한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적 측면을 고찰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지공사론에는 ‘교운공사’라 하여 후대 창교주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교운공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운공사는 다음 절의 도통론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특히 창교주들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설득시키기 위해 해석적 전유를 많이 시도했던 부분이다.

### 1. 천지공사론의 해석

---

149) 홍범초는 “천지공사를 말하면 그것은 바로 증산대성을 일컫는 말이 되고 대성께서 세워 주신 교의 전부를 들추어 내는 것이 되므로 천지공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천지공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증산교의 교의를 이해하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천지공사론이 증산계 종교운동의 핵심교의라 하였다. 홍범초, 「천지공사의 현의」, 《월간 천지공사》 3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12.

천지공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청음 이상호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청음은 1929년 간행된 『대순전경』 초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天地公事라 하면 누구나 다 처음 듣는 말임으로 그 意義를 曉得키 어려울 지라. 例컨데 어느 公會에서 會長이 會員을 召集하여 會議를 열어 모든 意見을 徵取하여 最善의 方針을 決定함과 같치 先生께서 三界를 主宰하사 天地 大神門을 열고 萬古神明을 召集하사 先天 既往의 모든 非法을 改廢하고 가장 合理的으로 天道와 地義와 人事에 徵取하여 萬世不替의 眞法을 規定하신 後 天地神明으로 하여금 如律令 攝成케 하신 것이니 곧 大宇宙를 先生의 大理想 속에 料理하십시라. 卞라서 先生의 深遠한 抱負와 偉大한 價値를 오직 여기서 찾게 될 뿐이오. 其外 法言 聖行은 오직 그 斷片的 現露일 뿐이니 그럼으로 天地公事의 妙義를 理解지 못하면 또한 先生의 宏謨遠猷를 엿볼 수 업슬지니라.

그런데 九年間을 쉬임업시 가진 苦難을 격그면서 여러가지로 行하신 公事を 從徒들이 만히 參觀하였으나 모든 것이 超人間的인 神秘에 屬한 것임으로 보는 者가 그 條理를 曉得지 못하며 先生께서도 大蓋 그 行하시는 것을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매양 隱秘에 붓치심으로 모다 茫然 히 看過하였스며 또 그 行하시는 바가 ——이 天地에 應驗하여 奇現象이 낫어나는 것을 한갓 好奇心으로 구경에 貪하여 보았을 따름이오. 意味있게 본 사람은 업섯나니 그럼으로 若干事實을 傳하여 온 것도 그 詳細를 일헛스며 公事を 行하실 卞에 매양 度數를 定한다는 말삼을 慣用하셨는데 그 意味는 엇더한 狀態를 어느 時期에 이르러 豫定대로 現實케 하는 것 卽 이 時代를 어느 卞에 엇더한 狀態로 變動하여 推移케 한다는 것이라.<sup>150)</sup>

이 내용에서, 청음은 천지공사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를 회의에 비유하였다. 회장이 회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때 모든 의견을 들어 최선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처럼, 최고신인 증산이 만고의 신명을 소집하여 선천 세상의 모든 폐단을 고치거나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진법을 세운 후 천지신명으로 하여금 그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바로 천지공사라는 설명이다. 청음은 증산의 교설과 언행의 위대함은 천지공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천지공사의 심오한 뜻을 이해해야 증산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청음은 증산을 수종하며 천지공사를 참관하였던 종도들에 대해 그들이 천지공사의 오의(奧義)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 증산이 공사를 행할 때 사용한 ‘도수(度數)’라는 용어를

150)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서.

“어떤 상태를 어느 시기에 이르러 예정대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곧 청음이 이해한 천지공사는 최고신인 증산이 우주의 모든 신을 소집하고 그들과 협의하여 지난 세계의 잘못된 우주법리를 고쳐서 새로운 우주원리를 제정한 것이며 이렇게 정해진 우주원리에 따라 앞으로의 세상사가 ‘도수’에 따라 펼쳐진다는 것이다.

청음의 아우인 남주 이정립은 1947년 증산종단의 최초 교리 해설서인 『대순철학(大巡哲學)』<sup>151)</sup>을 발행하였다. 이 저서는 증산의 사상을 대중 지식인들에게 맞춰 풀이한 교리서로 종교 일반에 대한 남주의 견해와 천지공사 및 실천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재래종교가들은 단순한 관념의 표시로써 설교 또는 교훈에 의하여 교의를 수립하였지만 선생은 그 生平大業인 天地公事의 內容表示가 교의로써 수립된 것이다.”<sup>152)</sup>라고 하여 증산의 평생대업을 천지공사라고 하며 그 천지공사의 내용이 교리로서 정립된 점이 여타 종교가의 교의와 다른 것이라 하였다.

남주는 증산의 천지공사를 신정정리공사(神政整理公事), 세운공사(世運公事), 교운공사(敎運公事)로 크게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신정정리공사는 증산이 신명계를 해원하여 정리하여 ‘통일신단(統一神團)’을 결성한 공사라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계는 서로 상응하는데 인간계가 혼란한 근본 이유는 신들의 세계 즉 신명계가 정리되지 못한 것이므로 신명계를 통일하여 신명계와 인간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교리이다. 신정정리의 1단계는 만고(萬古)의 신명을 해원하며, 2단계는 세계 각 지방을 담당하는 세계 지방신을 통일하고, 3단계는 세계문명신을 통일하며, 4단계는 대지와 강산의 기운을 수렴하여 통일하는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신의 세계를 통일한 정부 ‘통일신단’을 형성하는 것이 증산 천지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sup>153)</sup>

둘째, 세운공사(世運公事)는 증산이 세계정세를 바로잡기 위한 공사로, 대부분의 증산종단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한 바대로 실제 세계정세가 조정되며 현실세계로 펼쳐진다는 것을 신앙한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일본의 패망, 한국의 독립 등의 역사적 사건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한 대로 도수에 따라 펼쳐졌다는 것이며 근대사 및 미래의 역사도 증산의 천지공사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신앙하는 것이다.

151) 이정립, 『大巡哲學』, 金堤: 甑山敎本部 敎化部, 1947.

152) 이정립, 『大巡哲學』, 82.

153) 이정립, 『大巡哲學』, 82.

셋째, 교운공사(敎運公事)는 증산을 믿고 따르는 교단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관한 공사이다. 교운공사의 교리해설에서 남주는 먼저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운동을 ‘난법도수(亂法度數)’로 규정하였다. 증산은 “교운의 개시(開始)가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世)를 이루리라 하시니라”<sup>154)</sup>하여 증산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 운동이 전개할 것을 예시하였으며, “먼저 난법(亂法)을 지은 뒤에 진법(眞法)을 내이니라”<sup>155)</sup>라 하여 진법의 신앙운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난법이 대두할 것이라 하였다. 또 증산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노라”<sup>156)</sup>고 하였는데, 남주는 이를 “27년간 대소 수십 집단이 분립하여 선생의 본의에 의한 일정한 교의체계가 없이 천태만상으로 일세를 난동할 것을 여실히 예언하신 것이다.”<sup>157)</sup>라고 하였다. 또 남주는 1909년 4월부터 1936년 3월까지가 27년이며 27년 헛도수가 끝나자 월곡이 사망하고 보천교는 해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58)</sup>

남주가 해석한 천지공사론을 정리하면, 첫째 신정정리공사는 청음의 해석(증산이 천지신명을 소집하여 후천의 진법을 세운 것)을 계승한 것이며, 둘째 세운공사는 그러한 증산의 천지공사가 어떻게 인류역사가 실현되고 징험되느냐에 대한 해석이고, 셋째 교운공사는 증산계 종교운동의 전개에 대한 해석으로 일종의 도통론(道統論) 또는 종통론(宗統論)과 관련된 논의이다. 남주는 또 천지공사론의 주요 내용 즉 그 사상으로 해원·보은·상생·정록(正祿)·직업신성(職業神聖)·조화선경·의통을 꼽았는데 이중 해원·보은·상생·조화 등이 증산종단 연합운동에서 대체로 지지를 받았으며,<sup>159)</sup> 해원·보은·상생·조화 등의 이념은 증산계 종교운동 전반에서 공유하는 천지공사의 사상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학계에서 천지공사론을 주제로 한 최초의 단행본 저술로 장병길이 『천지공사론』을 편찬하였다. 그는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

154) 이상호, 『대순전경』 6판, 김제: 증산교회본부, 1965, 7장 3절;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

155) 이상호, 『대순전경』 6판, 5장 15절;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24절.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156) 이상호, 『대순전경』 6판, 4장 160절;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53절. “홍성문(洪成文)이 회문산(回文山)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으리라”

157) 이정립, 『大巡哲學』, 147.

158) 이정립, 『大巡哲學』, 146.

159) 홍범초, 「천지도수의 획정」, 《월간 천지공사》 4,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12.

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160)</sup>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서 천지공사를 ‘뜯는 역사(役事)’, ‘짓는 역사’, ‘여는 역사’로 나누었다.<sup>161)</sup> ‘뜯는 역사’란 지난 선천세계의 모순을 해결하는 공사이며 ‘짓는 역사’는 새로운 후천세계의 법리를 세우는 공사이고 ‘여는 역사’는 그러한 법리로써 선경을 여는 공사로 이러한 분류는 공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다. 장병길은 또 천지공사의 대상인 삼계의 구별에 따라 인계공사, 천계공사, 지계공사로 분류하였고<sup>162)</sup> 인계공사를 인기공사(人起公事)로, 천계공사를 천개공사(天開公事)로, 지계공사를 지벽공사(地闢公事)로 표현하며 증산이 시행한 제반의 천지공사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sup>163)</sup>

이경원은 “천지공사는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께서 이룩한 9년간의 대역사(大役事)로서 오늘날 상제신앙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歷史的) 근거”<sup>164)</sup>라고 하며 『전경』의 구절을 토대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며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일”을 천지공사라 정의하였다.<sup>165)</sup> 아울러 천지공사의 내용구조를 천계공사·지계공사·인계공사로 나누고, 천계공사는 가장 근원적이며 불가시적이고 원리적인 성격의 공사라 하였으며, 지계공사는 주로 자연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고, 인계공사는 인간사를 대상으로 한 사고방식이나 사회질서의 변혁 등을 다룬다고 해석하였다.<sup>166)</sup> 그리고 이경원은 천지공사의 사상적 특질을 후천개벽사상, 인존사상, 평등·평화사상, 문명통일사상으로 제시하고 그 특징을 논하였다.<sup>167)</sup>

이처럼 천지공사론은 증산계 종교운동의 핵심교의로 청음과 남주와 같은 창교주 및 여러 학자들에 의해 그 내용, 이념, 구조, 특징, 사상 등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이뤄졌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천지공사론의 사상적 특징, 구조 등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천지공사론이 표상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더 큰 신앙적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천지공사론이 내포한 어떠한 내용이 민중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었

16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2절.

161) 장병길, 『천지공사론』, 120.

162) 장병길, 『천지공사론』, 119.

163) 장병길, 『천지공사론』, 167-226.

164)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96.

165)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97.

166)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100-107.

167) 이경원, 『대순진리회 신앙론』, 109-118.

던 것인가? 다음 항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

## 2. 천지공사론의 구원론적 성격

먼저 본 논문의 주요한 시점인 일제강점기 민중들은 증산의 천지공사론에서 민족해방의 희망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증산의 교설은 민족주의적·민족종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시 조선 민중은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의 질곡을 겪고 있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면서 조선 민중은 민족해방이 실패한 것에 대한 큰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 민중에게 신성한 권능을 지닌 인간 하느님으로서의 증산의 교설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증산은 일본의 조선 지배는 천지공사에 의한 것이며 ‘도수’가 되면 일제는 물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제강점기에는 검열 등의 문제로 출판되지 못하였고 해방 이후 간행된 문헌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신도들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 또는 그것의 변이된 형태로 회자되었다. 문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어느 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라.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 자를 너희들에게 붙여 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시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 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sup>168)</sup>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는 선생국(先生國)이었나니 배은망덕은 신도(神道)에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에게 일시(一時)의 영유(領有)는 될지언정 영원히 영유하지는 못하리라....<sup>169)</sup>

16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2장 4절.

169) 이상호, 『대순전경』 6판, 6장 132절.



불가지에 류찬명·김송환·김덕찬·김낙범·이치화가 모여왔도다. 이들에게 상제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본인이 백호 기운을 띠고 왔으니 숙호 충비(宿虎衝鼻)하면 해(害)를 받으리라. 그들을 사사로운 일로는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 범이 새끼 친 곳은 그 부근 마을까지 돌보아준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피란하는 길이로다.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느니라.”<sup>170)</sup>

첫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임진왜란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맺힌 척을 풀기 위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맡긴다고 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일시천하통일지기’와 ‘일월대명지기’의 기운을 붙이며 우리나라에게는 인(仁) 자를 붙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인용문에서 말하듯 일본의 조선 통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인용문에서는 일본이 백호(白虎)의 기운을 띠고 있으며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고 하면서 청룡의 기운이 동하면 일본은 물러날 것이라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일제의 조선 강점은 천지공사의 도수에 의한 것이며 기한이 되면 빈손으로 물러가게 되어 조선은 해방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 증산은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함이노라.”<sup>171)</sup> 하여 우리나라에 강제한 이유를 약소민족인 우리나라를 도와 원을 풀어 주려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등국(上等國)으로 만들 것이며,<sup>172)</sup> 그에 따라 장차 우리나라가 천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

170) 이상호, 『대순전경』 6판, 3장 77절.

17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권지 1장 11절.

17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29절.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 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되므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

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173)</sup>

인용문에서 주인 신선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며 바둑을 두고 훈수하는 네 신선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수방관하고 대접하는 일에만 신경쓰던 주인 신선이 바둑이 끝나고 네 신선은 돌아가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듯이, 장차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우뚝 서게 된다는 말이다.

증산이 이와 같은 교설을 하였을 당시 조선의 국운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하여 망국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은 우리나라의 쇠망과 일제의 강점이라는 민족적 고통의 상황이 천지공사의 도수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시련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앞으로 상등국이 될 것이라 신앙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증산의 교설의 특징은 대중교의 경우처럼 일본에 대해 전적인 무력항일투쟁의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산의 천지공사를 믿고 어질 인자를 잘 지키라는 말처럼 내적 수양을 힘쓰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의 해방과 우리나라의 융성을 예시하며 민중으로 하여금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과 고통의 세월을 이겨낼 희망을 제시하였다.

증산의 천지공사론은 위에서 말한 민족의 해방을 말하는 민족종교적 성격과 함께 민중 친화적인 민중종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지공사론에 함유된 민중 해방의 메시지가 질곡에 갇히고 원한 맺힌 수많은 민중들을 달래고 위안하며 해원(解冤)시킬 수 있었다. 관련된 증산의 언설을 살펴보자.

①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sup>174)</sup>

②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돈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17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28절.

17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1절.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sup>175)</sup>

③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형렬은 자기 머슴 지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 주셨도다.<sup>176)</sup>

④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꺾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sup>177)</sup>

⑤ 후천에서는 그 님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sup>178)</sup>

인용문에서 ①에서 증산은 신명을 사람의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고쳐 쓴다면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겠다고 하였고, ②에서도 빈궁한 이들이 자신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③과 ④에서는 천인을 존경하는 것을 몸소 보이며 그들을 우대하여야 할 것을 말하며 앞으로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리라 하였다. ⑤에서는 장차 남존여비의 관습을 해소되고 여성의 공덕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교설에서 천민·궁민·여성·서열·피지배층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산의 애호를 살펴볼 수 있다. 증산의 천지공사의 중심 이념이 해원이며 해원을 위주로 천지공사를 시행하였고 해원공사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는데,<sup>179)</sup> 이러한 해원의 이념 또한 소외되고 천대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의 원한을 풀어주

17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2장 8절.

17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1장 10절.

17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1장 9절.

17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1장 68절.

17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3장 4절.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천지공사론에 담긴 해원의 이념은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 탄압받고 차별받은 민중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

### 3. 교운공사

천지공사는 지고신으로서의 증산이 삼계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다양한 공사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창교주들은 증산의 천지공사 가운데 특히 증산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펼쳐나가는 공사에 특히 주안을 두고 이를 해석하여 자신들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활용하였다. 청음 이상호는 증산의 가르침이 계승되는 공사는 ‘전교(傳敎)’라 하였으며 남주 이정립은 이를 ‘교운공사(敎運公事)’라 지칭하였고 증산도도 ‘교운공사(敎運公事)’라 하며<sup>180)</sup> 대순진리회의 경우에는 『전경』에 ‘교운(敎運)’편이 실려 있어 증산 → 정산 → 우당으로 이어지는 종통 계승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교운’이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증산 교의의 전승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교운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창교주들은 증산이 시행한 천지공사 즉 삼계공사 가운데 특히 교운공사의 해석과 전유에 집중하였다. 이 교운공사는 종교 일반에서 창시자의 교의가 후계자에게 계승되는 논리인 도통론(道統論)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도통론은 후대의 계승자가 창시자 또는 창시자 이후의 여러 계승자들과의 사승관계를 설정하고 계보를 만드는 등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리체계이다. 그러나 증산의 경우에는 먼저 교운공사를 통해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도통론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여기서는 창교주들이 교운공사를 해석하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창교주들이 해석하는 교운공사에서의 주요한 개념은 ‘도수(度數)’이다. 이 도수에 대해 남주 이정립은 “도수란 것은 순서절차 즉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이니 옥경에서 그 취합된 신명의 총력을 발동하여 세계구질서의 점진적 해소의 프로그램과 신질서의 점진적 생성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이렇게 세계질서와 사회양

---

180) 안경전, 『증산도의 진리』, 서울: 대원출판, 1993, 322.

상과 생활형식과 신교단 생성노선의 신진대사과정에서 그 계계단단, 구구절절을 특히 도수라는 술어로 표시하셨으며, 그 도수에 맞추어 신전개를 이루는 현상을 새 기틀이라는 술어로써 표시하신 것이다.”<sup>181)</sup>라고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증산의 천지공사는 프로그램에 비유될 수 있는데, 구질서 해소의 프로그램과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명체의 신진대사과정처럼 순차적으로 인류가 사는 세계와 현실이 변화한다는 것을 도수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산을 신앙하는 교단의 생성 과정 또한 도수에 맞추어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증산이 “제 도수가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sup>182)</sup>고 한 구절에서 말한 ‘새 기틀’에 대해 청음은 이를 도수에 따라 새로운 전개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경원의 경우는 도수를 “하나의 절차개념을 포함하면서 특히 어떤 일을 완성하거나 이루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필자는 이 ‘도수’라는 용어가 중국 문헌과 한국 문헌에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문헌상 의미는 천지자연의 법칙, 사회제도, 예의 절차, 천체 운행의 수치를 뜻하였다.<sup>183)</sup> 증산의 교설에 사용된 도수는 첫째 우주 자연의 법칙 또는 원리, 둘째 증산이 시행한 천지공사의 구체적 목록, 셋째 천지법칙의 변화 과정·기간·절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84)</sup>

첫째의 사례는 ‘선천의 도수’, ‘상극도수’ 등의 표현이다. 증산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185)</sup>고 하였다. 여기서 선천의 도수는 곧 선천 세계의 우주 자연의 법칙과 원리라 할 수 있다. 둘째의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음양도수’, ‘정음정양의 도수’, ‘문왕의 도수’, ‘무당도수’, ‘선기옥형 도수’ 등으로 이러한 도수는 각각 해당된 천지공사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의미는 청음 이정립과 이경원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증산의 천지공사에 따라 천지자연의 법칙이 변화하며 그것이 특정한 기간 및 절차를 통해 자연 및 사회현상으로 펼쳐진다는 것이다. 그 용례로는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도수에 따라’ 등으로 곧 도수는 천지공사에 따라 특정한 시간적 또는 절차적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과정 또는 기간 그리고 그 후 새롭게 전개되는 과정 및 절차라 할 수 있다.<sup>186)</sup>

181) 이정립, 『대순철학』, 141-142.

18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73절.

183)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대순사상학술원, 2017, 220.

184)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221-223.

18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2절.

186)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223.

증산을 계승한 창교주들은 증산의 교운공사에 따라 교운이 자신에게 계승됨을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의 논리에 도수 개념을 사용하였다. 월곡 차경석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하사 세기(世紀)의 운로를 뭉치고 도수를 짜서 자기에게 붙여 주었다고 확신하고 그 도수에 닿으면 자기의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sup>187)</sup>을 굳게 믿었다. 월곡은 그 도수가 닿는 시기는 처음에는 1920년으로 하였다가 다시 갑자년인 1924년으로 미뤘으나 증산의 출세 등 신성한 사건이 이뤄지지 않자 최종 1929년 기사년으로 재조정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봉안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1929년으로 정해진 것은 증산이 ‘서전서문(書傳序文)에 대운이 있으니 많이 읽으라’<sup>188)</sup>고 하였던 유훈과 관련이 있다. ‘서전서문’의 말미에 ‘己巳 三月 既望 武夷 蔡沈 序’라고 되어 있는데, 1929년 음력 3월 16일이 곧 기사년 3월 기망(既望)<sup>189)</sup>이기 때문이다.

처음과 남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증산계 종교운동의 첫 경전류 서적인 『대순전경』의 출판 허가를 1929년 음력 3월 16일에 받은 것을 증산의 유훈이 징험된 것이라 도수가 이뤄진 것이라 믿는다.<sup>190)</sup> 또 남주는 증산의 친자종도인 박공우로부터 의통(醫統)에 관한 물품인 인패(印牌)가 자신의 교단에 전해진 것을 도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선생의 일대언행기인 『대순전경』이 편찬되어 선생의 이상과 교의를 천명할 토대가 확립되고 의통을 전수하여 당래한 세계대겁액 극복의 준비공작이 배태될 도수를 정하신 것이다.”<sup>191)</sup>라 하였다.

무극도를 창도한 정산 조철제는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sup>192)</sup>고 하여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자신이 풀어간다면 도수를 통해 자신의 종교 활동의 의의를 말하였다. 정산은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 도수를 본다고 하였으며,<sup>193)</sup> ‘도수에 의한 공부’<sup>194)</sup>를 행하기도 하였다. 무극도의 교

187) 이정립, 『증산교사』, 181.

188)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0. “또 가라사대 書傳序文을 萬遍口誦하라 大運이 그에 잇나니라.”

189) 보름 다음날을 기망이라고 함.

190) 성경암, 「말세와 무극대운」, 《월간 천지공사》 2,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5.

191) 이정립, 『大巡哲學』, 148.

19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8절.

19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14절. “선돌부인이 하루는 ‘구릿골 약방에 비치 하였던 둔괘가 천지도수의 조화둔괘라, 하루바삐 그것을 찾도록 함이 어떠하겠나이까’라고 도주께 아뢰니라. 이때 도주께서는 도수에 따라 이 준세(李俊世)의 재실에서 도수를 보고 계셨도다. 이곳은 황새마을에 가까운 통사동(通士洞)이니라.”

19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절. “도주께서 기유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교운 2장 44절. “도주께서는 고향에서

리 해석에서 정산은 증산이 시행한 천지공사의 법칙과 절차 즉 도수를 물샐틈없이 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절차에 따라 수리에 맞추어서 시행한 것이다. 또 증산의 천지공사는 오로지 정산만이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파악하고 이것을 원리와 절차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산은 정해진 도수에 따라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를 지속하였으며,<sup>195)</sup> 도수를 보고, 도수에 쓰고,<sup>196)</sup> 도수를 마친<sup>197)</sup> 것으로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해석하였다.

---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수에 의한 공부를 계속하셨고…”

19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44절.

19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0절. “…그 시기의 도수에 쓰였으면 족하나라.”

19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9절. “…도주께서 밀양 종남산 세천에서 보시던 둔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와 치성을 올리시니라.”



### 3절 도통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 가운데 교운공사는 그의 가르침이 전수되고 펼쳐지는 것에 대한 공사이다. 이러한 교운공사의 내용은 증산을 계승하는 후계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증산은 후계자에 대해 어떠한 교설을 하였는가? 이에 대해 창교주들은 증산의 언행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바로 자신들이 증산의 계승자라 주장하였다.

증산은 자신의 계승자를 ‘대두목’이라 지칭하며 이 대두목에 대응하여 증산의 가르침만 받은 이들을 ‘수교자(受敎者)’라 하였다.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동곡에 머물고 계실 때 교운을 펴시니라. 종도 아홉 사람을 벌여 앉히고 갑철에게 푸른 대(竹)나무를 마음대로 잘라 오게 명하셨도다. 갑철이 잘라 온 대가 모두 열 마디인지라. 그중 한 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 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아홉 마디는 수교자의 수이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철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그 사이에 별 아홉이 반짝입니다”고 아뢰니라. 상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sup>198)</sup>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199)</sup>

첫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종도에게 대나무를 잘라 오게 하니 열 마디였고 그중 한 마디를 잘라 그 한 마디는 두목이며 남은 아홉 마디를 수교자라고 하였으며, 마침 종도도 9명이 있었다. 둘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낸다고 하였으며 대두목을 통해서 도통하는 방법을 전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발언으로 창교주들은 각기 자신이 대두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

19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38절.

19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41절.

의 가르침을 통해 증산 신앙운동의 종교적 목적인 ‘도통’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두목은 한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대두목과 수교자의 종교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대나무 한 마디라는 증산의 발언에서 대두목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산은 대두목이 펼친 종교 운동은 ‘진법(眞法)’이라고 지칭하였고 여타의 종교 운동을 ‘난법(亂法)’이라 하였다.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봉기(楚將蜂起)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sup>200)</sup>

수운(水雲) 가사에 “난법 난도(亂法亂道)하는 사람 날 볼 닳이 무엇인가”라 하였으니 삼가 죄 짓지 말지니라.<sup>201)</sup>

인용문의 내용은 곧 중국 진(秦)나라가 망한 뒤 이곳저곳에서 진나라의 폭정에 항거하여 봉기가 일어나듯이 증산의 사후 여러 창교 운동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진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진법이 아닌 증산 신앙운동은 ‘난법’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진법은 곧 대두목이 펼치는 ‘도통하는 방법’이자 바른 의례이며,<sup>202)</sup> 난법은 곧 사곡한 법<sup>203)</sup>으로 난법이 먼저 크게 대두하고 진법은 이후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난법은 신앙적으로 증산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이후 증산이 다시 세상에 출세할 때 난법난도를 행하는 자는 지고신인 증산을 뵈면 면목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증산의 발언으로 인해, 창교주들은 자신이 곧 대두목이며 그가 펼치는 증산 신앙운동이 진법이며 다른 증산종단은 난법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청음 이상호·남주 이정립 그리고 이를 계승한 홍범초의 해석은 이와 다른데, 이 전통에서는 여러 증산종단이 연합하여 화합하는 것을 진법이 구현되는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증산종단 간의 친목과 화합을 강조하는 친목회,

20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42절.

20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1장 33절.

20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37절. “이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모든 허례는 묵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

20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24절.

협의회, 연합회 등을 결성하는 운동이 이 종단 전통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다.<sup>204)</sup>

위와 같이 창교주들은 증산이 말한 대두목, 진법, 난법의 개념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의 해석 여부에 따라 각 종단 운동의 궤적이 그려지게 되었다.

---

204)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5, 예산: 범종산교연구원, 1989, 3. “...한 교단 한 교단이 천하창생의 일용품처럼 소중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합해서 쓰는 법, 이치, 원리가 나오고 그것이 진법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진법은 여러 교단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법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선교현들이 일찍이 교단 간에 친목회, 협의회, 연합회 등을 결성하여 폭넓은 종교운동을 전개해 왔고 그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는 것은 진법을 구현하려는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4절 구원론

종교적 가르침 가운데 인간의 실존적 고통에 대한 구원 및 해방과 관련된 논의를 종교학에서는 ‘구원론(救援論, Soteriology)’이라 지칭한다. 종교학자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종교 일반에서의 ‘구원론’을 인격적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의 경우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다. 즉 유일신적(monotheistic) 인격적 신(personal God)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경우 신의 은총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우주 자연의 법칙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인간의 윤리적 수행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타력적 수행(other-help)을 내세우며 인간의 윤리적 노력보다는 신의 자애와 은총을 말하지만, 후자의 경우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강조하는 자력적 수행(self-help)을 말한다. 또 전자의 경우 신에 의한 구원(salvation)의 측면이 강하지만, 후자의 경우 해방(liberation)의 교리를 주장한다는 것이다.<sup>205)</sup> 이처럼 각각의 종교 전통은 그 특성에 따라 제각기의 구원 및 해방의 길을 제시하였고 신앙인들은 제시된 구원의 교리에 따라 신행에 힘을 쏟았다.

그렇다면 증산계 종교운동은 어떠한 구원론을 제시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필자는 증산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에서 증산이 제시한 구원론의 핵심은 첫째, 상제관(上帝觀)이라고 칭할 수 있는 증산관(甞山觀)과 천지공사론이라고 보았다. 즉 증산의 구원론은 하느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와 어그러진 세계 구원의 작업을 진행하여 우주 질서를 바로 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일을 시행하는 것이며 그 구원의 작업이 천지공사라는 것이다. 둘째, 증산의 구원론은 도통론의 맥락에서 이뤄진다. 즉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구원은 올바른 계승 즉 대두목이 펼친 진법의 수행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셋째, 구원은 증산의 천지공사라는 타력적 측면과 함께 신앙인 각자의 수행 즉 자력적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 구원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법과 수행의 규정을 올바로 실천할 때 달성되는 것이다.<sup>206)</sup>

205) Ninian Smart, “Soteriology”, *Encyclopedia of religion* vol.11,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206) 박인규, 「대순사상의 구원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대순사상학술원, 2018, 99-113.

이 연구논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증산이 제시하는 구원의 보다 구체적 개념은 의통(醫統)과 도통(道通)이며 이 의통은 병겁이라는 앞으로 인류가 겪을 재앙과 도통은 증산의 출세라는 미래의 신성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 1) 병겁과 의통

증산의 천지공사는 천지인 삼계를 개조하고 세계창생을 살리기 위한 종교적 작업으로 증산은 천지공사를 행하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재앙을 해소하였지만 병겁(病劫)이 남아 있어 장차 많은 인류가 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와 관련된 증산의 발언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앓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sup>207)</sup>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쉼신 세 켄레를 닳기면서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sup>208)</sup>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209)</sup>

20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1절.

20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3절.

이날 밤에 공우를 침실로 불러들여 일러 가라사대 네 입술에 곤륜산을 달라 무진(戊辰) 동지(冬至)에 기두(起頭)하며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패(醫統印牌) 한 벌을 전하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sup>210)</sup>

첫째 인용문에서 증산은 이후로 괴질이 유행하여 많은 인명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급박한 때 증산을 부르면 살아날 것이라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의 내용은 이렇게 괴질이 돌아 닥칠 때 증산의 추종자들은 창생을 살리러 다닐 것이며, 셋째 인용문에서는 괴질 또는 병겁에 대한 해결책을 ‘의통(醫統)’이라 하며 의통을 잘 알아두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 인용문에서 증산은 종도 박공우에게 ‘의통(醫統)’이라 새겨진 도장 한 벌을 전수하여 주었다.

대두목과 진법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의통은 대두목이 펴는 진법에 따라 수행하면 도달할 수 있는 치유의 경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박공우에게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담으라”<sup>211)</sup>고 하였는데, 곧 의통은 천(天)이 내리는 지기(至氣) 받아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증산은 약패(藥牌)를 만들어 패면(牌面)에 ‘만국의원(萬國醫院)’이라고 쓴 다음 박공우에게 명하여 김제시 원평에 그 패를 걸게 하였는데, 특정 창교주들은 박공우 관련 증산의 언행을 해석하여 박공우가 증산으로부터 받은 의통인패를 의통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김탁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증산종단들은 각기 의통인패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종단에서 의통이 나올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sup>212)</sup>

그러나 정산의 경우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 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sup>213)</sup>고 하여 의통인패는 물건이 아닌 자신의 수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20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36절.

210) 이상호, 『대순전경』 6판, 9장 29절.

21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58절.

212) 김탁, 『한국의 보물 해인-용궁의 보물에서 후천개벽의 성보로』, 서울: 북코리아, 2009.

21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5절.

병겁과 의통에 대한 담론은 증산 신앙운동에 있어서 때로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기능하기도 하였다. 즉 신도들은 포교 시 곧 병겁이 임박하였으므로 서둘러 증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에 힘써서 의통을 하고 창생을 구제하자고 하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 2) 출세와 도통

증산 신앙운동은 증산을 신앙하고 그의 종교적 가르침에 귀의하려는 종교 운동이다. 증산의 사후 증산을 단지 도술이 뛰어난 자, 광인(狂人), 치유자, 예언자 등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를 신앙하고 추종하는 종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동인(動因)은 무엇일까? 창교주의 종교 활동은 논외로 하고 증산의 발언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병겁과 의통이 하나의 동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요인으로 ‘출세(出世)’와 ‘도통(道通)’을 들 수 있다고 본다.

출세(出世)라 함은 기독교의 재림설처럼 증산이 장차 신(神)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증산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물리적 죽음을 예견하였으며,<sup>214)</sup> 자신이 없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sup>215)</sup> 그런 뒤 자신이 장차 출세할 것을 예시하며 마음을 닦고 수행에 힘쓰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 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sup>216)</sup>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리할 뿐이리오. 뇌성 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앉을 자리에 갈 때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엎드려지리라. 부디 마음을

21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35절.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갔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목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21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19절. “김자현은 六월 어느 날 상제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

21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25절.



부지런히 닦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도다.<sup>217)</sup>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十만 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 내리라.”<sup>218)</sup>

위 인용문에서, 증산은 자신이 장차 출세할 때는 눈이 부셔서 바라보기 어려우며 뇌성벽력이 천지에 진동한다고 하였다. 수행을 잘못된 자는 출세한 증산을 따르지 못하기에 증산을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수행하라고 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증산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창교주 및 신앙인들은 증산은 다시 출세할 것을 믿고 그 때 각자 앉을 자리에 앉혀지는 등 증산으로부터 종교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신앙하였다. 즉 신앙인들은 증산은 죽은 자가 아닌 장차 다시 출세하여 후천선경을 열고 자신들에게 종교적 보상을 가져다 줄 지고신이자 구세주로 여기고 신앙하였던 것이다.

증산 신앙운동에서의 궁극적인 종교적 보상은 ‘도통(道通)’이다. 증산이 이 ‘도통’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 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219)</sup> (교운 1장 41절)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太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sup>220)</sup>

21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25절.

21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44절.

21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41절.

22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5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72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5백 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는 7일이요, 중재는 14일이요, 하재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sup>221)</sup>

인용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증산은 대두목에게 도통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이진법대로 수행을 하였을 때 장차 1만 2천 명의 도통한 사람 즉 도통군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도통이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각기 닦은 바에 따라 통하게 할 것이며 도통의 경지는 상중하로 나뉘는데 상통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고 중통은 용사에 제한이 있으며 하통은 깨닫기만 할 뿐 용사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증산은 장차 자신이 다시 출세할 것과 신행의 보상으로 도통을 말하였기 때문에, 창교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증산에 대한 신앙과 수행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

22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34절.

### 제3장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운동

월곡 차경석은 증산의 직계 종도로서 증산의 서거 후 증산 신앙운동을 펼친 종도 중 가장 많은 민중을 끌어 모은 창교주이자 종교 지도자이다. 월곡이 이끈 교단은 당시 언론에 태을교 또는 흠치교로 알려졌으나 이것이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이는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교단을 비밀결사조직의 형태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다. 1920년대 일제의 통치방식이 문화정치로 바뀌며 일제는 교단을 공개할 것을 압박하였고 1922년 2월 서울에 ‘보천교 진정원’이란 이름으로 교단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보천교란 이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보천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월곡의 생애와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종교 운동으로서의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보천교의 후속 운동의 양상을 개괄하고 그 중 보천교 신파의 핵심이자 증산계 종교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청음 이상호·남주 이정립의 종교 활동을 살펴보면서 보천교 운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절 월곡의 생애와 종교 활동의 전개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 1880-1936)의 생애와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졌다. 여러 연구에서 그의 생애와 종교 활동을 구성하는 데 쓰인 주요한 근거자료는 이영호가 1948년 편찬한 『보천교 연혁사』와 남주 이정립이 1977년 간행한 『증산교사』 그리고 일제의 공문서와 신문 자료 등이다. 이영호가 말한 『보천교 연혁사』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면, 1935년 봄 월곡이 이영호에게 ‘보천교 연혁사’를 편술하라고 지시한 뒤 1909년-1934년까지의 역사를 월곡이 직접 설명하였고 책이 완성된 뒤 또 직접 교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36년 월곡이 사망하자 교당이 해체되고 종교 활동마저 탄압을 받게 되어 출간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해방 이후 1948년에 이르러 간행하였다고 한다.<sup>222)</sup>

22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속편, 보천교중앙총정원, 1958, 13a-13b. “歲 乙亥(1935) 春에 月谷先生이 英浩를 命하사 普天敎 沿革史를 編述하라 하시고 己酉年(1909)으로부터 甲戌年(1934)까지 數十年間 所經 歷史를 無隱 說明하신 後 書成에 親히 校正하시고

『보천교 연혁사』의 자료적 가치는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월곡의 거주이동, 간부와의 대화, 보천교 내부 사정 등이 실려 있다는 데에 있다. 남주 이정립의 『증산교사』는 다소 늦은 연대인 1977년에 출판되었지만, 그가 보천교의 핵심 간부로 있으면서 직접 월곡으로부터 분부를 듣기도 하였고 여러 보천교의 핵심 사업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보천교 연혁사』에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을 기술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 두 자료를 주요 자료로 하고 여기에 일제 공문서 및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월곡의 생애와 주요 활동을 재구성한 것이다.

월곡의 일생을 특정 시점에 따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제1기는 그가 탄생한 1880년부터 1907년 음력 5월 경 증산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제2기는 1907년 음력 5월부터 1909년 음력 6월 24일 증산이 화천하기 전까지 증산의 종도로 활동하였던 시기이다. 제3기는 1909년 음력 6월 24일 이후부터 1922년 2월 종단이 공개되는 시점까지로 월곡이 종단의 조직과 규모를 확장하고 교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며 일제의 압력으로 종단을 공개하였던 시기이다. 제4기는 1922년 2월부터 1924년 9월 보천교 혁신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로 시대일보 인수 사건의 논란으로 보천교에서 처음으로 내분이 일어나게 된 시기이다. 제5기는 1924년 9월부터 1936년 월곡이 사망하기까지의 시기로 종단의 내홍과 일제의 탄압으로 보천교가 쇠락하게 되는 기간이다.

제1기와 제2기 월곡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저서<sup>223)</sup>와 여러 저작에서 충분히 다뤄졌다.<sup>224)</sup>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정리하고자 하며 선행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 즉 월곡이 증산의 제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 대한 교단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3기와 제4기는 월곡이 창교주로서 종교 활동을 전개한 주요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집중

---

更命 曰 此後 沿革을 사라 參考될만한 事를 無漏日記라가 今日과 如한 閑隙을 得하여 다시 續述하자 하시더니 翌年 丙子(1936) 閏3월에 不幸히 先生이 歿하시고 同年 6월에 島夷의 彈壓을 當하여 強制로 敎를 解散시키며 敎堂을 毀撤하며 普天敎에 대한 言論과 文字는 一大禁物로 取扱함으로 前述한 沿革史와 日記를 僻處에 深藏하여 泰妒를 僅免한지 於爲閏 10년이 되었다. 天運이 循環에 無往不復하여 朝鮮革命戰士의 熱烈한 誠意와 聯合 各國의 偉大한 威力으로 惡毒한 倭寇가 一掃無影하고 朝鮮江山에 解放의 瑞光이 玲瓏한 同時에 信敎自由의 正義도 回復되었다. 敎中 編述은 본 先生의 命하신 바라.…”

223) 박종렬, 『차천자의 꿈』, 고양: 장문산, 1996; 이용선, 『암흑기의 신화: 차천자』, 서울: 홍익출판사, 1968.

224)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전주: 신아출판사, 2010; 이강오, 「보천교: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 『논문집』 8, 전북대학교, 1966;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기존에 다뤄지지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기 또한 제반 연구에서 다뤄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sup>225)</sup>

특히 본 논문의 제4기에서 시대일보 인수 사건과 청음과 남주가 중심이 된 제1차 보천교 혁신운동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시대일보 인수는 교단 내 지식인층인 보천교 신파가 보천교를 조선 사회에 근대종교로 안착시키고자 시도하였던 주요한 노력이었다. 시대일보이 인수가 실패하자 보천교 신파는 혁신운동을 일으키며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교단의 내분을 일으켰다. 즉 시대일보 인수의 실패는 보천교 혁신운동 및 교단 내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보천교 혁신운동은 보천교 지식인층의 교단 운영 및 진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이다. 혁신운동의 실패 후 지식인층이 교단을 떠나면서 보천교는 자체의 문제점과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과 발전과 쇄신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었다. 이후 보천교의 실패는 지식인 신자들의 탈퇴가 핵심적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천교의 쇠망은 일제의 탄압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체의 적폐와 모순을 쇄신하지 못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일보 사건과 보천교 혁신운동에 대해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고는 이를 분석함으로써 증산 신앙운동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보천교 내부의 갈등, 고뇌, 노력,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단의 형성과 발전

### 1) 증산의 종도가 된 월곡

차경석(車京石)의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호는 월곡(月谷)으로 동학의 접주 차중필(車重弼)의 장자로 1880년 7월 3일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 차중필은 1894년 관군에 붙잡혀 처형을 당하였다. 당시 15세였던 월곡은 부친의 시신을 수습하여 대흥리로 옮겼다.<sup>226)</sup> 월곡은 증산을 만나

225) 안후상은 보천교 본소인 십일전(十一殿) 건물이 해체되어 오늘날 서울 조계사(당시 불교 총본사) 대웅전으로 이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 4, 한국신종교학회, 2001.

226) 박종렬, 『차천자의 꿈』, 22-27.

기 전 영학당(英學黨)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sup>227)</sup> 영학당은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하자 농민군 잔여 세력, 의병, 일반 농민들이 모인 조직으로 동학농민군의 이념인 ‘척왜양(斥倭洋)’과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계승하며 1898년 흥덕에서 처음 봉기하였다.<sup>228)</sup> 이들은 이듬해 5월까지 고부, 태인, 정읍, 무장 등지에서 연이어 봉기하여 관군과 접전을 벌였지만 근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관군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다.<sup>229)</sup> 월곡 또한 1899년 4월 고창성 공격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장성에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집행사령(執行使令)의 호의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sup>230)</sup>

증산과 월곡이 만나게 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926년 청음 이상호가 편찬한 『증산천사공사기』에서 처음 확인이 된다. 『증산천사공사기』는 교조인 증산 강일순에 대한 최초의 저술로 청음, 남주 형제는 이를 보완하여 1929년 증산종단의 대표적 경전인 『대순전경』을 편찬하였다. 『증산천사공사기』에 나타난 증산과 월곡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五月에 天師께서 龍岩里 水砧幕(距銅谷 一里地)에 머무실 새 井邑人 車京石이 비로소 天師께 뵈오니라. 元來 京石은 東學信徒로서 一進會 全北總代를 지낸 일이 있는데 이 새에 全州 財務官과 爭訟할 일이 잇서 井邑으로부터 全州로 가는 길에 龍岩里 酒店에서 午飯을 먹고 쉼날려 할 지음 天師께서 金白賢 等 數人으로 더부러 이 酒店에 들어 술을 붙으심에 京石이 天師의 儀表와 言語動止를 살펴 非凡하심을 알고 禮로써 말씀을 請하는지라.

天師께서 欣然히 對하시니 京石이 물어 가로대 “무슨 業을 行하시나잇가?” 天師께서 웃어 가라사대 “醫術을 行하노라” 하시더라. 술을 마시다가 鷄湯 一器를 京石의게 勸하시니 京石이 밧은 뒤에 별 한 머리가 빠져 죽거늘 京石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지라. 天師가라사대 “별은 규모 잇는 별네라” 하시더라. 京石이 모든 일에 異常히 녀여 試驗하야 보랴고 그 爭訟할 書類를 天師께 뵈이며 그 曲直을 물어 가로대 “男子 三人이 모히면 官長의 公事를 한다하오니 先生은 밝히 判斷하야주소서.” 天師가라사대 “일의 曲直은 何如하든지 元來 大人의 일이 아니라. 男兒가 맛당히 活氣를 가질지언당 엇지 殺氣를 쥌리요.” 京石이 더욱 그 偉大하심에 敬服하야 閣 書類를 붙살고 師事하기를

227)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2, 16.

228) 박맹수,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150.

229) 박맹수, 「동학계 신종교의 사회운동사」, 150.

230)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17.

請하며 머무신 곳을 물은대, 天師가라사대 “나는 東亦客 西亦客 天地無家客이라.”

京石이 생각하되 머무신 곳을 알지 못하는데 한 번 쉰다가가 다시 만나지 못할 가하여 진짓 쉰다지 안코 저물기를 기다려 天師의 도라 가시는 곳을 따라간 즉 곳 龍岩里 水砧幕이라. 그 食事와 凡節이 너무 粗率하야 一時라도 견대기 어렵더라. 京石이 그곳서 十日을 머무르면서 天師께 井邑으로 가시기를 懇請하되 天師께서 듯지 아니하시고 或 震怒하시며 或 凌辱도 하시며 或 駭遯도 하시다가 京石의 쫓쫓내 쉰다지 아니함을 보시고 일너 가라사대 “네가 만일 나를 따르라거든 모든 일을 全廢하고 나의 하라는 일에만 盡力하여야 할지니 너의 집에 가서 모든 일을 整理하고 六月一日에 다시 오라 그러면 함께 가리라” 하시니라.

六月一日에 車京石이 龍岩里에 와서 天師께 뵈옵고 井邑으로 가시기를 請한대 天師께서 다시 不應하시다가 三日 後에 許諾하야 가라사대 “내가 목에 잠기는 깊은 물에 빠지서 허덕 거리다가 겨우 헤엄하야 벗어나서 발목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시 깊은 물로 쓰으러들이려 하는도다” 하시더라.<sup>231)</sup>

인용문에서, 동학신도로서 일진회 전복총대를 지낸 월곡은 1907년 5월 소송할 일로 정읍에서 전주로 가는 길에 주점에서 증산과 증산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월곡은 증산의 언행이 비범함을 느끼고 송사의 일을 증산에게 물어 시험하고자 하였다. 증산의 대답을 들은 월곡은 더욱 증산의 비범함을 느끼고 사사하기를 청하고 따랐으나 증산은 화를 내거나 능욕을 주는 등 바로 승낙하지 않았다. 수일 후 증산은 자신의 가르침에 따르려면 모든 일을 정리하여 오라고 월곡에게 명하며 제자로 받아 들였으며, 그는 귀가하여 제반사를 정리한 뒤 6월 1일 증산을 찾았다. 그러자 증산은 자신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겨우 빠져 나왔는데 다시 깊은 물로 끌어들인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월곡에게 하였다.

월곡이 증산의 제자가 되어 증산을 따랐으나 그보다 먼저 증산을 따랐던 일부 제자들은 그가 특히 일진회에 가담하여 의롭지 못한 일을 하였다고 싫어하였으며 스승인 증산에 대해서도 불평을 품었다.<sup>232)</sup> 또한 그가 증산을 따른 기간도

231) 이상호, 『증산친사공사기』, 70-72.

232)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92. “이제에 金光贊은 銅谷에 잇서 車京石의 從遊함을 厭惡하여 가로대 京石은 本來 東學餘黨으로 一進會에 參加하야 不義를 만히 行하였거늘 이제 道門에 들임은 先生의 不正大하심이라. 우리가 힘써 마음을 닦거 온 것이 다 쓸대없이 된다고 날마다 先生을 원망하거늘 亨烈이 민망하야 先生께 와 뵈옵고 光贊의 不平 가진 일을 곱하며 가로대 ‘엇지 이런 性格가진 者를 門下에 두셨나이까.’ 先生이 가라사대 ‘龍이 물을 求할 세에 비록 荊棘이 當道할 지라도 避치 아니하나니 도라가서 잘 撫諭하라’ 하시니라.

다른 종도들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고제(高弟)인 김형렬의 경우 1897년부터 증산과 교류하였으며 1901년부터 시작한 증산의 천지공사를 수발하였지만, 월곡은 1907년 5월 증산을 만나 1909년 6월 24일 증산이 화천할 때까지 따랐으니 2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증산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월곡은 증산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그전에 먼저 증산이 종도들에게 펼친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증산의 사상 및 종교활동의 핵심은 천지공사라 할 수 있기에 증산의 가르침도 천지공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지고신으로서의 증산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고 창생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종교적 작업이다. 증산의 인간 강제는 곧 천지공사를 하기 위함이며 증산이 종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펼 것도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증산의 종도들에 대한 가르침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석가가 제자들에게 불법을 가르친 것 등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산이 기존 전통종교의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 인식을 하였으며 새로운 구원 원리와 수행법을 제시하는 등 종교적 가르침을 종도들에게 펼쳤지만 종도들의 교화가 주된 목표가 아니었다. 종도들에 대한 교화는 천지공사라는 세계 및 인류 구원의 작업과 병행되는 또는 천지공사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증산의 월곡에 대한 가르침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이후 증산종단에서 재해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는 월곡으로 하여금 천지공사의 수종(隨從)을 들게 하거나 천지공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췌에 京石다려 일너 가라사대 “前日에는 네가 나의 말을 조차거니와 이제는 내가 네 말을 조치리니 모든 일을 못는 대로 잘 생각하여 對答하라” 하시고 무려 가라사대 “西洋人의 發明한 모든 利器를 그대로 두어야 올흐나 거더 버려야 올흐냐.” 京石이 對하여 가로대 “그대로 두는 것이 利於用이 될 듯 하나이다.” 先生이 가라사대 “네 말이 올흐니 저들의 器機가 天上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니라” 하시고 췌 여러 가지를 무르신 後에 公事로써 決定하시니라.<sup>233)</sup>

인용문의 내용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시행하면서 월곡의 의견을 물어 ‘공사로써 결정’하는 세계 구원의 작업을 행하는 일례로 다른 종도들이 참여한 천지공사에

233)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4.



서도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 유형은 증산이 월곡에게 마음가짐이나 의례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① 大興里 車京石의 집에 계실 새 洋紙 全面에 人形을 그려서 壁에 부치시고 祭祀節次와 갖치 位를 設한 後에 모든 從徒를 命하사 그 곳을 向하여 절하고 마음으로 所願을 告하라 하시며 先生이 人形압해 서시더니 式을 畢함에 무려 가라사대 “누구에게 心告하였나냐” 對하여 가로대 “先生께 所願을 告하였나이다.” 先生이 우스시며 가라사대 “내가 산 祭祀를 바뎛도다” 하시니라.<sup>234)</sup>

② 己酉 節日에 京石이 그 祖先에 享祀하러 하거늘 先生이 그 供備한 饌需를 가져오라하사 여러 從徒들로 더부러 잡수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곳 節祀라” 하시니 그 後로는 매양 節祀와 忌辰을 當하면 天師께 供享하니라.<sup>235)</sup>

③ 하로는 先生이 車京石에게 일너 가라사대 “너는 降靈을 바디야 하리라” 하고 ‘元皇正氣來合我身’을 넘히시며 房門을 열으시니 京石이 문듯 放聲大哭하다가 이윽고 그치거늘 先生이 가라사대 그 우름은 神明에게 罰을 당하는 소리라 하시니라.<sup>236)</sup>

인용문에서 ①과 ②에서 증산은 종도들에게 제사 형식에 따른 의례를 행하게 하고 그 의례가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가르쳤다. 이에 따라 월곡은 증산의 탄강일과 화천일(化天日)에 증산을 기념하는 치성을 봉행하도록 하였고, 보천교뿐만 아니라 증산종단 전체가 이날 증산을 대상으로 치성을 행한다. ③에서 증산은 월곡에게 강령(降靈)을 내려 신성한 종교적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증산이 풍유 또는 암시로써 월곡을 깨닫게 하고자 한 것이다.

① 京石이 이에 하직하고 집에 도라가서 모든 일을 整理하고 六月 一 日에 다시 龍巖里에 와서 先生께 뵈입고 井邑으로 가시기를 懇乞하니 先生이 다시 拒絕하시다가 三日後에야 許諾하여 가라사대 “내가 김흔 목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다가 겨우 벗어나서 발목 물에 當하였는데 이제 네가 다시 김흔 물로 쓸어들린다” 하시니라.<sup>237)</sup>

② 六月에 大興里에 계실 새 公叉를 命하사 各處에 巡廻하여 여러 從徒로 하여

234)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96.

235)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01-102.

236)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50.

237)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88.

금 二十一日間을 잠자지 말고 每曉에 한 時間식만 자라 하시니라. 京石이 여러 날 자지 못함으로 甚히 疲困하여 甞에 昏倒하거늘 先生이 가라사대 “天子를 圖謀하는 者는 다 죽으리라” 하시니라.<sup>238)</sup>

③ 二十四日 早朝에 京石을 불너들이사 흘겨보시며 가라사대 “썩썩치도 못한 것이 무슨 鄭가이나” 하시더라.<sup>239)</sup>

보천교를 제외한 여러 증산종단들은 위 세 인용문에서의 증산의 발언을 통해, 증산은 월곡이 장차 비결서인 『정감록』에서의 정도령(인용문에서 鄭家)처럼 천자를 도모할 것을 예견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증산이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는 결국 월곡은 실패할 것을 말한 것이며, 이에 따라 여러 보천교 이후의 증산종단은 월곡의 쇠망은 증산에 의해 예견된 바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월곡은 증산에게 “유방백세(遺芳百歲)를 못하면 유취만년(遺臭萬年)이 한이로다. 열지(裂地)를 원하나이다”<sup>240)</sup>,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sup>241)</sup>라고 하여 증산의 효유(曉諭)에도 자신의 야망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증산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라고 하며, 동학혁명 때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 소원을 못 이루고 죽은 원혼들의 해원 두목으로 월곡을 삼는다고 하였다.<sup>242)</sup> 곧 보천교 이후의 증산종단은 보천교의 성쇠는 곧 동학의 해원공사이자 난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sup>243)</sup>

네 번째 유형은 월곡 홀로 또는 다른 종도들과 함께 증산의 언설을 듣는 청자로 등장하거나 월곡에게 유문(遺文)을 남겨 그것이 오늘날 전해지도록 한 것이다.

己酉 正月 一日에 玄武經이 脫稿되거늘 安乃成의 집에서 白瓶에 물을 담은 후에 洋紙에 글을 써서 卷軸을 지어 瓶口를 막어 놋코 그 압해 白紙를 깔고 白紙 위에 玄武經 上下篇을 노아두었더니 先生 이 化天하신 後에 京石이 乃成에게 와서 玄武經을 빌어 가면서 瓶口 막은 軸紙를 빼어서 펴여보니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이라는 글이 씌여 있더라.<sup>244)</sup>

238)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75.

239)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8.

24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54절.

24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2장 16절.

24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2장 19절.

24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제4장 2절에 기술하였다.

인용문에서 증산의 친필 서적인 『현무경』과 증산이 종이에 쓴 유문이 월곡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후 『현무경』은 여러 증산종단에서 주요한 수행 및 연구대상이 되었고, 유문은 ‘병세문(病勢文)’이란 이름으로 전해져 신앙인들이 숙지하고 있다.

## 2) 증산의 화천과 초기 교단의 창립

증산은 화천 전 종도들에게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종도들에게 누차 암시하였으며 자신이 없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sup>245)</sup> 또 천하사를 도모하려 지금 떠나려 한다든가<sup>246)</sup>, 자신이 금산사로 들어간다거나<sup>247)</sup>, 이후에 다시 세상에 나타날 때는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사후의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sup>248)</sup> 이 내용을 좀 더 부연하면, 증산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천하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구천의 상제인 증산이 인간의 몸으로 화현하기 전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불에 30년을 영적으로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가 사후에 다시 금산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며, 다시 천상에 올라 옥경에 머물다가 후천개벽 시기에 신선의 모습으로 출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산의 언설에도 종도들은 증산의 물리적 죽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즉 “대개 從徒들은 天下事를 하려는데 危地에 드러가서 죽을지라도 밋겻느냐는 뜻으로 알엇더라.”<sup>249)</sup>라는 기록처럼 죽음을 암시하는 증산의 언급을

244)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5.

245)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34. “또 모든 從徒다려 일너 가라사대 내가 이제 몸을 避하러 하노니 너희들이 能히 찾겻나냐. 모다 對하여 가로대 찾겻나이다. 先生이 가라사대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 할 것이오, 내가 너희들을 차저야 만나보게 되리라.”;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3-244. “二十日에 모든 從徒가 銅谷에 會集하니 先生이 압해 一列로 돌너 안치고 무려 가라사대 너희들이 나를 밋나냐. 모다 對하여 가로대 밋나이다. 또 가라사대 죽어도 밋겻나냐. 모다가 가로대 죽어도 밋겻나이다하니 대개 從徒들은 天下事를 하려는데 危地에 드러가서 죽을지라도 밋겻느냐는 뜻으로 알엇더라.”

246)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4-145. “이 췌에 辛元一이 天師께 告하야 가로대 天下를 速히 平定하시기를 바라나이다. 天師가라사대 내가 天下事를 도모하기 爲하야 只今 췌 나려 하노라 하시더라.”

247)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32. “또 가라사대 내가 金山寺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십 거든 金山寺로 오라.”

248)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1. “하로는 모든 從徒다려 일너 가라사대 나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 後日에 出世할 췌에는 눈이 부시어 보기 어려우리라. 또 가라사대 예로부터 神仙이란 말은 傳說로만 나려왔고 본 사람은 업섯스나 오직 너희들은 神仙을 보리라.”

249)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4.

비유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증산의 화전을 확인한 종도들은 경황실색하거나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였다. 『대순전경』에 기록된 증산의 화전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二十三日에 藥房廳上에 누섯다가 다시 뜰에 누시고 또 사립門 밧게 누섯다가 亨烈에게 업혀서 亨烈의 집애가 누섯다가 亨烈에게 업혀서 亨烈의 집애 누섯다가 다시 藥房으로 도라오사 이럿케 四五次 往復하시니 亨烈이 매우 疲困하거늘 京石이 가름하야 二回를 往復한 後에 또 다섯 사람을 식혀 四肢와 머리를 各各 붓드려 써메이고 藥房으로 가서 누우사 가라사대 죽고 살기는 쉬우니 몸에 잇는 精氣를 훗흐면 죽고 모으면 사나니라 하시며 京石으로 하여금 ‘全羅北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 姜一淳 湖南 西神司命’이라 써서 불살으시니라.<sup>250)</sup>

二十四日 辛丑 巳時에 先生이 亨烈을 命하사 蜜水一器를 가져오라 하사 마시시고 亨烈에게 몸을 의지하시고 溘然히 化天하시니라. 亨烈, 京石 等 모든 從徒들이 先生의 屍體를 房中에 모시고 門을 닫고 나와 歎息하야 가로대 허망한 일 이로다. 大人의 죽음이 엇지 이리케 아모 異狀이 업시 睡眠함과 갓흐리오 하니 문듯 비가 뿌리며 雷聲이 大發하고 電光이 閃爍하시니라.<sup>251)</sup>

기록을 종합해보면, 증산은 화전하기 전날 종도 김형렬의 집과 자신이 열었던 약방을 왕복하다 약방에 와서 누웠으며 1909년 음력 6월 24일 꿀 물 한 그릇을 마시고는 가는 소리로 태을주 주문을 염송하다 화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도들은 크게 탄식하고 흠어들었으며 김형렬, 월곡을 포함 여섯 명의 종도만이 남아 장례를 치렀다. 보천교에서 편찬한 『교조약사(敎祖略史)』에서는 이와는 다른 기록이 엿보이는데, 대부분의 종도가 흠어지고 월곡과 박공우 두 사람만이 장례를 치르고 스승을 산에 매장하였다고 전한다. 또 종도들이 흠어진 이유에 대해 “生存時에 追從하던 弟子가 數十人이지마는 모다 道通工夫 法方이나 得할가는 慾心으로만 相從하다가 不意一朝에 敎祖가 溘然長逝하시니 모다 虛妄하다 하고 散去”<sup>252)</sup>하였고 하면서 다른 종도들을 폄하하고 오직 월곡만이 진실로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증산교사』의 기록은 이와 다른데, “형렬, 경석, 공우 등 삼사인이 남아서 치상하여 구릿골 뒷산 장랫날에 초빈하였

250)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7.

251)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248.

252) 저자미상, 『敎祖略史』, 정음: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6.

다.”<sup>253)</sup>라 하여 3-4인이 장례를 치렀으며 매장이 아닌 초빈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종도들이 증산이 곧 부활을 것을 믿은 점, 증산이 자신의 사후 시신을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라고 한 기록<sup>254)</sup>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초빈이 맞다고 보인다.

증산을 여인 종도들은 크게 낙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였다. 김형렬은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월곡은 집인 대흥리로 돌아가 있다 수시로 비룡산(飛龍山)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부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였으며<sup>255)</sup> 다른 종도들도 의기소침하여 있었다.

증산의 화천 직후 어찌할 바를 몰랐던 종도들은 시일이 좀 지나자 증산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증산을 간절히 그리워하였다. 그러던 중 이해 7월 그믐에 월곡과 김광찬이 김형렬의 집에 방문하고 앞일을 의논하던 가운데 월곡이 “천사(天師)께서 당신이 곧 미륵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화천(化天)하실 때에 금산사(金山寺)로 들어가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미륵전에 참배하여 당신을 대한 듯이 정성을 들여 취할 길을 생각하면 반드시 당신의 감화(感化)를 받아 깨달음이 있으리라”<sup>256)</sup>고 하니 모두 찬성하였다. 일행은 치성물을 준비하여 금산사 미륵전에 들어가 참배를 하고 ‘옥황상제지위(玉皇上帝之位)’라 써서 미륵불상에 붙이고 치성을 올렸다. 치성을 마친 후 위패 종이를 떼어낸 뒤 각기 집으로 돌아가 벽에 위패 종이를 붙이고 정심(正心)으로 증산을 생각하며 정성을 드렸다. 정성 끝에 김형렬만이 신안이 열리며 석가불과 미륵불을 잠시 뵈는 체험을 하였다.<sup>257)</sup>

1910년 증산의 친자종도인 김경학은 노모가 급병으로 사망하자 증산에게 빌며 태을주를 외우자 노모가 기적적으로 회생하였다. 김경학은 ‘태을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라’는 증산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인근 마을의 병자를 태을주로써 치유하여 신의(神醫)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병이 나은 사람 가운데 유의경은 치병 후 김경학으로부터 증산의 신성함을 듣고 김경학과 더불어 금산사 미륵불에 치성을 드렸으며, 이후 태을주를 읽는 것을 포교방법으로 하여 증산의 가르침을 적극 전파하였다.<sup>258)</sup>

253) 이정립, 『증산교사』, 41.

25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35절.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는 묶지도 말고 널 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255) 저자미상, 『敎祖略史』, 607.

256) 이정립, 『증산교사』, 41.

257) 이정립, 『증산교사』, 41-42.

258) 이정립, 『증산교사』, 43-44.

포교가 점차 확산되면서, 증산에 의해 수부(首婦)로 임명된 고판례(高判禮)<sup>259)</sup>를 중심으로 교단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고판례가 증산의 탄생을 기념한 치성 후 증산의 음성과 같은 목소리를 내자 종도들이 그에게 증산의 신령이 접응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과 관련된다.<sup>260)</sup> 고판례는 1912년 음력 9월부터 대흥리에 본부라 할 수 있는 포정소(布政所)를 여니 흠어졌던 증산의 종도들이 모여와 그를 중심으로 교단을 창립하여 포교에 힘썼다. 그 후 교세가 일어나 3년 동안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해 섬 일대에 태을주 소리가 퍼지게 되었다.<sup>261)</sup>

### 3) 월곡의 교권 장악 및 조직 구성

교세가 점차 확대되며 교단의 기초가 확립이 되자 종도들 간에는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증산의 종도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증산이 월곡을 거둬들이는 것을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월곡이 고판례의 신임을 받아 교단의 제반사를 총괄하고 있었지만 일부 종도들은 그가 “가장 젊고 무학하고 한미하고 또 천사께 추종하기도 2년밖에 안되”<sup>262)</sup>었다고 생각하며 월곡을 배척할 마음을 품었다.

또한 차경석도 교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고, 그의 야심을 알게 된 종도들도 월곡을 관(官)에 무고(誣告)하거나 고판례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sup>263)</sup> 우선 김송환이 1915년 전주 일본헌병대에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에 거주하는 차 모의 행한 바를 헌병대장이 아느냐. 멀지 않아 조선을 독립하여 자기가 황제가 된다 하고 농촌 우민(愚民)을 유인하여 금전을 사기하며 음모를 꾀하나, 정읍분대와 천원(川原)파견소는 다 매수되어 별일을 행해도 불문에 부칠 것이니, 헌병대장이 만일 일찍 제거하지 않으면 정부가 위험

259) 증산 당사와 증산 화천 이후 종도들은 주로 고부인(高夫人)으로 칭하였다.

260)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김제: 증산대도회본부, 1963, 25-26.

261)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34.

262) 이정립, 『증산교사』, 52.

263)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34-35. “교단의 기초가 확실히 서게 되고, 교세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본 경석은 가만히 교권(敎權)을 움켜쥐려는 계획을 세워, 먼저 종도(從徒)들과 교도(敎徒)들 사이에 이간(離間)을 붙여 연원(淵源)의 의(誼)를 끊게 하고, 다음에는 부인(夫人)의 법소(法所)에 주렴(珠簾)을 걸어놓고 걸으로는 부인을 높이는 체 하나, 실상은 부인과 참배(參拜)하는 교도들 사이의 간격을 멀게 하니, 이에 종도들은 경석의 야심을 간파하고 모두 분개하여, 더러는 교문(敎門)을 하직하고 물러가서 지방교도들과 연락하여 따로 문호(門戶)를 세우기도 하고, 더러는 경석을 따돌리고 부인의 법소(法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운동을 하기도 하니라.”

증산을 신앙하는 이 초기 교단은 일명 ‘태을교(太乙敎)’ 또는 ‘흙치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이 신도들이 증산이 가르쳤던 ‘태을주(太乙呪)’<sup>269)</sup> 주문을 송독하는 것을 주된 수행 중 하나로 하였는데, 이 태을주에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을교가 처음 언론과 당국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말로 보인다. 《신한민보》 1917년 11월 8일 기사를 살펴보자.

근년 이래 삼남 방면에는 태을교라는 교가 생겨서 그 신앙을 펴므로 그 진보가

269) 『증산천사공사기』에는 ‘흠치흠치 태을친상원군흠리치야도래흠리함리사바야(咄咄咄 太乙天上元君咄哩咄哪都來咄哩喊哩娑婆呵)’로 되어있다.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125. 대순진리회의 태을주는 ‘咄咄咄 太乙天上元君咄哩咄哪都來咄哩喊哩娑婆啊’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

가장 속도가 있는데, 동교의 종지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며 무형의 신에게 복종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인들이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의심하여 동교의 각 처 지회 중 중요인물 80여인을 포박하고 또 엄밀히 주목한다더라.<sup>270)</sup>

그 내용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태을교 신도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일제 당국이 이를 경계하며 여러 지방을 조사하여 중요 인물 80명을 체포하고 엄중히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일제는 증산계 교단을 태을교라 칭하였고 그 교리에 대해서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무형의 신을 섬기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그 교리 및 신앙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일제 당국에 포착되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해당 자료가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1917년 정월에는 경상북도 고령 출신의 교인 3인이 월곡을 만나 경상남북도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이들은 경상남북도에 교인이 많으나 스승의 출입이 없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해 진리를 모르고 자신들도 부족함으로 간부 1인을 파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월곡은 간부 채규일을 파송하였다.<sup>271)</sup>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지방 순회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남주 이정립의 지적대로 “원래 경석이 집을 떠나기는 일본경찰의 주목을 피하는 일면 숨어 있는 도사술객을 찾기 위함이었으므로 도시여행은 피하고 국내 각처의 심산궁국을 편답”<sup>272)</sup>하였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월곡은 교도들이 고판례를 참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9월에 대표자 수인을 선정하여 교무를 균등하게 위임하고, 1917년 10월 4일 유력의 길에 올랐다.<sup>273)</sup>

그는 1917년 12월 강원도 장전항(長箭港)에 도착하였으며 1918년 정월에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간부들을 서울로 불러 회합을 가지고 이듬해인 1919년 4월경까지 서울에서 지냈다.<sup>274)</sup> 그가 서울에 머무르던 기간인 1918년 10월에는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 무장봉기’<sup>275)</sup>라고 알려진 큰 사건이 제주도에서 벌어졌

270) 「三남의 틈을교를 속박, 중요인물 80여인을 포박」, 《신한민보》 1917년 11월 8일. “근년 이력 三남 방면에는 틈을교라난 교가 싱겨서 그 신앙을 펴므로 그 진보가 가장 속도에 잇난디 동교의 종지는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여 무형한 신에게 복종함을 주당하난 것이라. 근일 일인들이 이속에 무엇이 잇난가 의심하여 동교의 각처 지회 등 중요인물 八十여인을 포박하고 또 엄밀히 주목한다더라.”

27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

272) 이정립, 『증산교사』, 73-74.

273)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 이정립, 『천후신정기』, 29.

27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7.



다.<sup>276)</sup> 일제는 당시 법정사 항거가 태을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주목과 감시를 시작하였고,<sup>277)</sup> 태을교에 대해 극히 경계하고 엄중하게 취조 조사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 음력 11월경 제주도 태을교인들의 성금 10여만 원을 모아 목포항으로 들어오던 태을교 간부들이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때 차경석의 아우 차운칠과 더불어 교단의 핵심간부 10여인 구금되어 금전의 용처에 대해 조사받는 등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sup>278)</sup> 태을교를 항일단체로 여겼던 일제 당국은 태을교가 보유한 막대한 자금이 독립운동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시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일로 태을교인에 대한 검거선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주 월곡에 대한 체포령도 떨어지게 되었다.<sup>279)</sup> 그러나 이듬해인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일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무마시켰다. 하지만 엄한 고문 등으로 붙잡힌 여러 간부들은 옥중에서 또는 출옥 후 사망하게 되었으며,<sup>280)</sup> 특히 월곡의 아우인 차운칠도 이듬해 6월에 병사하였다.<sup>281)</sup>

275)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아 2018년 현재 까지 총 1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태을교도가 항일운동의 중심에 있었는지 아니면 불교도가 중심이 되었는데 태을교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인지 이다. 최근 2015년 출간한 논문에서 윤소영은 일본측 자료를 추가하며 태을교 운동이라 주장하였다.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276) 「全南道內 邪敎數와 信徒, 처벌인원 이백스십이인이라는 그 수짜」, 《매일신보》 1921년 5월 6일. “전라남도 관덕에 잇는 모든 교는 대정 삼년 경에 전라북도로부터 드러 오고 쏘는 틱을교 혹은 선도교 혹은 흙치교라 하야 히마다 징가흔는 모양인데 대정 오륙년 경에 선도교는 제주도에서 틱을교 흙치교는 진도 지도(珍島智島) 등의 각□ 방면에 현저히 징가흔 바 이보다 위선 도 당국은 그 박멸의 방침을 흔 결과 종식이 되얏는데 대정 칠년 가을에 제 도의 선도교 도는 국권회복을 방흔고 어리석은 사름을 선동하야 란을 일으키고 그□ 중문리 주지소를 습격하야 불을 노고 던신을 절단흔 사건이 잇섯는데 당시 준렬흔 처분을 하야 도너의 취태를 려힘흔 결과 도너 일반에 병식흔 모양인디 덕정구년 가을부터 다시 머리를 드는 모양이 잇서서 묵흔 엄중히 취태 중인데 경찰부에서 발표흔 대정 십년 일월에 현직 사교(邪敎) 결사의 판명흔 신도슈와 쏘 신청 신도수와 및 처벌인원은 아락와 갓더라(광주)”

277) 「太乙敎徒檢舉ニ關スル件」, 高警 第36610號,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년 12월 26일,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8권, 국사편찬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78) 「執行原簿」,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관리번호 CJA0018944, 1919년 2월 3일; 『刑事事件簿』,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CJA0018852, 1919년 2월 3일;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6a-6b.

279) 이정립, 『증산교사』, 60.

280) 이정립, 『증산교사』, 60-6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7.

28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3a.

월곡은 3.1 운동을 목격하면서 당시 민심과 사회상을 몸소 체험하였고 고종의 국장을 참례하고자 하여 그 발인을 보았다. 그는 북쪽 유람을 마쳤으니 남쪽을 둘러보겠다는 뜻으로 발인 후 경북 봉화 등지로 향하였다.<sup>282)</sup> 그는 3.1 운동 이후 수많은 조선 민중들이 형옥에 시달리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핍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고문(警告文)’을 지어 교도들의 자중을 당부하였다. 1919년 음력 7월에는 강원도 울진군에 머물렀고, 음력 9월에는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에 거처하며 본소로부터 채규일과 김홍규를 불러 교단의 조직화를 상의하였다. 월곡은 이전의 24방주를 늘려 60방주로 확대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간부 임명과 관련하여 천(天)에 치성을 드리는 고천제(告天祭)를 실시하고자 하였다.<sup>283)</sup> 이때 천(天)은 옥황상제인 증산을 의미하므로 고천제는 곧 증산에게 올리는 치성이다. 치성 장소는 경상남도 함양군 덕암리(德庵里) 대항산(大篁山) 기슭으로 정하고 덕암리(德庵里)에 거주하고 있는 교도 2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교주 가로대 “그런즉, 덕암리(德庵里)에 정소를 정하고 일자는 10월 초로 예정하니 그대들은 먼저 출발하여 각처의 교인 중 간부가 될 만한 60인을 선택하여 상기 기일내로 덕암리에 도착하게 하라. 나 역시 기일 전에 당도할 터이니 공심(公心)으로 사람을 보고 훗날에 있어 원망이 없게 하라.” 두 사람이 명을 받들고 각처에 다니며 인원을 선택하였다. 동월 그믐날 정축일에 교주께서 함양군 병곡면 덕암리 서만식(徐萬植) 집에 가셔서 일자를 정하시고 덕암리 뒤 대항산 기슭에 제단 장소(壇所)를 정하였다. 단을 쌓는 공사를 준비할 때 비료에 오염된 부토(腐土)는 다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3층을 쌓고 무명천을 이어 장막을 치고 제수(祭需)를 정결히 하며 폐백을 풍성히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고천(告天)할 새 60인을 3회로 나누어 고명(告名)하시니...<sup>284)</sup>

28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7.

283)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7-8.

28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9a-9b. “敎主曰 然則 德庵里에 場所를 정하고 日字난 十月初 豫定하노니 君等은 先發하야 各處 敎人中 可爲綱領者 六十人을 選擇하야 右 期日內로 德庵里로 抵到케하라. 我亦 期日前에 當到할터이니 公心으로 觀人하야 無有後怨케하라. 二人이 奉命하고 各處에 周行하야 人員을 選擇하다. 同月 晦日 丁丑에 敎主께서 咸陽郡 瓶谷面 德庵里 徐萬植 家에 臨하사 日字를 定하시고 德庵里 後 大篁山麓에 壇所를 定하사 築壇工事를 設備할 새 肥料에 浸漬된 腐土난 盡去하고 淨土로 三層을 埋築하야 白木으로 連幅爲帳하고 祭需를 淨潔히 하며 幣帛을 豐儲히 하야 盡誠告天할 새 六十人을 三回으로 分하야 告名하시니...”

인용문에 의하면, 월곡은 채규일과 김홍규를 시켜 60방주로 임명할 60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1919년 음력 9월 그믐에 덕암리에 사는 교도 서만식의 집에 당도하여 치성일자를 음력 10월 초로 정하였다. 치성 장소로 정해진 곳의 부토는 제거하고 깨끗한 흙으로 3층으로 단을 쌓았으며 무명을 둘러 장막을 치고 정성껏 제수와 폐백을 준비하였다. 치성은 1919년 음력 10월 5일, 7일, 9일 3회에 걸쳐 행하였으며,<sup>285)</sup> 1회에는 수화금목·동서남북·춘하추동에 상응하는 12명을 고명(告名)하였고, 2회에는 24방위에 따른 24명을, 3회에는 24절후에 해당하는 24인을 고명하였다.<sup>286)</sup> 또 각 방주를 보좌할 대리(代理) 1인씩과 각 방주의 하부조직으로 6명을 두도록 하고 이를 ‘육임(六任)’이라 지칭하며 교첩(敎帖)을 지급하였다. 이 교첩에는 중앙 인장(印章)인 교주 직인(職印)을 찍었는데 이 직인은 한 치 닷 분 크기인 원형인(圓形印)으로 외원내방(外圓內方)하고 방형중앙(方形中央)에 ‘토(土)’자를 음각(陰刻)하고 방형 사방에는 ‘무기일월(戊己日月)’의 낙자를 새겼다.<sup>287)</sup> 그 의미는 “戊己난 二十四方之 中央이오. 日月은 二十四節之 紀綱이오 土난 五行之中央이니 卽 六十方主之中央”<sup>288)</sup>이라 하였다. 이는 중앙인장의 소유자인 차경석이 오행 상 중앙이자 24절후의 기강인 일월에 해당하며 곧 60방주의 핵심이자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듬해인 1920년 음력 4월에는 6임 아래에 12임을 두게 하고 또 12임 아래에 8임을 조직하게 하고 또 8임 아래에 15임을 두게 하였다. 따라서 전체조직은 60방주 → 6임 → 12임 → 8임 → 15임의 순서로 조직되며 그 의미에 대해서는 “任命의 制度는 方主 60인에 6任이 6人씩 合 360인은 1年 360日을 應하고, 12任은 1日 12時를 應하니 合이 4,320人이오, 6任은 8刻을 應하니 合이 34,560人이오, 15任은 15分을 應하니 合이 518,400人이오 統計가 557,700人이러라.”<sup>289)</sup>고 밝혔다. 차경석은 이렇게 일 년의 날수와 시간의 수에 간부 인원수를 대비하여 교단의 인적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1916년 말 24방주를 임명하면서 시작한 교단의 조직구성은 이 시기에 그 열개가 완성되었다.

월곡은 이후 전국적으로 성장한 교단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인적 상하조직인

285) 언론에는 양력 10월 13일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風說이 傳하는 太乙敎 4」,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기미(己未)년 십월 십삼일에 경상북도 함양군 대황산(慶北 咸陽郡 大皇山)에서 텃디에 제를 지내고...”

28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9b.

287) 이정립, 『증산교사』, 76-77.

28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1a.

28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3a.

방주제 외 지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1921년 정월 그는 “현금(現今) 교도가 전 조선에 彌滿하여 수백만에 달하나 기관(機關)이 미비하였으니 自今으로 각처에 기관을 설립할 터이니 각도에 정리(正理) 1인 부정리(不正理) 1인과 각 군(郡)에 포장(布長) 1인 부포장(副布長) 1인을 신언서판(身言書判) 위주로 선택하여 금년 추석 전으로 보고하라”<sup>290)</sup>고 하며 지역별 조직 관리를 위한 간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은 박종하(朴鍾河), 전북은 유종상(柳鍾相), 충남은 이상호(李相昊) 등 11명이 11곳의 간부로 임명되었다.<sup>291)</sup>

그러나 이때 일제는 태을교에 대해 취체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마침내 ‘청송사건’이라고 불리는 태을교에 대한 대규모 검거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이는 경북 청송군 경찰서에서 안동의 신도 수백 명이 체포된 사건<sup>292)</sup>으로 이후 체포망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함경도<sup>293)</sup>, 강원도<sup>294)</sup> 지역 등에서 신도 3천여 명이 검거되고 고문치사에 이른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하며 7백여 명이 체포되어 징역, 구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sup>295)</sup> 일제는 이를 기회로 태을교도들에 대한 신법률을 제정하여 방주는 6년, 6임은 4년, 12임은 2년, 8임은 1년 징역으로 결정하고, 15임은 구류·벌금 또는 방면의 처분을 내리기로 정하여 처벌하였다.<sup>296)</sup>

1921년 음력 2월 10일에는 채선묵(蔡善默)과 교단의 재무를 담당하는 김홍규(金洪圭)가 평양역에서 붙잡혀 감옥에 구금되었다. 주요 간부 중 한 사람은 김영두(金英斗)는 이 소식을 듣고 김홍규가 관리하였던 교금 11만 3천 7백여 원을 훔쳤다.<sup>297)</sup> 그는 월곡을 배반하고 교금으로 일부 교도들을 매수하였으며 서울로

29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4a.

29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4a.

292) 「太乙教徒 大檢舉, 안동에서 300명 이상을」,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

293) 「甲子年 三月 十五日에 車皇帝의 出現說로 독립운동을 하라든 선도교도」, 《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

294) 「甲子年을 기약하고 독립운동 태을교도 공소」, 《동아일보》 1921년 10월 7일.

295) 이정립, 『증산교사』, 88-8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4b-15a.

29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4b. 실제 6임이었던 손재봉은 징역 4년에, 12임이었던 김경가·박재광 등은 징역 2년에, 8임인 이기우 등은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다.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991.

297) 이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여러 간부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太乙敎의 陰謀, 이번에 불국되며 중요 간부가 모다 잡혀 엄중 취도를 맞는다, 藏匿金十萬圓發見押收」, 《매일신보》 1921년 10월 29일. “가택을 수직하여 다수의 불온 문서와 및 김홍규의 집마루 밑에 감초아둔 도선은형 지폐 은형씩지 석긴 것 십만칠천칠백오십

올라가 ‘태을교(太乙敎)’라는 간판을 걸고 월곡과 60방주들이 독립운동을 획책하였다고 일본경찰에 고발하였다. 이는 교주 월곡과 60방주들이 모두 일본경찰에 체포된 후 그가 교단을 탈취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298)</sup> 그러나 김영두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경기도 경찰부 촉탁 박경환이 영두 부친의 가택을 수색하여 43,730원에 해당하는 교금을 압수하였다.<sup>299)</sup>

이즈음 월곡은 관헌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운곡리에 사는 교도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경관의 수색을 우려하여 더 깊은 산속인 운곡리 상촌(上村)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소수의 교도들과 함께 우전리(于田里) 이인태(李仁泰)의 집에 머물렀다.<sup>300)</sup> 이 시기 일본경찰의 취체가 극심하여 교조인 차경석도 깊은 산중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 간부와 교도들이 체포되어 종교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

#### 4) 황석산 고천제

월곡은 1921년 음력 9월경 다시 한 번 고천제(告天祭)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기미년 실시하였던 대항산 고천제가 60방주를 임명하는 의례였다면, 황석산 고천제는 ‘교명(敎名) 고천제’라 하여 옥황상제인 증산에게 교단의 명칭을 고하는 의례였다. 월곡은 이 의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힘을 요청하여 교단 안팎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자료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월곡은 옥황상제의 신격으로 신앙하는 증산의 도움을 얻고자 이러한 의례를 실시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하늘에 고하는 ‘고천(告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천(天)의 주재자인 옥황상제 즉 증산에게 기원함으로써 교단 내부를 평정하고 외부적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의례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였다. 제수용 과일의 경우 전년부터 생산지 교인에게 명하여 정결하게 길러 수확하도록 하고, 쌀과 일반 곡류는 산중에 전답을 새로 개간하고 농구도 새것을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하며 분변은

---

원이든 방구리 혼 킨 압수하야 가지고도라왔다는대…티을교도 순연호 미신덕 교의(敎義)이 엿섯스나 대정팔년의 소요 이후 티을교의 주창되는 사립들은 상허림시정부와 연락을 취해야가지고 도선의 독립을 도모하며 모집한 돈은 독립군 자금에 보탬이 스키로 결의하고 김홍규가 보관하게 되야 방구리 속에 너허서 그 교회의 마루 밋해 파묻어 둔일이라.” 이 기사에서처럼 일제는 김홍규가 보관한 교금은 상해임시정부로 보내어 독립자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다고 판단하였다; 「太乙敎의 大金被奪」, 《독립신문》 1921년 11월 11일.

298) 이정립, 『증산교사』, 81-8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5a-19a.

29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9a.

30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8b-19a.

일체 금하며 흰 소금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개간 및 파종 시에서부터 일꾼들은 대소변 후 목욕재계하게 하는 등 청결과 정성을 다하도록 지시하였다. 포묵, 백랍(白蠟), 조리기구, 제기 등도 새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음력 9월 16일에는 김영두 부친과 동생의 고발로 정읍 경찰서 형사들과 경관들이 우전리(于田里)에 출동하여 온 마을을 수색하였지만 마침 월곡이 산기슭에 있어서 그를 포착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또 이때에 일주일간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서 각 방주, 정리, 포장들이 외인의 눈에 띄지 않고 치성장으로 집합하였으며 제수 물품도 모두 도달할 수 있었다.<sup>301)</sup> 23일에는 폐백용 비단 일만 여원 가치 물품을 담당한 임치삼이 무사히 당도함으로써 치성을 위한 제물준비가 완료되었다. 고천제는 1921년 음력 9월 24일(庚申) 거행되었으며 제단, 설위 및 상세한 사항은 『보천교 연혁사』에 기록되어 있다.

제천 단 장소를 덕유산 산기슭 황석산에 정하고 산비탈 수백 평을 평평히 깎아 오좌자향(午坐子向)으로 제단을 쌓을 새, 단이 9층에 높이가 7척 2촌이요, 넓이가 최상층은 사방이 9척이요, 하층은 사방이 15척이라. 매 층에 넓이가 3촌씩 축소하고 제6층은 9촌을 축소하였다. 무명을 연폭하여 사면으로 휘장을 두르고 동서남북에 출입문만 개방하고 공중에 삼으로 만든 줄을 종횡하여 우물 정(井) 자로 구성하고 백랍으로 정제한 등축을 28수(宿)로 높이 걸고 60방주(方主)와 360군 포장(布長) 각각 아래 등축 하나씩 걸고 큰 화톳불에 불을 지피니 화광이 하늘에 이어졌다.

제수는 매 품목의 높이가 1척 9촌이요, 제기를 새로 주조할 시에 각종 물품 담을 기구 개수를 계산하여 사방 9척 제상(祭床)에 꼭 맞도록 만들었고 단상에 일월병(日月屏)을 세우고 신위는 구천하감지위(九天下鑑之位),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位), 삼태칠성응감지위(三台七星應感之位)라고 크게 써서 3위(位)를 설(設)하고 제3층의 한 면으로 예배석을 설치하였다. 신유년(1921) 가을 9월 24일 경신(庚申)일 신(申)시에 교주께서 3층 단상에 올라 제례(祭禮)를 봉행하실 때 분향세작(焚香洗酌)하시니 이때에 흑운이 하늘에 가득하다가 삼태칠성이 홀연이 나타났다.

방주(方主), 포장(布長), 정리(正理)를 차례대로 열 지어 세우게 하니 사람 수는 천 명에 달하였다. 초헌(初獻) 후 독축(讀祝)하고 교명(敎名)을 하늘에 고(告天)하시니 가로대 보화(普化)라 하다. 9헌(獻)에 한 후 폐백을 불사르니 비단과 면 등

301) 보천교중앙총정원, 『보천교지』,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402-403.

이 만여 원 가액이오, 지물(紙物)도 부지기수라.<sup>302)</sup>

위 내용에 따르면, 황석산의 산기슭에 9층 제단을 쌓고 무명을 이어 휘장을 두르며 공중에는 우물 정자의 모양으로 줄을 걸고 28수의 수만큼 초를 켜서 위치(位次)에 맞추어 걸었으며 사방 9척(약 2m72cm)의 제상에 제수를 설위하였다.<sup>303)</sup> 또 60방주와 360군 포장 아래 촛불을 벌려 밝혔으며 신위는 ‘구천하감지위(九天下鑑之位),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位), 삼태칠성응감지위(三台七星應感之位)’<sup>304)</sup>라 써서 설하였다. 월곡은 오후 3시경 1000여 명의 간부들 앞에서 의례를 집전하였다. 초헌 후 축문을 읽고 교명(敎名)을 ‘보화(普化)’라고 하늘에 고하고 9번 헌작 후 무려 만 여 원 어치에 달하는 폐백을 불살라 봉헌하였다.<sup>305)</sup>

이 고천제 이전부터 황석산 천제에 관한 풍설이 전국에 전파되어 있었다.<sup>306)</sup>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 경찰부 소속 형사대가 김영두의 교금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함양 김영두의 가택을 수색하여 교금을 압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과도 관련되어 있었다.<sup>307)</sup> 천제에 관한 풍설<sup>308)</sup>을 들은

30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3a-23b. “祭天壇所를 德裕山 來麓 黃石山에 定하고 山板 數百坪을 鑿平하야 午坐子向으로 祭壇을 築할 새 壇이 凡 九層에 高가 7尺2寸이오 廣이 最上層은 四方이 9尺이오 下層은 四方이 15尺이라. 每層에 廣이 3寸式 縮小하고 第6層은 9寸을 縮小함 白木을 連幅하야 四面으로 帳幔을 圍繞하야 東西南北에 出入門만 開放하고 空中에 麻繩을 縱橫하야 井字로 構成하고 白蠟으로 精製한 燈燭을 28宿로 揭하고 60方主와 360郡 布長 每人 下에 燭一枚式 掛懸하고 巨燵에 執火하니 火光이 連天이라. 祭需난 每品에 高가 1尺9寸이오 祭器를 新造할 時에 各 種物品을 담을 器具 介數를 計算하야 4方 9尺 祭床에 꼭 맞도록 新造하였고 壇上에 日月屏을 立하고 位目은 九天下鑑之位 玉皇上帝下鑑之位 三台七星應感之位라고 大書하야 三位를 設하고 第3層1面으로 禮拜席을 設하고 辛酉年 秋9月24日 庚申 申時에 敎主께서 三層壇上에 登하사 祭禮를 奉行하실 새 焚香洗酌하시니 此時에 墨運이 滿天이라가 三台七星이 忽然出現하다. 方主 正理 布長을 次第로 列立케하니 人數난 千名에 達한지라. 初獻 後 讀祝하사 敎名을 告天하시니 曰 普化라 하다. 九獻에 至한 後에 幣帛을 奉燔하니 細緞綿屬이 萬餘圓 價額이오 紙物도 不知其數라.”

303) 『증산교사』에는 제수에 대한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제수는 소 일곱 마리와 돼지 스물 세 마리를 비롯하여 산해진수(山海珍需)로 한자 아홉치 되는 각 제기에 고배(高杯)로 가득히 쌓았다.” 이정립, 『증산교사』, 84.

304) 이 신위는 증산중단의 공통 주문 중 하나인 ‘진법주(眞法呪)’의 일부와 같다.

30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3b.

306) 「風說이 傳하는 太乙敎 4」,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307) 이정립, 『증산교사』, 85.

308) 일제는 황석산 고천제를 단지 교명을 고하는 의례가 아니라, “교주는 한국 황제의 의관 속대를 하고 금일 천자가 됨으로써 오늘부터 본인을 천자라 칭하고, 국명을 ‘시(時)’로 교를 보화(普化로) 개칭한다고 말하고…”라 하여 월곡이 새로운 국가를 개칭하는 의례라 보

동광회(東光會)라는 단체의 일원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월곡의 교단을 이용하고자 접근을 시도하였다. 동광회 간부 김교훈(金敎燾)과 노병희(盧柄熙) 두 사람은 주요 간부인 동방주(多方主) 이교현(李敎鉉)의 소개로 함양으로 와 월곡을 면회하면서 “비밀포교는 관헌의 오해를 사게 되어 박해를 받기 쉬우니 교의와 포교방법을 공개하고 서울에 본부의 간판을 걸어 교단을 공개하여야 관헌의 박해도 없고 교세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sup>309)</sup>라고 설득하였다. 1915년부터 관헌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고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 몸을 숨기며 종교 활동을 지속하는 등 상당한 고초를 겪은 월곡은 이러한 의견에 일면 동의하면서 “敎난 非一人之敎오 乃衆人之敎어날 衆論을 듯지 아니하고 我가 獨히 處斷할 수 없다”<sup>310)</sup>며 중론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고천제 당일에는 경기도 경찰국 고등과장 후지모토 겐이치(藤本源市)가 파견한 촉탁 박경환과 동광회 김교훈 등이 월곡을 찾아와 교단공개를 권유하였다. 이들은 박경환파와 김교훈파로 갈려 서로 월곡의 신임을 독점하고 교단 공개의 공을 세우고자 암투를 벌였다.<sup>311)</sup>

이러한 권고에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월곡은 25일 밤 처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월곡의 부재를 안 동광회 간부들과 경기도 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그를 포착하기 위해 인근을 수색하였다. 특히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김태석은 각 군 경찰의 후원을 받아 함양, 거창, 산청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월곡을 체포하지 못하였다.<sup>312)</sup> 월곡은 함양군 인근의 교도의 집들을 전전하며 피체(被逮)를 면하던 중 10월에 간부 청음 이상호의 내알을 받았다. 일찍이 청음은 이해 8월 경기도 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sup>313)</sup> 경기도 경찰부의 회유와 권고로 10월에 풀려나게 되었다. 경기도 경찰부 후지모토(藤本) 고등과장은 청음에게 교단의 공개 활동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교주인 월곡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였다.<sup>314)</sup>

았다.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151.) 언론에서도 월곡을 ‘대시국(大時國) 황제’라 칭하였으며 그가 국호와 관제를 발표한다는 풍설이 떠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自稱 大時國 皇帝 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하였다는 풍설」, 《동아일보》 1922년 10월 26일.

309) 이정립, 『증산교사』, 86.

31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4b-25a.

311) 이정립, 『증산교사』, 86.

312) 이정립, 『증산교사』, 88; 「도통을 바든 차경석의 활동」, 《동아일보》 1922년 2월 24일. “...차경석은 작년 구월 이십사일에 함양군 황석산(咸陽郡 黃石山)에 그 교의 임원을 모호고 텃디에 제를 행한 후 드디여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 후 경찰당국에서 크게 수색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더라”

313) 이정립, 『증산교사』, 83.



## 5) 교단의 공개와 성장

1919년 기미년 가을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포교운동이 크게 일어나 교세가 크게 성장하였고 인근 경상도 지역에서도 신도수가 늘어 십여만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제정한 제령 제7호 위반이란 명목으로 신도 3천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수십 명의 신도들이 고문치사를 당하는 등 월곡의 교단은 큰 수난을 겪었다. 특히 김영두의 사건과 황석산 고천제에 크게 자극을 받은 일본 관헌이 전국적으로 신도들을 검거하면서 1922년 봄까지 교단은 큰 수난의 시기를 겪었다.<sup>315)</sup>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호를 통한 교단 공개의 권유는 월곡에게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 명의 방주들과의 격론 끝에 월곡은 교단 공개를 결정하고 그에 관한 전권을 청음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청음은 1922년 2월 서울 동대문 밖 창신동에 여러 간의 집을 매수하여 ‘보천교 진정원(普天敎 眞正院)’이라는 이름으로 교단 사무소를 설치하였다.<sup>316)</sup>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교단의 명칭은 ‘보천교’로 알려지게 되었다.<sup>317)</sup>

그러나 이러한 교단 공개 협력에도 불구하고 1921년 11월 동지 치성제를 거행할 때 전북과 정읍의 경찰서 관원 50여인이 정읍 대흥리 본소를 급습하여 월곡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며 함양과 거창경찰서 또한 연합하여 덕유산과 지리산을 수색하였다.<sup>318)</sup>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熊谷里)에 머물고 있었던 월곡은 4-5인과 함께 험한 절벽을 지나 전북 임실군 상월면(上月面) 상월리(上月里)로 이거하였

31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7b.

315) 이정립, 『증산교사』, 88-89;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618;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陸軍省, 「國權恢復ヲ目的トスル太乙教徒ノ檢舉」、密 제33호 其140, 高警 제13765호, 1921년 5월 10일; 「太乙教徒 大檢舉, 안동에서 300명」, 《동아일보》 1921년 4월 7일; 「仙道를 標榜하는 祕密團體 大檢舉, 선도교도 백여명 원산사에 검거되야 방금 취도하는 중」, 《동아일보》 1921년 4월 26일; 「仙道教의 處罰, 그 일파 이십륙명에 토크한 안동지청의 그 판결언도」, 《매일신보》 1921년 4월 29일; 「國權回復을 目的하는 太乙教徒 大檢舉 강원도 이천에서 십사명 검거」, 《동아일보》 1921년 5월 13일; 「甲子年 三月十五日에 車皇帝의 出現說로 독립운동을 하라든 선도교도 리성린 외 십사명은 공소대기」, 《동아일보》 1921년 6월 22일; 「홍치教徒 106명 言渡期, 오는 26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매일신보》 1921년 11월 23일.

316) 이정립, 『증산교사』, 9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8b.

317) 보천교의 교단 공개에 대해서는 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 26, 한국신종교학회, 2012. 이 논문에서 안후상은 보천교의 공개는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교단 조직을 보호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고천제를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고 보았다.

31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8b-29a.

다.

월곡은 1922년 정월에 임실군 고덕리(高德里)에 거하였으며 방주 몇 명을 불러 교단의 핵심 신조로 12계명(誠命)을 반포하였다.<sup>319)</sup> 12계명은 존상제(尊上帝), 숭도덕(崇道德), 친목동인(親睦同人), 망란음양(罔亂陰陽), 이재공정(理財公正), 절용후생(節用厚生), 불유탄망(不有誕妄), 무위자존(無爲自尊), 막회탐욕(莫懷貪慾), 신물시투(慎勿猜妬), 정직불아(正直不阿), 물훼타인(勿毀他人)으로 즉상제인 증산을 존숭하고 도덕을 숭상하며 교도 간 친목하고 남녀 간 문란하지 않으며 재물을 공정하게 하고 절약하여 생활을 넉넉히 하는 등 증산에 대한 신앙과 생활 윤리를 수행의 주요 덕목으로 세운 것이다. 12계명의 선포는 증산 신앙에 대한 교리를 간략히 표명한 것으로 이러한 교리 표명은 증산종단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1922년 2월에 월곡은 임실군 도덕동 산중에 산막(山幕)을 치고 49일간 기도하기 위하여 입산하여 정성을 드리기를 시작하였다. 며칠이 지나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관리가 산을 포위하였다고 하므로 심상치 않게 여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몸을 피하였다. 3월 하순경 차경석은 차경석은 관현의 체포를 간신히 면하여 전주군 경계 쪽으로 피신하였다가 임실군 운암면 염재 마을과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등을 지나 정읍 대흥리 본소로 이동하였다.<sup>320)</sup> 본소에 돌아온 차경석은 치성실(致誠室)을 짓기 시작하여 5월 보름에 치성실 15칸과 부속 건물 수십 칸이 준공되었다. 남주 이정립은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다.

…삼광영(三光影)이라고 부르고 입암산(笠巖山)을 중앙에 삼성봉(三聖峯)을 왼편에 방장산(方丈山)을 오른편에 그리고 산 위 하늘에 해·달·칠성을 그린 벽화와 목재에 도금(鍍金)한 12층 원형탑과 9층 정방형탑과 7층 칠각탑(七角塔)의 삼위(三位)를 봉안(奉安)하여 이것을 신앙대상으로 하고 정문 위에 호천금궐(昊天金闕)이라는 편액을 그렸다. 이렇게 설비(設備)한 뒤에 크게 낙성치성(落成致誠)을 행하고 이 치성실(致誠室)을 성전(聖殿)이라고 통칭케 하였었다.<sup>321)</sup>

외인들의 시선을 피해 산중에서 숨어 다니던 월곡은 마침내 전국적 교단의 중심지인 대흥리 본소에 도달하였으며 본소에 의례를 시행할 성소(聖所)를 건축한

31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0a.

320) 보천교중앙총정원, 『보천교지』,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407-41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0b-34a.

321) 이정립, 『증산교사』, 103.

것이다. ‘성전(聖殿)’이라고 불리는 이 치성실 내부의 형태는 곧 보천교 신앙의 표상으로, 해·달·칠성과 이것의 상징은 3개의 탑이 보천교 신앙의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원래 청음은 증산의 영정(影幀)을 그려 봉안하자고 월곡에게 역설하였고, 월곡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여 사진사를 금산사로 보내 미륵불을 촬영하여 와서 영정을 그릴 때 참고하게끔 하였으나 이후 뜻을 바꿔 위와 같이 봉안하였다.<sup>322)</sup>

1922년 음력 7월 20일에는 월곡 모친의 장례식이 정읍군 정읍면 삼산리(三山里) 고직동(庫直洞) 촌변(村邊)에서 실시되었다.<sup>323)</sup> 이 장례식에 교도가 무려 십여 명이 참석하였고 예식이 왕자(王者)의 예로 행해졌다. 따라서 엄청난 교금이 소비되었고 이에 방주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크게 조성되었고,<sup>324)</sup> 당시 언론 또한 크게 비난하였다.<sup>325)</sup> 《동아일보》는 이 장례식의 상황, 규모, 모습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보천교의 교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食票만 四十五萬張, 십만원을 드리었다하는 보천교 사모의 장의상보

전라남도 정읍군 립압면(全南 井邑郡 笠岩面)에 잇는 보천교(普天敎) 본부에서 보천교주 차경석(車京錫)의모친 령명대사모(靈名大師母)란 호를 가진 박씨(朴氏)의 장례를…발인하는 행렬은 압호로 좌호당(左護長)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그 다음 우호당(右護長)이 역시 말을 타고 따르고 좌패당(坐牌長) 우패당(友牌長)이 거러서 따르고…그 뒤로 방주(方主)가 룡십인이요 정리(正理)가 십이인이요 부정리(副正理)가 십이인이며 그 뒤로 교도가 수만 명이 따라 오후 일곱시에 묘지에 도착하여 아홉시에 하관하고 십사일부터 분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교도와 구경군이 었던케 만흔지 그 근처 집은 모다 차고 구경군에 대하여 그 교에서는 식표(食票)를 내이어 식사를 공급하였는데 그 식표가 사십오만장이라 하며…<sup>326)</sup>

이렇게 교주의 모친 장례식에 많은 사람과 물자가 집결된 것을 볼 때 당시 보

322) 이정립, 『증산교사』, 103-104.

323)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4a.

324) 이정립, 『증산교사』, 91-95.

325) 「普天敎 聲討 講演, 덕성황중 폐회」, 《매일신보》 1923년 6월 2일. “…또 차경석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그 장례를 도선에서는 보기 드물만한 큰 장례로 그 장례비가 30만 원이라하며 흠예한 사람이 9만여인이라. 이와갓치 자기의 사리(私利)를 욕심하여 엉터리 업는 미신을 일반에게 선전한다고…”

326) 《동아일보》 1922년 9월 19일.

천교의 교인 동원력, 자금력 및 교세는 굉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정읍은 차경석이 일명 대시국(大時國)<sup>327)</sup> 천자로 등극할 것이라는 풍설의 중심지인 성소(聖所)이자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조선의 종교적 중심부였던 것이다.

1922년 음력 11월 동지에 치성을 올린 후 새벽에 총독부 통역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sup>328)</sup>, 전라북도 경찰부 고등과장 키요 하시(幾世橋) 등 경찰 50여명을 인솔하여 차경석을 체포하고자 본소를 급습하여 살살이 수색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차경석은 때마침 교도들이 한 건물의 이영을 교체하고 있는 틈을 타 이영 속에 숨어 겨우 체포를 면할 수 있었다.<sup>329)</sup>

1923년 정월 3일 차경석은 각 중요도시에 진정원(眞正院)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조직을 개편하였다.<sup>330)</sup> 음력 3월 20일에는 경성진정원장 이상호가 사임하고 이종익(李鍾翊)이 취임하였다.<sup>331)</sup> 음력 4월에는 경남 진정원, 평남 진정원<sup>332)</sup>, 제주 진정원 개원식이 거행되었다.<sup>333)</sup> 차경석은 경성진정원에 출판사인 ‘보광사(普光社)’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정립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기관잡지(機關雜誌)인 ‘『보광(普光)』’을 발행하도록 하였다.<sup>334)</sup> 『보광』은 이후 제4호까지 발행되고 폐간되었다. 음력 8월에는 경북 진정원이 대구에 건설되었다.<sup>335)</sup> 경찰

327) 당시 조선에는 차경석이 갑자년(1924)에 대시국(大時國)을 세우고 천자가 되며 신도들은 새 나라의 관리가 될 것이라는 갑자등극설이 유행하였다. 「自稱 大時國 皇帝 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하였다는 풍설」, 《동아일보》 1922년 10월 26일. “전라북도 정읍군(全北 井邑郡)에 근거를 둔 태을교의 교주 차경석(車京錫)은 이번에 새로운 국호(國號)와 관제(官制) 등을 발표하였다는데 국호는 대시국(大時國)이라 하고 자기가 친히 황제가 되고 관제는 한국시대의 대신제도(大臣制度)에 의하여 육임(六任)이하에 이십팔임(二十八任) 육판서(六判書) 등을 두고 십삼도에는 도지사(道知事) 대신에도정리(道正理)를 두고 군수(郡守) 대신에 삼백육십의 포당(包長)을 두고 그 다음 이천오백이십삼 면장(面長)을 둔다하얏스며 국새(國璽)는 대시국황제지새(大時國皇帝之璽)라 하얏다더라.”

328)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에 대해서는 박광현, 「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93-127.

32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4b-35a; 보천교중앙총정원, 『보천교지』, 410; 이정립, 『증산교사』, 104-105.

33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5a-35b.

33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5b.

332) 「普天教 開院式」, 《매일신보》 1923년 6월 4일. “普天教 平南 眞正院에서는 今番 平壤府 薛岩里에 在한 天道敎區室을 8千圓에 買收하여 移轉하고 30日 午後 2時부터 開院式을 舉行하였는데 各 地方으로부터 來參한 敎人은 무려 千餘名에 達하여 大盛況을 모하였더라.”

333)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57-58.

33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6a.

335)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2호, 보광사, 1923, 69.

이 진정원 낙성식을 금지하여 대신 성전봉안식(聖殿奉安式)이 치러졌으며 이 봉안식을 참석하기 위해 1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대구달성공원에 운집하였다.<sup>336)</sup> 음력 9월에 이르러 본소 내 총정(總正) 총령(總領) 양원(兩院)을 설치되고 총정원장은 채선묵(蔡善默), 총령원장으로는 이상호(李祥昊)가 선임되었다.<sup>337)</sup> 총정원은 60방주 조직을 관장하여 교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총령원은 각도의 진정원을 통괄하는 협의적 성격의 기관이다.<sup>338)</sup> 음력 10월에는 전주에 전북진정원과 대전에 충남진정원 그리고 춘천에 강원진정원이 개설되었다.<sup>339)</sup> 차경석은 음력 11월에 부인방위(夫人方位)를 따로 조직 즉 여성 교도들을 간부로 임명하여 자신의 부인인 이씨(李氏)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였다.<sup>340)</sup>

1923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국적으로 진정원이 설립되어 교단의 교세가 크게 번창하였고 교단지가 발행되면서 교리의 확산과 교도들 간 교단 소식을 공유될 수 있었다. 또한 교단의 비대화와 상응하여 조직체계가 더욱 정비된 시기이다.

## 2. 시대일보 사건

식민지 치하에서 언론은 피지배민인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하고, 민족운동의 소식을 전달하거나 민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민족운동을 지원하며, 민족의 사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언론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역할

336) 「眞正院開會式」, 《매일신보》 1923년 10월 3일. “今年 春間부터 大邱達城公園 前에서 建築工事 中이든 普天教 慶北眞正院은 今回 落成을 告하야 本月2일 正午부터 前記 達城公園 內에 開院式을 舉行하였는데 當日은 當地 官民 有志 全部를 招待하고 本道內 各處에 散在한 教徒 3萬餘名 中 1萬餘名이 會集하였더라.”; 「數萬餘名 髣有者가, 보턴교 진정원 기회식 거행차로 경북달성공원에 모혀드려」, 《매일신보》 1923년 10월 4일; 「경북진정원 낙성식을 경찰이 금지하여」,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337)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6a.

338) 이정립, 『증산교사』, 107.

339)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3호, 보광사, 1924, 63; 「全北 眞正院 落成式」, 《매일신보》 1923년 12월 2일. “普天教에서는 全州 完山 下에 全北 眞正院을 新建築키 爲하야 工費 3萬圓을 投하야 大大的 起工하야 百餘間을 新築하여 今間에 竣功하였습므로 30日(陰10月22日) 午後 2時부터 落成式을 盛大히 舉行한다더라.”; 「普教眞正開院」, 《동아일보》 1923년 12월 8일. “普天教 忠南眞正院에서는 今月 四日에 開院式을 舉行하였는데 大田署長及 有志諸氏와 各 新聞記者 五十餘의 來賓과 七百의 教徒 會集裡에 式을 마친 後 食堂에 移하였다가 午後 四時에 散會하였더라.”

340) 이정립, 『증산교사』, 108.

을 하였다.<sup>341)</sup>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제 병합한 뒤 1910년대 내내 어떠한 민간 언론도 남겨놓지 않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남겨놓는 언론 탄압 정책을 취하였지만,<sup>342)</sup> 3·1운동 이후 사이토 마코도(齋藤實) 조선총독의 문화정책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19년 가을 한글신문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당시 발행허가를 받은 신문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의 3종이었다.<sup>343)</sup>

시사신문에 이어 등장한 신문이 바로 시대일보였다. 시대일보는 1924년 3월 31일에 창간되었으며 사장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었고 편집국장은 진학문(秦學文)이 맡았다. 또 안재홍(安在鴻)이 논설반과 정치부장을 담당하였고 염상섭(廉相涉)이 사회부장을 하였다. 이 시대일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더불어 1920년대 민간 3대 신문지 중 하나로 위상을 차지하며 조선의 언론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344)</sup>

그러나 시대일보는 당시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부사장으로 있었던 이득년(李得年)은 보천교 경성진정원장 이종익(李鍾翊)을 방문하여 시대일보가 경영난에 빠져있으니 보천교에서 출자하여 경영을 맡아 달라고 권고하게 되었다.<sup>345)</sup>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보천교는 시대일보사를 인수하고자 하였는데, 이 일은 당시 언론과 일제 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10여건의 비밀문서가 전해진 것으로 볼 때, 당시 일제 당국은 보천교의 시대일보 인수 및 경영 문제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정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비밀 문건은 발신자가 경성 종로경찰서장 또는 경성 본정경찰서장, 수신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으로 되어 있는 문건과 발신자가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수신자는 법무국장 또는 법원국장으로 되어 있는 문건이다. 즉 일제의 경찰 당국은 당시 거대 종단인 보천교가 언론기관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정찰하여 검사국에 보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 특히 동아일보도 이 일을 매우 주목하여 1924년 6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5건의 기사를 쏟아 내었다.

그 상세한 경과를 일제가 작성한 비밀문서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재구성해보고

341) 박찬승, 『언론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5.

342) 박찬승, 『언론운동』, 18.

343) 박찬승, 『언론운동』, 79. 《동아일보》는 1920년 1월 4일에, 《조선일보》와 《시사신문》은 1920년 1월 5일 발행허가를 받았다.

344) 박찬승, 『언론운동』, 99.

345) 이정립, 『증산교사』, 109.

자 한다. 이 문건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24년 6월 10일 경성 종로경찰서장이 작성한 문서<sup>346)</sup>에서, 1924년 4월 말 즈음 보천교 경성진정원장 이종익(李鍾翊)과 간부 이종승(李鍾昇), 고용환(高龍煥) 등이 모여 보천교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악평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보천교가 시대에 역행하고 민중의 고향을 착취한다고 하는 것이 당시 민중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며, 이러한 악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천교를 선전할 만한 신문사를 경영하여 민족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던 차에 시대일보사의 최남선 사장과 서상호(徐相灝) 전문취체(專務取締)와 접촉을 하게 되고, 시대일보의 인수에 관한 논의를 6월 3일 당시 남대문의 유명한 음식점인 식도원(食道園)<sup>347)</sup>에서 진행하게 되었다.<sup>348)</sup> 협의 내용은 시대일보는 편집 및 발행권을 보천교에 완전히 양도하고, 먼저 보천교 측에서는 최남선과 편집국장인 진학문이 주간동명(週刊東明)을 경영할 때 생긴 부채금 1만원을 지불하는 것이었다.<sup>349)</sup> 또 주식을 발행하여 절반은 보천교가 절반은 시대일보측에서 부담하며, 주식조직이 성립 될 때 1개월 내로 다시 경영비로 보천교측에서 1만원을 지불하는 것이었다.<sup>350)</sup>

종로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청년총동맹, 노동총동맹, 서울청년, 신흥청년 등 전 조선의 중요한 사상단체들이 염탐하여 알게 되었고 이들은 조선의 대표적 언론사인 시대일보를 보천교와 같은 미신 단체가 경영하여 민중을 잘못 이끌게 할 수 없다며 토의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당시 사상단체의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sup>351)</sup>

종로경찰서에서 6월 14일 작성한 비밀문서에 따르면, 보천교 본소의 간부인 총령원장 청음 이상호와 춘방주 이달호 두 명이 경성에 들어와 시대일보측의 최

346)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對普天教ニ對スル思想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447호의 2, 1924년 06월 10일.

347) 《매일신보》에는 최남선의 집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48)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對普天教ニ對スル思想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447호의 2, 1924년 06월 10일.

349) 「活氣에 甦生한 時代日報社, 새로운 자본주를 마져 경영방침이 영구 완성, 今後 普天教 幹部가 經營」, 《매일신보》 1924년 6월 24일.

350)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對普天教ニ對スル思想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447호의 2, 1924년 06월 10일.

351)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對普天教ニ對スル思想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447호의 2, 1924년 06월 10일. 실제 6월 24일 《매일신보》의 보도 이후 3일 후인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지역 유지 40여명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時代日報社와 일부유지의 의론」, 《동아일보》 1924년 6월 27일.

남선, 진학문 등과 만나 상의하였다.<sup>352)</sup>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자 시대일보사 기자 주종건(朱鍾建), 최원식(崔元植) 등 4명이 정읍 보천교 본부로 급히 내려가 정읍에 머물며 계약을 해제할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보천교측에서는 이를 단연히 거절하였으며, 진학문에 의해 발행권은 보천교측 구체적으로 남주 이정립 등의 명의로 이전되었다.<sup>353)</sup>

그러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사(理事)였던 신석우(申錫雨)는 이에 반발하여 전 사원을 대상으로 사우회(社友會)를 조직하고 “이 신문을 한 단테의 괴관지로 양도할 수는 도저히 업스니까 결코 내놔치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sup>354)</sup> 남주의 기록은 이와 다른데, 최남선이 부호(富豪)인 신석우(申錫禹)와 결탁하여 보천교를 거부하고 판권을 회수할 것을 성명하고 신문지상에 보천교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신석우의 한자 성명과 신분 등 관련 내용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sup>355)</sup>

위와 같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발행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자, 7월 14일에는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가칭 ‘시대일보사건 토의회(時代日報事件 討議會)’라는 명의의 회의 단체가 조직되고 결의문이 작성되었다.<sup>356)</sup> 결의문의 내용<sup>357)</sup>은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이 보천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보천교의 경영 반대를 위해 전 조선 각 방면 단체와 연합하여 성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시대일보 각 지분국장들도 상경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안을 작성하고 그 결의를 실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다. 이 위원들은 7월 19일 경성 보천교진정원에 항의 방문하였으며 청음 등

352)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教會及時代日報社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594호의 2, 1924년 06월 14일.

353)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ニ對スル普天教ノ態度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8577호, 1924년 07월 6일; 《동아일보》 1924년 7월 10일.

354) 「時代日報 發行權은 普天教 方主에게」, 《동아일보》 1924년 7월 10일.

355) 이정립, 『증산교사』, 110.

356) 「時代日報 討議會 발행권이 보천교로 넘어감을 절대 반대키로 결의」,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

357) 《동아일보》 1924년 7월 16일. “一, 우리는 社會의 公器인 新聞이 宗門이나 個人의 專有機關이 되는 것이 社會에 害毒을 遺함이 多大함을 認하고 今番 時代日報가 普天教의 手中에 歸함을 絶對로 反對함. 一, 萬一 普天教徒가 時代日報 經營을 固執할 時は 大衆과 此를 分離키 爲하야 全 朝鮮 各 方面과 連絡하야 普天教의 行動과 及時代日報 紛糾責任者를 聲討하야 社會的으로 埋葬함. 一, 右聲討는 普天教徒가 時代日報 編輯 兼 發行權을 紛糾의 責任者를 除한 同社友會와 及同社前 發起人會에 無條件으로 引渡하는 與否를 보아서 그 實行方針을 決定함”



과 만나 교섭을 시도하였다.<sup>358)</sup>

8월 5일에는 제2회 ‘시대일보사건 토의회’가 열렸다. 회의에 팔십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 결의문<sup>359)</sup>을 작성하였으며 회의의 명칭도 ‘보천교성토회(普天敎聲討會)’로 변경하였다. 즉 보천교의 시대일보 경영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보천교 자체의 박멸을 성토했기에 이른 것이다.<sup>360)</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보천교측은 8월 10일에 시대일보 경영과 관련하여 임경호가 주재하여 발기인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참석인원, 회의 내용 및 안건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회의에서 이사진과 감사를 선정하고 창립비를 가결하였으며 정관 설립을 추진하였다.<sup>361)</sup> 《동아일보》도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정립 외 6인편으로 이전된 시대일보 발행권을 발기인 회로 넘기고 기존의 사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 전 사장 최남선과도 관계는 끊지 않고 편집국장 및 회사 임원을 물색 중이며 2주일 후 속간한다고 하였다.<sup>362)</sup>

경성 본정경찰서장의 기록에 의하면, 9월 1일 시대일보사 사원회에서 9명의 속간위원을 결정하고 다음날인 2일에 속간 공고를 내며 3일부터 속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시대일보 사원측에서는 방두환, 주종건, 염상섭, 최원식, 박찬희 등이 갑이 되고 보천교측에서는 이정립, 이달호, 문정삼, 김홍규, 이상호 등이 을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은 첫째, 시대일보는 경영재단조합 혹은 주식회사제로 운영하며 둘째, 재단 불입금은 25만원으로 하되 갑이 15만원, 을이 10만원을 출자하고 셋째, 이정립 명의의 편집발행권은 재단성립 시 재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다.<sup>363)</sup> 종로경찰서의 기록에는 이상호 외 2명이 월곡에게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으려고 정읍의 본소를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

358) 「時代日報社 支分局長 決議 위원 열명도 선명」, 《동아일보》 1924년 7월 20일.

359) 《동아일보》 1924년 8월 7일. “一, 普天敎의 本體과 및 그 罪狀을 全國的으로 調査하여 根本的으로 撲滅할 일. 二, 普天敎 및 時代日報事件에 關聯된 惡分子를 調査하여 社會的으로 埋葬할 일. 三, 普天敎를 根本的으로 撲滅하기까지 常設執行機關을 置할 일.”

360) 「時代日報 討議大會 보천교의 성토회로 변하여」, 《동아일보》 1924년 8월 7일.

361) 경성 종로경찰서장, 「株式會社時代日報社發起人會狀況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3, 1924년 08월 11일;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社第一回理事會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4, 1924년 08월 11일.

362) 「時代日報는 二週日 後에 續刊」, 《동아일보》 1924년 8월 12일.

363) 경성 본정경찰서장,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本高秘 제6894호, 1924년 9월 2일; 「續刊되는 時代日報 보천교와 사우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동아일보》 1924년 9월 3일.

다.<sup>364)</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천교의 시대일보 경영은 실패하게 되고 이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청음과 남주 형제는 교주인 월곡으로부터 파면의 조치를 받았다. 표면상의 이유는 보천교와 시대일보 사이의 계약이 교규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으나,<sup>365)</sup> 교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청음에 대한 월곡의 견제 심리와 1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었다고 보인다. 청음의 교단 내 위상을 상술하자면, 당시 월곡 아래에 최고간부 60방주가 있고 이 60방주 중 총령(總領)이 8인, 총정(總正)이 4인이 있으며 기관으로는 총정원과 총령원의 두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의 장으로 총정원장과 총령원장이 교주 아래 최고 집행기관인데 바로 청음이 총령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또 청음은 교단 내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이종익, 주익, 고용환 등 민족주의 인사들을 휘하의 교인으로 두고 있는 등 교단 내 월곡 다음가는 이인자로서의 명망을 지녔었다.<sup>366)</sup> 따라서 청음이 언론기관을 주관한다면 교단 내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를 시기하던 여타의 간부들과 월곡은 청음을 배척하려는 뜻이 통하여 결국 파면 및 출교 조치를 한 것이다. 청음의 파면 조치와 관련하여 보천교 본소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청음을 비난하였다.

同年 6월에 李祥昊가 京城으로부터 來言하되 時代日報社가 現今 資金이 不足하여 廢業의 境에 陷하였으니 敎中에서 金2萬圓을 出資하여 이를 續刊하면 彼我間에 好方針이 有하다 云함으로 敎中에서는 社會事業 機關의 失敗됨을 愛惜하여 此後 繼續할 人이 有하기까지 援助 扶持하도록 하리라는 公共心으로 右金을 出資하였더니 李祥昊는 其弟 成英을 編輯局長으로 總督府에 届出하여 許可를 得한 바 李祥昊, 李鍾翊, 李成英, 林敬鎬가 自黨群을 作하여 或은 社長 或은 重任을 貪하여 新聞社 機關의 全權을 点據코져 互相 爭鬭함으로 失敗에 至하다....

364)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18, 1924년 9월 2일.

365) 「時代日報가 導火線으로 普天敎 幹部間 內訌 시대일보와 계약행위가 교규에 어긋났다고 리상호씨와 현 발행인 리성영씨는 파면되여」, 《동아일보》 1924년 9월 11일.

366) 차경석은 1921년 일제의 검거선봉으로 신변이 위협받게 되자 이정립의 권유로 만주로 외유를 떠나고 이상호를 부교주로 세울 계획을 세웠고 이 일의 가부를 정리총장(正理總長) 노좌대(盧左大)에게 물었다. 이에 노좌대는 “상호 형제의 세력이 온 교단의 삼할을 차지하였는데 만일 상호를 부교주로 임명하여 온 교단을 통솔하게 하고 선생은 성영을 데리고 외유하시면 그 형제 안팎에서 호응하여 전권용사하리니 선생의 지위가 위태할지라...”며 교단 내 이상호 세력이 막강함을 말하였다. 노좌대의 말을 옮긴 차경석은 외유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정립, 『증산교사』, 1977, 102-103.

年 8월에 至하여 敎中에서는 祥昊 等の 野心을 探知하고 重罰의 科에 付하였다. 祥昊는 本是 社會出脚者로 敎를 爲하는 公共心 無하고 肥己心이 多한 人이라. 京城 諒解時에도 敎主에 대한 逮捕令과 各 方主의 逮捕狀은 取消하도록 周旋한 것이 無하고 自身만 活動하기 便宜하도록 周旋하였으며, 金烘圭 等 逮囚 事件에도 何等의 周旋力이 無히 度外에 置하였고, 敎中 公金 4萬餘 圓 押收 事件에도 何等의 周旋力이 無하다가 境히 國庫로 編入이 되었고, 또 京城 嘉會洞과 昌信洞 眞正院 家屋 及 垞地를 저의 單獨名義로 證明權을 總督府에 屈出하여 所有를 만드렸으며, 또 妄히 敎主 繼統을 夢想하다.<sup>367)</sup>

내용인즉, 보천교 본소 측에서는 시대일보사가 폐업됨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원조하려는 뜻에서 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청음은 독단으로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아우인 남주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또 청음과 그를 따르던 간부들은 서로 신문사의 권한을 차지하려고 싸우다 결국 시대일보 인수를 실패하였다며 그 책임을 전부 청음 등에게 전가하였다. 그리고 보천교 본소 측은 청음이 다른 간부들이 투옥 중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경성의 진정원의 토지와 가옥 등을 교단 재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하는 등 교단을 위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라 비난하였다. 심지어는 그가 월곡을 대신하여 교주가 되기를 도모하였다고 힐난하였다. 그렇다면 청음·남주 형제는 어떤 입장이었던 것인가? 남주의 기록을 살펴보자.

…삼월에 상호가 상경하여 최남선을 만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경영비 3만 원과 판권대금 1만2천 원을 교단에서 부담할 것과 석 달 동안에 교단에서 10만 원을 조달하고 남선이 10만 원을 조달하여 주식회사를 조직하여 시대일보를 경영할 것을 계약하고…이성영 명의로 판권 명의 변경서류를 받은 뒤에 본소로 돌아와서 방주들을 동원하여 자금조달 운동을 일으켰다. 십여일 후에 남선은 부호 신석우(申錫禹)와 결탁하여 보천교 재단을 거부할 것과 판권을 회수할 것을 성명하고 신문 지상에는 보천교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었다. 상호는 상경하여 남선에게 그 진상을 질문하려 하나 남선이 행방을 감추어…드디어 단독경영을 결의하여 판권 명의 변경수속을 행하고 인하여 한 달 동안 휴간하였다. 시대일보사가 휴간됨에 사원일동이 결속하여 남선을 공격하고 성영에게 판권의 무조건 양도를 요구하여 쟁론이 크게 일어났었다. 이때에 경성진정원에 와서 머무르던 경방주(庚方主) 이 달호는 상호가 처사를 잘못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비밀히 경석에게 통지

367)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8a-38b.

함에 경석과 방주들이 모두 상호를 비난하게 되게 되고 인하여 자금조달이 뜻과 같이 되지 못하게 되니 상호는 자금이 없어서 신문경영을 단행할 수도 없고 교단에서는 비난이 더욱 높아가는 중대한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경석이 전책임을 상호에게 돌려버리고 교단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궁책이었다.…상호와 성영은 즉석에서 방인(方印)과 방철(方鐵)을 달호에게 내어 주고 그 뒤에 판권은 남선에게 돌려 주어 버렸다.<sup>368)</sup>

남주의 주장은 최남선이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판권 회수를 표명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어쩔 수 없이 단독 경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시대일보 사원들이 일어나 최남선과 보천교측을 공격하였고 일이 복잡해지자 간부 이달호는 사태의 책임을 청음에게 돌리며 교주 월곡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에 월곡은 청음과 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을 교단에서 축출하여 버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동아일보》도 청음·남주 형제의 파면에 대해 크게 놀라며,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보천교의 시대일보사 인수 배경 및 실패 그리고 두 형제의 파면에 관한 연재 기사를 작성하였다. 기사에서 보천교는 세상의 공격을 막고 문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청음을 중심으로 신문사를 경영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월곡이 “그러케 말성이 만커던 내주어 버리어라”<sup>369)</sup>하여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 간부들의 인터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달호는 “…리상호씨는 여러 사람이 처리한 일을 그 동생과 함께 방자하게 고치어 조인을 하엿슴으로 대내(對內)문제로 그를 책벌하여 파임을 식인 것이요…”<sup>370)</sup>라 하여 청음·남주 형제의 방자함이 파면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남주는 이런 파면 조치에 대해 “…물론 교주가 파면한 줄 확실히 아랫기 때문에 당한 것이지요 만일 다른 사람이 그리하였다면 결단코 당치도 아니하였을 것이요…”<sup>371)</sup>라며 직접 교주가 파면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파면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분개하였다.

월곡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망만 높이며 교주의 자리와 권위를 위협하고 교단의 사회적 위신을 떨어뜨린 청음과 그의 세력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청음의

368) 이정립, 『증산교사』, 109-111.

369) 「普天敎 幹部間 內訌의 裡面(一) 世評을 막을 事業 무엇이냐 해보려든 차에 시대일보를 맞게 된 동기」, 《동아일보》 1924년 9월 12일.

370) 「시대일보와 계약행위가 교구에 어긋었다고 리상호씨와 현 발행인 리성영씨는 파면되여」, 《동아일보》 1924년 9월 11일.

371) 「시대일보와 계약행위가 교구에 어긋었다고 리상호씨와 현 발행인 리성영씨는 파면되여」, 《동아일보》 1924년 9월 11일.

입장에선 기관 언론의 소유를 통해 세간의 악평과 비난을 불식하여 하나의 현대적 종교로서 조선 사회에 안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던 자신을 옹졸한 교주인 월곡이 믿지 않고 도리어 저버린 것이다.

이 일로서 월곡과 청음은 결별하여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두 사람 간의 결별은 단지 두 사람만의 분리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청음은 보천교 내 지식인의 대표 인물이었기에 이후 보천교는 청음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계층의 신파와 월곡과 정음의 보천교 본소를 중심으로 하며 농촌 계급을 위주로 하는 구파로 나뉘게 된다.

### 3. 보천교 혁신운동

시대일보 사건으로 인해 청음과 남주 형제는 보천교 본소 측 즉 교주 월곡으로부터 파문 및 출교의 처분을 당하였다. 일제가 생산한 공문서를 보면, 청음은 시대일보사의 인수 및 경영 건을 추진하면서 정음 본소를 왕래하면서 월곡과 상의하며 일을 처리하였지 그가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up>372)</sup> 또 일의 진행과정에서도 교단 내 청음의 대표적 경쟁상대인 문정삼 외 다른 간부들이 참여<sup>373)</sup>하였기에, 인수 실패의 책임을 청음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시대일보사 인수 실패가 보천교에 대한 악평, 사회단체들의 성토, 시대일보사 직원들의 집단 반발, 경쟁 간부들의 시기심에 따른 고변, 월곡의 경계심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 청음·남주 형제의 잘못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월곡이 시대일보사 인수 실패의 원인을 두 형제에게만 전가하고 최대의 중벌이라 할 수 있는 교직의 파면과 출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한 조치임에 분명하다. 그만큼 월곡이 청음을 시기하고 경계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372)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教會及時代日報社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594호의 2, 1924년 06월 14일; 경성 종로경찰서장,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18, 1924년 9월 2일.

373) 경성 본정경찰서장,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本高秘 제6894호, 1924년 9월 2일; 《동아일보》 1924년 9월 3일. ‘續刊되는 時代日報 보천교와 사우간에 원만한 타협으로’

청음은 출교 후 남주와 자신들에게 속한 간부 15명과 함께 단결하여 보천교 본소에 반기를 들며 보천교 개혁운동을 일으켰다. 일제는 공문서에서 이 운동을 ‘보천교 혁신운동’이라고 칭하며 그 경과와 내막을 기록하였다.<sup>374)</sup> 또 당시 언론도 ‘보천교 혁신회’, ‘보천교의 내홍’, ‘신구 양파로 분한 내홍’ 등의 제목으로 상당한 기사를 생산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공문서인 『普天敎一般』과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에 의하면, 보천교 혁신파 이른바 보천교 신파는 1924년 9월 14일 경성 동대문 밖 내정원(內正院)에서 보천교 혁신운동의 방법과 제반 사항을 협정하였다.<sup>375)</sup>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날 김지건(金志建)의 사회로 보천교 혁신회 발기회를 열었고 주익(朱翼)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종익, 고용환, 이명섭(李命燮), 박영호(朴英浩), 김유경(金有經) 등이 주요 인물로 참석하였다.<sup>376)</sup> 주익은 개회사에서 “보천교가 지금으로부터 십륙년 전에 교조 강증산(姜甌山)이 교를 창설한 이래로 여러 가지 파란을 겪고 그 후 차교주가 대를 이어 비밀히 교를 전파하다가 세상에 나타나기는 지금으로부터 삼년 전이라. 그러나 근일에는 교조가 창설한 교리에는 위반되는 미신과 사설로 인민을 속하여 금전을 구취하여 부당히 쓰고 시대와 배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격이 자심해야 그대로 두면 보천교는 금년으로써 운명이 다하겠으므로 우리는 혁신회를 발기한 것”<sup>377)</sup>이라며 보천교 혁신의 취지를 밝혔으며, 보천교 혁신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박멸운동까지 시도하겠다고 하였다.<sup>378)</sup>

다음날인 15일 경성진정원에 ‘보천교 혁신회 공정(普天敎革新會公庭)’이라는 간판을 걸고 전라남도, 제주도, 평안북도 평양 지방의 진정원장 이하 임원 및 교도들에게 전보를 보냈다. 9월 16일에는 동일 장소에서 혁신회 발회식을 거행하면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sup>379)</sup> 『普天敎一般』과 『洋村及外人事情一覽』에는

374)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M2-100, 1924.

375)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95-96;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549-550; 「撲滅을 自唱하는 普天敎의 內訌, 혁신하지 안하면 업새자고 신구파가 난후여 야단법석」,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

376) 「撲滅을 自唱하는 普天敎의 內訌, 혁신하지 안하면 업새자고 신구파가 난후여 야단법석」,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 「普天敎 革新會 新舊 兩派로 分한 內訌 계급타파와 시민배척 문데로」, 《동아일보》 1924년 9월 17일.

377) 「普天敎 革新會 新舊 兩派로 分한 內訌 계급타파와 시민배척 문데로」, 《동아일보》 1924년 9월 17일.

378) 「撲滅을 自唱하는 普天敎의 內訌, 혁신하지 안하면 업새자고 신구파가 난후여 야단법석」,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

379)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95-96;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선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보천교 연혁사』, 『증산교사』 등의 문헌에서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고만 기록하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않았다.

그러나 1924년 9월20일 종로경찰서장이 작성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비밀문서<sup>380)</sup>에서 이 선언문 원본이 실려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언문은 청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천교 신파의 보천교에 대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또 선언문의 내용을 통해 당시 강력한 세력을 지녔던 보천교가 쇠퇴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즉 일제 권력의 탄압이라는 외적 원인 외에 보천교 자체가 지녔던 모순점 다시 말해 내적원인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래의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천교가 상생해원의 교의와 선경건설의 이상으로써 교문을 세운지 이제 21년이 되었으며 모든 전통적 도덕, 인위적 죄악 하에서 고뇌하던 대중이 날로 귀의하여 발서 백만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보천교의 진정신은 의문에 가리우고 허위환영이 도장을 封碍하여 교의 운명이 조석에 달니었다 불지어다. 전제적 교법과 계급적 제도는 봉건시대의 유풍을 踏襲한 것이며 음양, 오행, 비결, 부록 등 미신사설은 □□천공의 마법을 傳鉢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신문화는 저주하여 黔首를 愚昧케 함과 민중의 고혈을 착취하여 소수자의 사복을 충비함과 하등의 주의주장이 업시 다만 명수를 惑信하여 행운의 자치를 망상하는 등 모든 추태, 온갖 악행이 실로 금일 보천교의 특징이며 진상이다. 이제 그 내부의 □□을 개괄적으로 말하면

1. 專制 壓迫하에 언론이 杜塞되고 인권이 蹂躪될 뿐 아니라...

7. 후천에는 모다 도통이 된다고 교육을 부인하여 교인의 자녀로 하여금 학교에 취학을 금지하고 신문을 배척하여 사회의 원시상태에 퇴화를 열망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중 소수의 간흉이 중앙 성사의 총명을 가리우고 교령을 矯發하여 교중을 기망함에서 유생한 결과이다. 슬하다 우리 백만 대중은 그 횡포한 전제, 계급, 미신의 질곡 하에서 양심이 마비되고 자유가 상실되고 인류로의 전권리, 전 명예가 混土갓치 유린될 뿐 아니라 사회 진화의 도정에서 참연히 退嬰적 원시적 특수 부락민이 되었으며 그 很毒한 사기, 약탈의 마수 하에서 소유의

549-550; 「撲滅을 自唱하는 普天敎의 內訌, 혁신하지 안하면 업새자고 친구파가 난후여 야단법석」, 《시대일보》 1924년 9월 17일.

380)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敎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토지가옥을 모조리 팔어 바치고 饑饉, 질병에 물니어 부모처자가 서로 붓잡고 도로에 방황하게 되었다. 아 이것이 무삼 죄악이며 엇던 참상인가. 우리 백만 대중은 과거 □다성로에 교운의 융창을 위하여 쏘는 자신 미래의 복지를 위하여 悲風慘雨에 □落하고 □산고해를 □섭하얏스나 모든 희망과 모든 노고는 수포에 도라가고 최후의 소득은 기아와 질병과 세인 조소의 재료 뿐이다. 천지가 광막하나 우리의 갈 곳이 어디이며 우리가 굶어 죽은들 동정의 눈물을 뿌리주리 누가 잇스랴.

보천교가 이 갇힌 현상대로 존속하게 되면 천사의 대도가 영절할 뿐 아니라 우리 신중의 생명이 파멸될 것이며 사회의 해독이 막대할 것이라. 우리도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류이다. 엇지 굴욕맹종하야 참화를 좌수하라. 이 혁신의 목적이 엇지 타의가 잇스리오. 종래의 계급, 전제, 미신, 사기, 우매 등 일체 폐□를 타파하고 시대사조에 □응한 신제도 신조직을 수립하며 천사의 무량대도를 천명하야 교운으로 하여금 영원무궁케 함을 기할 뿐이다. 아! 풍상고락을 함께 하든 백만 대중이 어 조금도躊躇치 말고 혁신의 공정으로 귀래하라. 경성가회동 170번지 보천교 혁신회.<sup>381)</sup>

위 선언문의 내용에서, 보천교 신파 측은 먼저 보천교 본소 측이 근대적 사회 풍조에 순응하기보다 전근대의 유습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였다. 역으로 본소 측 및 당시 보천교도들은 포교 시 음양, 오행, 비결, 부록 등의 내용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것이며 신파 측에서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비난하고 이와 같은 미신적 포교 내용으로 보천교의 참된 정신이 가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보천교를 미신단체로 보는 것은 당시 언론 및 사상단체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보천교 내 신파 측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해야 함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신파 측이 지적한 보천교의 문제점은 첫째, 교단의 전제적이며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언론의 차단이다. 독재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여 교단 자체적인 비판과 개혁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단 조직에 대한 비판으로 교주 아래 60방주를 두고 그 아래에 6임을 두는 등 수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 상하의 관념이 발생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계급적 위계意識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직적 조직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윗사람의 권위意識과 그들의 아랫사람에 대한 착취로 인해 상하의 화목은 커녕 원한과 불만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보천교가 대외적으로 표

381)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教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방한 일심, 상생, 거병, 해원의 교리는 실제 포교 시에는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고 음양오행, 정감록 등의 비결 등 당시 조선 민중의 종교적 심성에 더 공명할 만한 것으로 포교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보천교 내의 지식인 중심의 신파가 표방하는 교의와 농촌 교도들의 실제 신앙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상술할 것이다. 넷째, 종교적 신앙보다는 재물 기부를 중시함으로써 보천교는 민중의 재산을 훔쳐가는 ‘흙치배’로 세간에 악평이 났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과도한 성금을 납부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여 결국 교도들의 가정이 파탄이 나 이른바 ‘탄갈자’가 속출하였다는 점이다. 여섯째, 사회의 공익을 위한 역할은 외면하고 교당건립과 간부들의 사치생활에 성금을 낭비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겨우 하나의 사회사업으로 시도하였던 시대일보사 인수도 본소에서는 지원하지 않아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일곱째, 학교 교육을 금하여 자녀들을 미취학시키고 근대문물을 거부하여 미몽상태에 빠져들게 하였다는 것이다.<sup>382)</sup> 위와 같은 신파 측의 비판과 혁신에 대한 요구는 당시 언론과 지식인들의 보천교에 대한 시각과 공명하는 부분이다.

선언서 발표 이후 신파 측은 경성진정원, 내정원 및 인쇄사인 보광사(普光社)를 점거하였으며,<sup>383)</sup> 교주 성토문과 선언서 등을 인쇄하여 전 조선의 교도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sup>384)</sup> 이에 월곡은 크게 놀라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여

382) 1. 專制 壓迫하에 언론이 杜塞되고 인권이 蹂躪될 뿐 아니라 □□, 阿諛, □詐의 零圍 氣中에서 백폐구생하야 교헌은 일편공문이 되고 교의회는 무용의 유희장으로 화하였다. 2. 방위제로 인하여 계급과 차별이 특심하다. 방주, 육임, 십이임, 팔임, 십오임, 보통교도의 계급적 명분이 엄존하야 대우차별이 주복관계와 무이하며 상계급은 □기양양에 작□작복하고 하계급은 비□노□로 유명시종하야 상호의 친□가 毫무하고 질투, 원한, 공포의 공기가 充滿할 뿐이다. 3. 근본교리인 일심, 상생, 거병, 해원의 眞諦를 蔑如하고 황당무계의 미신사설로써 세상을 현혹케하고 양민을 기만하는 것이 보천교의 역사적 포교방법이다. 그 미신사설의 종류와 예□은 너무 □다하야 매거키 불□할 뿐 아니라 자교의 추악을 폭로함이 엇지 躊躇할 바가 아니라. 4. 도의로써 도화치 안코 공리로써 유혹하며 성심수도하는 신도는 경시하고 다만 거액의 금전을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포상장을 수여함으로 도심이 □夷하야 □□한 교회로 하여금 사기단체의 이명을 맞게 하였다. 5. 敎會維持, 공익 사업에 대한 경비로 성금의금을 수납함은 당연한 일이나 沈船破釜의 詭辯을 농하야 신도로 하여금 경가파산, 불생산적 유민이 되게 함은 실로 □□이다. 6. 과거 16년간 교인으로부터 전답, 家藏을 경도하야 收集된 의금이 累千萬金이 될 것인새 교회, 민족 또는 사회적 공익사업에 提供함이 업고 □禮, 殿堂, 방주사택, 중앙사치 등 冗비남용에 탕진무여하고 사회적 사업이라고는 다만 시대일보사를 경영하리다가 자금이 업서 경성진정원급내정원사를 □□코저 한 일이 잇을 뿐이다. 7. 후천에는 모다 도통이 된다고 교육을 부인하야 교인의 자녀로 하여금 학교에 취학함을 금지하고 신문화를 배척하야 사회의 원시상태에 퇴화를 열망한다.

383)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97.

38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8b; 이정립, 『증산교사』, 113.

겨 청음 토죄문(討罪文)을 전 교도들에게 발부하였으며 혁신운동에 가담한 경성진정원장 이종익(李鍾翊)과 간주(良主) 이종정(李鍾鼎) 등의 여러 간부들도 출교 조치를 하였다.<sup>385)</sup> 또 본소 즉 구파측은 경성진정원의 건물 대지 및 비품과 보광사 등이 본소 소유임을 주장하며, 경성에 간부를 급파하여 신파측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횡령배임 하였다고 고소하였다.<sup>386)</sup> 간부로 파견된 인물은 임경호, 문정삼 등으로 이들은 신파측이 점거한 부동산의 처분금지 및 대항책을 설정하기 위해 상경한 것이다.<sup>387)</sup> 형사고소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제기되어 검사국에서 취조를 하였으나 결국 기소정지의 처분을 하였다.<sup>388)</sup>

보천교 혁신운동이 시작된 지 1개월가량 지난 즈음 신파와 구파 사이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10월 10일 임경호 외 14명의 구파측 인사들이 가회동 ‘보천교 혁신회 공정사무소’에 와 월곡의 명이라며 강제로 간판을 떼어가 버렸다. 신파측은 다시 인부를 고용하여 간판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붙이려고 하였다. 이에 구파측에서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큰일은 발생하지 않았다.<sup>389)</sup> 당시 종로경찰서측은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문건을 만들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고하였다.<sup>390)</sup> 이후 전개된 보천교 내홍의 상황에서 대해서도 종로경찰서는 비밀문건을 작성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송달하였고,<sup>391)</sup> 검사정 柿原琢郎<sup>392)</sup>은 이를 ‘보천교 신구파 내홍에 관한 건’의 문서로 정리하여 동양척식국장 과 검사장에게 보고하였다.<sup>393)</sup> 그만큼 일제 당국은 보천교의 내분에 대해 예의

38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8b-39b; 이정립, 『증산교사』, 113.

386) 「普天教 革新波에 橫領과 背任罪로 告訴, 총본부에서 준비하는 중」, 《매일신보》 1924년 9월 23일.

387) 「普天教 去益紛糾 정읍 본부에서 사람을 파견 대항」, 《동아일보》 1924년 9월 23일.

38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9a.

389) 「普教紛爭腕力化 간판을 켜다 부쳤다고 야단」, 《시대일보》 1924년 10월 12일; 「普天教 紛糾再燃」, 《매일신보》 1924년 10월 12일.

390)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革新會公庭明渡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2730호의 2, 1924년 10월 11일.

391)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看板奪取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3597호의 2, 1924년 11월 1일;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3593호의 2, 1924년 11월 1일;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ノ紛爭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3597호의 3, 1924년 11월 3일.

392) 1908년 6월 한국정부의 초빙으로 조선으로 건너와 平壤控訴院 檢事, 統監府 檢事, 朝鮮總督府 檢事, 朝鮮總督府 書記官 겸 檢事 역임. 平壤控訴院, 平壤地方裁判所를 거쳐 京城地方法院 檢事로 보임됨. 西大門監獄 典獄 겸직.

393) 경성지방법원검사정, 「普天教新舊派ノ内訌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즈음 보천교 혁신운동은 경성뿐 아니라 구파측의 본부인 정읍에서도 일어났다. 정읍을 중심으로 지방 교도 130여명이 모여 ‘혁신회 정읍지회’를 설립하였는데, 《시대일보》는 당시 보천교 신앙을 하다 가산을 탕진하여 길거리를 방황하던 상당수의 교도들이 특히 구파에 대해 극렬한 반항심을 가졌고, 또 본소 인근에 거주하던 교도들이 특히 부패한 내막을 목도하였기에 구파의 본거지인 정읍에서도 혁신회 지부가 생길 수 있던 것이라 보았다.<sup>394)</sup> 11월 하순경에는 평양에서 혁신운동이 일어나 혁신파가 구파 간부들을 축출하고 평안남도 진정원을 점거하였다.<sup>395)</sup>

이처럼 보천교 내부의 분쟁은 극에 달하였고 많은 일반 신도들은 방향성을 잃고 헤매었으며 다시는 서로를 봉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제는 이러한 보천교의 내분이 보천교 쇠퇴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런 와중에 신파측의 대표인물인 청음·남주 형제는 혁신운동에 쓰일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조달하고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sup>396)</sup> 혁신파 인물들은 두 형제가 배신하고 도주하였다고 생각하여 분개하고 두 사람을 배척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sup>397)</sup>

제반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월곡은 임경호의 계책을 수용하여 일본의 세력으로 혁신회를 탄압하고 기존 보천교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후 일제 권력자와의 협상으로 시국대동단이 구성되고 이 시국대동단으로 인해 보천교는 민중의 지탄을 받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내부의 반란을 제압하고자 일제와 손을 잡은 차경석의 결정은 결국 보천교 몰락을 이끈 최악의 수가 되었던 것이다.

#### 4. 시국대동단 사건과 보천교의 해체

---

2』, 地檢秘 제847호, 1924년 11월 3일.

394) 「車天子宮闕內에 革新支會의 發會式舉行 정읍대본산에까지 혁신운동의 깃발이 날리어」, 《시대일보》 1924년 10월 14일.

395) 「普天敎 新舊兩派 平壤서도 看板 爭奪 쫓겨난 구파들은 대책을 강구」, 《동아일보》 1924년 11월 19일.

396)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97-98.

397) 朝鮮總督府警務局長, 「普天敎革新會幹部ノ動靜ト教徒移民政策」, 高警 제573호, 1925년 2월 19일.

보천교 혁신운동에 따라 교단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월곡은 관련된 혁신파를 출교 조직하고 파면된 간부의 자리에는 다른 간부를 임명하였다. 또 혁신파가 보천교의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인쇄소인 보광사를 무단 매각하였다고 하여 횡령배임죄의 혐의로 경성지방법검사국에 형사고소를 하였다.<sup>398)</sup> 이에 그치지 않고 월곡은 충남 진정원장 임경호(林敬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혁신회를 탄압하고 기존 보천교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와 접촉하기 위해 월곡은 10월 17일에 문정삼, 임경호 두 사람을 일본으로 파견하면서 새로 취임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 시모오카 추지(下岡忠治)를 접견하도록 하였다.<sup>399)</sup> 이들은 시모오카 추지의 소개로 당시 일본 내각총리인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와 민정당(民政黨) 간부들을 방문하고 보천교의 취지와 주의(主義)를 설명하였다. 또 가토 수상의 권유로 일왕의 생일에 참석하였으며 본부에 요청하여 하례 물품을 진납하였다. 시모오카 총감은 보천교에 대한 원조의 조건으로 보천교 내에 친일 조직으로 ‘시국광구단(時局匡救團)’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sup>400)</sup> 월곡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를 승인하고 관련 비용을 출연하였다.

교주 가로대 “광구단(匡救團)이라 자칭함은 우리 동양 도덕상으로 보면 너무 무례하지 아니한가. 현재 대세가 대동(大同)이 아니면 평화할 수 없고 더구나 서양의 세력이 점차 동양을 침탈하니 이때를 당하여 동양 황인종은 상호간 대동단결로서 세력을 공고히 하지 아니하면 백인종의 화를 면하기 어렵다. 나는 이전부터 이와 같은 대세를 추측하여 임술년(1922) 정월(正月)에 12계명을 교시(敎示)하는 중에 친목동인(親睦同人)이라는 말이 즉 이 뜻이다. 동인(同人)은 즉 대동양동민족(大東洋同民族)을 지칭함이니 그러므로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이라 칭하라.”<sup>401)</sup>

39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9a: 「普天教 革新波에 橫領과 背任罪로 告訴, 總본부에서 준비하는 중」, 《매일신보》 1924년 9월 23일; 「普天教革新派 橫領罪로 被訴 진정원과 인식소를 팔았다고」, 《시대일보》 1924년 9월 23일; 「普天教 去益紛糾 정읍 본부에서 사람을 파견 대항」, 《동아일보》 1924년 9월 23일.

39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9b-40a.

40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0a-40b; 이정립, 『증산교사』, 114.

40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2a-42b. “敎主曰 匡救團이라 自稱함은 우리 東洋 道德上으로 보면 너무 無禮하지 아니한가. 現今 大勢가 大同이 아니면 平和할 수 없고 더구나 西洋의 勢力이 漸次 東洋을 侵하니 此時를 當하여 東洋 黃人種은 相互間 大同團結로서 勢力을 鞏固하지 아니하면 白人種의 禍를 免케 難하다. 我는 以前부터 如斯한 大勢를 推測한 故로 壬戌年 正月度에 12戒命을 敎示하는 中에 親睦同人이라는 一句가 卽 此意오. 同人은 卽 大東洋同民族을 指稱함이니 그러면 時局大同團이라 稱하라.”

그러면서 월곡은 문정삼, 임경호로 하여금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조직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시국대동단은 동양대동주의(東洋大同主義)를 표어로 강연을 위주로 한 단체로, 월곡은 그 강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하교하기를 조선 13도에 강연사(講演師)를 선정하는 방법은 매 도에 3인씩 합 39인을 정하되 3인 중에 1인은 우리 교의 방주(方主)에서 정하고 2인은 교외인(敎外人)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구 지식이 여유가 있고 언어에 익숙한 사람을 선정하여 경성 가회동 진정원에서 입교식을 거행하고 신도가 된 후에 대동단의 주의(主義)와 우리 교의 진리를 학습하였다가 강연할 때에는 준비위원이 먼저 출발하여 설비를 완료한 후에 교인 중 강사가 연단에 먼저 올라 교리를 설명한 후에 외인강사는 대동단의 취지를 설명할지며...<sup>402)</sup>

그의 교시에서 볼 수 있듯이 월곡은 내부강사의 경우 교의 간부 가운데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외부강사 또한 입교식을 하고 교리를 이해하도록 하게끔 하였으며 강연에 있어서도 내부강사가 교리를 설명하고 외부강사는 대동단의 취지에 대해서만 강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월곡의 지시와 일제의 압력 및 승인에 따라 시국대동단은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과 보천교 측의 발기로 1925년 1월 8일 발회식을 거행하였다.<sup>403)</sup>

그러나 강사 선정에 있어 문정삼과 임경호는 월곡의 지시와 달리 교중 인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각지 강연 일정도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제반사를 임의로 처결하였다.<sup>404)</sup> 결국 시국대동단의 강연은 보천교의 교리를 설명은 제외되고 외부 인사들의 친일적인 연설로 구성되게 되었다. 1월 10일에는 전 조선

40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2b. “下敎曰 朝鮮 13道에 講演師를 選定하는 方法은 每 道에 3人式 合 39人을 定하되 3人 中에 1人은 吾敎 中 方主로부터 定하고 2人은 敎外人으로 操行이 方正하고 新舊 智識이 有餘하고 言語에 嫺熟한 人을 選定하여 京城 嘉會洞 眞正院에서 入敎式을 舉行하고 信徒가 된 後에 大同團의 主義와 吾敎의 眞理를 學習하였다가 講演할 時는 準備委員이 先發하여 設備을 完了한 後에 敎人 中 講師가 演壇에 先登하여 敎理를 說明한 後에 外人講師는 大同團의 趣旨를 說明할지며...”

403) 「內鮮融和의 時局大同團, 各派 有志와 普天敎握手, 닌선인 정신력 결합을 공고하고 덕동단결하여 문화향상이 목적, 再昨日 白水에서 發會」, 《매일신보》 1925년 1월 10일.

40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3b.

각처에서의 강연 일정과 강사의 성명이 신문지상에 공개되었으며<sup>405)</sup>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되었다.<sup>406)</sup>

그러나 강연 시작부터 언론은 연일 시국대동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동아일보》는 1925년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6차례에나 걸쳐 ‘오물 구덩이에 서 준동하는 시국대동단(糞窖中 蠢動하는 時局大同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게재하며 월곡, 보천교, 시국대동단에 대해 비판하였다. 월곡에 대해서는 대시국(大時國)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천자는 꿈꾸는 미치광이로 교도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자 상투를 고집하는 상투쟁이 거지떼로 시국대동단은 임경호의 간계로 세워진 단체라 매도하였다. 《시대일보》는 1월 13일 기사 1면 전체를 보천교와 시국대동단을 비판하는 기사로 도배하였다. 그 제목을 살펴보면, ‘大時國의 畸形兒時局大同團의 첫 망신, 천서리 마진 보천교와 각파련맹’, ‘車先生은 네 先生, 연사와 청중의 대격투로 時局大同講演은 自身聲討化’, ‘浦項서 靑年團과 衝突’ ‘보천교 성토회, 분개한 포항 청년들’, ‘청년총연맹에 통첩하여 박멸을 도모’ ‘金泉서도 反對, 보천교도만 모아노코’, ‘洪城에도 人心洶洶, 차천자가 계룡산 도읍한다고’ 등의 기사로 보천교 및 시국대동단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당시 많은 민중들도 시국대동단의 강연을 보천교의 친일 행각으로 이해하고 분노가 격발하여 강연 자체가 열리지 못하도록 훼방하거나 강사를 구타하고 보천교 간판을 훼손하였다.<sup>407)</sup> 또 보천교에 대한 악화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보천교 성토회 및 박멸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sup>408)</sup>

이에 월곡은 음력 12월 말 순회 강연한 강사와 임경호 등을 정읍 본소로 불러들였으며 임경호가 자신을 기만한 것을 질책하였다. 임경호는 새로 부임한 시모오카 총감이 단기간에 조선의 거대 종단인 보천교를 회유하여 조선 민심을 안정케 하였다는 실적을 보이고자 강연 일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여 임의로 처결하였다고 변명하였다.<sup>409)</sup>

405) 「各地에 宣傳講演 金 10일 출발 전선 각디에」, 《매일신보》 1925년 1월 10일.

406) 「解怨相生 共存へ進まん! 百萬人の大同團, 普天教徒齊しく起ち, 内鮮の精神的結合へ」, 《조선신문》 1925년 1월 10일.

407) 이정립, 『증산교사』, 114; 「大同團員頭上에 鐵拳으로 制裁」, 《시대일보》 1925년 1월 15일; 「所謂 時局大同團 講演 철권에 쫓겨 연사가 도망」, 《시대일보》 1925년 1월 21일; 「普光社嶺南支社 간판에다 쏜질을하고 흠치기박멸이라 써」, 《시대일보》 1925년 1월 28일.

408) 「普天教聲討決議」, 《동아일보》 1925년 1월 25일; 「信川 흠치는 滅亡」, 《동아일보》 1926년 1월 26일.

40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4a-44b.

이듬해인 1925년 2월 6일에 월곡은 조선 사회에서의 공격과 관청의 엄중 단속 그리고 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의 부정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부 3인과 시국대동단원 9인을 일본에 파송하였다.<sup>410)</sup> 보천교 대표단은 일본 대의사(大議士)<sup>411)</sup> 수백 명을 두 차례 초대하여 보천교의 취지와 대동단 주의를 강연하며 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또 동경에 머물며 전 일본 총리대신 기요우라 게이코(清浦奎吾), 전 조선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등의 유력인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시모오카 정무총감의 극력반대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대표단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3만 5천원의 거금을 소비하고 음력 2월 말에 귀국하였다.<sup>412)</sup>

이 기간 동안 보천교에 대한 민심은 더욱 악화되어 많은 민중들이 보천교에 위해를 가하였으나<sup>413)</sup> 일본 경찰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암암리에 그들을 원조하였다.<sup>414)</sup> 따라서 보천교 측에서는 약속과는 다른 당국의 태도에 항의하였고, 이에 시모오카 총감은 시국대동단의 외부 인사이자 자신의 수하인 채기두(蔡基斗)와 고희준(高義駿)를 통해서 월곡과 회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sup>415)</sup> 월곡이 면회시기를 가을로 연기하는 뜻을 표하자 시모오카는 비밀 회담의 의견을 채기두와 고희준을 통해 전달하였다.

총감이 말하되 교주가 공적인 자리(公席)에서 면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자리(私席)로 중간에 회견장소를 정하고 하루 밤 동안 비밀히 회견하여 협의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대동단 선전 이래로 보천교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동양을 대표적으로 선전함은 나도 지극히 기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조선민족 가운데 보천교가 자발적으로 동양평화를 주창하니 어디까지 찬성 동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여...<sup>416)</sup>

41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5a.

411) 당시 일본 중의원(衆議院) 의원(議員).

41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5a-47b.

413) 특히 부산에서는 부산청년회와 보천교 신도들 약1천여 명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여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釜山普天教徒 襲擊事件, 주모자 13명을 감사국에 송치해」, 《매일신보》 1925년 3월 14일.

41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7b.

41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2a-52b.

41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3a. “總監이言하되 敎主가 公席으로 面會를 不願할진댄 私席으로 中間에 會見場所를 定하고 一夜間 祕密히 會見하여 協議하난 것이 엇더하뇨. 大同團 宣傳 以來로 普天敎에서난 不尠한 敎財를 投하여 東洋을 代表的으로 宣傳함은 나도 至極히 欣喜하고 政府에서도 朝鮮民族 中으로 普天敎가 自發的으로 東洋平和를 主唱하니 어디까지 贊成 同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야...”

월곡은 시모오카의 제안을 수락하고 회견 장소를 총감 관저에서 하기로 상호 조율하였다.<sup>417)</sup> 월곡은 심복인 문정삼, 임경호와 더불어 5월 경 경성에 도착하였으며 총감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三矢宮松)의 요청으로 5월 24일 오후 9시경 경무국장 관사에서 경무국장과 경무과장 등과 대면하였다.<sup>418)</sup> 면담에서 미쓰야 경무국장은 “각지 보천교도의 불온선전과 및 유언비어가 많아 황실에 저촉되는 말과 행동이 있을 시는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터이니 금후로는 특별히 주의하여 이와 같은 언동이 없도록 교도에게 명령하라”<sup>419)</sup>고 월곡을 압박하였다. 또 시국대동단은 한 번은 실패하였으나 계속 조직하여야 한다며 자금을 출자하기를 강권하였다.<sup>420)</sup> 이에 월곡은 “대동단은 나의 대동단이요, 정부에서 창립한 대동단이 아닌데 나에 관한 사업을 계속하든지 중지하든지 권한이 나에게 있거늘 국장이 어떤 뜻으로 이와 같이 무례하게 권유하는가.”<sup>421)</sup>라며 항변하였다. 미쓰야는 자신의 언행이 지나침을 느끼고 한발 물러나며 대화를 지속하여 시간은 자정에 이르렀다. 이때쯤 총감의 면담 요청으로 월곡은 총감 관저로 이동하여 시모오카와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하여 『보천교연혁사』에서는 시모오카는 “무슨 일이든지 청구할 일이 있거든 사양치 말고 청구하라”<sup>422)</sup>고 문자 차경석은 “일호(一毫)도 청구할 일이 없다”<sup>423)</sup>고 하였다고 하며 밤이 깊어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고 짧게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면회하여 일제의 협조를 구하여 종단 보천교를 위기에서 구하려던 월곡의 희망과 노력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일제 당국은 겉으로는 협조를 말하면서 보천교의 자금을 털고 조직을 와해시키고자 하였으며 이후 성전을 허물고 결국 보천교를 말살하였던 것이다.

417)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3b-54a.

41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4a. 『보천교 연혁사』에는 날짜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시대일보》 1925년 5월 27일자 기사를 토대로 24일임을 추정할 수 있다.

41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4a. “各地 普天教徒의 不穩宣傳과 및 流言蜚語가 多하여 皇室에 抵觸되난 言論과 行動이 有한 時난 斷然코 容恕하지 아니할 터이니 今後로난 特別注意하여 如斯한 言動이 없도록 教徒에게 命令하라.”

42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4b.

42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5a. “大同團은 我的 大同團오, 政府에서 勸立한 大同團이 아닌즉 我에 關한 事業을 繼續하든지 中止하든지 權限이 我에게 在하거날 局長이 何如한 意思로 이와 같이 無禮하게 勸誘乎아.”

422)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6a.

423)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6a.



시국대동단 사건 이후 보천교는 내홍과 해체의 역사를 그렸다. 1925년 음력 7월 월곡의 심복이자 시국대동단의 조직책임자였던 임경호가 탈교(脫敎)하였다. 임경호의 배교(背敎)에 대해서 『보천교 연혁사』에는 “일시적으로 교주의 총애를 받고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여 물같이 쓰다가 을축년부터 교세가 침체함을 보고 인하여 탈퇴하다.”<sup>424)</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9월에는 핵심간부인 채규일이 보천교를 탈퇴하였으며, 또 금방주(金方主)이자 평남 진정원장이었던 채선묵(蔡善默)의 사후에 그 아들 채규상이 평남 진정원장을 맡았었는데 이 채규상(蔡奎象)이 사적으로 평남 진정원을 매각하여 교금을 횡령하였다.<sup>425)</sup> 그리고 청음 이상호의 출교 후 경성진정원장을 하고 있던 이달호(李達濤)가 교금을 사사롭게 낭비하고 횡령하였으며 이듬해 정월 무리를 모아 본소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어 도주하였다.<sup>426)</sup>

1927년 정묘년 정월 10일에는 이달호, 임경호, 채기두, 채규일, 임치삼 등이 청음의 보천교 본소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sup>427)</sup> 1928년 정월 월곡은 간부들을 소집하여 기존에 표방하였던 보천교의 교리를 바꾸어 새로운 교의체계를 세운다고 하였다.<sup>428)</sup> 그 내용인즉슨, 월곡은 증산을 교조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교리체계를 폐기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차치구를 삼황오제신의 화신으로 존숭할 것을 내세웠던 것이다. 또 기존의 12계명은 12잠이라는 것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위에 일리(一理)와 사강(四綱)이라는 교의가 세워졌다. 치성의례에서도 증산의 탄생일과 화천일 기념 치성이 제외되고 성물로 여겨졌던 증산이 사용하였던 약장도 성전에서 옮겨 버렸다.<sup>429)</sup> 이러한 월곡의 발표와 선언에 여러 간부들은 격렬히 항의하거나 불만을 품고 혁신운동 쪽에 가담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sup>430)</sup>

1929년 기사년 음력 2월 춘분에 치성제를 거행한 후 월곡은 간부들과 협의하여 성전 준공이 임박하였으니 3월 15일에 신위(神位) 봉안식(奉安式)을 실시하기로 정하였다.<sup>431)</sup> 월곡은 이 행사에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다. 봉안식일을

42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2a. “一時的으로 敎主의 寵愛를 받고 多額의 金錢을 橫取하여 用之如水하다가 乙丑年度로부터 敎勢가 沈滯함을 見하고 因하여 脫退하다.”

42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2a-62b.

42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3a-66b.

427) 이정립, 『증산교사』, 118-11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73b.

42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하,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1a.

429) 이정립, 『증산교사』, 121-122.

430) 이정립, 『증산교사』, 122.

431)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하, 2a-2b.

3월 15일로 정한 것은 증산의 언설과 관련이 있다. 증산은 종도들에게 ‘天師가 라사대 선배가 되야서는 大學右經一章을 알아야 하나니라. 또 가라사대 書傳序文을 萬遍口誦하라 大運이 그에 있나니라.’<sup>432)</sup>고 하여 남송(南宋) 시대 채침(蔡沈)이 쓴 『서전(書傳)』의 서문인 「서전서문(書傳序文)」에 대운이 있으므로 많이 송주하라고 하였었다. 이 「서전서문」의 말미에 “嘉定己巳三月既望, 武夷蔡沈序”라 하였는데 이 기사년 3월 기망 즉 보름의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여 기사년(1929년) 음력 3월 15일에 봉안식을 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봉안식 거행을 금지한다는 통고를 내리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 허락할 것이라 협박하였다.<sup>433)</sup> 결국 봉안식인 열리지 못하였으며 월곡의 위신과 체면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후 월곡은 탈교자 및 일반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고소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sup>434)</sup> 신문 기사에 따르면, 1929년 6월 28일 월곡의 일용용품과 가산이 압류되기도 하였다.<sup>435)</sup> 한마디로 월곡의 처지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월곡은 1936년 윤 3월 10일(4월 30일) 사망하였고<sup>436)</sup> 이후 보천교는 점차 쇠퇴하여 마침내 본부인 십일전(十一殿)이 해체되고 조직도 와해 되고 말았다.

432)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0; 『대순전경』 초판에는 “하로는 여러 從徒들에게 일너 가라사대 大運을 바드려 하는 者는 書傳序文을 만히 誦讀하라하시고 또 가라사대 ‘且生於數千載之下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亦已難矣’의 一節은 淸水를 써놋코 넘을만한 句節이라 하시니라.”라고 하였다.(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06) 대순진리회의 『전경』 교법 2장 26절에는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 서문(書傳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라 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언설로 인해 증산종단에서는 ‘서전서문’을 중요한 글로 여기고 주문처럼 암송한다.

433) 이정립, 『증산교사』, 124-12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하, 7a-8b.

434) 「普天敎 新築한다 愚民을 속혀 먹어 범인은 즉시 잡아 취조중」, 《매일신보》 1929년 2월 14일; 「車天子가 敎金橫領 탄원이 잇서 목하 도사중」, 《매일신보》 매일신보 1929년 3월 9일.

435) 「煉瓦代 萬圓未拂로 差押當한 車京錫 이십구일가산 륙십여점을 집행 孤城落日의 大時國」, 《매일신보》 1929년 7월 2일.

436) 「車天子 30일 死亡」, 《조선일보》 1936년 5월 1일. “전북 정읍군에 본부를 둔 보천교 일명은 흠치교 교주 차경석은 30일 오후 3시 54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근 20년 동안이나 전 조선 각지의 우매한 민중들을 속여 허무맹랑한 미담을 갖게하여 수십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정읍에다 궁궐 가튼 집을 지어노코 자칭 천자라 하여 한 때는 그 기세가 굉장하였으나 근년에 이르러는 점점 그 미신의 근거가 드러나게 되어 교세가 쇠잔하고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도 수차 불려다니기까지 하더니 마침내 그는 허무한 꿈속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만 것이다.”

## 2절 월곡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1장에서는 월곡이 펼친 신앙운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 장에서는 월곡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론에서 연구사 검토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보천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근래에는 특히 보천교의 항일성(抗日性)·민족성 및 독립운동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상생문화연구소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총 7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sup>437)</sup> 발표 가운데는 특히 보천교의 군자금 모금 활동, 보천교도의 의열단 가입 및 활동, 김좌진 장군에 대한 보천교의 군자금 지원, 보천교의 상해임시정부 지원 등의 활동이 강조되며 보천교가 민족운동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2018년 11월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주최한 ‘보천교와 보천교인의 민족운동’ 학술대회에서도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군자금 지원, 권총단 사건, 강제 해산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sup>438)</sup> 즉 근래의 선행 연구에서 월곡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징으로 민족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위의 발표 등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은 보천교 신앙인들의 종교 신앙을 살펴보고 이를 보천교의 종교적 특성을 고찰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사 자료 외에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사 자료에는 창교주인 월곡의 주요한 행적과 교단의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만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단사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을 때, 신앙인들의 종교 신행이나 그들의 발언은 보천교 민중의 종교적 특성, 창교주의 종교 사상 또는 그 특성을 반영하

437) 노종상, 「월곡 차경석 연구 서설」; 윤창열, 「동학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지는 후천개벽의 맥」; 유철, 「보천교 교리 연구: 교리의 성립과 변경을 중심으로」; 황경선, 「월곡 차경석에서 중 개념 이해」; 김철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천교의 항일민족운동」; 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남창희, 「한미동맹의 민중적 기원: 보천교와 이승만의 대미 정체성 비교 연구」.

438) 조규태, 「보천교의 성립과 그 민족운동사적 의미」; 윤소영, 「흙교회 선도교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김재영, 「후천개벽운동과 보천교」; 박환,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금과 보천교」; 안후상, 「1920년대 보천교의 권총단 사건 연구」; 김철수, 「1920년대 보천교의 실력양성운동」; 조성운, 「1920년대 국내 언론을 통해 본 보천교의 종교적 특성」; 김정인,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탄압과 보천교의 강제 해산」.

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료로는 신앙인들의 신앙고백, 일기류 등이 될 수 있겠으나 오늘날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대신 일제의 판결문서에는 많은 보천교 민중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발언이 남아 있어 신앙인들의 신앙과 실천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추국, 심문, 판결문서 등에서 화자들은 자신의 유죄를 면하기 위해 위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언의 진실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신앙인들이 공통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는 보천교 민중들의 교리 및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앙인들이 자의적으로 또는 임의대로 신앙 내용을 재구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발언하고 신앙하는 내용은 창교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보천교 신앙인들의 종교 신앙을 살펴보고, 이 내용과 월곡의 활동을 종합하여 보천교의 종교적 특징을 뽑아 보고자 한다.

## 1. 보천교도들의 종교 신앙

위에서 보천교 교주 월곡의 종교 활동과 주요한 교단의 사건 및 핵심 간부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즉 보천교 지도부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데, 그렇다면 보천교를 신앙하였던 수많은 당시 조선 민중들은 어떠한 동기로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보천교에 가담하여 종교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사법부 판결문을 자료로 하여 이를 살펴보겠다.<sup>439)</sup>

### 1) 교조와 교주에 대한 이해

일제강점기 판결문에 나타난 보천교도들의 발언에서, 상급자 간부들은 대부분

439) 국가기록원은 소장 중인 형사사건 판결문 중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을 선별하고 이를 번역하여 온라인상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이란 사이트 이름으로 공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죄명과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설정하였다. 죄명으로는 치안유지법, 보안법, 조선 임시 보안령, 대정8년 제령 제7호, 육군형법, 해군형법, 내란, 불경죄, 출판법, 안녕질서에 관한 죄, 정치범 처벌규칙, 폭동 등과 관련한 기록물이 선정되었다. 피체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보천교도들은 주로 보안법과 제령 제7호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판결문은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번역문을 살펴보면, ‘흙치교’를 ‘우치교’라 하는 등 일부 번역상 오류가 발견된다.

흠치교의 교조는 강증산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들은 교조 또는 개조인 증산이 1909년 작고하였으나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玉皇上帝)’가 되었고, 갑자년에 다시 세상에 내려온다고 하였다. 교도들은 증산이 ‘내세(來世)한다’, ‘다시 세상에 내려온다’, ‘다시 살아 조선을 통일한다’, ‘다시 출현한다’, ‘부활한다’, ‘환생한다’ 등의 표현을 하면서 교조인 증산이 천상의 옥황상제로 있다가 특정한 시점에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믿었다. 보천교의 성금을 관리하는 재무주임이자 60방주였던 김홍규의 발언과 이정립 휘하 육임이었던 손재봉이 이정립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자.

김홍규 : “강증산이 다시 출현해 조선을 통일하는 일을 위해 태을교도는 일치협력해 그를 위해 힘을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증산이 출현해 조선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교도를 준비해 두고 필요한 건설비용으로 태을교도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 기부금은 □□□□□지참한 자에 대해 영수증을 건네고, 채□회는 나에게 이(理)라는 글자를 새긴 목인을 건네서 나는 이를 승낙해 받아들였다.”<sup>440)</sup>

손재봉 : “이성영, 박준대 등의 말하는 바로는 ‘흠치교의 개조 강증산은 명치 42(1909) 중에 사망했으나 갑자년에 환생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수제자 차경석은 동시에 조선의 제왕으로 계룡산에 도읍해 교도는 그 기능에 처한 관직을 받기에 이르기 된다. 흠치교의 수도를 하여 둔신(遁身)의 재주를 알면 탄환도 꿰뚫지 않고 도검도 찢리지 않고 따라서 전쟁에 패하는 염려는 없다. 갑자년에는 일을 일으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그 준비를 위해 최초는 병이 낫는다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권유해 교도를 모집하고 점차 흠치교의 진짜 목적을 말했다.”<sup>441)</sup>

위 인용문에서, 손재봉이 이정립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살펴보면, 증산이 1924년 갑자년에 환생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며 그 수제자인 월곡을 조선의 제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여러 판결문에서 나타난 교도들은 발언을 살펴보면 손재봉의 경우처럼, 교주인 월곡이 교조 증산의 도움을 받아 장차 조선의 왕, 제왕, 황제, 천자 등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교조 증산에 대한 언급

440)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20, 1923년 4월 4일, 180.

441)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590-591.

없이 월곡이 조선의 제왕(간혹 세계의 왕이 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음)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sup>442)</sup> 전자를 ‘교조 증산, 교주 차경석설’ 줄여서 ‘교조교주설’이라고 하고 후자를 ‘교주 차경석설’ 간단히 ‘교주설’이라고 한다면, 주요 간부들은 보천교의 교조와 교주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교조교주설), 포교가 진행되어 입교한 하위 조직의 교도들은 교주 월곡에 대해서만 전해 듣거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교주설). 또 드물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저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여 교주 월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발언도 엿보인다.

교조교주설에서 증산은 옥황상제로서 교도들의 존송을 받으며, 월곡은 증산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통치자가 된다. 즉 월곡은 증산의 수제자로서, 증산의 신령에 힘입어 또는 “강증산이라는 자가 부활해 언전(言戰) 및 도전(道戰)의 기도로 인해”<sup>443)</sup> 조선이 독립되며 제위에 오른다는 것이다. 반면, 교주설에서는 증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은 채 월곡이 등극한다고 하는데, 이는 신문조서 상에서 증산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었다고 보기보다 체포된 여러 교도들 가운데는 교조 증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이후 월곡은 1928년 교리체계를 변경하여 증산에 대한 신앙과 의례를 폐기하였는데, 이를 월곡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천교 민중들의 신앙과 공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주요 간부들은 교리 및 의례의 변경에 크게 반발하였지만, 보천교의 교세는 변경 전후로 급격히 줄지 않았다. 이를 볼 때 상당수의 일반 보천교 교도들은 교조 증산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깊지 않았으며, 교조에 대한 교리 이해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교주인 월곡이 조선을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참여하여 영화와 복록을 누리려는 현실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교도들의 발언에서, 교도들은 교주 월곡을 신비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월곡을 ‘신과 같은 사람’,<sup>444)</sup>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변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선술에 능한 위인으로서 조선 천지의 주인’이 될 사람,<sup>445)</sup> ‘비범한

442) 월곡의 등극설에 대해서는 김재영, 「보천교의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9, 한국종교사학회, 2001 참조.

443)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20, 1923년 4월 4일, 180.

444)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279號, CJA0002172, 1921년 5월 16일, 375-376.

445)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大正十年 刑控第472號, CJA0000618, 1921년 7월 27일,

인물로 신통한 영지(靈智)를 갖춰 갑자년에 이르러 천지가 전환하는 기회에 천하를 통일하여 조선을 독립시'446)킬 사람 등으로 생각하였다. 일제 공문서도 일부 교도들이 월곡을 도술을 습득하여 초인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신앙하고 있음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월곡이 축지법(縮地法), 차력법(借力法), 비바람을 일으킨다는 호풍환우술(呼風喚雨術), 사물로 변하거나 몸을 감출 수 있다는 둔갑장신술(屯甲藏身術)에 능통하다는 것이다.447)

## 2) 갑자등극설

그렇다면, 신도들의 입장에서 교주 월곡은 무슨 일을 도모하고 민중에게 어떠한 희망을 제시한다는 것인가? 판결문에 나타난 그들의 발언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김철진(8임) : 흠치교에 가입할 경우에는 대정13년 (1924) 갑자년에는 우리 교도가 다 함께 쫓겨나고 조선을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 나라를 만들고,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제위에 오른다. 교도는 각 자격에 따라 관리 기타 등 타당한 대우를 받는다.448)

권태추(12임) : 나는 6인조 손재봉(孫在鳳)의 부하로 동인은 흠치교의 일에는 가장 흰하게 알고 또 60방위의 한 사람인 이상호(李祥昊)는 나와 간절한 사이로, 두 사람으로부터 상세한 비밀을 들었던 것이다. 흠치교는 작년 4, 5월경부터 60방위 이하의 조직으로 개선하고 운동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한 바이다. 『비결』이라는 문서에 갑자년에는 세상이 일변한다는 내용의 예언도 있다. 상해가정부(上海假政府) 기타 중국 방면에 있는 조선독립 결사단도 더욱 운동을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또 국교상 일본은 중국 또는 미국과 대정13년(1924)까지는 전쟁을 시작할 기운으로 향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흠치교의 신도를 확장하고 조직을 완성하면 수십만 명의 단결이 장래 또 수백만 원의 자금이 장래의 그 날에는 위의 기회를 틈타 가정부 기타 독립 기관과 호응하고, 수십만의 교도의 대 단결이 재작년 소요 당시와 같이 일제히 일어나고, 소요에 있어서는 독립의 목적

38-39.

446)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1월 16일, 264.

447) 全羅北道, 『普天教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187. 원문에는 '屯南藏身術'로 되어 있다.

448)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158號, CJA0002172, 1921년 6월 2일, 387.

을 관철하는 일이 장래에 있을 것이다. 재작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요할 때는 다수민이 위해를 입고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 흠치교의 선전에 따라 대단결을 이루고 일심동체를 서약해 놓으면 기회를 만나기까지는 안전하다고 들었다. 적어도 생피를 마시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도가 되어 일심동체를 맹세하고 각 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독립의 목적 달성의 수단이 됨은 전해들은 것이기 때문에, 서약하고 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위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말한 대로 독립자금이라는 것에 대해 ‘고폐’라는 암호를 이용하여 모집하고 15인조의 사람이라도 자력이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서 100원, 1,000원, 10,000원 등의 출자하는 식으로, 이에 대한 숫자의 암호 문자를 만들고 영수증을 주었다.<sup>449)</sup>

박운업 : 대정11년(1922) 음력 8월 하순경에 위 주거지에서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성암리 조기룡(曹基龍)에게 보천교는 상해임시정부와 연락하여 있는 힘을 다해 임시정부를 원조하고 있으며, 임시정부 군대는 대정13년(1924)경에 조선으로 들어와 모든 관청을 습격 파괴하고 관청의 공무원을 죄다 무찔러 죽이고 조선을 독립시켜 교주 차경석이 제위에 오를 것이니, 독립 이후에는 동 교도는 행복을 누릴 것이고 또 지배받는 민중은 없을 것이라 하며...<sup>450)</sup>

위 신도들의 발언에서, 신도들은 교주 월곡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판결문에 상당수의 신도들은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태을교 즉 보천교에 가입하였다. 신도들인 월곡이 조선의 왕, 황제, 천자로 등극하는 시점을 주로 1924년 갑자년이라 신앙하였으며 때로는 ‘갑자년 또는 정묘년(1927)’이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갑자년 갑자일, 갑자년 음력 3월 16일 등으로 예견하였다.

갑자년이 주로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위 손재봉이 갑자년에 증산이 환생하여 전 세계를 통일한다는 발언처럼 증산의 환생 또는 출세가 1924년 이뤄진다고 보았던 간부도 있었지만, 일반 신도들에게 주된 영향을 주었던 정감록류의 비결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 권태추는 『비결』이라는 책자에 갑자년에 세상이 크게 한 번 변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고, 일본이 미국과 전쟁한 기운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비결』이란 책자에 대해서는 여러 신

449)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158號, CJA0002172, 1921년 6월 2일, 387-390.

450)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大正十二年 刑控第185號, CJA0000120, 1923년 5월 25일, 348-349.



도들이 언급하고 있다. 일례로 위 손재봉도 다른 심문 기록에 『비결』에 ‘갑자년에는 세계가 아주 달라진다’<sup>451)</sup>는 내용이 있다고 하였고, 12임 김재원은 “『비결』이라는 서적 중에는 유일한 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나라가 통일된다고 하는 의미로 오는 갑자년은 즉 이 유일한 운수라고 하는 해에 해당하는 뜻”<sup>452)</sup>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포교 시 신도들은 비결류 등의 서적을 내용을 인용하여 갑자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조선이 독립하며 월곡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하였으며, 당시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1924년에 일본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하였다.

신도들은 일본에 큰 재난이 나자 해방 및 등극의 시일에 새로운 교리를 선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관동대지진 사건이 발생하자 1923년 음력 12월에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 선전하였던 신도들도 있었던 것이다.<sup>453)</sup> 1923년 11월 21일 대구 지방법원을진지청에서 판결을 받은 보천교 연포사 김혁진의 발언을 살펴보자.

김혁진 : 이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재해는 보천교 중앙선생 차경석(車景錫)이 일찍이 예언한 ‘내지국력반감설(內地國力半減說)’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기회에 보천교는 올해 12월까지 조선을 독립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만약 독립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천교는 사라질 것이다. 확실하게 독립된 때에는 보천교도 중에서 문무(文武) 관리에 임용할 것이다.<sup>454)</sup>

위 김혁진의 발언에서, 신도들은 일본 관동대지진의 사건이 교주 월곡이 ‘일본 본토의 국력이 반감할 것이다’라는 ‘내지국력반감설(內地國力半減說)’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하며 월곡의 예지 능력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일본이 혼란한 기회를 틈타 보천교는 1923년 음력 12월에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제 치하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앞날을 알 수 없는

451)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1002.

452)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1004-1005.

453)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錦山支廳, 大正十二年 刑第108-109號, CJA0001770, 1923년 5월 21일, 178. “...보천교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일가가 편안할 뿐만 아니라 올해 음력 12월 30일에는 조선이 독립하여 교주 차경석이 천자로 즉위할 것인데 그때 보천교 신자는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고 신자가 아닌 자는 사망하거나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454)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蔚珍支廳, 大正十二年 刑第260號, CJA0001573, 1923년 11월 21일, 1237-1238.

불안한 시운(時運) 등을 이용하여 포교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로는 주로 계룡산이 언급되었다. 즉 신도들은 당시 교주가 머물고 있는 교단의 본소는 정읍이지만 갑자년 등극은 계룡산에서 이뤄지며 도읍지가 된다고 신앙하고 포교하였다. 또는 구체적인 도읍지는 언급이 되지 않고, 조선의 독립과 갑자년 등극에 관해서만 선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도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른바 정감록 사상이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천교 민중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 유행한 정감록 사상과 월곡의 교설을 혼재하여 수용하였던 것이다.<sup>455)</sup>

그렇다면 어떻게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고 새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인가? 교조교주설에서는 옥황상제인 증산의 내세(來世)와 증산의 권능으로써 또는 증산이 수제자인 월곡을 통해 신통한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일본을 물러나게 한다고 하였다. 교주설에서도 월곡의 영험한 능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독립의 성취라는 크나큰 과업을 이루는 것에 대해, 신도들은 이러한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요건만 선전하였던 것은 아니다. 신도들은 보천교의 세력과 자금력이라는 교단의 힘과 상해임시정부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결합함으로써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1920년대 초반 3.1 보천교 민중들은 전국적으로 일제에 항거하였던 3.1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위 권태추가 “수십만의 교도의 대단결이 재작년 소요 당시와 같이 일제히 일어나고, 소요에 있어서는 독립의 목적을 관철하는 일이 장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 전국의 보천교인들이 대단결하여 연합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즉 국내에서는 보천교가 국외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있어 이렇게 내외가 협력하여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고 믿고 포교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인용문 가운데 권태추와 박운업의 발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발언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신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입교치성

서술 퍼런 일제 치하에서 조선의 독립과 새 국가 건립의 발언, 유포, 선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을

---

455)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유사종교들이 정감록의 예언사상을 지상천국사상에 결부하여 계룡산을 중심으로 신도(新都)를 세운다는 선전에 힘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873.

알리기보다 처음에는 이 교를 믿으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거나 앓던 병도 다 낫는다고 선전하였다. 일례로 형공(刑控) 제565호 문서에서 손재봉의 발언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례로 8임에 가입한 김택룡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일제 또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선전이 보천교 포교의 주요한 수단이라고 파악하였다.

김택룡(金澤龍)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조서 중, 대정9년(1920) 음력 8월 초순 동해면 여사동에 체류 중 최상익이 와서 자신은 흙치교 신자로 동 교 중 12임(任)의 지위에 있는 자라 말하고, 누구라도 입교하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신체가 더욱 건강해진다. 또한 갑자년에는 정(鄭) 씨가 계룡산에서 황제로 즉위한다.…<sup>456)</sup>

권영구(12임) : 권유할 때는 처음에 흙치교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음에 계룡산에 정씨의 도읍이 생기는 그 때는 우리 신도는 그 국민이 된다고…<sup>457)</sup>

조선 각 지에서 흙치교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 준거(準據)할 만한 성전이나 정해진 교리 없이 단지 미신을 설교하고 수년 간 이해력이 부족한 조선인을 흘려 일반의 풍습을 악화시키고 있었다.…교도의 모집에 대해서도 역시 미신을 깊이 믿는 조선인에게 흙치교를 믿으면 병이 쉽게 낫고 유행병이 침범하지 않는다, 갑자기 죽어나가는 공포, 수명의 연장을 희망하는 인간의 약점을 잡아 이런 권유를 하고 이에 응한 자에게는 상위의 주재자(主宰者)가 된다.<sup>458)</sup>

위의 인용문처럼, 병의 예방과 치병으로 일단 포교를 시작하며,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치성(致誠)’ 또는 ‘치성제(致誠祭)’라 불리는 입교식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입교치성은 날을 정하여 산간, 냇가, 인가에서 떨어진 가옥 등 은밀한 장소에서 주로 실시하였고 간혹 입교하려는 사람의 자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입교자는 치성비, 치성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입교치성의 사례이다.

456)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1011.

457)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279號, CJA0002172, 1921년 5월 16일, 366.

458)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6월 22일, 397-398.

손재봉 : 입교 때에는 치성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낸다. 그 정면에는 ‘옥황상제하 감지위(玉皇上帝下鍵之位)’라고 대서(大書)한 패가 있고 그 옆에 조원의 성명을 쓴 계약서를 내려놓는다. 육류와 어류를 공맹하며 주문을 외우고 닭의 생피를 마시며 일심동체(一心同體)를 서약한다. 또 위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치성비(致誠費)·치성금 간혹 표신금(表信金)이라 하고 6인조는 30원, 12인조는 15원, 8인조는 10원, 15인조는 5원을 낸다. 제사에 사용된 것 이외는 본부로 보내는 규칙이 있다.<sup>459)</sup>

위의 사례처럼,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鍵之位)’라고 위패를 쓰고 그 옆에는 비단이나 종이에 입교자의 성함이 기재된 일종의 서약서를 올려놓는다. ‘옥황상제’는 증산을 의미하므로 치성은 곧 증산에게 올리는 것이다. 제물을 준비하며 주문을 외우며 닭, 돼지의 생피(산양의 사례도 있음) 또는 산수(山水)를 마시며 함께 뜻을 도모하며 한 몸처럼 되겠다는 서약을 한다. 이 서약은 만약 이후 관에 발각될 때 독립기도, 등극, 결사 등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조를 ‘옥황상제’에게 올리는 것이다. 입교치성은 포교에 앞장선 간부에 의해 집전되며, 치성을 마친 간부는 태을교가 같은 종교단체처럼 보이나 실은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는 비밀결사조직이라는 사실과 교조설, 교조교주설, 갑자등극설 등에 대해서 입교자에게 설명을 하였다. 12임 권태추의 발언을 살펴보자.

피고 권태추 제2회 신문조서 중 “흠치교의 진짜 목적은 조선 독립운동의 자금모집에 있다. 이름은 종교를 빙자하여 널리 교도를 모으고 비밀리에 다액의 금액을 모집하였다. 일반 교도는 대정13년(1924)에 이르러 조선은 독립한다고 확신하고 또 어떻게 해서도 독립한다는 신념으로 일치단결해 군자금의 모집 활동을 했다. 다른 하등의 목적은 없고, 이 비밀은 상급자로부터 점차 아래 계급자로 말해졌다. 최초 치성을 하는 데서 만드시 이 비밀을 전달받는다. 특히 야간 산중에서 밀회하고, 필요에 따라 수조류(戰鳥類)의 생피를 마시고 비단에 서명해, 조(組)를 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는 것을 막고, 조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결코 변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수밖에 없다. 12인조는 백 원 이상, 8인조는 오십 원 이상의 철저한 출금의 의무를 지고, 가입 동시에 충분히 뜻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8인조 이상의 자로서 조선 독립운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치 없이 단지 질병을 언급하는 것 이외에 아는 바는 없다는 등의 말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고 꾸

459)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999-1000.

며서 하는 말이다.···8인조 이상에게는 당연 비밀을 전달하고 자신은 부하 8인조를 조직해 치성을 할 때 물론 비밀을 전달하였다.<sup>460)</sup>

인용문에서, 치성 시 상급자로부터 반드시 조선독립과 차경석 등극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으며 특히 8임 이상의 간부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병 등을 포함한 종교적 목적은 교단의 표면상 구호일 뿐이며 실제로는 독립을 도모하는 비밀결사 단체라는 것이다. 입교자들이 입교할 때 지출하는 금액 즉 치성비는 일부는 치성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급자가 모아서 정읍의 본부에 제출하였다.

여러 판결문에 따르면 치성비로는 3원 이상 평균 10원 정도 지출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입교자도 있었다. 또 치성비에 대한 대략적인 규정이 있었으니, 6인조(6임)는 30원, 12인조(12임)는 15원, 8인조(8임)는 10원, 15인조(15임)는 5원씩을 각각 지출하는 것이었다.<sup>461)</sup> 본부로 보내는 치성금의 용도는 주로 조선 독립운동비, 통일 시 사용될 군자금, 독립에 필요한 비용 및 독립 후 비용, 독립자금,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준비금 등이라고 하였다. 드물게 ‘간부들이 풍운조화를 배울 때 사용되는 훈련비용’,<sup>462)</sup> ‘조선이 독립해 차(車)가 왕이 되면 태을교 신자가 고위고관이 될 것을 기도하는 비용’<sup>463)</sup> 등이라 언급하는 교도들도 있었다. 특히 본부로 보내어져 조선 독립운동자금에 쓰인다는 이 금액을 은어(隱語)로 ‘고폐(告幣)’라 불렀다. 권태추는 “고폐금 100원 이상을 낸 자는 독립의 때에 그 자를 세록신(世祿臣)에 등록해 금액의 다과에 따라 공후백자남의 작위를 주고 세습하여 그 집을 영구히 대우하는 것”<sup>464)</sup>이라 하여 고폐금을 많이 지출한 자에게는 독립 후 관리로 임용하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 4) 조직의 구성과 활동

보천교의 조직 구성은 교주 차경석 아래 60방주가 있고, 그 아래 6임, 12임,

---

460)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592-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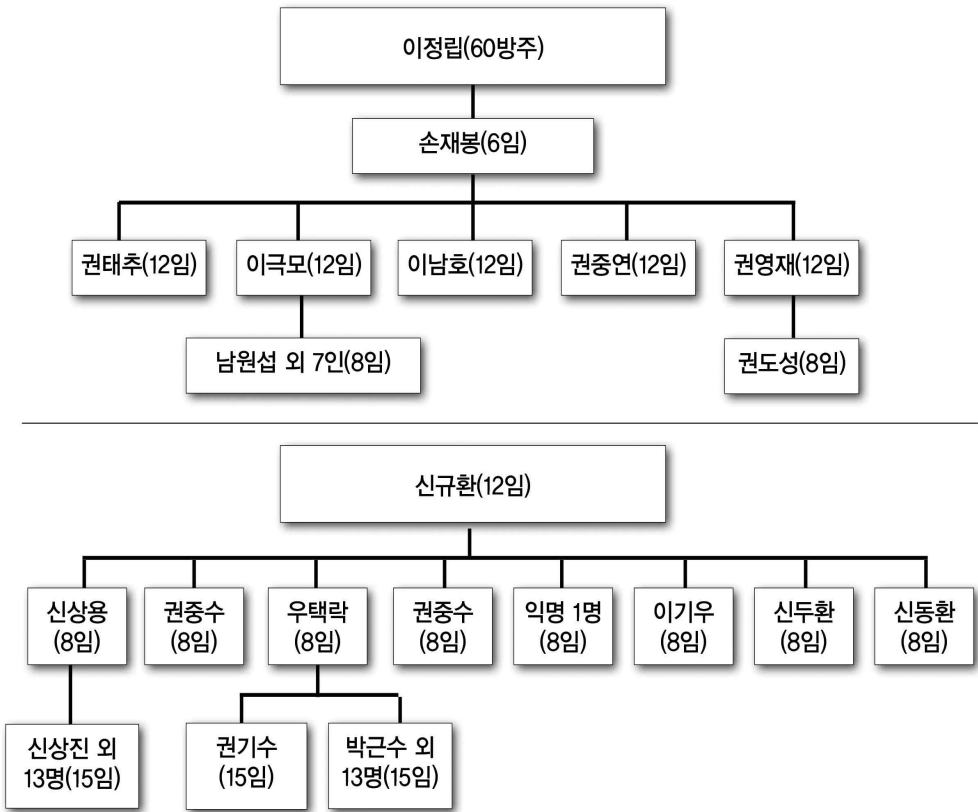
461)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刑第502號, CJA0002172, 1921년 6월 27일, 419.

462)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1014.

463)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0월 12일, 238.

464)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六五六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596-597.

8임, 15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천교 조직의 이해를 위해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서 조직도의 예를 구성해보겠다.



위 조직도에서 60방주 아래 6임은 6명이 있게 되므로 6인조가 된다. 6임은 휘하에 12인을 모아 치성을 드려 12인조를 차고 이 12인은 12임에 임명된다. 같은 방식으로 12임 아래 8임, 8임 아래 15임이 조직된다. 신도들은 입교 후 교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운동 즉 휘하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해당 인원수가 모두 채워졌을 때 산술상으로 5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보천교인들은 ‘5577’이라는 표현을 쓰며 557,700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 예로, 60방주 백남구의 휘하 6임이었던 김홍식의 발언을 살펴보자.

김홍식 : 조선에서 태을교도는 55만 7천 7백 명에 달하는 갑자년에는 조선은 독립하고 선생 차경석이 황제가 된다. 차경석은 신통력이 있는 자이니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므로, 재산을 가진 자는 그 전부를 태을교에 내놓으면 장래 염원이 성취되고, 또 출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직에 오른다.<sup>465)</sup>

또 각 조마다 본부에 일정 기간마다 납부할 금액이 예정이 되어 있어, 인원이 늘어날수록 정읍의 본부에 모여드는 성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수많은 인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보천교는 독립을 꿈꾸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기도하였으며, 교도들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또는 납부한 고폐금에 따라 관직에 임명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포교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특히 관직 임명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종교 활동의 주된 보상 내용이며 그 다음으로 도술에 통하거나(전쟁 시에도 죽지 않음 등) 가정평안, 질병 치유 및 예방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일부 신도들은 특히 도술 등의 신비적이며 주술적인 측면을 맹신하였으며, 일제의 비밀 공문서도 이를 기록하였다. 교주 월곡이 축지법(縮地法) 등의 도술에 능통하며 그가 상급자에게 도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던 신도들도 있었으며, 주문의 봉송을 통해 축귀하여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포교 시 이를 시행하였던 신도들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보상 및 보천교도들의 종교적 세계관은 현세적 측면이 주요하지만 주술종교적인 요소 또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도들은 포교와 성금 납부에 진력하였지만, 특정 신도 집에 모여 기도하는 행사를 하였다. 기도라 함은 곧 정해진 주문을 함께 염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모였을 때 상급자는 교리를 설명하며 포교 및 성금 납부를 독려하였다.<sup>466)</sup> 또 본부에서는 순일(巡日)이라고 하여 매 음력 초하루, 보름에 기도행사를 하였고, 특정일을 기념하는 치성제를 지냈다. 기념 치성은 각각 명칭이 있으며 해당 날짜, 명칭, 의미는 아래 표와 같다.

날짜(음력)	명칭	의미
1월 1일	大節日 致誠祭	元旦일로 증산천사에게 제사함

465)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1월 16일, 268-269.

466)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1월 16일.

1월 3일	祈禱日	차경석 교통 기념일
6월 1일	思慕日	차경석 출생 기념일
6월 24일	紀念日	증산천사 선화 기념일
8월 15일	節日 致誠日	
9월 19일	思慕日	증산천사 출생 기념일
	節日	하지, 입추, 동지치성

## 2. 보천교 운동의 종교적 특성

### 1) 월곡의 도통론

월곡은 어떤 교리적 주장으로 자신이 증산의 종교적 권위를 계승하였다는 하였을까? 1907년 음력 5월경부터 증산을 추종하였던 월곡은 1909년 음력 6월 24일 증산이 화천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을 수종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월곡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르침을 받았다. 그중 월곡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증산의 언행은 다음과 같다.

① 五일에 銅谷에 이르시니 數日 後에 泰仁으로부터 無事히 된 顛末을 報告하거늘 가라사대 “井邑일은 하로 公事인데 京石에게 맞겼더니 一朝에 끌으고 泰仁일은 하로 아참 公事인데 京學에게 맞겼더니 一日을 걸넛스니 京石이 京學보다 낫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京石은 兵判가음시오. 京學은 爲人이 直腸이라. 돌니기 어려우니 돌니기만 하면 善人이 되리라” 하시니라.<sup>467)</sup>

② 十一月 二十八일에 先生이 井邑 大興里 車京石의 집에 이르사 布政所를 定하시고 公事를 行하시니 大略 如下하니라.<sup>468)</sup>

③ 이 때에 皇極數를 돌니시며 여러 從徒들에게 所願을 무르시고 다시 京石에게

467)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75.

468)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1.



所願을 무르시니 京石은 裂地를 願하거늘 先生이 가라사대 “너는 兵部가 맞당하다” 하시니 京石이 不快히 녀키는지라. 先生이 가라사대 “直臣이 아니면 兵權을 맞기기 어려움으로 이제 特히 네게 맞기노라” 하시니라.<sup>469)</sup>

④ 기유 정월 초일일 성사(聖師) 본가(本家)에서 천사(天師)께옵서 현무경(玄武經)과 병세문(病勢文)을 쓰시어 성사(聖師)에게 전수(傳授)하시면서 “모든 일이 욱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루기가 누에 기루기와 같아야 성숙조만(成熟早晚)이 인공(人工)에 있나니라.”하시고 또 가라사되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어 물샷틈없이 도기(度技)를 놓았으니 제 한도(限度)에 돌아잡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니 평천하(平天下)는 내가 맡고 치천하(治天下)와 인사처리(人事處理)에 대하여서는 너에게 맡기노라. 조심하여 잘 처리하라.” 하시다. 기유(己酉) 정월 초삼일 매상(昧爽)에 고사(告事) 치성제(致誠祭)를 천지신명에게 거행할 새 성사주(聖師主)로 하여금 반천무지(攀天撫地)로 제례(祭禮)를 대행(代行)하시다.<sup>470)</sup>

인용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①과 ③의 내용은 증산이 차경석의 인물됨을 평가하면서 병권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증산은 1909년 음력 정월 2일 『사기(史記)』의 구절을 인용하여 “곤 이내는 과인이 다스리고 곤 밖은 장군이 다스린다(閫以內朕制之, 閫以外將軍制之)”<sup>471)</sup>라고 하였는데, 월곡은 이것이 곧 자신에게 대도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공사라고 하였다. 짐은 곧 증산이며 장군은 곧 월곡 자신으로 보아 정통성을 주장한 것이다. ④의 내용에서 증산은 월곡에게 자신의 친필 문헌인 『현무경』과 「병세문」을 전달하고 자신은 평천하(平天下)를 맡고 월곡에게는 치천하와 인사처리를 맡긴다고 하였다. 또 월곡은 1909년 정월 초삼일 아침 증산의 명으로 천지신명에게 고사 치성을 행하였는데, 월곡은 이를 정통성을 계승받는 의례라고 주장하였다. 일제의 공문서에 서는 이를 ‘교통전체식(敎統傳體式)’이라고 기록하였다.<sup>472)</sup>

월곡은 무라야마 지준과의 문답에서 자신의 교통 계승 정당성에 대해 직접 말하기도 하였다.

469)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82.

470) 보천교중앙총정원, 『보천교지』,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396.

471)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2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0절. “그리고 어느 날 상제께서 경석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밑에 서시고 종도들을 줄을 지어 앉히신 다음에 북쪽을 향해 휘파람을 부시니 별안간 방장산으로부터 한 줄기의 안개가 일더니 사방으로 퍼져 문턱과 같이 되었고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곤이내 짐제지 곤이의 장군제지(閫以內朕制之 閫以外將軍制之)’라고 말씀하셨도다.”

472)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10.

村山曰 : 증산(甞山) 교조(敎祖)께서 봉착(逢着)하신 3년 만에 교통(敎統)을 전(傳)하시고 천화(天化)하셨다니 그 시(時)에 교통(敎統) 전(傳)하였으므로 교주(敎主)가 되었은즉 그 시(其時) 제자 중에 수제자(首弟子)가 된 때문에 교통(敎統)을 전(傳)하였음인가. 또한 교통(敎統)을 전(傳)할 만한 자격이 유(有)함으로 전(傳)하게 되었음인가.

교조(敎祖) 왈(曰) : 교조(敎祖)께서 나를 만나기 전(前)에난 농립(農笠)만 쓰고 단이시다가 나를 만난 후로부터는 나도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의관(衣冠)을 하겠다 하시고 의관(衣冠)을 하신 일도 이섯고 또 이 지방(地方)을 떠나실 때에 내가 대(代)로 바든 증거(證據)가 유(有)하니 기유년(己酉年) 정월 초삼일 고사치성(告祀致誠)을 올닐 때에 우양(牛羊) 제물(祭物)을 만히 준비(準備)하고 벽상(壁上)에 설위(設位)하고 배례를 가로치고 제법(祭法)을 가르치신 후에 나로 하여금 대제(代祭)하라 하시고 차지(此地)를 이(離)하시다. 기후(其後) 천화시(天化時)에야 면회(面會)하였고 또 나는 친히 듯지 못하였지만는 타인(他人)이 듯고 전(傳)하는 말에 의(依)하면 동곡(銅谷)에서 화천(化天)하시기 전(前)에 중인(衆人)의게 말삼하시되 천지신명(天地神明) 공판(公判)에 내가 정읍(井邑) 차경석(車京石)을 잘 정리(定)해야 실수(失手)가 업다. 사람 잘 알아 썼다고 하시드라 한다.<sup>473)</sup>

문답에서, 무라야마 지준은 월곡이 수제자이거나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교통을 전수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월곡은 증산이 자신을 만나고 나서 만날 사람을 만났다고 하며 의관을 구하였으며,<sup>474)</sup> 1909년 정월 초삼일 고사치성을 자신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 2) 시한부 출세설

위와 같은 논리로 월곡은 증산의 종교적 카리스마가 자신에게 계승되었다고

473)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보천교중앙총정원, 1981, 503-504.

474) 보천교에서 발행한 『敎祖略史』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 丁未年 五月 十七日에 金溝郡 巨野酒店에서 車敎主를 達하사 車敎主가 井邑으로 가시기를 懇請하니 敎祖께서 짐짓 拒絶하난듯하면서 誠意를 試驗코자 十餘日間을 金士裕 水碓室에서 留連하시다가 六月 三日에 井邑郡 笠巖面 大央里 車敎主本第로 來하시다. 敎祖께서 車敎主를 만나시기 前에난 삿갓(農笠)만 쓰고 단이심으로 世人이 狂人으로 指目하더니 車敎主를 達着하신 後로부터난 “나도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衣冠을 하겠다” 하시고 衣冠을 具하시다. 저자미상, 『敎祖略史』,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4-6.

확신하였다. 그렇다면 월곡은 어떠한 종교적 신념을 가졌으며 교조인 증산에게 어떠한 종교적 희망을 품었을까? 월곡의 직접적인 발언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천교 신앙인들의 신앙양태와 발언을 살펴봄으로써 월곡의 종교적 신념을 유추할 수 있다. 신앙인들의 신앙양태는 곧 창교주의 종교적 신념에 공감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월곡의 종교적 신념 중 하나는 증산의 출세설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출세설은 세상을 떠난 증산이 초월적 존재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는 교설이다. 출세하는 시점에 대해 증산은 스스로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자신을 잘 믿고 힘써 수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월곡은 증산의 출세 시기를 특정하였으며 그 시점을 중심으로 종단의 힘을 집중하였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시기를 연장하였다.

월곡이 처음 지목한 시기는 1924년 갑자년이다. 앞장 보천교인의 종교 운동에서 판결문을 토대로 갑자등극설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는 갑자년 음력 3월 15일이나 16일, 음력 4월 8일<sup>475)</sup>, 동지날<sup>476)</sup> 등으로 특정되었다. 이 시기가 차경석이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앙인들이 포교 시 또는 풍설에 의해 그렇게 알려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날짜에서 특히 음력 3월 15일 또는 16일은 증산이 많이 암송하라고 하였던 ‘서전서문(書傳序文)’과 관련이 있다. 증산은 종도들에게 “書傳序文을 萬遍口誦하라 大運이 그에 잇나니라.”<sup>477)</sup>고 하였는데 이 ‘서전서문’의 말미에 “嘉定己巳三月既望, 武夷蔡沈序”라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기망인 3월 16일 또는 3월 15일을 증산의 출세일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1924년 갑자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동지가 지난 시점이 되자 증산의 출세라는 예언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월곡은 합당한 대답을 내어 놓아야 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475) 「普天教主 車京錫이 甲子 四月初八日에 조선, 일본, 중국의 천자로 등극한다고…」, 《동아일보》 1924년 1월 12일.

476) 「冀窩中蠢動하는 時局大同團(二), 甲子 冬至 一過後 登極도 遁甲藏身」, 《동아일보》 1925년 1월 13일.

477)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0; 『대순전경』 초판에는 “하로는 여러 從徒들에게 일너 가라사대 大運을 바드려 하는 者는 書傳序文을 만히 誦讀하라하시고 또 가라사대 ‘且生於數千載之下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亦已難矣’의 一節은 淸水를 써놋코 넘을만한 句節이라 하시니라.”라고 하였다.(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106) 대순진리회의 『전경』 교법 2장 26절에는 “상제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서전 서문(書傳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 하셨느니라.”라 하였다.

黃窖中 蠢動하는 時局大同團(六), 登極日을 延期 오는 립춘날로

등극 당일 즉 동지(冬至)날(보통교 네 치성의 한날)에는 교도를 모아 량쪽으로 갈라 세우고 차경석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며 등극 날이 오늘인데 이날 등극을 못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잇는 중 더욱이 옥황상제의 말씀으로 때가 아직 조금 이르다는 까닭에 오날 등극을 미루어 오는 립춘(立春)날 즉 음 래년 정월 열이튿날은 괴어히 등극할 터인즉 그리 알라하고...478)

기사에서, 월곡은 동지 치성 행사를 마치고 교도들에게 옥황상제께서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신다며 이듬해인 1925년 입춘으로 그 시기가 미뤄졌다고 하였다. 세간에서는 증산의 출세설보다 월곡의 등극설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언론은 이 등극설에 대해 크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었던 월곡은 기습적으로 이뤄진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등극설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記) 당신이 윤 4월에 대시국 천자로 등극할 차로 상경하였단 소문이 려항에 자자 함되다.

(車) 나의 이번 상경하였든 것은 전혀 나 개인의 친족에 대한 일을 보기 위함시오 등극 운운은 전혀 사실 업는 허황된 소문이올시다.479)

이처럼 월곡은 표면상 등극설을 부정하였지만, 증산의 언설을 신봉하였던 종도로서 증산의 출세설을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 당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 줄 ‘진인(眞人)’의 출현을 희망하였던 많은 민중들은 월곡의 등극설에 큰 기대를 걸고 보천교 신앙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월곡은 보천교 내홍, 일제의 보천교 탄압, 언론의 비난 등으로 크나큰 곤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월곡은 기사년인 1929년에는 반드시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 믿고 1929년 음력 3월 15일(서전서문에서 己巳三月既望)로 날짜480)를 정한 뒤 그날 성전의 신위를 봉안하기로 간부들과 협의·결

478) 《동아일보》 1925년 1월 17일.

479) 「登極說은 自己無視 (2)」, 《시대일보》 1925년 5월 28일. 월곡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시모오카를 만나기 위해 입경하였었는데, 시대일보 기자 조준호(趙俊鎬)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월곡의 행방을 추적하다 월곡과 만나게 되어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한 내용은 《시대일보》 1925년 5월 27일-31일까지 5차례에나 걸쳐 상세하게 실려 있다.

480) 《매일신보》에는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즉 음력 4월 8일에 등극하려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未免할 因果의 法則 普天敎 漸次衰頹 五十餘萬 敎徒가 現在 數千으로 信

정하였다. 이 봉안식이 거행되기 전부터 세간에는 월곡이 대시국(大時國) 천자(天子)로 등극식(登極式)을 거행할 것이라는 풍설이 파다하게 퍼졌고 이에 일제 경찰들은 집요하게 봉안식이 거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일말이나마 증산의 권능을 믿었던 월곡은 봉안식을 무사히 거행하고 증산의 출세와 같은 크나큰 종교적 변화를 기대하였지만, 봉안식은 거행되지 못하였고 월곡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한때 보천교의 주요 간부이자 월곡을 지근에서 보필하였던 남주 이정립은 월곡이 증산에 대한 신심을 잃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차경석은 원래 천사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사 세기의 운로를 뭉치고 도수를 짜서 자기에게 붙여놓았으니 그 도수를 당하면 자기가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될 줄을 믿고 경신년을 기다렸으나 믿었던 바가 헛되게 됨에 이로부터 천사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으며 갑자년을 기다렸으나 뜻밖에 혁신운동이 일어나서 궁정에 빠지게 되었고 또 무진년에 처 이씨가 영안으로 천사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삼황오제신이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는 천사를 심히 의심하였으며 더구나 기사 삼월기망은 천사께서 큰 운수를 받을 자는 많이 읽으라고 정녕히 말씀하신 서전서문의 끝 문구 인즉 만일 천사께서 신성하시다면 이번만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봉안식까지 금지당하여 버렸으므로 이제까지 천사를 신앙하여 온 일이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였다.…<sup>481)</sup>

즉, 월곡은 1920년, 1924년, 1929년을 증산의 출세와 자신의 등극 시기로 믿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게 되자 마침내 자신의 신앙을 후회하고 증산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주의 기록에 의하면 월곡은 1931년 음력 정월 간부들에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하던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니 그대들은 나에게 속았고 나는 증산에게 속았고 증산은 옥황상제에게 속은 일이라. 수원수구할 것 없으니 이제 교단을 해산하고 각히 고향으로 돌아가라.”<sup>482)</sup>며 종단의 해산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위 기록이 월곡의 반대파인 남주에 의한 것이기에, 남주가 월곡을 비난하기

---

徙들의 慘酷한 生活」, 《매일신보》 1929년 8월 24일. “車天子(本名 車京錫)의 등극을 빙자하여 京鄕 各處에 支部를 設置하고 또 重要幹部 등을 各 地方에 特派하여 車天子가 己巳年 己巳月 己巳日 卽 今年 4月 初旬日에 登極만 하면…”

481) 이정립, 『증산교사』, 181-182.

482) 이정립, 『증산교사』, 182.

위한 편파적인 입장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월곡이 1928년 신앙체계와 의례를 변경하였고 출세설을 지속적으로 믿어 왔었던 사실 등 여러 전후사정을 고려할 때 남주의 기록은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월곡이 신앙한 증산의 출세설은 기한을 정하였기 때문에 시한부론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생활, 가정, 교육 등의 일상적 가치는 뒤로 한 채 보천교의 종교 사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천교의 교단지인 『보광』 창간호에서도 “本務에 奔忙한 우리 교에서는 교육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사업을 장려할 여가도 업게 됨은 유감이지만은 부득이의 事勢외다.”<sup>483)</sup>라고 하여 보천교는 교육뿐 아니라 모든 사회 사업을 장려할 여가가 없다고 하였다. 또 상당수의 보천교인들이 전 재산을 종단에 기부한 뒤 이른바 ‘탄갈자’가 된 뒤 생활터전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비참한 사례가 당시 언론에 종종 보도되었다.<sup>484)</sup>

결론적으로, 증산의 출세설은 월곡이 신앙운동을 전개하고 종단을 발전시켰던 주요한 동인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월곡은 기사년인 1929년을 마지막 기대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종단 안팎의 고난 속에서도 종단의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에 신위를 봉안하는 봉안식을 거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봉안식마저 일본의 방해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월곡은 더 이상 창교주로서 신앙운동을 전개할 동인을 잃게 되었다. 또 월곡의 시한부론을 믿고 자신들의 모든 정신적, 물리적 가치를 투여하였던 많은 신앙인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 3) 복벽주의와 복고주의

월곡이 전개한 신앙운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복벽주의(復辟主義)와 복고주의(復古主義)이다. 앞장에서 일제강점기 판결문을 통해 다룬 보천교인의 신앙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월곡이 이후 황제 또는 조선 왕이 될 것이고 간부들은 직급에 따라 관직이 수여될 것임을 희망하였다고 하였다. 즉 창교주인 월곡과 보천교 신앙인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즉 후천선경은 일제에게 강탈된 국권의 회복과 새 왕조의 건설이었다.

483)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38.

484) 「상투쟁이 거지떼 정읍 일대에 되굴되굴」, 《동아일보》 1925년 1월 17일.

청음과 남주를 중심으로 한 보천교의 신파 세력은 이러한 보천교의 전제적이며 전근대적인 유흥을 비난하며 이른바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혁신운동을 실패하고 지식인 중심의 신파 세력이 보천교에서 이탈하자 보천교는 더욱 복벽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게 되었다.

보천교의 복고주의적 성격을 대변하는 보천교 신앙인의 외형적 모습은 바로 ‘상투’이다. 당시 언론은 보천교인들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상투쟁이’<sup>485)</sup>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당시 보천교 교인들이 단발하지 않고 전부 장발(長髮)하였기 때문이다. 보천교인들이 사회적 비난에도 장발을 고집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대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월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記) 보천교에서 머리를 길러 상투를 짜는 것은 무삼 까닭인가요?

(車) 상투를 짜기는 우리 교조(敎祖)께 부터입니다. 무릇 풍조(風潮)라는 것은 봄이 간 뒤에 여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되는 것이 원리원칙인 바 오늘까지 서양풍조(西洋風潮)가 우리 동양에만 들어 왔을 뿐이오 동양풍조(東洋風潮)가 서양으로 나간 일은 없었스나 이제부터는 동양풍조로 하야곰 서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래에는 우리의 상투짜는 풍조가 서양에도 만히 유행되리라고 믿습니다.<sup>486)</sup>

인터뷰에서 월곡은 교조인 증산 때부터 상투를 짚으며 상투를 함으로써 동양의 풍조가 서양에 유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 상투 문제에 대해 『보광』 창간호의 「答客難」에서는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객 : 그런데 귀교 신자는 전부 보발(保髮)한다지요. 단발한 사람이 입교하면 강제로 장발케 한다니 그것은 자유를 박해함이 안인가요?

485) 「甲子年 四月을 期하야 鷄龍山에 車皇帝 最近 數十年來로 교도가 수십만에 달한다 하는 태을교의 내막은 과연 엇딘가」, 《동아일보》 1922년 2월 21일. “...그 교의 본부를 가보면 한판에 박인 듯이 활기없는 얼굴을 가진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망건을 도토리가지 쓰고 조선갓에 두루마기를 입고 점시간케 안것스니 머리를 깎지안는 점...”; 「數萬餘名 髻有者가, 보천교 진경원 기회식 거행차로 경북달성공원에 모혀드려」, 《매일신보》 1923년 10월 4일. “...대구부내에 수만 명의 상투 가진 자가 한 세에 모혀들기난 스오십년 킁에 처음 보난 바이더라...”

486) 「大時國 天子 車京錫 會見記 (4)」, 《시대일보》 1925년 5월 30일.

답 : 아니오 강제는 무삼 강제겅소. 나를 보시오. 짝근대로 잊지 안어요. 그러나 천사의 교훈에 의하여 보발한 사람이 대다수임은 사실이외다.

객 : 여보 그 보기 실흔 상투를 웨 그다지 애호하는가요? 전설을 들은 즉 귀 교도들이 비결에 잇는 ‘僧血成川’이란 것을 맹신하고 보발한다니 참말 그릇소?

답 :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요. 내 알기에는 보발의 이유가 네 가지 잇습니다. 첫째는 현대물질문화형식주의의 극단에 대한 반동이요, 둘째는 진실한 신앙의 유무를 식별하기 위함이니 상투로 행세하기 창피한 것이 머리 길우기 성가신 것이 창피와 성가신 난관에라야, 셋째는 正邪를 식별하기 위함이니 有髮者是 거개 순박 천진의 농민이로대 단발자 중에는 여러 가지 죄악의 무리가 雜在한 까닭으로, 그리고 넷째는 대다수의 교인은 愛髮적 습성에 富한 농민임으로 그대로 방임한 것이외다.<sup>487)</sup>

내용인 즉, 장발 즉 보발의 이유로 든 것은 현대문물에 대한 거부, 진실한 교인의 판별, 대다수의 교인이 장발 습성을 간직한 농민임을 들었다. 그러나 보천교의 장발 풍습은 증산의 유훈 가운데는 선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또 위의 인용문에서 월곡은 증산 교조 시절부터 상투를 찼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증산은 일진 회원들이 상투를 깎으려고 하자 직접 한 줌을 베어 주기도 하였다.<sup>488)</sup> 즉 증산은 단발을 강하게 거부하고 장발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투와 더불어 보천교의 복고주의적 태도는 현대 교육에 대한 부정이다. 『보광』의 내용을 살펴보자.

객 : 귀교에서 현대 교육을 부인하고 자제의 취학도 금지한다니 참말인가요?

답 : 그릇타고도 하겠지요. 그러나 도덕을 먼저하고 지식을 뒤로함은 종교가의 진면목이 안인가요. 그리고 宗教家 즉 教育家가 안이오, 양자 간에 엄정한 分科적 의미도 잇스려니와 靈的 建設의 初段에 잇서서 本務에 奔忙한 우리 교에서는 교육 쏜 안이라 모든 사회적 사업을 장려할 여가도 업게 됨은 유감이지만은 부득이의 事勢외다. 이리하여 자연히 세간의 오해를 맞는 것이겠지. 어대! 교의상으랴 교육을 반대할 이가 잇나요. 만일 여력만 잇다하면 그런 일에 용력할 것은 물론이지요. 그런데 개인으로는 현대 교육을 비난하는 사람도 업지 안어요. 위선 나부터

487)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37-38.

48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3장 9절. “...그때 정 남기와 그의 처남이 일진회원으로서 상제의 가임을 강권하고 군중과 합세하여 상제께 달려들어 상투를 가위로 깎으려고 하되 베어도 베어지지 않으니 상제께서 친히 한 줌을 베어 주시며 ‘이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풀어주소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렇소.

인용문의 내용에서처럼, 당시 세간에는 보천교가 현대 교육을 부인하고 자녀의 취학을 금지한다는 악평이 나 있었다. 이러한 악평에 보천교는 종단이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바빠서 다른 사업에는 여가가 없음을 고백하고, 또 현대 교육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밝혔다.

보천교의 복벽주의와 복고주의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신교육 등의 서양문물을 배격하고 서양 문물의 침투 이전의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정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천교의 사상은 증산의 교의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도 증산은 월곡과의 문답에서 서양문명의 이로움을 그대로 두어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며,<sup>489)</sup>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거둔다하며 왕정이 사라질 것 등을 설하였기 때문이다.<sup>490)</sup>

월곡이 이와 같은 증산의 설법을 들었음에도 복벽주의와 복고주의를 고수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 월곡은 증산의 ‘원시반본(原始返本)’에 대해 설법한 것을 복고주의로 해석한 것이라 추정된다. 증산은 원시반본에 대해 ‘군사위(君師位)가 하나가 되는 것’,<sup>491)</sup>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것’<sup>492)</sup> 등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유교의 복고주의적 입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유교적 소향이 있었던 월곡은 증산의 ‘원시반본’ 교리를 원용하여 보천교식 복벽주의와 복고주의를 형성한 것이라 추측된다.

---

48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35절.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인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

49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27절.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상한 기운이 제왕의 장엄한 거동의 모양을 이루고 허공에 벌여 있더니 사라지는도다.”

49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26절.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49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42절.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 3절 월곡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

#### 1. 보천교계 개괄

1923년까지 급성장하여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한 보천교가 분열하기 시작한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일보 인수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청음과 남주의 파면이다. 외면상으로는 월곡과 청음·남주 사이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교단 전체적으로는 청음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계층인 신파와 월곡을 중심으로 한 구파의 노선 차이이다. 지식인 계층인 신파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보천교를 근대종교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농촌 민중을 중심으로 한 구파는 정감록 신앙을 바탕으로 주술종교적·예언적 특성이 강하였다. 파면된 청음과 남주는 보천교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교단의 쇄신을 요구하였으나 월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의 협조를 얻어 혁신회를 탄압하고 기존 보천교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일제와 협의하여 시국대동단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시국대동단의 활동을 친일 행각으로 여긴 조선 민중들은 보천교를 비난하며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보천교는 쇄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청음과 남주의 보천교 혁신운동 이후 주요 간부들은 연이어 보천교를 탈교하거나 반보천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보천교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간부들의 이탈과 관련하여, 일제 당국은 1924년 9월 시작한 청음과 남주의 혁신운동을 ‘제1차 혁신운동’이라 칭하고 이듬해인 1925년 11월에 간부 이달호 등에 의해 일어난 혁신운동을 ‘제2차 혁신운동’이라 하여 그 원인, 상황 등에 상세히 기록하였다.<sup>493)</sup>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보천교 ‘교단의 분리’라는 소절에 이탈한 교단 간부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그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소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들의 직명·탈교 시기를 나열하면 1924년 청음 이상호를 필두로 임경호(총령원장, 1925), 채규일(함경정리, 1925), 이달호(경성진정원장, 1926), 박종하(전남정리, 1927), 임치삼(충정원장, 1927), 문정삼(충정원장, 1927), 민영성(총령원장, 1929), 이중성(수호사사원, 1929), 김언수(묘선화사, 1919), 강상백(정선화사, 1929), 강응규(건방주,

493)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95-117;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국가기록원 소장, 1924, 565-569.

1930), 김환옥(12임)이다.<sup>494)</sup> 이처럼 청음의 탈교 이후 보천교의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교단을 이탈하였던 것이다.

1970년 증산계 종단이 참여하여 결성된 증산종단친목회에서는 이듬해 『증산종단개론』을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총33개의 종단이 소개되었고, 이 중 대법사(이상호·이정립), 보화교(김환옥), 태을교(신현철), 천인교(채경대), 수산교(강상백), 무을교(김계주), 임무교(김종열), 서상근의 교단, 인천교(한병수), 원군교(박인택), 이중성의 교단, 서울대법사(최위석)의 12개 단체가 보천교 간부였다가 탈퇴한 창교주들에 의해 결성된 종단이다. 이렇게 상당수의 종단이 보천교에서 분파하였으며 이 단체들을 기존 보천교와 더불어 13개 단체를 일명 ‘보천교계’라 칭할 수 있겠다.

보천교 이후 종교 운동을 조망하려면 첫째, 이 보천교계 종단의 종교 활동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다. 둘째, 보천교가 해방 이후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해방 후의 활동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주요 간부들이 이탈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하였지만 완전히 사멸하지 않고 해방 후 종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보천교 운동이 어떻게 파급되고 전개되어 나갔는지 파악할 수 있겠다.

첫째, 보천교계 종단의 교세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이 단체들의 교리·종교 활동·역사 등에 대해서는 『증산종단개론』, 『범증산교사』,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등에서 잘 정리되어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교세만을 다뤄보겠다. 증산종단친목회에서 언급한 보천교계 12개의 종단 중 태을교(신현철)·천인교·인천교·원군교·이중성의 교단·서울대법사는 일제강점기에 쇠망하였고, 임무교와 서상근의 교단은 1960년대 멸실되었다.<sup>495)</sup> 무을교는 1964년 10월 대한불교 미륵종으로 개명하였고 본부도 이전하였으며 교세도 쇠퇴하였다.<sup>496)</sup> 1997년 조사 당시 교세는 신도수 3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97)</sup>

강상백이 창시한 수산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포교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59년 강상백이 별세한 후 단군성주교, 동도법종금강도 등으로 분파하였다. 1997년 조사당시 단군성주교는 신도수 300여명, 동도법종금강도는 신도수 200여명으로 조사되었으며<sup>498)</sup> 현재까지도 미약하지만 교세가 이어지고 있다.<sup>499)</sup> 김환옥이 창

494)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55-257.

495)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116-122.

496)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758.

497)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97, 219.

시한 보화교는 그가 1957년 서거한 뒤 1959년에 진동학제화교가 분리되어 나갔다. 1985년 조사 시 보화교는 신도수 1000여명,<sup>500)</sup> 진동학제화교는 신도수 5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sup>501)</sup> 1997년에는 교세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02)</sup> 청음 이상호가 창립한 대법사는 오늘날 증산교본부로 알려져 있는 교단으로 보천교계 가운데는 교세가 가장 크다. 1985년 조사 시 신도수는 약 1,600세대 5천여 명으로 추정되었으며<sup>503)</sup> 1997년에는 교당수 42개소, 신도수 10,600여명으로 조사되었다.<sup>504)</sup>

둘째, 해방 후 활동을 재개한 보천교에 대해 살펴보겠다. 해방 후 보천교 신도들은 1945년 11월 정읍 대흥리에 모여 교단의 재건을 논의하였다. 새로 본부를 설치하고 이전의 조직체계를 통해 교단을 정리하고 성금을 모으며 교단을 일으키니 신도가 2-3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sup>505)</sup> 그러나 1947년 월곡의 아우인 차경덕이 보천교는 자신의 형이 창설한 것이니 월곡을 보천교의 교조로 신앙하고 증산은 신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교단은 증산을 교조로 하고 월곡을 교주로 하는 구파와 월곡만을 신앙하는 신파로 분열하게 되었다.<sup>506)</sup> 이후 신구파는 줄곧 서로 다투며 시비와 분쟁이 오가게 되었으며 몇 차례 통합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분열하였다.<sup>507)</sup> 1985년 조사 시 신구파 합하여 수천 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나,<sup>508)</sup> 현재는 교세가 미약하다.

위와 같이 보천교계 종단의 전개 과정을 교세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위 교단 중 본 논문이 좀 더 천착하고자 하는 단체는 청음 이상호가 창립한 대법사이다. 청음이 전개한 종교 운동을 중요하다고 보고 천착하려는 이유는 첫째, 그가 일제강점기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보천교 신파의 대표로 월곡과 더불어 보천교 운동의 양대 축을 이뤘기 때문이다. 둘째, 청음의 종교 운동은 여타

498)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97, 197-203.

499) 2016년 박광수는 단군성주교를 현장 조사하여 그 유래·제주도 토착화 과정·신앙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광수, 「제주도 단군성주교 현장 조사 연구」, 『한국종교』 3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6, 3-26.

500)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827.

501)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868.

502)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97, 187.

503)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892.

504)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97, 162.

505) 이강오, 「보천교: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 36.

506) 이강오, 「보천교: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 37.

507) 홍범초, 『범증산교사』, 148-150.

508)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1985, 813-818.

의 증산종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증산계 종교운동의 전개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후 상술하겠지만 청음과 남주가 편찬한 『대순전경』은 여러 증산종단의 경전으로 사용되었고, 남주가 저술한 여러 교리서는 여타 종단의 종교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청음이 창시한 교단은 오늘날 증산종단에서 대순진리회 다음으로 교세가 큰 증산도와 관련되는 등 현재진행형의 종교 운동이다.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보천교계 종단이 교세가 끊어져 쇠망하였던 것과 비교되어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타 교단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하며, 청음과 남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천교 이후의 종교 운동의 전개’의 절에서 청음과 남주의 종교 운동을 중심으로 천착하겠다.

## 2. 청음 이상호와 남주 이정립의 종교 운동

형제지간인 청음(靑陰) 이상호(李祥昊)와 남주(南舟) 이정립(李正立)은 신진지식인으로 보천교에 입교하여 핵심 간부로 활약하였으며 보천교 탈교 후 독자적인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지식인으로서 보천교 활동 시절 교단의 교리 정립과 출판 활동 등에 활약하였으며 상당수의 민족주의 우파 계열 지식인 인사들을 보천교 신자로 포섭하면서 보천교 내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천교 연구에 있어서도 두 형제는 월곡만큼 중요한 인물이며 증산 종단사에 있어서도 제일 처음 경전을 편찬하고 증산 신앙의 교리를 세우며 교단을 창설한 창교주로서 주요한 종교 인물이다. 먼저 이 두 형제의 종교 활동을 보천교 시기와 보천교에서 탈교 후 시기로 나누고, 보천교 활동 시기의 종교 활동은 앞 절의 내용과 겹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논하고 보천교 탈교 후 시기를 좀 더 상술하겠다. 그 다음 두 형제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 1) 보천교 활동

청음(靑陰) 이상호(李祥昊)는 1888년 음력 2월 27일 전남 해남군(海南郡) 삼산면(三山面) 송정리(松汀里)에서 부친 희면(喜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중시조 통례문부사공(通禮門副使公) 이지(李漬)의 20대손

이다.<sup>509)</sup> 해남에서 연안 이씨는 한말까지 해남 윤씨와 여주 민씨와 더불어 해남의 3대 가문으로 행사하였지만, 그의 집안은 자작농가에 불과하였으며 16세 되던 해 부친이 돌아가자 가세가 더욱 기울게 되었다.<sup>510)</sup> 청음은 부모 슬하에서 16세까지 한학(漢學)을 배웠으며 20세부터 3년간 해남미산중학(海南媚山中學)에서 신학문을 습득한 뒤 중국으로 떠나 상해, 북경 등에서 3년간 머물렀다. 27세 되던 1914년 귀국하였고 그 해 태을교에 입교하였다.<sup>511)</sup>

남주(南舟) 이정립(李正立)은 청음의 아우로 본명은 성영(成英)으로 1945년에 개명하였다. 그는 1895년 청음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한학(漢學)을 배우고 목포 영흥소학교(永興小學校)와 중학교를 마쳤다. 그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고등사범대학교(東京高等師範大學校) 지리역사과(地理歷史科)를 졸업하였다. 25세가 되던 1919년에 형인 청음의 권유로 태을교에 입교하였다.<sup>512)</sup>

청음과 남주의 아우이자 부친 희면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저명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효정(曉亭) 이순탁(李順鐸, 1897-?)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다. 효정은 1920년대 초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에서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1879-1946) 교수에게 맑스 경제학을 배웠으며 1923년 연희전문학교 상과(商科) 교수에 임용되어 한국 사상계에 맑시즘을 선구적으로 소개하였다. 1938년 ‘연희전문학교 적화사건’ 일명 ‘경제연구회’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에는 초대 정부의 기획처장이 되어 이승만 정부에 참여하였으며 1946년에는 연희대학교 초대 상경대학장을 역임하였다. 1950년에 6·25 전쟁 시기 납북된 뒤 생사불명의 상태다.<sup>513)</sup>

509) 김홍철, 「이정립의 대순철학사상」,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4, 1017; 홍범초, 『범중산교사』, 한누리, 1988, 507;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사상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70. 『범중산교사』에는 출생지가 구성리(九星里)로, 홍성찬의 논문에는 송정리(松亭里)로 되어 있으나, 당시 지명을 고려해보면 송정리(松汀里)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510)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527-528.

511) 홍범초, 『범중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507; 이상호, 『典經略驗』, 弘文堂印刷所, 1955, 81-82.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국내국외에 방랑하다가 거금 41년 전 을묘에 비로소 천사를 신봉케되야 그 홍대무량하온 이념을…”

512) 김홍철, 「이정립의 대순철학사상」,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4, 1017.

513) 홍성찬, 「효정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 『한국경제학보』 4/2,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119-120.

이처럼 청음과 남주의 집안은 변변치 않았으나 이들이 한학을 익히며 신학문을 배우고 일본 등으로 유학하여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진지식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었다. 청음과 남주는 각각 보천교에 입교하여 보천교 내 대표적인 핵심브레인이자 명실상부한 간부로 성장하였고 이순탁은 이러한 두 형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 사상을 형성하였다.<sup>514)</sup>

청음이 입교한 1914년 교단은 증산에 의해 수부(首婦)로 임명된 고판례를 중심으로 포교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교세가 확장되자, 고판례를 수종하며 초기 교단의 일을 주관하던 월곡은 1916년 12월 22일 동지일에 24명의 방주를 임명하여 연원체계(淵源體系)를 조직하였다.<sup>515)</sup> 월곡이 고판례를 배제하며 교단을 장악하고 24명의 방주를 임명할 때, 청음은 24방주에는 임명받지 못하였으나 “24인에게 부속치 말고 단독으로 교무를 집행하라”<sup>516)</sup>는 월곡의 지시에 따라, 24인 아래에 배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포교 및 교단 업무를 시행하였다.

1918년 음력 9월 제주도 법정사 사건 이후, 일제의 태을교에 대한 수색이 강화되면서 많은 간부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폭압을 겪으면서 교단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 또 초기 신앙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고판례가 교단을 이탈하여 상당수의 신도들의 신앙심이 흔들렸다. 이에 채규일, 문정삼, 청음 세 간부가 협력하여 신도들을 수습하고 기존의 고판례에게 집중되었던 신도들의 신뢰심을 월곡에게 옮겨 가도록 하였다.<sup>517)</sup>

이를 위해 청음 등은 새로운 교리해석으로써 증산에게서 고판례로 다시 고판례에게서 월곡에게로 정통성이 이전되었음을 강조하여 월곡의 교단 지도자 즉 교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 여러 증산의 언설을 해석하여 월곡의 정통성을 세웠다. 즉 월곡의 정통성에 관한 보천교 교단의 주장은 청음 등이 내어놓은 교리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종통 계승의 정당성의 교리는 월곡의 교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교리 전파와 새로운 포교방법은 큰 성과를 거두어 흩어진 신도들의 대다수를 수습하고 교주 월곡을 신뢰하게끔 하였으며 법정사 사건 이후 무너진 교단을 재건할 수 있게 하였다.<sup>518)</sup>

514)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사상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71.

51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a.

51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4a.

517) 이정립, 『증산교사』, 61.

518) 이정립, 『증산교사』, 63.

월곡은 이러한 청음을 신뢰하여 1919년 음력 10월 5일 대황산(大篳山)에서 시행된 고천제에서 그를 교단의 최고 핵심 간부 12인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의 직함은 서방주(西方主)로 토방(土方)인 교주 월곡 아래 목, 화, 금, 수 사정방(四正方) 다음에 해당하는 고위직이었다. 이때 그의 동생 이성영 즉 남주 이정립은 60방주 중 동지주(冬至主)에 임명되었다.<sup>519)</sup>

교단의 핵심 간부로서의 청음, 남주는 열심히 포교 운동을 전개하여 교세 확장에 힘을 다하였다. 이에 대해 남주는 자신의 종교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기미년 가을에 이성영이 경상북도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포교운동을 일으키니 교세가 크게 일어나서 이듬 경신년까지에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영주, 예천, 군위 각 군에 풍미하여 신도가 십여만에 달하였다.<sup>520)</sup>

남주의 말대로 1919년 가을부터 1920년까지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교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과연 신도가 10여 만에나 달할 정도가 되었는지 그 사실 여부는 다른 자료나 근거를 통해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제가 생산한 문서나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태을교가 번창하였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제는 태을교 신도들에 대한 검거에 열을 올려 많은 신도들이 투옥되는 이른바 ‘청송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제는 고문과 심문을 통해 태을교도들을 취조하였고, 그리하여 남겨진 재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태을교도들의 신앙과 실천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또 청음, 남주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안후상은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에서 총 36건의 보천교 관련 판결을 분류<sup>521)</sup>하여 조사하였는데,<sup>522)</sup> 두 형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문서는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JA0002172와 CJA00021725에 해당하는 판결문이며 관련 내용을 통해 두 형제의 구체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있다.

51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9b.

520) 이정립, 『증산교사』, 88.

521) 필자의 조사 결과 동일 사건에 대해서 1심, 재심을 하기도 하였고,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러 건으로 나뉘어 판결이 되기도 하여 이보다 많은 판결문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겹치는 건을 하나의 건으로 처리할 때 대략 35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인다.

522)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1921년 6월 22일 박주한 외 26인에 대한 판결문 가운데, 피고 손재봉(孫在鳳)에 대한 신문 내용 중 “자신은 60방위 이성영(李聖英) 아래 6인조를 가맹하고 대정9년(1920년) 음력 5월 중 권태추(權泰鍾) 외 11명을 부하로 했다. 그전 이성영, 박준대(朴准大) 등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흠치교의 개조 강증산은 명치 42년 중에 사망했으나 갑자년에 갱생하여 전 세계를 통일하고 그 고족제자 차경석은 동시에 조선의 제왕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고 교도는 각각 기능에 따라 관직에 오르게 된다.”라 하였고, 피고 권태추의 신문 조서에서 위와 같은 설교를 “6인조의 손재봉 및 60방위의 이상호 등으로부터 자신이 친히 들어서 안다.”고 하였다. 또 피고 이극모(李極模)는 입교 치성 시 남주가 입회하여 서약하였으며 손재봉의 부하로 들어갔고 또 자신도 부하인 8인조를 만들어 음력 8월에 7명을 교단에 가입시켰다고 하였다. 피고 김구현은 청음이 “차경석이 교주이고 이 사람이 천하의 여러 가지 종교를 통일하여 참 교주가 된다.”고 발언하였다고 하였다.<sup>523)</sup>

1921년 7월 2일 권영재 외 1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 이남호(李南鎬)는 “대정 9년 음력 5월 20일경 권영묵 집에 갔는데 권영재 등이 모여 있었다. 이상호(李祥昊)는 오늘밤 12조를 조직하는데 이 일은 극히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이후 조원 이외의 사람에게 알릴 경우는 큰일이라고 했다.”고 하였으며, 피고 박창규(朴昌圭)는 “작년(1920) 음력 5월경 권영묵이 자택에서 12인조를 조직하니 와달라고 해서 그 집 뒤쪽 공터로 가니 12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 때 권영묵, 이상호 두 명의 주재 아래 제사를 행하고 12인조에게 교첩(敎帖) 1통씩을 건내고 동인이 말하기를 ‘오는 갑자년에는 흠치교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서 종교를 통일하는 그 때는 교도는 상당한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첩을 건넸다.”라고 하였다.<sup>524)</sup>

1921년 11월 26일 박주한 외 54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 권영재는 “자신은 대정 9년 음력 5월 20일경 서후면 교동 빈 집에서 이상호, 권영묵 입회 아래 치성을 하고 흠치교에 들어갔다. 치성비로써 15원을 내고 권영묵에게 건내고 또 권도성 외 6명을 부하로 8인조로 하고 일동으로부터 10원씩을 징수”하였다고 하였다.<sup>525)</sup> 또 이해 11월에서 12월 초 사이 이뤄졌던 재판의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남호(李南鎬)는 청음이 몸이 불편한 자기에게 입교를 권하였다고 하며, 이를

523)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6월 22일.

524)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7월 2일.

525)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고민하다 “5월 17일 권영묵(權寧默)의 집에 와서 몸을 깨끗이 하여 치성으로 하늘에 기도할 것을 재차 유인하니 병을 걱정하여 그날 동인의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 이미 8-9명이 모여 있어 동일 오후 9시 상을 차려 옥황상제에게 주문을 외우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원을 하고 제사를 마치고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그 후 이상호는 우리 태을교는 12인조 교장(敎帳)이 있는데…” 등을 말하였다고 하였다.<sup>526)</sup>

이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60방주 중 동지주(冬至主)인 남주는 손재봉을 6임으로 두었고 손재봉은 이극모·권태추·권영재·이남호 등을 12임으로 두었으며, 남원섭·권도성 등은 12임 아래인 8임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음과 남주는 이처럼 교세 확장에 힘썼으며, 『증산교사』에서 남주가 언급한 것처럼 1920년-1921년 사이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20년 겨울부터 1922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신도들이 검거되면서 교단은 큰 위기에 처하는데 남주는 이를 ‘교단의 대수난기’<sup>527)</sup>라 표현하였다. 청음도 1921년 음력 8월 경기도 일본경찰부에 체포되어 40여 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취조 심문을 받았다.<sup>528)</sup> 일경은 청음에게 교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였다. 청음은 월곡을 만나 일제의 공개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고, 고심 끝에 월곡은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항에 관한 전권을 청음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청음은 1922년 음력 2월 서울 동대문 밖 창신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보천교(普天敎) 진정원(眞正院)’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로써 교단 설립 이후 전개된 비밀결사 운동이 공개운동으로 전향되고, 교단은 세상에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sup>529)</sup>

일제는 비밀결사조직이었던 보천교를 공개하도록 하여 교단조직과 핵심 간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장차 보천교를 탄압, 해산하려는 의도였었다. 보천교의 입장에선 제주도 법정사 사건, 청송 사건 등으로 교단이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교주인 월곡 또한 일제의 체포를 피해 계속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 공개 시 종교 활동을 허가하겠다는 일제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또 청음 등의 이른바 지식인들 중심의 보천교 신파측은 보천교를 근대종교로 조선 사회에 안착시키고자 하였기에 일제의 강압도 있었지만 청음이 교단 공개의 중

526)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5, 1921년 11월 말-12월 초.

527) 이정립, 『증산교사』, 89.

528)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19a; 이정립, 『증산교사』, 89.

52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27b-28b; 이정립, 『증산교사』, 89-90.

임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년 음력 12월 남주는 황석산 고천제 이후 일제의 체포망을 피해 전라북도 임실의 산중에 피신 중이었던 월곡에게 만주로의 이주 계획을 제안하였었다. 남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제 수백만의 신도를 집결하여 국내에서 절대한 세력을 이루어 온 세상의 주목을 이끌게 되었으니 이로부터는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비난이 일어날 중대한 위기가 빚어지게 될지라. 선생이 이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외로 나가시면 만주와 노령(露嶺)<sup>530)</sup>에 흠어져 있는 수백만 교도들을 뭉쳐서 단일 세력을 이룰 수 있으리니, 안팎이 의각(猗角)의 세를 이루어 위기를 해소케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할 무대를 만들 수 있으리이다.<sup>531)</sup>

월곡은 남주의 의견을 옳다 여기고 다른 간부에게는 일체 비밀로 하고 오직 그와 의논하여 남주로 하여금 만주의 사정과 안신처를 알아보게 하였다. 또 국내에는 청음을 부교주(副敎主)로 임명하여 교단을 통솔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남주는 1922년 음력 10월 20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북경으로 가서 1923년 음력 정월 보름까지 머물며 중국의 정황을 조사하였고 다시 봉천(奉天)<sup>532)</sup>으로 이동하여 만주, 연해주 등의 상황을 조사하여 이해 음력 3월 그믐에 귀국하였다. 남주는 차경석에게 제반의 상황을 보고하고 안신처로 남경(南京)을 추천하였다.<sup>533)</sup>

그러나 이때는 처음 만주 외유계획을 세웠을 때의 교단의 위기 상황 즉 교주는 일경에 쫓기고 교단은 비밀포교운동을 전개하였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교단은 공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세도 크게 증가하여 각도에 진정원이 신축<sup>534)</sup>되고 있었다. 이에 월곡은 외유 계획을 정리총장(正理總長) 노좌대(盧左大)에게 말하여 의견을 구하자, 그는 “상호 형제의 세력이 온 교단의 3할을 차지하였는데 만일 상호를 부교주로 임명하여 온 교단을 통솔하게 하고 선생은 성영을 데리고 외유하시면 그 형제가 안팎에서 호응하여 전권용사(專權用事)하리니 선생의 지위가 위태할지라. 반드시 부교주를 다른 사람으로 임

530) 연해주 지방.

531) 이정립, 『증산교사』, 101.

532) 지금의 중국 심양.

533) 이정립, 『증산교사』, 102.

534) 普光社, 『普光』 創刊號, 普天教中央本所, 1923, 58-59; 이정립, 『증산교사』, 108.

명한 뒤에 외유함이 가하리라.”<sup>535)</sup>고 하였다. 이러한 노좌대의 말에서 당시 청음·남주 형제의 교단 내에서의 영향력이 지대하였고 두 형제를 경계하는 간부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월곡은 노좌대의 의견을 옳다고 여겼지만 청음에 필적할 만한 부교주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외유 계획을 포기하였다.

월곡은 남주의 외유 계획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두 형제를 신뢰하였다. 이는 월곡이 청음을 교단 내 교주 다음의 직책이라 할 수 있는 총령원장(總領院長)에 임명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월곡은 1923년 음력 5월 경성진정원 내에 교단의 인쇄사로 보광사(普光社)를 설치하고 남주를 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보천교의 기관 잡지로 『보광(普光)』을 발간하였다.<sup>536)</sup>

이즈음 청음은 노좌대와 함께 월곡에게 증산의 언설을 기록한 경전의 편찬을 권고하였다. 이에 월곡은 남주와 이영호 2인을 교경편찬위원(敎經編纂委員)으로 임명하여 매일 오후 자신의 언설을 필기하도록 하였다. 월곡은 10여 차례 증산의 행적과 언행에 대해 강설하고 오로지 이를 통해 경전을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10여건의 기록만으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경전 편찬을 포기하게 되었다.<sup>537)</sup> 이는 월곡이 증산을 모시고 따른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그가 증산의 사상과 유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득하여 알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또 이것이 청음·남주 형제가 여러 증산의 친자종도 및 증산을 친견하였던 이들을 만나 경전을 편찬하게 하였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일제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1923년 말과 1924년 초 간부들 사이에 다시 교주 월곡의 만주 외유설이 제기되었다. 당시 보천교 신도들은 1924년 갑자년 음력 3월 15일 즈음 증산의 출세와 조선의 독립이 이뤄진다고 포교하였고 또 이를 신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간부들은 이 예언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신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신앙심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이다.<sup>538)</sup> 일제는 “본 건에 대해서는 교정책의 중대 문제로써 교의 부침(浮沈)은 이에 갈림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sup>539)</sup>라고 하여 이 시한부(時限附) 예언을 어떻

535) 이정립, 『증산교사』, 102-103.

536) 이정립, 『증산교사』, 106-107.

537) 이정립, 『증산교사』, 107.

538)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徒ノ行動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1760호, 1924년 2월 20일.

539)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徒ノ行動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1760호, 1924년 2월 20일.

게 교리적으로 또는 교단 운동으로써 해결할 것인가가 장차 보천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제기된 방안으로 첫째, 예언의 연기 방편으로 월곡이 만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대대적으로 포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대를 실현할 것이라는 설이다. 둘째는 월곡이 경성으로 본부를 이주하여 신도들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청음을 중심으로 한 신지식인들의 설로써 월곡은 ‘오만년후 향락설’을 주장하였지 갑자등극설은 참된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보천교의 참된 종교적 예언 및 교리에는 본래 시한부가 없었으며 시한부설은 잘못된 교리라는 설명이다. 청음 측은 “올해는 당국에서도 우리 교를 신용하여 다소의 양해와 원조가 있다. 이때 교도들은 밀교(密敎)<sup>540)</sup>의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정도(正道)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전하여 4월에 이르러 각 도로 나누어 선전 강연대(講演隊)를 파견해야 한다”<sup>541)</sup>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방안은 일제의 주목과 막대한 재정 문제로 채용되지 못하였고 셋째 방안은 일제 당국의 표현에 따르면 “구습을 숭배하는 이른바 미신에 얽매인 간부들이 찬성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sup>542)</sup>

위 문서에서 보이듯 청음의 입장은 앞에서 언급한 1921년 6월-11월 사이의 일제 판결문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JA0002172와 CJA00021725에 나타난 청음·남주 형제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서 두 형제는 갑자등극설과 시한부설을 말하였지만, 위 공문서에서는 청음 측은 갑자등극설을 사설(邪說)이며 후 천오만년설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다른 신도들의 발언이 맞다고 한다면, 두 형제는 시한부적 갑오등극설로써 포교를 하였지만, 교리적으로는 시한부설이 증산이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이들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보천교 혁신운동을 통해서 이들의 입장이 분명히 표명되었다는 것이다.

1924년 음력 정월부터 두 형제는 보천교의 시대일보 인수 및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실패하면서 9월에 월곡으로부터 파면과 출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청음을 중심으로 보천교 신파측이 결성되고 보천교 혁신운동이

---

540) 갑자등극설을 말함.

541)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徒ノ行動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1760호, 1924년 2월 20일.

542) 경성종로경찰서장, 「普天教徒ノ行動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1760호, 1924년 2월 20일.

시작되게 되었다. 월곡은 혁신운동에 큰 위협을 느껴 일제와 협력하여 내홍을 다스리고자 하여 시국대동단이 결성되었다. 신파측은 교단이 친일화 되는 것을 보고 보천교라는 칭호부터 더럽혀졌으니 혁신의 의의와 희망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1924년 음력 10월 혁신회의 자진 해산을 선언하였다.<sup>543)</sup>

이후 두 형제는 만주로 외유하였다.<sup>544)</sup> 일제는 이는 청음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잠시 만주 방면으로 도주하였다”<sup>545)</sup>라고 기록하였다. 월곡 측은 청음의 중국 망명은 당시 당국자의 권유와 후원에 이뤄졌다고 파악하였다. 즉 청음과 친밀한 당국자가 청음에게 피신처로 만주를 권하고 그곳에서 개척 사업에 종사하면 자신들이 선도하고 원조한다고 하여 만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주의 각 사회단체들은 청음의 내력을 조사하여 그가 보천교의 핵심인물이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들은 청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만주의 관헌에게 고발하여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청음은 아우인 이순탁(李淳鐸)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만주에서도 신변이 위험하고 조선에서도 활동이 어려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sup>546)</sup>

마침 월곡 측에서는 경성진정원 등의 경성 내 보천교 자산을 회복하고자 경성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청음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청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명분으로 보천교에 돌아가 과거의 용서를 구하고 활로를 구하고자 하였다.<sup>547)</sup>

1925년 1월 말경 청음은 귀국하여 경성에 있다가, 이후 1925년 2월 4일 청음으로 내려가 월곡을 찾아갔다.<sup>548)</sup> 청음은 월곡에게 3가지를 요구하였으니, 첫째는 금액을 지급해주면 저당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제의 자금 지원이 있을 것이니 만주개척을 위해 교도 50호를 이민시켜달라는 것이며, 셋째는 자신을 하급 간부가 아닌 24방주 임명 시에 맡았던 서방주(西方主)에 임명해달라는 것이었다. 월곡은 이중 첫째 요구만 승낙하고 청음에게 금액을 맡겼다.<sup>549)</sup> 이후 청음의 행동에 대해, 월곡 측은 그가 저당 잡힌 진정원 등 보천교

543) 이정립, 『증산교사』, 114.

544)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39a.

545) 全羅北道, 『普天教一般』, 98.

546)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6b-57a.

547) 이정립, 『증산교사』, 115.

548) 全羅北道, 『普天教一般』, 98.

재산을 되찾지 않고 위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sup>549)</sup> 남주는 “상경하여 차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보냈었다.”<sup>551)</sup>라고 상반되게 기술하였다.

일제는 청음의 보천교 복귀, 전후의 행적과 그 의도 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천교측과 남주의 기록과는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다. 먼저 관동청 경무국이 작성하여 아세아국장, 탁식국장, 조선경무국장, 재경(在京) 관동국장, 관하 경찰서장 등에게 발송한 비밀문건을 살펴보겠다. 이 문건의 내용에서, 청음을 중심으로 한 보천교 혁신회측은 조선 내 교도를 만주로 이주 발전시켜 영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봉천 동성(東省)실업회사 대표 아카츠차 야타로(赤塚彌太郎) 등에게 원조를 청하였고 동 대표는 일제 외무성 방면에 양해원조를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또 흑룡회원(黑龍會員) 나가무가 시게루(中村繁) 등과 협력하여 조선총독부의 양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도들을 이주할 곳은 길림성(吉林省) 액목현(額穆縣)으로 하고, 청음 측과 일본과 중국의 인사들이 이 건의 계약에 연관되었다. 또 청음은 귀국하여 교도 3백호-5백호를 액목현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며 제1차 투자금 십 수만원을 준비해 1925년 1월 27일경 길림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였다고 한다.<sup>552)</sup>

『普天教一般』에서는, 청음이 월곡에게 사죄하고 혁신운동을 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1925년 2월 22일 다시 보천교에 입교하였고, 3월 18일 월곡을 방문하여 시국대동단의 잘못을 비난하며 장차 교단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진언(進言)하였다고 하였다. 또 시국대동단에 가담한 구파를 중상하고 자신은 교주로부터 신용을 얻으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세력을 만회하여 보천교 내에서 재기(再起)하고자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청음은 복귀 운동을 위해 경성과 청음의 본소를 왕래하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옛 부하들은 더 이상 추종하지 않았고 교단 내 영향력도 미미하게 되었으며 자금 또한 떨어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553)</sup>

한편, 남주는 청음이 국내에 들어와 제반 활동을 기획할 때 만주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남주의 부인인 장옥에 따르면 당시 만주에서 청음의 동생이자 남주의

549)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59a-59b.

550)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0a.

551) 이정립, 『증산교사』, 116.

552) 關東廳警務局, 「普天教革新會幹部ノ動靜ト教徒移民政策」, 秘 關機高收 제3145호, 1925년 2월 5일.

553) 全羅北道, 『普天教一般』, 95-102;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553.

형(성명은 알 수 없음)이 농장을 크게 경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남주는 이를 도와 자금을 마련하여 보천교 혁신운동 등 청음의 일을 지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주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결국 귀국하게 되었다.<sup>554)</sup>

이상 보천교에서의 두 형제의 종교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청음은 세간에 태을교라 알려진 교단의 초기 형성기인 1914년에 입교하여 교세의 성장과 함께 교단의 핵심 간부로 입지를 다졌으며 새로운 교리 해석을 통해 교주인 월곡의 종교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판결문에 나타난 신도들의 발언에서도 청음과 남주는 포교와 교화에 진력하여 상당한 신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음은 1921년 가을경 일경에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다 교단 공개의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청음은 월곡을 설득하여 교단은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공개하며 근대종교로서 조선사회에 자리를 잡도록 시도하였다. 또한 두 형제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교단을 만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워 이를 월곡에게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보천교 내에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청음과 남주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면서 이른바 신파가 결성되고 교주인 월곡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인 구파가 형성되게 되었다. 두 형제는 시대일보를 인수하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곡과의 갈등과 구파의 압력으로 결국 파면과 출교의 처분을 받았다. 신파와 함께 전개한 보천교 혁신운동이 실패하자 청음과 남주는 보천교와 결별하고 새로운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 2) 보천교 탈교 후의 종교 활동

청음은 보천교를 완전히 탈교한 후, 1925년 음력 9월 마침 경성에 와 있었던 증산의 친자종도인 김형렬을 찾아 만났다. 청음은 김형렬에게 증산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자 간청하자, 김형렬이 허락하여 청음은 전북 김제군(金堤郡) 수류면(水流面) 금산리(金山里) 용화동(龍華洞)으로 이사하였다. 청음은 매일 인근에 위치한 김형렬의 집에 방문하여 증산이 생전에 하였던 말과 행적 등을 묻고 상세히 필기하였다.<sup>555)</sup> 1955년 출간한 책에서 청음은 “내가 太雲先生과距今 30년전 乙丑 7월부터 상종하야 戊辰 2월까지 天師의 法言聖訓도 많이 奉聞”<sup>556)</sup>하였다며, 1925년 7월부터 1928년 2월까지 김형렬부터 증산의 언행과 유

554) 장옥, 『용화도장 지킴이』, 서울: 선학사, 2004, 220-221.

555) 홍범초, 『범증산교사』, 513.



훈에 대해 들었다고 하였다.

청음은 김형렬을 스승으로 받들고 김형렬이 창교한 미륵불교에 가입하였고, 다른 보천교 신도 수천 명에게도 권고하여 미륵불교로 개종하게 하였다. 이후 김형렬은 청음을 신임하여 1927년 음력 10월에는 교무를 일임하고 자신은 대원사에 들어가 수련을 하였다. 이에 김형렬에게 다른 간부들이 청음이 교단을 전횡한다 비방하였고 결국 청음은 미륵불교를 탈퇴하고 용화동에 은거하여 버렸다.<sup>557)</sup>

일찍이 청음이 보천교 혁신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普天敎가 이갓흔 現狀대로 存續하게 되면 天師의 大道가 永絶할 뿐 아니라 우리 信衆의 生命이 破滅될 것이며 社會의 害毒이 莫大할 것이라. …從來의 階級·專制·迷信·詐欺·愚昧 等 一切 弊癥를 打破하고 時代思潮에 適應한 新制度·新組織을 樹立하며 天師의 無量大道를 闡明하여 敎運으로 하여금 永遠無窮케 함을 期할 뿐이다.”<sup>558)</sup>라 하였는데, 이는 곧 기존 보천교가 교조인 증산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고 잘못된 포교 방법으로 민중과 사회에 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음은 증산은 윤희와 사상에 대해 올바르게 밝히기 위해 경전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보천교 핵심 간부 시절 월곡에게 이를 제안하여 월곡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청음은 김형렬과 월곡에게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미륵불교에서 활동하였던 1926년 3월 5일 증산에 관한 최초의 서적인 『증산천사공사기』<sup>559)</sup>를 간행하였다. 청음이 쓴 서문이 1925년 음력 10월 작성되었음을 볼 때 김형렬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그가 서적 편찬에 서둘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음은 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밝혔다.

널리 생각하건데 우리 천사께서는 대순의 성(聖)으로써 선천 세기의 말에 태어나셔서 세태를 걱정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거병해원(去病解冤)하시고 천지를 개벽하셨으며 선경의 큰 기틀을 정하셨고 마침내 영세토록 태평한 운을 여셨으니 탕탕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천사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신 빛을 놓으신지 불과 십여 년이 지났으나 덕화가 우전하여 일찍이 믿는 우리들이 물이 아래로 흘러 모이듯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언이 전하여 오지 못하고 성적이 기록된 바가 없어서 믿는 이들이 아득한 가운데 의거할 바가

556) 이상호, 『典經略驗』, 弘文堂印刷所, 1955, 59.

557) 이정립, 『증산교사』, 132-133.

558)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敎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559)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없어서 단지 몇 마디 말씀으로 홀로 수행함으로써 미신과 사설에 부회하여 서로 전수하며 대도를 모독하니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려되어 변변치 못한 재주는 생각하지 않고 재료를 수집한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만 일이 많고 바빠 이를 전념하지 못하다 올해 7월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널리 수집하는데 전력하여 이 책을 성편하였습니다. 천사의 고족제자인 김태운·차윤희<sup>560)</sup> 두 선생에게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빠진 것이 오히려 많고 차례도 뒤섞여있으며 자구도 정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우리 도의 지사들이 갈구하는 것이 많지만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쇄에 부치며 후일을 기다려 개정할 뿐입니다.<sup>561)</sup>

그러나 『증산천사공사기』는 장절 구별도 되어있지 않고 내용이 소략하여, 이를 증보하고자 청음은 증산의 다른 친자종도를 뿐만 아니라 증산을 만나보았다는 이들을 살살이 찾아가 자료 수집을 하였다.<sup>562)</sup>

증보된 경전 편찬에 힘쓰는 한편, 청음은 1928년 음력 10월 즈음부터 아우인 남주, 보천교 간부였던 임경호와 더불어 증산의 참된 교의를 세상에 펼치고자 교단 창설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의 보천교도에게 선전하고 증산의 친자종도를 초청하여 1928년 12월 22일 동지에 교단 창설을 고하는 치성을 3백여 명의 신도와 함께 올렸다. 친자종도인 박공우는 집례를 행하면서 증산에게 개교를 고하였고 교명을 ‘동화교(東華敎)’라고 할 것을 선언하였다. 박공우가 집례를 행한 것은 증산 → 박공우 → 청음으로 이어지는 종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으며, 최고 간부 즉 교주로 청음이 추대되었다.<sup>563)</sup>

이후 남주는 상경하여 청음이 수집한 자료를 편집하여 총독부에 출판물 허가 신청을 내니 총독부는 1929년 음력 3월 16일 발행허가를 내었고, 음력 6월 24일 증산의 화천일(化天日) 치성 시 『대순전경』 초판을 발행하였다.<sup>564)</sup> 남주의

560) 김태운은 김형렬이며 차윤희는 월곡 차경석이다.

561)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 “弘惟我天師，以大巡之聖，生平先天世紀之末，憂世哀民，行天地公事，去病解冤，開天闢地，肇定仙境之丕基，遂啓永世太平之運，蕩蕩乎，不可以名矣，終筆纔經十數年，德化郵傳信衆水下早已，至於數百萬之多，而法言不傳，聖跡無錄，信者茫茫，然無所依據，只將片言隻行，附會迷信邪說，互相傳授，昌瀆大道，曷勝嘆哉！余爲是憂，不揣菲才，蒐輯材料者五年，于茲祇因任務多忙，不得專事，自是年七月，廢除百事，專力於斯廣搜博采，編成是書，而有得於聖門上足，金太雲·車輪洪兩先生者多矣，但是闕漏尚多，序次有錯，字句不工，而自同道之士，渴求者多，不獲已，姑付剞劂，俟後日改正云爾。”

562) 이정립, 『증산교사』, 152.

563) 이정립, 『증산교사』, 154-155;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60a-60b.

564) 이정립, 『증산교사』, 169.

교단 및 『대순전경』을 신성시 하는 신도들은 1929년 음력 3월 16일 발행 허가를 받은 것이 증산이 ‘서전서문(書傳序文)’에 대운이 있으니 많이 읽으라’<sup>565)</sup>고 하였던 유훈이 징험된 것이라 믿는다.<sup>566)</sup> 이유인즉 ‘서전서문’의 말미에 ‘己巳 三月 既望 武夷 蔡沈 序’라고 되어 있는데, 1929년 음력 3월 16일이 곧 기사년 3월 기망(既望)<sup>567)</sup>이기 때문이다.

청음은 “『大巡典經』은 그 本身이…年譜로 編纂하여 刊行한 『甌山天師公事記』로써 奉讀에 便利키 爲하야 更히 部門을 나누어 一一이 分類蒐拔하여 再成 編된 것”<sup>568)</sup>이라며, 읽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증산천사공사기』를 재편성한 책이 『대순전경』이라고 하였다. 출판 순서로는 『증산천사공사기』가 먼저 출판되었지만, 『대순전경』이 증산종단 최초의 경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sup>569)</sup> 또 이 『대순전경』은 증산종단 중 두 형제의 종단뿐 아니라 다른 여타 종단에서도 경전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증산종단의 경전 통일 문제에 대해 고심한 홍범초는 글에서 1990년 당시 15개 증산계 교단에서 18권의 각기 다른 경전을 사용 중이었는데, 삼덕교·증산교·증산법종교·대한불교미륵종·청도대향원에서 『대순전경』을 공통 경전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sup>570)</sup> 그리고 이러한 『대순전경』의 편찬은 다른 증산종단에도 큰 자극을 주어 제 종단들은 각자 자신들의 독자적인 경전 편찬에 힘을 쏟게 되었다.

1931년에는 증산 탄강 60주년이 되어 청음은 월곡으로부터 분리해 나가 김제 조종(祖宗)골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고판례를 초청하여, 증산 탄강일인 음력 9월 19일 기념치성을 행하였다.<sup>571)</sup> 이후 고판례는 1931년 11월 14일 동화교 측으로 이거하여 이곳에 2년간 머물며 동화교 측과 종교 활동을 함께 지속하다가 1933년 11월 6일 전라북도 임피군 오성산(五聖山)으로 옮겨가 은거휴양(隱居休養)하였다.<sup>572)</sup>

565) 이상호, 『증산천사공사기』, 140. “또 가라사대 書傳序文을 萬遍口誦하라 大運이 그에 잇나니라.”

566) 성경암, 「말세와 무극대운」, 《월간 천지공사》 2,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5.

567) 보름 다음날을 기망이라고 함.

568) 이상호, 『典經略驗』, 弘文堂印刷所, 1955, 42.

569) 『대순전경』을 『증산천사공사기』의 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대순전경』 초판이라고 한 것도 『증산천사공사기』에는 경전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영창,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 『증산사상연구』 15집, 증산사상연구회, 1989, 19-20.

570) 홍범초, 「증산종단의 경전은 왜 통일되어야 하는가」, 《월간 천지공사》 25,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7-8.

571) 이정립, 『증산교사』, 194-195.

이후 동화교는 포교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36년 일제 경무국은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한 종교 운동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을 실시하였다.<sup>573)</sup>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총독이 1935년 1월부터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전개한 것과 관련이 깊다. 심전개발운동은 곧 조선인들의 종교세계에 깊이 들어가 황민화를 강인하게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가키 총독은 심전개발운동의 기치 중 하나로 ‘국체명징(國體明徵)’<sup>574)</sup>을 내세웠는데, ‘국체’는 곧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주의와 일왕의 신격화 등을 아우르는 관념을 말한다. 우가키는 이 기치에 따라 보천교를 위시한 신종교 운동은 국체를 부정하는 종말사상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것이다.<sup>575)</sup>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1936년 경관들이 6월 10일 보천교를 습격하였고, 이후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와 동화교에 대해서도 포교금지, 재산정리, 해산 등의 강력 조치를 내렸다.<sup>576)</sup>

동화교 해산 뒤 청음·남주는 1943년 3월 ‘동아흥산사(東亞興産社)’라는 기업단체 조직에 가담하였다. 임경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동아흥산사는 증산계와 수운계의 여러 교단 간부 19명이 협력하여 형성한 단체로 운수업 경영을 하면서 비밀리 종교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1943년 8월 말 동아흥산사 운영진이 모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남주는 1945년 7월에 석방되었고 청음은 해방 뒤에 출옥하였다.<sup>577)</sup>

해방이 되자, 두 형제는 보천교 육임이었던 최위석 등과 함께 1945년 10월 23일 마포구 합정동 최위석의 집에서 ‘대법사(大法社)’라는 종교 단체를 개창하였다.<sup>578)</sup> 1948년에 남주는 증산계 17개 교파를 연합하여 ‘증산교단통정원(甞山敎團統正院)’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sup>579)</sup> 그러나 6.25 동란 이후 이

572)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7,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17.

573) 「全北警官隊가 出動 普天敎에 大鐵棒 支敎 無極, 甞山, 東華敎徒 五萬 家宅調査, 書類도 押收」, 《동아일보》 1936년 6월 11일. “대본교(大本敎)가 철퇴를 가한 후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종교유사단체에 대하여 일층 단속을 하는 동시에 가장 그와 근사한 보천교(普天敎)에 대하여 내사를 엄중히 하도록 경무국에서 지시하였든 바...”

574) ‘국체’에 관해서는,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국체의 본의’를 읽다』, 형진의·임경화 편역,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7.

575) 조정달 지음, 『식민지 조선과 일본』, 최혜주 옮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5, 193-194.

576) 《동아일보》 1936년 6월 11일, 위 기사; 이정립, 『증산교사』, 295-297.

577) 이정립, 『증산교사』, 307-315.

578)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총론 그 연혁과 교리의 개요」, 『논문집』 7, 전북대학교, 1966, 125; 이정립, 『증산교사』, 316-318.

579) 이정립, 『증산교사』, 339.

증산교단통정원은 와해되었다. 1952년 교단의 명칭을 ‘증산교대법사(甌山敎大法社)’로 개칭하였으며, 1956년에는 ‘증산대도회(甌山大道會)’로 변경하였다.<sup>580)</sup> 1955년 청음이 노쇠하고 시력마저 상실하게 되면서,<sup>581)</sup> 이후 남주가 종교 운동을 주도하였다. 1961년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증산계와 동학계의 통합을 강권하므로 증산교대법사 포함 증산계 7개 단체 동학계 및 기타 5개 단체가 모여 9월 12일에 종교연합체 ‘동도교(東道教)’를 결성<sup>582)</sup>하였고 이때 ‘동도교 증산교회(東道教 甌山敎會)’가 되었다. 이후 1967년은 청음의, 1968년에는 남주가 별세하였다. 남주의 별세 후 ‘증산교(甌山敎)’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583)</sup>

### 3. 청음과 남주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증산종단사의 입장에서 청음·남주 형제의 종교 활동을 평가한다면 첫째, 경전 편찬 및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한 교의체계 정립이며 둘째, 민족종교연합운동의 주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전 편찬 및 교의체계 정립에 대한 증산종단 관계자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위에서 『대순전경』이 증산종단의 최초의 경전이며 여러 증산종단의 공통경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순전경』의 공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89년 2월 21일 ‘증산종단연합회’<sup>584)</sup> 정기총회에서 판권 소유자인 증산교 측은 연합회와 판권을 공유하고 『대순전경』이 전체 증산종단의 경전이 되도록 하는 논의를 용인하겠다고 하였다.<sup>585)</sup> 그리고 이해 4월 21일(음력 3월 16일) 고판례의 송덕비 제막 행사와 더불어 『대순전경』 간행 60주년 행사

580) 이정립, 『증산교요령』 6판, 김제: 증산교본부, 1990, 63.

581) 이상호, 『典經略驗』, 弘文堂印刷所, 1955, 82.

582) 홍범초, 「증산종단의 국조 숭봉 2」, 《월간 천지공사》 3,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21.

583)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증산종단친목회, 1971, 110.

584) 증산종단은 여러 차례 이른바 ‘초교파운동’ 또는 ‘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초교파운동’의 입장에서 증산종단에 속하는 여러 교단은 한 가족과 같은 ‘혈족교단’이라 할 수 있기에 각자의 교리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 시초는 1926년 ‘팔파연합회’였고 이후 여러 차례 회산을 반복하였으며, 1975년에 ‘증산종단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때 참가한 종단은 법종교, 보화교, 삼덕교, 증산교, 증산진법회, 보천교, 무을교, 금강도, 순천도, 모악교, 증산일화계였다. 관련 내용은 홍범초, 「증산종단의 초교파운동사」,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25-29.

585)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33.

를 용화동 증산교 도장에서 실시하였다. 증산종단 10여개 교단,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소속 여러 민족종단 지도자 등과 신도들이 참석한 기념행사에서 증산종단 연합회 회장 김대수는 『대순전경』이 증산종단의 교리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을 강조하였다.<sup>586)</sup> 그러면서 두 형제에 대한 송덕비 건립이 제안되었으며, 청음은 『대순전경』을 편찬하여 증산의 성업을 기술하였다는 평가를, 남주는 “교단의 영도자로서 교인대중을 교화하면서 저술한 『대순철학』, 『증산교사』, 『민족적 종교운동』, 『종교학신문』 등 다수의 교서는 증산종단의 교의를 바로 알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sup>587)</sup>라는 평가를 받았다.<sup>588)</sup> 송덕비 건립은 음력 3월 26일 고판례 탄생 110주년 기념 치성행사와 더불어 증산교 도장에서 거행되었다.<sup>589)</sup>

한편, 『대순전경』의 제 판본의 간행에 대해 더 살펴보자면, 『대순전경』 2판은 1933년 간행되었고, 3판은 해방 후 1947년 발행되었다. 3판에서 내용이 대폭 증보되었는데, 이는 시휘(時諱) 관계로 일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못하였다가 3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판본에 따라 조금씩 증보되다가 1965년 간행된 6판에 이르러 거의 최종에 이르게 되었다. 6판까지가 저자인 두 형제의 마지막 판본인 셈이며 여러 판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sup>590)</sup>

## 1) 삼단신앙

위에서 남주의 주된 종교 활동은 첫째, 경전 편찬 및 교리서 저술이며 둘째, 민족종교연합운동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전 편찬과 저술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 및 학계에 증산의 가르침을 알리는 게 두 형제의 주요한 종교적 과업이었으며 다른 하나의 과업은 증산종단 및 더 나아가 수운계·단군계 등의 민족종교와도 연합운동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 연합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바로 ‘삼단신앙(三段信仰)’ 교리이다. 삼단신앙은 남주가 1949년 저술한 『금산다화(金山茶話)』<sup>591)</sup>를 시작으로 1950년 저술한 『신종교운동』,<sup>592)</sup> 1960년 출판한 『민족적 종교운

586)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8,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32.

587)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1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5.

588)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1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4-5.

589) 홍범초, 「천지공사의 현의」, 《월간 천지공사》 1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28.

590) 홍범초, 「『증산천사공사기』와 『대순전경』」, 《월간 천지공사》 8,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25-29.

591) 이정립, 『金山茶話』, 서울: 大法社編輯局, 1949.

592) 이정립, 『신종교운동』, 三英社印刷所, 1950.

동』 593)에도 줄기차게 표현된 교리체계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된 『금산다화』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외래종교로는 도리혀 劣性惡癖을 增長할 뿐 改良의 功을 遂할 수 없을 것이요 民族本位の 새로운 宗教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甌山先生께서는 “이때는 原始로 返本하여 血統줄을 발우는 때니 換父易祖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의 標語로써 民族的 宗教運動을 일으킬 것을 命하신 것이다. 우리 民族의 原始信仰 卽 三神信仰을 返本하여 換父易祖한 卑劣한 精神을 掃清하고 民族矜持의 自強精神을 確立하여야 1300年間 惡化하여온 拜外思想·事大思想·依賴根性を 拔本하여 버릴 것이요 그런 然後에 先生의 新規範인 解冤相生의 眞諦를 體得하여야 消極主義·個人主義·獨善思想·嫉妬根性·黨爭根性を 퇴치하고 協同精神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sup>594)</sup>

인용문에서, 남주는 중국종교와 기독교 등 외래에서 유입된 종교를 평가절하하고 민족 본위의 종교에 의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 증산이 시원과 근본 그리고 조상에 대해 강조한 언설<sup>595)</sup>을 곧 우리 민족의 뿌리인 환인·환웅·단군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외래종교를 숭상하는 것은 환부역조하는 것<sup>596)</sup>이며, 근본으로 돌아가 한민족의 근원적 신앙인 삼신신앙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 뒤 증산의 해원상생의 진리를 체득할 때 적폐를 거두고 협동의 정신을 기를 것이라 하였다. 남주는 이 삼신신앙이 쇠퇴하여 그 종교적 힘이 약화되었으며 이를 회복하려면 이를 잇는 종교적 계시 즉 ‘중계적 계시(中繼的 啓示)’가 필요하며 곧 수운과 증산의 계시가 바로 그 ‘중계적 계시’라고 하였다.

593) 이정립, 『민족적 종교운동』, 전북: 증산교본부, 1960.

594) 이정립, 『金山茶話』, 서울: 大法社編輯局, 1949, 52.

59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법 3장 42절.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596) 이정립, 『민족적 종교 운동』, 전북: 증산교본부, 1960, 26-27. “우리가 우리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배반하고 중국 사람의 조상 받고, 복희, 신농, 황제, 요, 순을 선영으로 섬겨온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 사람의 조상을 선영으로 섬겨오는 비열한 정신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민족의 시조이신 삼신에게로 반본하여 혈통줄을 바로잡아야만 우리의 앞길에 광명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해악은 모두 환부역조한데서 발원하였나니 그 원인되는 환부역조한 죄를 깨달아 회개한 후에야 모든 해악의 뿌리가 뽑혀질 것입니다.”

…水雲先生은 “地分東西하니 西何爲東이며 東何爲西리요.” 하야 우리 東方의 特殊性을 強調하셨으니 民族的 宗教理念의 表面이요 甌山先生은 原始信仰返本을 命하셨으니 民族的 宗教理念의 裡面이다. 이라하야 水雲先生과 甌山先生은 表裏一體가 되어 原始信仰返本인 民族的 宗教運動의 中繼的 啓示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民族始祖로서 三神一體이신 桓因, 桓雄, 檀君과 中繼的 啓示로써 水雲先生과 甌山先生의 三段信仰體系를 세우고 이 信仰體系 아래 民族的 單一宗教를 建設하야 새 信仰과 새 理念으로 歷史的 惡毒인 팔대열성의 뿌리를 뽑고 신성한 혈통정기를 바로 세우면 굳센 民族精神을 確立하야…天地公事에서 賦課하여 준 大全協同의 새 세상 建設의 使徒로서의 大使命을 完遂하려는 것이다.…<sup>597)</sup>

즉 남주는 수운과 증산의 교설에서 나타나는 민족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삼신 신앙의 ‘중계적 계시’라 하였으며 단군, 수운, 증산을 잇는 ‘삼단신앙(三段信仰)’으로써 민족정신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증산의 천지공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신앙적 기초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남주는 단군신앙과 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을 교의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켰을까? 그는 단군신앙의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고, 증산 천지공사의 내용은 해원, 보은, 상생, 조화, 대전협동(大全協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는 해원은 홍익인간의 소극적인 측면, 상생은 홍익인간의 적극적인 측면, 조화는 재세이화의 발전사상, 대전협동은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두 이념을 종합한 무극대도의 궁극적 사상이라고 체계화하여 증산의 천지공사 사상이 단군사상의 발전적 형태이자 구현이라고 이해하였다.<sup>598)</sup> 또 천지공사에 대해서도 “증산천사(甌山天師)께서 세계지방신(世界地方神)과 세계문명신(世界文明神)을 모으시고 만고원신(萬古冤神)과 만고역신(萬古逆神)에 맺힌 원한을 풀으사 통일신단(統一神團)을 결성하시니 이른바 구천(九天)이라. 이 구천신단(九天神團)에서 생화삼신(生化三神)즉 조선지방신(朝鮮地方神)의 수장(首長)이시고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시조이신 환인천제(桓因天帝) 환웅천왕(桓雄天王) 단군임검(檀君壬儉) 주재하(主宰下)에 우주신명(字古神明)들이 회의하여 선천구시대(光天舊時代)의 모든 그릇된 이법(理法)과 어그러진 생활방법을 뜯어고치고 후천시대(後天時代)…새로운 질서규범을 규정(規定)하시고”<sup>599)</sup>

597) 이정립, 『金山茶話』, 53-54.

598) 이정립, 『金山茶話』, 72-77.

599) 이정립, 『증산교요령』 6판, 증산교본부, 1990, 2-3.



라고 하여 정의하며 환인·환웅·단검이 조선지방신의 대표로서 천지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남주는 이러한 이론적 해석의 틀을 구성하는 데 멈추지 않고 1948년 13개 증산교단의 연합운동과 1961년 증산계·수운계·단군계의 연합단체인 동도교(東道敎)의 제창 시에도 연합의 이론적 기초로써 삼단신앙을 활용하였다.<sup>600)</sup> 그러나 이후 동도교는 해산되고 남주의 교단은 명칭이 ‘증산교’로 변경되었다.

증산교는 이후 교세가 감쇠하여 현재는 거의 소멸지경에 이르렀으며, 증산교에서 분파한 ‘증산도(甞山道)’가 남주의 삼단신앙의 영향을 받아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단군신앙을 고취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증산도가 증산을 신앙하는 종단이지만 단군과 관련된 출판 및 여러 활동을 힘을 기울이는 종교사상적 원류가 남주의 삼단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수부신앙

삼단신앙과 더불어 증산종단의 종교사상에 남주가 미친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수부신앙(首婦信仰)’이다. ‘수부(首婦)’라는 용어는 『대순전경』 초판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947년 간행된 『대순전경』 3판에 이르러 처음 등장한다.

가라사대 내 일은 수부(首婦)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가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어 세우라 하시니라. 경석이 천사를 뒤흔들고 돌아와서 그 이종매 고부인(姨從妹 高夫人)을 천거(薦擧)하니라.<sup>601)</sup>

스무사흘날 오전에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쁘지라 너희들 중에 임술(壬戌)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首婦)로 내세우라” 하시니 형렬이 대하여 가로대 “수부는 저의 딸로 들여세우겠나이다.” 가라사대 “세수 시키고 빨은 옷은 가라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대로 하여 그 딸을 약방으로 데려오거늘 천사 제자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로 옮겨 놓게 하신 뒤에 형렬의 딸을 명하사 약장 주위를 세 번 돌게 하신 뒤에 그 옆에 서게 하시고...<sup>602)</sup>

인용문에서, 증산은 자신의 일인 천지공사에 ‘수부’가 필요하다고 하니 월곡이

600) 동도교총본부, 「중헌」, 1961년 9월 12일; 홍범초, 『범증산교사』, 300.

601) 이상호, 『대순전경』 3판, 서울: 발행자불명, 1947, 3장 30절.

602) 이상호, 『대순전경』 3판, 9장 27절.

이중 누이동생인 고판례(高判禮, 1880-1935)를 추천하였다. 전후의 구절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1907년 음력 11월 3일이다. 또 증산은 화천 전 하루 전날인 1909년 음력 6월 23일 제자들 가운데 임술생(1862년)을 찾고 그로 하여금 누이나 딸을 수부로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임술생인 김형렬(金亨烈, 1862-1932)이 자신의 딸을 천거하였다. 증산은 형렬의 여식을 통해 종교 의식인 천지공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언설과 공사 행위에 따라 증산종단 가운데 여러 종단에서는 고판례는 ‘고수부(高首婦)’로 김형렬의 여식은 ‘김수부(金首婦)’라 부르며 신앙 대상화 하거나 신격화 하였다. 일부 증산종단에서는 고수부, 김수부 외 증산의 부인인 정(鄭)씨 부인<sup>603)</sup>을 ‘정수부(鄭首婦)’라 지칭하며 증산과 더불어 신앙한다.

홍범초는 “수부란 삼계대권을 주재하사 천지공사를 행하신 증산대성의 권능을 입어 증산대성과 대등한 자격으로 천지공사에 참여하여 천하 모든 여인의 권리를 천지공사에 반영시킨 천하 모든 여인의 머리가 되시는 분”<sup>604)</sup>이라며 ‘수부’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증산종단의 전반적인 수부신앙을 분석하여 이를 분류하였다. 먼저 수부신앙이 없는 종단은 보천교, 순천도, 삼덕교, 보화교, 인도교, 미륵불교, 모악교, 증산진법회, 태극도, 대순진리회를 꼽았다. 여타의 종단은 각각 수부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각 종단의 수부신앙을 살펴보면, 선도교와 남주의 종단인 증산교와 안세찬의 증산도는 고수부만을 단독 신앙하고 있다. 증산의 무남독녀인 강순임이 창설한 종단인 증산법종교와 여기에서 분파한 청도대향원은 고수부와 정수부를 함께 모시고 있다. 김낙원이 창설한 오동정교단은 정수부만을 신앙한다. 제주도에 위치한 동도법종금강도는 고수부, 김수부, 정수부를 모두 모시고 있다.<sup>605)</sup>

증산종단 전반의 수부신앙을 살펴보면, 고수부에 대한 신앙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수부에 대한 신앙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증산의 화천 후 초기 교단의 창립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증산의 부재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고판례에게 증산의 성령이 접응하였

603) 증산은 21세가 되던 1891년 늦가을 하동 정씨(河東鄭氏) 가문의 정치순(鄭治順, 당시 12세)과 혼인하였다. 홍범초, 『수부신앙』,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9;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서울: 대원출판사, 2003, 1편 37장.

604) 홍범초, 『수부신앙』, 3.

605) 홍범초, 《월간 천지공사》 31,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1, 7-10.

다 믿고 그를 증산처럼 따르며 교세 확장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sup>606)</sup> 그러나 월곡이 교권을 장악하며 고수부는 잊힌 존재로 전락하며 소수의 신봉자만이 그를 추종하였다.<sup>607)</sup>

고수부가 다시 기억되고 추종된 것은 상당 부분 보천교에서 탈퇴한 청음과 남주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청음과 남주는 1928년 동화교 창설 후 1931년 증산 탄생 60주년이 되어 고판례를 종단에 초청하였고 고판례는 1933년 11월까지 동화교에 머물렀다. 이후 남주는 1947년 출판된 『대순전경』 3판에서 고판례와 관련된 증산의 언설과 종교 행적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고판례의 증산 수종과 종교 활동을 정리한 『고부인신정기(高夫人神政記)』를 편찬하였다.<sup>608)</sup> 남주는 머리말에서 증산이 고수부에게 천지공사의 후계사명과 종통연원을 내렸으며 증산의 화천 후 1911년 고수부가 신도(神道)가 열려 포교운동을 개시하였고 종단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609)</sup> 즉 남주는 고수부를 증산의 계승자로서 성화(聖化)하였던 것이다. 이후 종단에서 출판한 재판에서는 ‘천후(天后)’라 칭하여 더욱 신격화 하였다.<sup>610)</sup>

남주에 의해 기초된 고수부에 대한 신격화는 여러 종단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증산도는 고수부 신앙을 발전시켜 교당의 중앙에 증산과 원편에 단군상 그리고 오른편에 고수부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

606) 이정립, 『증산교사』, 48-49.

607) 이정립, 『증산교사』, 57-60.

608)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김제: 증산대도회본부, 1963.

609)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1-2. “증산천사께서 고부인을 수부로 맞아드리사 천지공사의 후계사명을 지워주시고 인하여 종통연원을 내리셨음은 여러 제자들의 증언은 고사하고라도 천지궁공사와 세살림부탁과 연령가감의 혼화로서 증명된 바이다. 그 후로 신해년 9월에 대흥리에서 부인이 신도가 열린 뒤에 인하여 포교운동이 개시되어 제1교단이 성립되었음을 비롯하여 조종골의 제2교단과 용화동의 제3교단을 통하여 굽이굽이의 새 기틀이 열릴 때마다 매양 신정(神政)의 행사가 있는 뒤에 새로운 사태가 발전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부인의 신정행사는 교회발전사와 표리연관의 관계가 있었으므로 이제 신정의 중요한 행사를 수집하여서 교우들에게 신앙과본의 보충자료로 제공하는 바이다.”

610) 이정립, 『천후신정기』, 김제: 증산교본부, 1985.

## 4절 소결

증산이 1901년 여름 전주 모악사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친 뒤부터, 여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증산을 추종하거나 시봉하기 시작하였다. 증산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들었던 이들을 증산종단에서는 주로 ‘종도(從徒)’라고 칭한다. 증산의 종도들의 수효에 대해서 증산종단에서는 팔괘(八卦)에 상응하여 8명, 24절 후에 응하여 24명, 28수(宿)에 따른 28명, 48장(將)에 대응하여 48명이라고 하나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한다.<sup>611)</sup> 이 종도들 가운데 증산의 화천 후 교단을 창립한 인물은 고판례, 차경석(보천교), 김형렬(미륵불교), 안내성(증산대도교), 이치복(제화교), 박공우(태을교), 문공신, 김광찬(도리원파교단)이다.<sup>612)</sup>

월곡 차경석은 일제강점기 교단을 창립하고 증산에 대한 신앙운동을 전개한 종도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증산계 종교운동을 펼쳤다. 무라야마 지준은 흠치계 유사종교단체의 신도수를 김형렬의 미륵불교는 131명, 안내성의 증산대도교 300명, 고판례의 태을교 60명, 김광찬의 용화교 37명이라 하며 보천교(16,474명)를 제외하고는 쇠퇴 또는 거의 소멸 상태에 있으며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sup>613)</sup> 즉 월곡이 보천교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에 큰 파동과 울림을 미치면서 수많은 민중을 흡인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였지만 여타 다른 종도들이 세운 종단은 창교주의 활동지에 국한된 소규모 그룹이었으며 영향력도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월곡이 증산의 종도가 된 것은 1907년 음력 5월경 증산을 주막에서 우연히 만난 뒤부터이며 1909년 음력 6월 증산이 화천하기까지 대략 2년여 기간 동안 지근에서 수종하였다. 월곡은 증산을 따르면서 그의 권능과 예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증산의 신성을 확신하고 하느님의 강림으로서 증산을 신앙하였다. 월곡은 증산의 화천 후 종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증산을 ‘옥황상제’로 봉안하고 1922년 처음 교단의 핵심신조인 12계명을 제정할 때 첫째를 ‘존상제(尊上帝)’ 즉 옥황상

611)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29-30.

612) 이 종단 명칭은 『증산종단개론』에 따른 것이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흠치계 유사종교’라는 이름으로 11개의 증산종단을 기록하였다. 11개의 증산종단 중 종도에 의해 창립된 종단은 보천교(차경석), 미륵불교(김형렬), 증산대도교(안내성), 고판례(태을교), 용화교(김광찬)의 5개 단체이다.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47-284.

613)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43-284.

제인 증산을 존송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월곡은 증산에 대한 신앙을 교단의 핵심으로 삼아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월곡은 1928년 정월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교리체계를 폐기하고 치성의례에 있어서도 증산의 탄생일과 화천일 기념 치성을 제외하여 증산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였다. 청음을 중심으로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켰던 신파와 이후 신파에 동조하였던 보천교 내 간부들은 월곡이 증산에 대한 신앙심을 저버렸다고 보며 이를 혁신운동의 주요한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1934년 월곡이 무라야마 지준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월곡은 교조인 증산의 유훈을 추종하며 증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한다고 하였다.

촌산왈(村山曰) 교리를 인의(仁義)라 함은 무엇을 언(言)합니까.

교주왈(教主曰) 교조(敎祖)의 유훈(遺訓)에 대인대의(大仁大義)은 무병(無病)이라 하신 말씀이 계신대...

촌산왈(村山曰) 그러면 결국은 천(天)이 원체(原體)요, 상제(上帝)는 즉 모든 일에 활동하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까.

교주왈(教主曰) 천(天)은 본시(本是) 허무(虛無)한 것이요, 주체(主體)는 옥황상제(玉皇上帝)이니 총재(總宰)하는 권리(權理)가 유(有)하다. 신(神)이라 함은 명목(名目)이 유(有)하니 일월(日月)이 즉 상제(上帝)이라. 상제(上帝)도 천(天)의 범위 내에 재(在)한 것이다. 십이계명(十二戒銘) 중에난 독특(獨特)히 상제(上帝)를 존(尊)한다 언(言)하였읍니다.

촌산왈(村山曰) 옥황상제(玉皇上帝)와 강증산(姜甌山)과 좌차(座次)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교주왈(教主曰) 그 자리가 즉 상제(上帝)입니다.

촌산왈(村山曰) 증산 선생의 인간에 생하심이 즉 옥황상제(玉皇上帝)가 화현(化現)하심이심닛가.

교주왈(教主曰) 그렸습니다. 생존 시에 내가 옥황상제(玉皇上帝)라는 말씀도 유(有)하였읍니다.<sup>614)</sup>

즉 인용문에서 월곡은 1928년 개정한 보천교의 교리가 증산의 유훈에 따른

---

614)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506-507.

것이며 이전의 교리인 ‘일심상생(一心相生), 거병해원(去病解冤) 후천선경(後天仙境)’은 청음 이상호의 말이라고 하였다.<sup>615)</sup> 또한 증산이 곧 옥황상제의 화현이며 보천교는 ‘존상제(尊上帝)’ 즉 상제를 존송하는 것을 교단의 최우선 교리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월곡이 증산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는 남주의 기록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기록은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1929년 성전 봉안식의 실패 당시 증산을 원망하였던 월곡이 1934년 교단은 쇠퇴해가고 자신 또한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증산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월곡이 과연 일관되게 증산을 신앙하였느냐 라는 물음을 제기할 때 그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주요한 간부들과 해방 후 재기한 보천교 구파측은 증산에 대한 월곡의 신앙심에 의문을 품었고 결국 교단은 내분으로 분열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교리체계를 확립하고 간부와 신도들을 규합하는 등 교단의 중심역할을 해야 할 창교주 월곡이 신앙의 기원에 해당하는 증산에 대한 교리적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월곡의 진의를 떠나 보천교 간부와 신도들은 증산과 월곡을 함께 신앙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월곡만을 신앙해야 할 것인가 혼동하였고 교단은 통일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천지공사론과 관련하여 월곡은 주로 증산의 권능에 의한 정치적 변혁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기록 등 여러 문헌 기록을 고찰해볼 때 월곡이 믿었던 증산은 화천하였지만 천상에 옥황상제로 머물다가 도수가 되면 지상에 내려와 세계를 통치하는 신성왕(神聖王, divine king)이었다. 부연하면 특정한 시점이 되어 증산이 출세하면 월곡은 증산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왕, 제왕, 황제, 천자(주로 조선의 왕) 등이 되는데, 이때 증산의 권능에 의해 또는 증산의 수제자인 월곡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일본을 물러나게 하고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조선이 독립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보천교의 간부와 신도들은 지위에 따라 관직을 받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증산의 천지공사가 그리고 그 공사에 따른 도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월곡은 천지공사론의 교리해석과 그 종교사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천지공사론에 함유된 증산의 광구천하와 구제창생의 취지를 전파하기보다 운세론에 입각한 증산의 시한부 출세론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산의 천지공사

615)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506.

론에 관련된 월곡의 해석이나 발언은 드물게 나타나며 보천교 발행 잡지인 『보광』에 기록된 내용도 청음과 남주의 기록이다. 『보광』에 기록된 보천교의 교리에 대해 월곡은 그것이 청음의 말이라고 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보천교 발행 문헌 기록이 곧 월곡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천교 혁신운동을 일으킨 신파가 보천교의 문제점으로 일심·상생·거병·해원의 교리가 포교 시 언급되지 않고 음양오행·정감록 등의 비결 등 당시 조선 민중의 종교적 심성에 공명할 만할 것으로 포교가 이뤄졌다는 것을 비판한 것에서, 당시 월곡과 월곡에게 공명한 보천교 민중들은 교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기보단 시운과 정치적 변혁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월곡의 종교운동에서 천지공사론은 전면적으로 내세워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도통론과 관련하여서 월곡은 자신의 증산의 직계제자이며 증산이 여러 발언과 천지공사를 통해 자신에게 종교적 사명을 맡겼다고 주장하였다. 월곡은 증산이 자신을 만난 뒤로 만날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고 자신에게 ‘병조판서같다’, ‘병부(兵部)가 마땅하다’라고 한 점을 들어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또한 증산이 여러 종도들에게 천지공사의 일을 맡기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일처리를 잘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집에 포정소(布政所)를 정하는 공사를 행한 것도 주요한 증거라 말하였다. 포정소는 말 그대로 정사를 펴는 곳으로 증산이 자신의 집을 포정소로 정한 것은 곧 자신에게 대도를 계승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월곡은 정읍 대흥리 자신이 집을 보천교 본부로 삼고 교단 운동을 전개하였다.

월곡은 특히 1909년 음력 정월 2일 증산이 ‘곤 이내는 과인이 다스리고 곤 밖은 장군이 다스린다(閫以內朕制之, 閫以外將軍制之)’라고 한 발언을 자신에게 대도를 계승하는 교운공사라고 하였다. 다음날인 음력 정월 3일 월곡은 증산의 명으로 천지신명에게 고사 치성을 행하였는데, 월곡은 이를 정통성을 계승받는 의례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서 월곡은 증산을 임금에 비유한다면 자신은 임금을 보좌하는 여러 신하 가운데 병권을 담당하는 병조판서이자 장군 같은 존재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곡은 증산을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느님으로 생각하였으며 자신은 그 하느님을 보좌하며 우주의 정사(政事)를 받들어 펼쳐나가는 인물로 여겼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곡의 구원론을 살펴보자. 월곡이 제시한 구원론의 핵심은 스승이

자 교조인 증산의 출세이다. 출세설은 타계한 증산이 초월적 존재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내려온다는 교설로, 증산이 스스로 그 시기를 말한 적이 없으나 월곡은 증산의 출세 시기를 특정하였다. 즉 특정한 시기가 되면 옥황상제인 증산이 세상에 강림하여 그 권능으로써 일본을 물러나게 하며 조선을 독립시킨다고 하였다. 즉 증산의 출세에 의한 조선의 독립이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핵심 구원사상이었다. 이러한 독립을 위해 보천교도들은 입교치성을 행하고 6임-12임-8임-15임의 조직을 구성하며 치성비조로 자금을 모으고 본부에 납부하였다. 치성비는 조선 독립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이라고 선전하였으며 본부에 보내지는 금액은 ‘고폐’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비용을 많이 내거나 포교에 힘써 간부가 되면 독립이 된 때에 관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관직 임명은 보천교 운동의 주요한 종교적 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도통, 가정평안, 질병 치유 등의 내용이 신도들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일부 신도들은 송주를 통한 도술의 습득, 불치병의 치유 등 신비적이며 주술적인 측면을 신앙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월곡의 보천교가 제시한 구원은 조선 독립과 관직임명 등 현세적 측면이 주요하지만 주술종교적 요소 또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청음과 남주를 주축으로 한 보천교 신판은 이러한 월곡의 증산관, 천지공사론 이해, 도통론, 구원론을 비판하며 보천교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다고 신판이 처음부터 월곡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청음과 남주 또한 월곡의 증산 신앙과 교리 이해에 공명하였으며 최측근 간부로 월곡을 보좌하였다. 그러나 지식인 계층인 신판은 교단을 합리적이며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보천교의 주술종교적인 측면과 월곡의 교설에 대한 비판의식이 짝트리 시작하였으며 1924년 음력 9월 일어난 보천교 혁신운동에서 표명되었다.

발표한 선언문에서 보천교 혁신회는 기존 보천교가 교조인 증산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고 잘못된 포교 방법으로 민중과 사회에 폐해를 끼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혁신회의 지도자인 청음은 이후 증산의 유훈과 사상을 올바르게 밝히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 증산의 언설을 담은 경전 편찬에 주력하였다. 1926년 편찬한 『증산천사공사기』의 서문에서 청음은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하여 선경의 기틀을 열었으나 법언이 전하지 못하고 행적이 기록된 바가 없으므로 미신과 사설에 부회하여 대도의 진의가 밝혀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형제는 1928년 월곡의 교리체계 변경을 월곡이 증산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신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 청음과 남주가 보천교 탈교 이후 전개한 증산 신앙운동



의 동기와 추동력은 증산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었다.

두 형제는 월곡과 같이 증산을 옥황상제라 신앙하였으며 그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경전을 편찬하였다. 1929년 편찬한 『대순전경』은 후대 여러 증산계 종단의 경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여타 종단이 독자적인 경전을 편찬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총13장으로 구성된 『대순전경』은 증산의 생애와 행적, 종도에 대한 가르침, 치병, 천지공사, 교운, 후천선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천지공사론과 관련하여 따로 ‘제6장 천지공사’편을 구성하여 총81절의 절을 기록하였다. 이 저서는 증산과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에 대한 교리 인식이 확대되고 교리 체계 또한 정립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도통론과 관련하여 두 형제는 자신들이 이렇게 증산의 교설과 행적을 담은 경전을 편찬한 것이 증산의 천지공사를 받든 것이며 또 주요한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단의 창립 시 증산의 친자종도인 박공우가 교단 창설을 고하는 치성에 집례를 행한 것을 증산 → 박공우 → 청음으로 정통성이 계승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박공우가 증산으로부터 받은 의통 인패를 자신들에게 전달해 준 것을 교운공사의 증험이라고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제시한 구원론을 살펴보면 월곡의 경우처럼 시한부출세론이나 일제의 패망과 독립 등과 같은 내용보다는 혁신운동에서 밝혔던 것처럼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증산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천지공사론에 대한 바른 이해 즉 교리의 내재화라는 이지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한 수행으로 보았으며 교리 및 사상체계를 정립하고 심화하고자 하였다.

## 제4장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 운동

월곡 차경석이 증산의 친자종도 가운데 거대교단을 이끈 중심인물이라면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는 증산의 종도가 아니면서 그 규모에 있어서 보천교 다음으로 큰 교단인 ‘무극도(無極道)’를 창교한 인물이다.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인 『高等警察要史』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신종교 중 보천교와 무극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sup>616)</sup> 전라북도에서 보천교를 대상으로 작성한 『普天敎一般』이라는 문건에서도 무극도에 대해 “본교는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조사하고 기록을 올릴 예정”<sup>617)</sup>이라고 하였다. 또 일제가 증산계의 특정 교단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문건 중 보천교와 무극도를 대상으로 한 문헌만이 전하고 있어 일제가 특히 이 두 교단을 주목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적어도 당시에 두 교단이 당국의 주요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보 상으로 보면 현재 증산종단 가운데 가장 큰 교세를 지닌 대순진리회의 전신이 무극도이기도 하다. 또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유지(遺志)를 계승하고 정산의 유법(遺法)을 숭신하고 귀의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으며,<sup>618)</sup> 정산을 옥황상제로 섬기고 있다. 또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 교운 2장에서 정산의 종교 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극도와 그로부터 유래된 대순진리회를 위시한 증산계 종교운동을 본 논문에서는 ‘무극도계’<sup>619)</sup>로 통칭하고자 한다. 무극도계 증산종단의 수는 보천교계에 비해 적지만 증산계 종교운동의 역사에서 간선(幹線)과 같은 흐름을 이루는 주요한 계보라 할 수 있다.

본 장의 1절에서는 먼저 정산이 어떠한 종교 활동을 전개하였는지 역사적으로

616)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74.

617)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25.

61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9.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50년 공부(工夫) 종필(終畢)로써 전(傳)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의 유법(遺法)을 숭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것이다.”

619) 무극도계로는 무극도, 무극도의 명칭을 변경한 태극도, 태극도의 영도자였던 우당이 서울에 창설한 대순진리회, 우당이 서울에 대순진리회 창설 시 가담하지 않고 부산에 남아있던 태극도, 태극도에 분파한 양산도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술하며 정산이 창설한 종단이 어떠한 교세와 규모로 발전하였는지 일제 공문서와 신문자료를 통해 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로써 정산의 종교 활동 및 교단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추구한다. 2절에서는 정산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을 고찰해본다. 정산은 어떠한 종교적 논리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며 증산의 교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는지 또 교단 운동을 전개하는 주요한 교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월곡이나 청음 등과는 다른 정산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3절에서는 정산의 종교 운동이 정산의 서거 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정산은 우당 박한경에게 종통을 계승하고 종단 운영의 전권을 맡겼다. 따라서 정산 이후의 종교 운동을 고찰하려면 우당의 종교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절은 제2장의 기틀로 정산의 무극도 운동과 정산 이후의 종교 운동을 고찰하여 보천교 운동과는 다른 역사적 궤적과 특성을 보인 무극도계의 전개와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절 정산의 생애와 종교 운동의 전개

### 1. 교단의 형성

#### 1) 정산의 가문과 구국활동

정산은 1895년 음력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慶南咸安郡漆西面會文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장배경과 종교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가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정산의 본관인 함안(咸安) 조(趙)씨는 경상남도 함안을 본관으로 하며 고려 말기부터 함안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면서 최대인 성족(盛族)으로 발전한 가문이다.<sup>620)</sup> 특히 9명의 과거 급제자와 13명의 충절 등의 인물을 배출하여 학문과 충절로 이름난 집안이 되었다.<sup>621)</sup>

함안 조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원윤공(元尹公) 조정(趙鼎)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은 본래 중국 당나라의 절강(浙江) 사람으로 신라 말기에 아우들과 함께 귀화

620) 허권수, 「함안 조씨의 함안 정착과 大笑軒 가문」, 『남명학 연구』 38, 남명학회, 2013, 3.

621) 허권수, 「함안 조씨의 함안 정착과 大笑軒 가문」, 37.

한 뒤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벽상일등공신(開國壁上—等功臣)에 녹훈되었으며 대장군을 지냈다.<sup>622)</sup> 시대가 흘러 조선 단종 시기 생육신 중 한 명인 어계(漁溪) 조려(趙旅, 1420-1489)가 정산의 선조이다. 조려는 함안 조씨 12대손으로 사후 이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고 정절(貞節)의 시호를 하사받았으며<sup>623)</sup>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조려의 손자는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의 벼슬을 지낸 참의공(叅議公) 조연(趙淵, 1489-1564)이며, 곧 함안 조씨 내헌공파(耐軒公派)의 파시조(派始祖)이다. 조연의 손자는 두암공(斗巖公) 조방(趙瑋, 1557-1638)으로, 임진왜란 당시 창의(倡義)하여 왜적을 물리쳤고, 정유재란에는 곽재우와 함께 창녕 화왕산성을 지키고 왜군을 무찔렀다. 조방은 사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으며, 함안 조씨 75지파 중 두암공파(斗巖公派)의 파시조(派始祖)가 되었다.<sup>624)</sup>

이 조방의 11대 손이 정산의 조부이자 함안 조씨 27대 손인 취당(聚堂, 1861-1905) 조영규(趙瑩奎)이다. 조영규는 고종 28년(1891)에 31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sup>625)</sup> 정8품 통사랑(通仕郎)의 품계와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과 승정원(承政院) 주서(主書)를 제수 받았다.<sup>626)</sup> 영규는 배일(排日) 사상가로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환, 이상설 등과 함께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분격하여 심화(心火)로 피를 토하고 낙향하였으며, 이해 11월에 45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sup>627)</sup>

정산의 부친은 휘가 용모(鏞模), 자함은 순필(順弼), 호는 복우(復宇)로 1877년에 탄생하였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문예가 뛰어났으나 부친의 순국함에 학문을 그만두고 구국의 뜻을 두었다. <sup>628)</sup> 용모는 부친 영규의 유의(遺意)를 계승하여 두 아우인 용의(鏞懿), 용서(鏞瑞)와 함께 반일운동에 활약하였다.<sup>629)</sup>

그러자 점점 일제의 압박과 위협이 심해졌고, 일가족은 1909년 음력 4월 28일

622) 咸安趙氏 忠毅公派世譜 編纂委員會, 『咸安趙氏 忠毅公派世譜』, 慶南: 大耕出版社, 2007, 70.

623) 『正朝實錄』 12卷, 정조 5년(1781) 11월 20일 기사.

624)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通仕郎 聚堂公 瑩奎 墓碣銘」, 『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 권1, 부산: 아름기획, 1996, 281-283.

625) 『國朝榜目』, 奎貴 11655 v.12, 21.

626)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通仕郎 聚堂公 瑩奎 墓碣銘」, 173-174.

627)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通仕郎 聚堂公 瑩奎 墓碣銘」, 174.

628)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復宇公 鏞模 墓碣銘」, 『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 권1, 부산: 아름기획, 1996, 180.

62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1.

창원역을 출발하여 기차를 타고 만주로 망명길에 올랐다. 정산은 이 망명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고 장차 종교 운동을 전개할 중요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 정산의 종교 체험에 대해서는 정산을 신앙하는 공동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내용은 기차가 대전 부근을 지날 무렵 정산이 꿈을 통해서 신인(神人)을 친견하고 그로부터 ‘정산(鼎山)’이라는 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산 조철제의 호는 이렇게 계시를 통해 주어졌다고 전해진다.<sup>630)</sup> 다른 기록에 보면, 정산이 기차를 타고 망명길에 오른 이날인 음력 4월 28일에 증산은 종도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지공사를 행하였다고 한다.

종도들이 용두리 김보경의 집에 계속 머물고 계신 증산께 모였다. 그 어느 날(4월) 증산께서 백지에 27년이라 쓰시는 것을 보고 종도들이 그 뜻을 여쭙어 보았다. 대답하시기를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이 되었다. 이로부터 27년 동안은 헛도수가 있을 것이라.”고, 28일에 김보경을 비롯한 몇 종도들을 앞세우고 들판에 나가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남아 15세이면 호패를 찬다하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라고 하셨다. 어떤 공사를 하시려는 것이었다.<sup>631)</sup>

이 기록에서 증산은 종도들과 함께 1909년 음력 4월 28일 들판에 나가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천지공사를 하면서 “남아 15세면 호패를 찬다하느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라 하였는데, 무극도계에서는 증산이 말한 ‘15세의 남아’가 바로 1895년생으로 1909년 당시 15세였던 정산 조철제라고 주장한다. 즉 무극도계에서는 1909년 음력 4월 28일에 증산이 대전역으로 가서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15세의 남아’를 언급하였고 마침 정산이 기차를 타고 가다 기차 안에서 꿈을 꾸는 동안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다.

주목할 점은 증산이 이 일이 있기 전인 4월경 ‘27년 헛도수’를 말하였다는 점이다. 무극도계에서는 이 ‘27년 헛도수’가 바로 월곡 차경석의 보천교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한다.<sup>632)</sup> 월곡은 1909년 교통전체식 이후 27년이 지난 1936

630)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주님의 봉천명 2」, 《대순회보》 17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5, 33.

631)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9, 265.

632) 교무부, 「27년 동안의 헛도수」,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17-29.

년 서거하는데 그가 벌인 27년간의 종교 운동이 헛된 일이자 난법이라는 것이며, 이제 ‘15세 남아’인 정산이 바로 허(虛)가 아닌 진(眞)이며 대두목이자 진법(眞法)의 구현자라고 보는 것이다.

정산의 계시 체험과 관련하여 정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산도의 경전에서는 보다 상세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증산은 1909년 음력 4월 28일 대전역 철도주변에 가서 “올 때가 되었는데.”라 하며 기다리다가 다가오는 기차를 보고 반기며 “이제 나의 일은 다 이루었도다. 남아 15세면 호패를 차나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라 하였다고 한다.<sup>633)</sup> 무극도계에서는 이를 증산이 곧 15세 남아인 정산에게 계시로서 종통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이 날을 천명을 받든 날이라 기념하여 ‘봉천명(奉天命)’ 치성을 행한다. 이 ‘봉천명’은 정산이 종교 운동을 개시하게 된 주요한 사건이며 무극도 종교 운동의 시작점이 된다.

망명을 떠난 정산의 친족들은 만주 봉천성(奉天省) 유하현(柳河縣) 지방에 정착하였다.<sup>634)</sup> 이곳에서 정산의 부친 용모(鏞模)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진전하고 있었던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 1842-1915) 등과 결탁하고 국내지사로는 정산(定山) 배문창(裴文昶, 1864-1928), 서천(西川) 조정규(趙貞奎, 1853-1920), 일헌(一軒) 조병택(趙鼎澤, 1855-1914) 등과 교류하며 광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청말민초(清末民初)의 정치가이자 북양군벌(北洋軍閥)의 지도자인 원세개(袁世凱, 1859-1916)가 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宣統帝, 1906-1907)를 복위하려는 보황당(保皇黨)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용모는 보황당원이라는 혐의를 받아 북경에 압송되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 용모는 원세개에게 구국충정을 담은 장서(長書)를 올리니, 원세개는 조용모를 인견하고 감탄하여 무혐의로 풀어주었다고 한다.<sup>635)</sup>

정산은 을사늑약 이후 분사한 조부의 충정어린 서거와 조부의 유의를 계승하

633)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2책, 서울: 대원출판사, 1996, 505-506. “4월 28일에 김보경 등 몇 명의 성도를 거느리시고 태전(太田)역 근처의 철도 주변에 가시어 동서남북으로 오가시며 혼잣말씀으로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고 멀리 바라보시며 누구를 기다리는 표정을 짓고 계시니라. 성도들이 이상히 여겨 여쭙기를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니 아무 말씀을 얹으시고 바라만 보시더니 마침 이 때 달려오는 기차를 보시고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의 일은 다 이루었도다. 남아 15세면 호패(號牌)를 차나니 무슨 일을 못하리오.’ 하시고 한참 동안 서 계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 이 내용은 이후 판본에서는 삭제되었다.

634) 정산의 장남인 조준래(趙俊來) 인터뷰 2007년 1월 15일.

635)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復宇公 鏞模 墓碣銘」, 『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 권1, 부산: 아름기획, 1996, 180-18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절.

여 항일운동에 힘쓰며 갖은 고초를 겪은 부친의 생애에 크나큰 영향을 받았으며, 부친 숙부 등과 더불어 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정산 신앙공동체의 문서와 족보인 『함안조씨 두암공파 세보(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에 언급되어 있다. 태극도에서 편찬한 『수도요람(修道要覽)』에는 “도주님 역시 유시부터 이와 같은 부조전래의 사상을 견지하시고 국가대세가 이미 한일합방의 결정단계에 있음을 개탄하시다가 서기 1909년 기유(15세기) 4월에 침략자들에 의한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부친 숙부 등과 같이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어 후사를 대비하며 동지인 이석대(李錫大), 이태기(李泰基) 등 수십여 명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다시 대사(大事)에는 도력(道力)이 필요함을 통감하시고 입산 수도하시던 중...”<sup>636)</sup>이라 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인물 중 ‘이석대’는 세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숙부인 서산(曙山) 조용의(趙鏞懿)가 “의병장 이석대(李碩大) 등 동지들과 구합하여 목탕현(木湯縣)에서 발을 이루고 탕해(湯海) 숲속에서 병사를 단련하여 오래 끌더라도 광복을 도모하였으나 일제의 탐정이 만주까지 미치었다...”<sup>637)</sup>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헌에서 이석대(李錫大)는 유명한 독립군 대장인 이진룡(李鎭龍)이다.<sup>638)</sup> 그는 의암 유인석의 문인으로 국내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1911년 남만주로 망명하여 만주 각지에 산재한 한국의 이주민을 규합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만주로 망명할 때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이르러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문헌자료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때 유하현에 정착하고 있었던 정산과 가족들은 이석대와 연결되었다고 추정된다.

## 2) 정산의 수행과 포교

이처럼 정산은 항일운동에 활동하였지만 무장독립운동만으로는 고국과 세상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산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따른 민족의 수난, 당시 일제의 침략 야욕에 크게 위협받고 있었던 만주의 불안한 상황, 청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건국이라는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세 등을 목격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만으로는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안정케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정산은 1909년 만주 망명 시 체험

636)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새글인쇄주식회사, 1967, 14.

637)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 권1, 185.

638) 의병대장 이진룡 장군 기념사업회, 『이진룡 의병장 자료전집』, 서울: 국학자료원, 2005.

하였던 ‘봉천명(奉天命)’의 계시를 동기로 하여 도력(道力)으로 구국제세(救國濟世)할 대의를 품고 입산수도(入山修道)를 시행하였다. 정산은 9년 간 입산수도를 행한 끝에 1917년 음력 2월 10일 ‘증산 상제’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였다.<sup>639)</sup>

정산을 신앙하는 신도들은 정산의 득도를 ‘감오득도(感悟得道)’라고 표현하며 이 날을 기념하여 치성행사를 실시한다. 정산을 계승하여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은 “도주님께서 진주(眞主:15세)로 봉천명(奉天命) 하시고 23세 시에 득도하심은 태을주(太乙呪)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sup>640)</sup>이라며 정산이 23세인 1917년에 득도한 것이 증산 신앙운동의 핵심 주문인 태을주 23자와 관련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정산의 ‘감오득도’는 정산의 계승자 및 신앙공동체에서 중요한 종교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며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정산은 득도(得道) 후 신인(神人)으로부터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sup>641)</sup>는 명을 받게 되었다. 정산의 부친, 숙부, 계부 및 가족들은 정산의 득도와 계시를 범상치 않게 여기고 이후 자식이자 조카인 그를 종교지도자로 추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산의 가족들이 만주에서의 망명 생활을 접고 귀국한 것이나 이후 여러 문서에서 부친과 숙부 등이 정산이 세운 교단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것에서 알 수 있다.<sup>642)</sup> 정산은 계시에 따라 친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를 떠나 태인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 태풍을 맞아 배는 서산 태안에 닿았다.<sup>643)</sup> 정산은 안면도로 이동하여 그곳 창기리(倉基里)에서 이정률(李正律)을 만났다. 이정률은 정산의 가족 외 정산을 신봉한 첫 신자라 할 수 있으며 정산을 성심껏 추종하였다. 정산은 정당리(正當里) 느락골에 ‘우일재(宇一齋)’라는 재실을 짓고 공부를 하였으며 섬사람 30여 명이 그를 따랐다.<sup>644)</sup> 이로써 안면도에서 정산을 추종하는 교도들이 처음 생기게 되었다.

63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절.

64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13.

64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8절.

642)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1575, 1927년 6월 21일, 1018. 이 판결문에서 조용모는 도장(道長)에 조용서는 주선원(周旋元)으로 교단의 최고 간부라고 기록하고 있다. 1925년 전라남도에서 작성한 『無極大道敎概況』(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소장)에도 조용서가 최고 간부인 주선원(周旋元)직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643)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9년만의 회국」, 《대순회보》 18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을 참조.

64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9절.



1918년 가을에 정산은 교도 3명과 함께 증산이 활동하였던 김제 원평과 동곡의 약방을 방문하였으며 음력 10월에는 증산이 49일의 불음불식의 공부로 천지대도를 열었던 모악산 대원사에 이르렀다. 정산은 종도 이정률로 하여금 김제 원평 황새마을(전북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sup>645)</sup>에 집을 구하여 가족들을 이사 거주하게 하였다.<sup>646)</sup> 일제가 작성한 『보천교일반(普天敎一般)』에는 정산이 1919년 2월에 이사진으로 되어 있다.<sup>647)</sup> 또 일제강점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의 판결문 자료를 통해, 이 황새마을이 1925년 4월 무극도를 창도하기 전까지 포덕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본부(本部)가 있었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648)</sup>

1919년 정월 보름 정산은 정읍 마동(馬洞)에 이르러 증산의 모친과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을 만났다. 선돌부인은 “상제께서 재세 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하며 을미생인 정산을 반겨 맞으면서 정산에게 증산이 맡겨 두었던 봉서(封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선돌부인은 증산의 분부를 무사히 이룬 것에 안심하였다.<sup>649)</sup> 정산을 창교주로 받들며 그를 따르는 교단인 태극도, 대순진리회 등은 정산이 선돌부인을 통해 증산이 남긴 봉서를 받은 이 일을 정산의 종교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후 정산은 1922년 겨울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교도들이 점차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도청에서 작성한 비밀문건인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概況)』<sup>650)</sup>에는 1921년 3월 교세가 수만에 이를 것이라 기록하였다. 1923년 정월에는 경상남도 지방에서 도수에 따른 공부를 행하였으며,<sup>651)</sup> 교단의 규모가 커지자 정산은 주선원(周旋元)과 주선원보(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는 등 교단 조직을 세워나갔다.<sup>652)</sup>

645) 교단사와 관련된 황새마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191, 「황새마을을 찾아서」,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64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10-12절.

647)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24.

648)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1575, 1927년 6월 21일, 1021.

64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13절.

650)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지사를 지냈던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 1883-1955)가 재임기간 중 보고받은 비밀문건으로 일본 도쿄에 소재한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는 우방문고(友邦文庫) 자료이다. 원문의 「無極道幹部一覽表」에 ‘大正 14年 11月 5日’이라 표기되어 있어 1925년 11월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M2-87, 1925.

65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4-25.

65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6절;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9-11.

### 3) 도장의 건립과 무극도의 창도

정산은 1924년 음력 4월에 전북 태인(泰仁) 도창현(道昌峴, 일명 돌쟁이 고개)에 도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sup>653)</sup> 도창현은 일찍이 증산이 자주 머물렀던 곳이며, 또 증산이 도창현의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乳) 샘이라.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sup>654)</sup>이라고 하였던 지역이기도 하다. 정산은 이곳이 도통군자를 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곳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무극도 도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극대도교개항』에 따르면, 정산은 도장 건립에 따른 성금 6천원을 모았고, 그중 2천원으로 숙부인 조용서로 하여금 정읍군 태인면 태성리에 포교당 건설지 1443평을 649원 정도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목재구입에 충당하여 건설에 착수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도장은 증산의 유언에 따라 옛날 문왕의 구궁(九宮)을 짓던 방식과 같이 9동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일단 1개 동을 먼저 지으려 한다고 하였다.<sup>655)</sup>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자기의 居住地인 同郡 甘谷面 桂龍里에서 1里 相距되는 同郡 泰仁面 泰成里에 布教室을 新建築 中”<sup>656)</sup>이라 하였고, 또 정산이 “충본부인 교당을 태인읍내 돌창리에다가 굉장한 신건축을 하는데 공장에 종사하는 인부는 모다 교도만 사용하며 매일 백여 명이 집합하여 일을 하는 중...”<sup>657)</sup>이라 하여 오직 신도들로 구성된 백여 명의 인원이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기록에서 당시 언론도 무극도장의 건립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도들의 열성과 노고로 마침내 을축년인 1925년 무극도 도장이 준공되었다. 1936년 편찬된 『정읍군지』에는 정읍의 명승지 중 하나로 무극도 도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아래와 같은 글로 소개하였다.

무극도 본사. 동면 태흥리 1등 도로변에 2-3층의 화려한 누각이 공중에 우뚝 솟

65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9절.

65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45절.

655)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7-8.

656) 「정읍 태인에 제2 흙지 출현, 소위 무극교주 조철제가 흑세무민의 소굴을 건축중」, 《조선일보》 1925년 6월 22일.

657) 「무극교도와 일반군중의 격투」, 《조선일보》 1925년 11월 10일.

아있으니, 이것이 즉 무극도 본사이다. 그 웅장함은 보천교 본부와 조금 차이가 있으나 구조의 정교함은 그에 별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그 건축은 대정 13년 3월에 시공하여 대정 15년 4월까지 만 2년 만에 준공하였으니 총 공사비는 약 7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건물의 명칭은 중앙의 3층은 도술궁, 2층은 영대라 하고 부속건물 수십 동이 있으니 그 장치의 찬란함이야말로 참으로 장관이다. 역시 인근 각지의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다.<sup>658)</sup>

이 기록에 따르면, 도장 건립은 1924년 3월에 시작하여 1926년 4월까지 약 2년이 걸렸으며, 총 공사비가 7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sup>659)</sup> 또 무극도장의 외형이 매우 정교하고 찬란하고 웅장하여 인근의 많은 관람객들이 참배하러 온다고 하여, 도장이 신도들의 수행 공간뿐만이 아니라 당시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정음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도장의 준공과 함께, 정산은 교명을 ‘무극도(無極道)’로 공표하고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교의宗旨(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였다. 교의宗旨은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으로, 신조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구성하였다. 사강령은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를 삼요체는 성(誠)·경(敬)·신(信)을 각각 의미하였다. 또 무극도의 목적으로는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으로 정하였다.<sup>660)</sup> 이로써 정산은 교단의 명칭, 신앙의 대상, 교리체계 등을 확립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표명하였다.

658) 張奉善, 『井邑郡誌』, 全北: 履露閣, 1936, 20-21. “無極道 本司. 同面 泰興里 一等道路邊에 2, 3層의 朱樓畫閣이 半空에 屹立하여스니 이것이 卽 無極道 本司이다. 그 雄壯함은 普天敎 本部和 조금 差異가 잇스나 構造의 精巧함은 그에 別로 遜色이 無하갸다. 그런데 그 建築은 大正 13年 3月에 始工하여 同 15年 4月까지 滿 2個年에 竣工하여스니 總 工費는 約 7萬圓에 達하였다 한다. 建物의 名稱은 中央 3層은 兜率宮, 2層은 靈臺라 하고 附屬建物 數十 棟이 有하니 그 裝置의 燦爛함이야 말노 참으로 壯觀이다. 亦是 遠近 各地의 觀覽客이 不絶한다.”

659) 《중외일보》 1926년 11월 24일 기사에서는 “조철제(趙哲濟)의 무도대극교(無道大極敎) 역시 옥을동련의 형세로써 15만원의 거액을 들여 정읍태인(井邑泰仁)에 그 교당(敎堂)을 건설”하였다고 하여 도장 건설에 15만원이 소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66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32절.

## 2. 일제·언론의 압박과 교세의 확장

도장의 건립 후 교세가 한층 증가하였지만 일제는 무극도를 극히 경계하며 박멸할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고, 언론은 무극도를 ‘혹세무민하는 단체’<sup>661)</sup>, ‘제2보천교’<sup>662)</sup>, ‘보천교의 자매격’<sup>663)</sup>, ‘복마전(伏魔殿)’<sup>664)</sup> 등으로 칭하거나 미신을 조장하고 민중을 기만하는 곳으로 비난하였다.

무극도가 언론에 처음 노출된 것은 1925년 2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로 보인다. ‘무극으로 통일천하, 경북 안동에 새로 생긴 무극도, 맹랑한 수작으로 우민을 속혀, 安東서 蠢動하는 第二車哥’<sup>665)</sup>라는 제목으로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 무극도가 발흥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며 제2의 차경석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안동 청년들이 이 무극도를 ‘박멸’할 계획을 강구 중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 보천교는 시국대동단을 운영하면서 성토 또는 박멸의 목소리가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동아일보》에 1925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糞窖中 蠢動하는 時局大同團’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연재 기사가 실리는 등 보천교에 분개하는 민심이 비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극도를 ‘제2의 보천교’로 낙인찍는 언론의 비난은 상당한 여론의 압박일 수밖에 없었다. 일제도 무극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무극도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경무국에서는 각도 경찰에 비밀 명령으로 무극도의 박멸책을 내렸다.<sup>666)</sup> 보천교에 관한 비밀문건인 『보천교일반(普天敎一般)』에도 “본교는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조사하고 기록을 올릴 예정”<sup>667)</sup>이라 하여 일제당국이 무극도를 지극히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극도의 교세는 점점 확대되어갔다. 당시 교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일제의 조사에 따른 기록도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신

661) 「무극교 해산명령, 혹세무민하는 단테라 하야」, 《조선일보》 1925년 3월 27일.

662) 「鄭鐵統이 鄭道令 無極大道團主의 謔語」, 《동아일보》 1925년 7월 10일.

663) 「伏魔殿을 차저서 8 無極敎正體, 보천교의 자매격 무극도」, 《동아일보》 1929년 7월 26일.

664) 「伏魔殿을 차저서 9 無極敎正體」, 《동아일보》 1929년 7월 27일.

665) 《동아일보》 1925년 2월 25일.

666) 「무극교 해산명령, 혹세무민하는 단테라 하야」, 《조선일보》 1925년 3월 27일.

667) 全羅北道, 『普天敎一般』, 25.

문과 일제가 양산한 기록을 통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일보》 1925년 7월 10일 기사에는 경성, 부산, 밀양, 김제, 평양, 대구, 대전의 7곳에 무극도의 지부가 있다고 되어 있다.<sup>668)</sup> 일제가 간행한 자료<sup>669)</sup>와 안동에서 지부가 있다는 신문 기사가 확인되므로 여기에 안동을 추가할 수 있다. 지부 중 밀양은 정산의 외가이며 또 종도 김병문(金炳文)의 집이 있는 곳이다. 정산은 1923년 밀양 종남산(密陽終南山) 세천동(洗川洞) 김병문의 집에서 ‘둔도수’라 칭하는 공부를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sup>670)</sup>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밀양군 상남면 조음리’에 지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무극도 간부 김병문의 집 주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극도가 창도되기 전부터 밀양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 포교가 진행되어 상당한 수의 신도가 확보되었다. 무극도 신자 3백여 명이 정산의 득도일인 음력 2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주 이씨 산정(山亭)인 금시당(今是堂)에서 치성을 올렸다는 기사가 있고,<sup>671)</sup> 밀양에서 가까운 부산에 신도 1만3백여 명이나 모집되었으며, 부산 대신동 331번지 부산 사무소에서 근래 2년간 매일 3백여 명의 신도가 모여 주문을 소상(燒上)하며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sup>672)</sup>

경남의 인근인 경북도 무극도의 주요 활동지였다. 안동 일직면 송리동에 위치한 안동 지부에서 비밀리에 2백여 명이 모여 기도하다 발각되었다는 기사<sup>673)</sup>가 있고, 증산의 화천(化天)일인 음력 6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수백 명이 모여 밤 12시에 제물을 진설하고 치성을 지냈다는 기사<sup>674)</sup>가 확인된다. 예천에서도 무극도 교인 150여명이 모여 치성을 하였으며<sup>675)</sup>, 영덕의 무극도 교도가 증가하였고<sup>676)</sup>, 의성에서는 “군내에 4천여 명 보통교도가 겨우 5백여 명밖에 남지 안

668) 「鄭鐵統이 鄭道令 無極大道團主의 謔語」, 《동아일보》 1925년 7월 10일

669)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78.

67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5절. “도주께서 계해년 정월에 함안 회문리를 순회하고 그곳에 잠시 머무시다가 밀양 종남산(密陽終南山) 세천동(洗川洞) 김 병문(金炳文)의 집에 가셨도다. 이때 배 문걸이 도주를 모시고 따르니라.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종이에 글을 쓰셔서 둔 도수라 하시고 석 달 동안 행하셨는데 그 종이가 심한 바람에도 날리지 않았도다.”

671) 「밀양에도 무극도의 준동」, 《조선일보》 1928년 3월 4일.

672) 「혹세무민하는 무극대도단」, 《동아일보》 1925년 7월 6일.

673) 「무극으로 통일천하, 경북 안동에 새로 생긴 무극도」, 《동아일보》 1925년 2월 25일.

674) 「안동 무극교도 근거를 철저히 박멸」, 《조선일보》 1925년 8월 20일.

675) 「예천지방에 무극교 준동」, 《조선일보》 1926년 3월 14일.

676) 「영덕 보곡동 무극교도의 우매」, 《조선일보》 1926년 7월 1일.

코 거진 무극교도가 된 것”<sup>677)</sup>이라 하여 군내의 보천교도들의 상당수가 무극도로 신앙을 변경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1934년 간행된 『高等警察要史』<sup>678)</sup>에는 1927년-1928년 경상북도 내의 신종교의 교도수와 모금액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교명	신도수(경상북도)		모금액(원)		포교소 수
	1927년 말	1928년 말	1927년 말	1928년 말	
보천교	4,393	4,292	5,280	3,463	진정원 1 정교부 7
무극대도교	2,099	1,828	4,130	9,161	기관소 1
천도교	290	325	740	144	총리원 7
상제교	511	373	117	18	지부 9
시천교	538	548	150		지부 2
동학교	1,348	1,445			지부 1
칭림교	143	161	12	15	지부 2
공자교	30	20			설교소 1
계	9,352	8,992	10,429	12,801	31

표 2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76-77.

위의 표에 따르면, 1927년과 1928년 사이 경상북도의 보천교와 무극도의 신도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성금액에 있어서 무극도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보천교, 무극도 두 단체 모두 신문지상의 기록이나 ‘만연’ 등의 표현에 비해서 신도수가 적게 측정되었지만, 두 단체 모두 경상북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표에서 1927년과 1928년 사이 두 단체 모두 신도수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성금액에 있어서 보천교는 크게 감소한 반면 무극도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성금액의 규모에 있어서도 무극도가 보천교의 약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7년 당시 보천교는 시국대동단 사건 이후 친구파의 내분 및 핵심간부들의 이탈 등으로 교주 월곡의 지도력이 흔들리며 종단 또한 안팎으로부터 큰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무극도는 1925년에 새롭게 종단을 출범하여 정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세력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수

677) 「의성 일대에 무극교가 만연」, 《조선일보》 1926년 3월 31일.

678) 지방경찰인 경상북도경찰부에서 고등계 형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를 정리하고 편찬하여 관내의 각 경찰서에 비치시킨 대외 극비기록이다. 두 차례 영인본이 출간되었으며, 2009년에는 역주본인 『국역 고등경찰요사』가 출판되었다.

치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무극도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간행한 『無極大道敎概況』의 「無極道幹部一覽表」(1925년 11월 5일로 기록되어 있어 일람표 작성일이 이 날임을 표기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간부일람표는 일제가 무극도를 탄압하기 위해 그 간부와 조직을 철저히 조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산 이하 ‘본소 직원’ 27명 그리고 ‘지방 직원’ 127명의 성함, 연령, 본적, 비고(備考)를 기록하고 있다. 본소 직원의 비고란은 비어 있으나 지방 직원의 비고란에는 관리하는 신도수, 간부 임명 사항 등에 대해서 적고 있다. 본소 직원 27명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본부에 주소지를 등록한 주선원과 주선원보 4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상남북도 출신이다. 지방 직원의 경우도 강원 15명, 전북 4명, 충북 2명, 경상도 106명으로 경상도 출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679)</sup>

경상도 이외의 지역으로는, 《조선일보》 1928년 3월 3일자 기사에서 강원도 삼척 지방에서 무극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대정 15년 5월부터 9월까지 교도 약 3만 명이 2만3천여 원을 정읍(井邑)으로 보내어 인전성시대를 위시”하였다고 하여 1926년 5월-9월까지 교도수가 3만 명이며 이들이 4-5개월 간 성금 2만3천여 원을 정읍 도창현 본부로 보내었다고 되어 있다.<sup>680)</sup> 매월 4천 5백 원-5천 원 정도<sup>681)</sup>의 성금이 모인 것이므로, 무극도는 당시 상당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성과 전라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련 기사가 적은데, 경성 즉 서울의 경우도 염동(都染洞)에 지부가 있었다고 하나, 도회지에서의 포교활동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본부가 위치한 전라도의 경우 아직까지 기세가 왕성하였던 보천교의 영향으로 다소 포교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위 「無極道幹部一覽表」에서도 전북 출신의 간부는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교세를 살펴보면, 1928년 《조선일보》 3월 3일자 기사에서 신도수가 3만여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동아일보》 1929년 7월 26일자 기사에는 6-7만이라 추측하였다. 종단 자체적으로는 무극도의 도세(道勢)를 10만에 달하였다고 주장한다.<sup>682)</sup> 그러나 한국 신종교에 대한 종합 조사와 연구가 이뤄진 무라야

679)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37-52.

680) 「무극도에 맞쳐 파산자 속출, 허무맹랑한 풍설에 놀아나는 삼척군내의 어둔 백성들」, 《조선일보》 1928년 3월 3일.

681) 현재의 금액 가치로 대략 환산하면 1억8천만 원-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682)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967, 새글인쇄주식회사, 16. “도주님의 무량하신 진리의 설법을 흠모하는 신도가 일가월증하여 도세가 10만에 달하다.”

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무극도의 신도수가 1934년에 2,190명이라고 하였다.<sup>683)</sup> 이러한 통계적 차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당시 조사방법이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경찰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였고, 관이 무극도를 포함한 신종교 전반에 대한 단속과 탄압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무극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적극 밝히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의 수치는 상당히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유사종교』에서 보천교의 신도수를 16,474명<sup>684)</sup>으로 한 것을 고려할 때 무극도의 규모는 대략 보천교의 1/8 정도가 아닐까 추정해본다.

### 3. 제민 사업의 실시와 무극도의 해산

정산은 무극도의 창립 이후 교리 체계를 세우는 한편 신도들로 구성된 노동단체인 진업단(進業團)을 조직하였다. 창설 목적은 안심·안신이라는 무극도의 취지에 따라 각지의 빈곤한 신도들로 하여금 수리조합, 삼림벌채, 개간 사업 등의 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생활의 안정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685)</sup>

이 중 개간 사업은 ‘구태인 일대’ 즉 지금의 정읍 태인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sup>686)</sup> 이 지역은 당시 무극도 도장 주변 일대 신도들이 개간한 땅으로 추정된다.<sup>687)</sup> 무극도 주요 간부인 장득원의 손자 장○○에 따르면, 무극도 신도들이 성황산, 향가산, 거산 평야 일대 등 무극도장 주변의 대부분의 지역을 개간하였다고 한다. 무극도장이 들어서기 전 당시 태인면 전체 인구가 2-3천여 명에 지

683)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77.

684)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67.

685)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271.

68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35절. “이때부터 도주께서는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瀉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도다. 신도들로 구성된 진업단(進業團)과 현금 2만 원과 구태인 일대의 개간지에서 얻어진 곡물 3백석이 동원 투입되었도다. 그러나 두 섬의 네 곳에서 뜻을 이루하고자 하셨으며 심한 풍랑으로 두 곳은 뜻을 이루하지 못하고 그 후 일본(日本) 마상 회사(馬上會社)가 성과를 거두게 되었도다. 안면도의 20만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은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도다. 도주께서 제민 사업을 돕는 한편 안면도 창기리에 있는 재실 홍일우(洪一宇)에서 공부를 하셨도다. 이때에 서산읍의 사람 이동만(李東萬)이 도주를 가까이 모셨도다.”

687) 대순진리회 교무부, 「무극도 진업단과 개간지」, 《대순회보》 17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 42.



나지 않다가 도장 건립 후 경상도 등지에서 상당수의 신도들이 이주해 와서 인구가 3만여 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신도수의 증가에 따른 식량 증산의 필요성 등이 진업단의 창설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sup>688)</sup>

정산은 진업단의 신도들과 현금 2만원 그리고 구태인 개간지에서 생산된 곡물 3백석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안면도와 원산도에서의 간척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개간사업으로 안면도에서는 2만평의 농지가 원산도에서는 염전이 갖춰지면서 두 섬의 여러 마을 사람들을 가난과 기근에서 구제할 수 있었다.<sup>689)</sup> 이 외에 대구에서 신도들 3백 명을 모아 함경북도 별채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고<sup>690)</sup>, 충청북도 음성군의 무극광산(無極鑛山) 등 전국 여러 광산의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다.<sup>691)</sup>

정산은 도수에 따른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여 교세가 증대되었지만, 일제는 1936년 유사종교단체 해산령과 1941년 치안유지법 강화로 무극도를 해산하게 하였다.<sup>692)</sup> 이에 정산은 신도들에게 “그대들은 포덕하여 제민하였도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처자를 공양하되 찾을 날을 기다리라”<sup>693)</sup>고 선포하고 고향인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로 돌아갔다.<sup>694)</sup> 이후 조선총독부에 무극도의 도장을 강제 차압하여 경매 처분하였고, 1943년 부안의 갑부였던 김상기가 무극도장의

688) 대순진리회 교무부, 「무극도 진업단과 개간지」, 43-44.

68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35절. “이때부터 도주께서는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瀦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도다. 신도들로 구성된 진업단(進業團)과 현금 2만 원과 구태인 일대의 개간지에서 얻어진 곡물 3백석이 동원 투입되었도다. 그러나 두 섬의 네 곳에서 뜻을 이룩하고자 하셨으되 심한 풍랑으로 두 곳은 뜻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후 일본(日本) 마상 회사(馬上會社)가 성과를 거두게 되었도다. 안면도의 20만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은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도다. 도주께서 제민 사업을 돕는 한편 안면도 창기리에 있는 재실 홍일우(洪一宇)에서 공부를 하셨도다. 이때에 서산읍의 사람 이동만(李東萬)이 도주를 가까이 모셨도다.” 상세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주님의 숨결이 어려 있는 안면도를 다녀와서」, 《대순회보》 11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대순진리회 교무부, 「구세제민의 현장, 원산도」, 《대순회보》 12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참조.

690) 「무극교도 곤경 심상궁곡에서」, 《동아일보》 1929년 3월 5일.

691) 안후상, 「일제강점기 선도계열의 민족운동: 태인 무극대도를 중심으로」,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문화적 회고와 전망-2018년 정읍 역사문화연구소 3차 학술대회 발표집』,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8, 146.

692) 아오노 마사아키, 『제국신도의 형성: 식민지조선과 국가신도의 논리』, 배귀득·심희찬 역, 서울: 소명출판, 2017, 412-425.

69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절.

69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절.

주요건물인 영대와 도술궁을 비롯하여 몇 개 동을 낙찰 받아 자신의 집으로 이 건하였다.<sup>695)</sup> 무극도장 건물 중 유일하게 소재가 파악된 건물은 정산이 기거하였던 도술궁으로, 도술궁의 자재는 부안의 경주이씨 재실<sup>696)</sup>과 부안 내소사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sup>697)</sup>

정산은 고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수에 의한 공부를 하였으며, 몇몇 종도의 도움을 받아 수행을 하였다.<sup>698)</sup> 회문리 회룡재(廻龍齋)에서 해방을 맞은 정산은 신앙자유의 국시에 따라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sup>699)</sup>

#### 4. 종교 활동의 재개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정산은 신도들과의 연락을 재개하고 새롭게 종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산은 과거 무극도장이 있었던 전북 태인을 종교 운동의 물리적 구심점으로 삼지 않고 부산(釜山)에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이후 종단의 명칭도 태극도(太極道)로 개칭하였다.<sup>700)</sup> 2절에서 상술하겠지만 정산이 부산에 본부를 둔 것은 일찍이 증산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sup>701)</sup>고 한 언설을 ‘입금산(入金山)’ 즉 ‘부산(釜山)’으로 해석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교리적 이유 외에도 첫째 태인의 무극도장 건물이 해체되었다는 점, 둘째 신도수가 경상도 특히 부산에 많았다는 점 등에서 종단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산이 적절한 곳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산은 1948년 음력 9월에 부산 중구 보수동(寶水洞)에 도 본부를 설치하였다.<sup>702)</sup> 본부가 설치되자 신도들이 이주하였고, 특히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

695) 대순진리회 교무부, 「무극도장의 자취를 찾아서」, 《대순회보》 13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32.

696)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당하마을 소재.

697) 대순진리회 교무부, 「무극도장의 자취를 찾아서」, 《대순회보》 13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33-41.

69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4절.

69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2.

700) 「우당 박한경 훈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1988년 12월 5일(이후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생략);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4일. “도주님께서서는 전라도 태인에서 도명(道名)을 무극도로 하여 창도하셨는데, 무극도라고 하다가 광복 이후 태극도로 도명을 바꿨다. 경인년(庚寅年, 1950년)까지 무극도라고 했는데…태극도로 바꾸셨다.”

70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29절.

702)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8.

한 뒤 많은 신도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어 약 3천여 세대가 보수동을 중심으로 판잣집을 구축하며 난민생활을 영위하였다. 휴전 이후 보수동에는 1천5백여 세대가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었으나, 1955년 음력 8월경 정부는 판자옥 철거령을 내리며 태극도 신앙촌의 이주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정부에서 1953년 1월 부산국제시장 대화재,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등의 화재 원인이 피난민의 판자집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태극도 신앙촌을 부산 영도구 청학동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곳은 택지조성조차 할 수 없는 경사지이고 토지 또한 거의 사유지였으므로 태극도측에서 매입을 해야 하였다.<sup>703)</sup> 이에 정산은 “영도는 불가하고 이주할 곳은 오직 감천이어야 하느니 그곳이 천장길방(天藏吉方)이니라. 감천을 감내라 하니 ‘지성이면 감천’이고 ‘고진이며 감래’가 바로 이곳이며 이곳이 도인들의 갈 곳이니라. 감천에서도 해변이 아닌 반월령(半月嶺)으로부터 천마산과 옥녀봉의 두 산자락이 서로 맞닿은 동구까지의 천마옥녀음양합덕지궁이라야 도수의 땅이 되느니라.”<sup>704)</sup>고 하였다. 정산의 뜻에 따라 태극도 간부들은 경상남도 당국과 협의하였으며, 경상남도 당국은 국유지인 부산지 사하구 감천동(甘川洞) 일대를 알선하여 이 신도들을 집단 이주하도록 하였다.<sup>705)</sup>

신도들의 정착 및 마을 공간 편성은 신도들의 해당 방면<sup>706)</sup>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행정구역인 통·반보다 1감·2감·3감 등으로 불렸다. 반달고개에서 옥녀봉 쪽으로 1감·2감·3감·4감으로 하고 중앙지대를 5감으로 정하며 다시 남단에서 천마산 자락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6감·7감·8감·9감으로 하여 구궁구곡(九宮九曲)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였다. 1감은 충주방면, 2감은 김천방면, 3감은 청안방

703) 장형복 편저, 『감천2동 향토지』, 감천2동 향토회, 2004, 21.

704) 장형복 편저, 『감천2동 향토지』, 21-22.

705)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8-19.

706) 방면이라 함은 무극도 시기부터 시작된 지방 수도 조직으로서 ‘연운(緣運)’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다. 연운(緣運)은 동학 및 천도교에서 전교인과 수교인의 관계를 도통(道統)으로 신성화하며 이를 조직을 구성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인맥 중심의 속인제(屬人制) 조직인 연원제(淵源制)와 상통하는 원리를 말한다. 이 연운은 무극도와 태극도 그리고 태극도를 계승한 대순진리회에서의 조직 구성 원리이다. 포교한 업적에 따라 조직체가 커지면 하나의 방면이 형성된다. 박상규는 일제강점기 관(官)의 자료와 교단 자료를 분석하여 수도 조직인 연운제 조직이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도 시절의 조직 구성 원리와 연속성상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특성」, 『종교연구』 70, 한국종교학회, 2013. 필자는 대순진리회의 조직체계의 구성 원리와 방면 현황 및 변천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박인규,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신종교연구』 40, 한국신종교학회, 2019.

면, 4감은 괴산방면, 5감은 중산 영주방면, 6감은 괴산방면, 7감은 청주방면, 8감은 충주방면, 9감은 연풍방면으로 하여 각 방면별로 집단 지역을 구성하고 가옥을 짓도록 하였다.<sup>707)</sup> 또 집을 지을 때는 경사면을 이용하여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집과 집들이 서로 통하게 하여 질서정연하게 마을을 조성하였다.<sup>708)</sup> 정산은 신도들의 집단 이주를 적극 원조하여 1956년 음력 9월 정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 본부를 보수동에서 감천동으로 이전하고 수도장을 건설하였다.<sup>709)</sup>

감천동에 본부인 도장이 건설되고 많은 신도들이 모여 집을 짓고 살면서 이곳은 부산의 주요한 신앙촌 중 하나가 되었다. 인구수 및 신도수를 살펴보면, 감천동의 인구는 1958년 8,238명에서<sup>710)</sup> 1964년 11,373명으로 증가하였고,<sup>711)</sup> 1964년 말 태극도 신도는 6,392명(남 3,300명, 여 3,092명)으로<sup>712)</sup> 어린이 약 4천명을 제외하면 마을 사람 대부분이 태극도 신도였다.

감천동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뒤로는 산맥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형상으로 경사가 급해 거주하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다. 경사가 60도에 이르러 새마을운동 당시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업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sup>713)</sup> 이러한 지형적 이유로 인해 다른 곳과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이 조성되어 태극도 집단 신앙촌이 형성될 수 있었다.<sup>714)</sup>

이 태극도 마을의 신앙의 중심은 5감에 위치한 태극도 도장이었다. 도장에서 치성, 기도, 공부 등의 행사가 행해지며 신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9개의 감마다 기도와 의례의 장소인 회실(會室)이 있어서 신도들의 모임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즉 감천동 태극도 마을은 태극도주(太極道主)인 정산을 중심으로 증산을 신앙하고 정산을 추종하는 신앙인들의 공동체였던 것이다.

이후 태극도의 교세는 정산으로부터 도전(都典)에 임명받고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받은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이 1968년 태극도를 나와 서울에 대순진리

707) 장형복 편저, 『감천2동 향토지』, 21.

708) 백영제·김다희·이명희, 『감천문화마을 이야기』, 부산: 도서출판 두손검, 2011, 8-15.

709)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9.

710) 부산시, 『시세일람』, 부산: 부산시, 1959, 17.

711)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부산: 부산시, 1965, 42.

712)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199.

713) 이원선, 「하면된다는 억척과 집념: 판자집 2천동 개량이 남긴 교훈들」, 『새마을』 6/3, 1979, 107.

714) 손은하·차철욱, 「환경색채의 변화를 통해 본 마을 이미지-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태극마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2, 인문콘텐츠학회, 2011, 114.

회를 창설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 산업화 및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가 마을을 떠나면서 신도수가 줄어들며 태극도 마을은 신앙의 활기를 잃은 산동네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2009년 예술문화단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어 감천동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이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마을의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여기에 여러 문화예술가들과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을 새롭게 가꾸어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sup>715)</sup> 마을 입구의 안내판에는 “감천문화마을은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는 계단식 주거형태와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색채,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있어 한국의 마추픽추, 산토리니라 불린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마을을 재창조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이라는 교육적 방식으로 마을의 문제를 접근·해결하여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과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문에처럼 감천동은 ‘감천문화마을’ 또는 ‘태극도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마을 재생·문화콘텐츠·도시공학·건축학·관광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관심을 받아 상당한 학술연구<sup>716)</sup>가 이뤄지고 있다.

---

715) 김창수, 「도시마을 창조전략-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회, 16/1, 2012, 232.

716) 이상훈,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 연대 변화 연구-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 2015; 호설자, 「문화 예술단지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2016; 하남구, 「부산기 감천2동 태극도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2012; 신희경,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례로 본 실천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중국 베이징 798예술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 2015; 김다희, 「문화마을 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감천문화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동명대학교 석사, 2017 등.

## 2절 정산 조철제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 1. 정산의 도통론

#### 1) 계시 체험과 증산 유품의 습득

정산 조철제는 증산의 직계 종도가 아니며 증산과 직접적·물리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정산은 어떤 종교적 논리로써 증산으로부터 종교적 정통성을 계승받은 대두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형 중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일 것이다. 정산은 스스로 증산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계시가 종교 활동에 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무극도계에서는 정산의 종통 계승과 관련된 계시 체험을 종단의 주요한 행사로 기념하는데, 기념하는 사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09년 음력 4월 28일 정산이 만주로의 망명 중 계시를 받은 ‘봉천명(奉天命)’과 다른 하나는 1917년 음력 2월 10일 정산이 증산의 진리에 대한 ‘감오득도(感悟得道)’이다.

‘봉천명’에 대해 먼저 논해보겠다. 앞 절에서 다루었듯이 정산의 집안은 배일(排日) 사상을 지닌 가문으로, 일가족이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인해 1909년 음력 4월 28일 만주로 망명길을 올랐다. 이날 정산은 만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몽중(夢中)에 계시를 받는 종교 체험을 하였으며 계시를 통해 ‘정산’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전해진다.<sup>717)</sup>

무극도계에서는 이 일을 ‘봉천명’이라 칭하며, 이 봉천명이 정산이 증산으로부터 계시에 의해 종통 계승을 받은 사건이자 무극도 운동의 시작점이라 여긴다. 이는 정산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산은 1958년 음력 3월 6일 서거 전 “오십년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금지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sup>718)</sup>고 하였는데, 정산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50년 공부’라 표현하였고

71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도주님의 봉천명 2」, 《대순회보》 17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5, 33.

71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6절.

그 공부가 마치는 해가 1958년이라 하여 그 시작점이 1909년이었음을 말하였다. 즉 정산은 1909년 봉천명 이후로 종교 운동을 개시하여 50년 동안 종교 활동을 하였고 1958년 ‘종필’ 즉 마치게 되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한 것이다.

정산을 계승하여 종교 운동을 전개한 우당은 ‘봉천명’과 관련된 교리적 해석을 부가하여 정산의 종통 계승의 상징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도주님께서 만주로 가신 것이 기유년(1909년) 4월 28일인데, 4는 춘하추동 사계절, 28은 28수를 의미한다.<sup>719)</sup>

하느님이 계시면 창도하시는 분인 도주님이 계셔야 한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해에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奉天)으로 가셨다. 그 해 도주님 천수(天壽) 15세였다. 15는 진주(眞主)라 한다. 『전경』에도 진주노름이란 말이 있다.<sup>720)</sup> 10을 무대라고 하고 무대는 양수(陽數)로 수 중에 제일 높은 수이다. 진주노름에서 무대를 잡으면 아무도 못 먹는다고 한다. 무대는 무극대도(無極大道)이다. 거기서 참 주인이심을 알 수 있다. 봉천(奉天)이니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받든다.<sup>721)</sup>

즉 무극도의 이후 종교 운동에서는 정산이 봉천명의 계시 체험을 한 4월 28일의 의미, 정산이 15세 시에 계시를 받은 의미 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산의 봉천명은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28수 별자리를 상징하는 특별한 날짜에 이뤄진 신성한 사건이며, 정산은 증산을 계승한 ‘참 주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산은 봉천명의 계시 체험 이후 그 체험이 동기가 되어 입산(入山) 공부를 하였고 1917년 음력 2월 10일 증산의 진리에 ‘감오득도’하였다.<sup>722)</sup> ‘감오득도’의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무극도계에서는 이 감오득도를 ‘종통 계승의 계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한다.<sup>723)</sup> 또 이때 정산의 나이는 23세였는데, 이 23수는

719)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5월 8일.

720) 『전경』, 행록 3장 65절

721)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5월 8일.

72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절. “도주께서는 9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

723)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4.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가 다시 대사(大事)에는 도력(道力)이 필요함을 통감(痛感)하시고 입산수도(入山修道) 하시던 중 서기 1917년 정사(23세) 2월 10일에 강증산(姜甌山) 선도주(宣道主)의 태극도리(太極道理)를 감오득도(感悟得道)하시고 선도주(宣道主)의 종통(宗統)을 계승하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2. “1917[정사년(丁巳年), 23세 시 2월 10일에 입산(入山) 공부(工夫)하시던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께서는 강증산(姜甌山) 상제(上帝)의 대순진리(大巡眞理)에 감오득도(感悟得道)하시고 종통계승(宗統繼承)의 계시(啓示)를 받으시다.”

태을주의 23자와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724)</sup>

그러나 계시만으로는 종교적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물증이 부족하다. 이에 정산은 종통 계승의 확실한 물적 증거로 증산의 물품인 봉서(封書)를 확보하고 이 봉서의 입수를 종통 계승의 정당성으로 주장한다.

도주께서 다음 해 정월 보름에 이치복(호: 석성)을 앞세우고 정읍 마동(馬洞) 김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순임(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 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니라. 부인은 봉서(封書)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 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sup>725)</sup>

위 구절에서, 증산은 자신의 누이인 선돌부인에게 봉서를 맡기며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으러 올 것이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하였고, 을미생인 정산은 증산의 예언대로 마침 1919년 정월 보름에 선돌부인을 찾아 왔다는 것이다. 봉서를 정산에게 전달한 선돌부인은 증산의 유훈을 잘 이행하였다고 안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봉서의 수수를 증산의 모친, 증산의 독녀인 강순임 그리고 증산의 종도였던 이치복<sup>726)</sup>이 목격하였다. 이 내용에서, 선돌부인을 매개로 증산은 정산에게 봉서라는 물품을 전달하였고 봉서의 수수(授受)가 바로 종통 계승의 확증이라는 논리이다.

봉서와 함께 정산은 자신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으로 ‘둔궤(遁櫃)’를 든다. 선돌부인은 정산에게 봉서를 전달하면서 둔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를 찾아와야 한다고 하였다.<sup>727)</sup> 둔궤란 증산이 1907년 4월 동곡약방을 개설할 때 만든 궤로 ‘천지도수 조화둔궤(天地度數造化遁櫃)’라고 하는 매우 귀중한 물품이라는 것이다. 증산의 화천 후 종도 김형렬의 삼녀(三女)가 둔궤를 보관하였

72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3.

72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13절.

726) 이치복은 증산의 종도로 증산의 화천 후 재화교를 창립하였으며 이후 삼덕교를 세운 허옥에게 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95-96.

727) 관련 구절은 대순진리회 『전경』 교운 2장 14절이다. “선돌부인이 하루는 ‘구릿골 약방에 비치하셨던 둔궤가 천지도수의 조화둔궤라, 하루 바빠 그것을 찾도록 함이 어떠하겠나 이까’라고 도주께 아뢰니라. 이때 도주께서는 도수에 따라 이준세(李俊世)의 재실에서 도수를 보고 계셨도다. 이곳은 황새마을에 가까운 통사동(通士洞)이니라.”



다가 그의 사망 후 고판례가 가져갔고 다시 보천교 교주인 월곡 차경석에게 넘 어갔었다. 1919년 9월 정산은 보천교 본부에 둔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종도들과 함께 보천교 본부로 가서 둔괘를 가져왔다.<sup>728)</sup> 그 후 정읍시 감곡면 통사동(通士洞)에 위치한 경주 이씨 재실에서 둔괘를 두고 주야로 공부를 하던 중 1920년 2월 17일에 둔괘가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sup>729)</sup> 정산은 증산의 천지도수 조화를 담으신 괘가 자신에 의해 열렸던 일에 대해서, 바로 자신이 증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진주(眞主)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730)</sup>

## 2) 시루와 술의 논리

정산이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을 말하는 주된 논리는 ‘시루와 술’의 논리이다. 시루는 곧 증산(甕山)을 가리키며 술은 정산(鼎山)을 의미한다. 정산은 이 시루와 술의 논리를 금산사 중창<sup>731)</sup> 원리와 연결하였다. 전래되는 금산사의 중창 설화에는 통일 신라 시기 진표율사가 9마리의 용이 사는 큰 연못(용추)을 솥으로 메우고 그 위에 술을 걸고 술 위에 미륵불을 봉안하였다고 한다.<sup>732)</sup>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우당은 이 금산사의 중창 설화를 전유하여 정산의 정통성을 세우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우당은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을 계승하였다고 하였으므로<sup>733)</sup> 우당의 위와 같은 해석은 곧 정산의 주장으로 볼

72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16-17절. “도주께서 기미년 9월에 들어서서 정읍 대흥리(井邑大興里) 차경석(車京石)의 보천교 본부에 둔(遁)괘를 가져다 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재실로 옮기고자 하셨습니다. 조용의(趙鏞懿)와 권태로(權泰魯)·권영문(權寧文)·이정두(李正斗)·김사일(金士一)·박봉래 외 두 명이 대흥리로 가니라. 이들이 보천교 본부에 당도하니 9월 4일 새벽 한 시경이 되니라. 본부의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이 든 때 인지라. 그들이 한 방에 들어가 병풍으로 가려 놓은 둔괘와 약장을 찾아가지고 나왔으나 약장만은 도중에 놓고 왔기에 옮겨지지 못하였도다.”

72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0절. “도주께서 경신년에 재실에서 밤낮으로 불면 불식하면서 공부하시던 중 二월 열이레에 둔괘가 봉안된 곳에서 벼락소리가 나더니 둔괘가 저절로 열려져 있었도다. 그 속에 호피 한 장과 반쯤 핀 국화 한 송이가 그려 있고 양피(羊皮) 스물넉 점이 궤에 찍혀 있고 오강록(烏江錄) 팔문둔갑(八門遁甲) 설문(舌門)이란 글자가 궤에 쓰여 있었도다. 그 후 둔괘는 도주께서 함안 반구정(伴龜亭)에서 공부하실 때 그곳에 옮겨졌도다. 그러나 당시 심복자이던 창원 사람 조주일(曹周一)이 둔괘를 훔쳐 갔는데 훗날에 종도들이 이를 알고 매우 안타까워하니 도주께서 ‘그 시기의 도수에 쓰였으면 족하니라. 둔괘의 둔자는 도망 둔자이도다’고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730)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통」, 《대순회보》 11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102.

731) 762년(경덕왕 21)에 시작하여 766년(혜공왕 2)에 중창이 마무리되었다.

732) 서문성, 『전통사찰의 창건설화』, 서울: 도서출판 창, 1997, 208-212.

73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9. “대순하신 유지를 계승하여 50년 공부 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법을 승신하여 귀의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것

수 있다.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고 하심은 미륵불과 솔의 양산(兩山)의 진리(眞理)를 밝혀 주신 것이다.

천지의 이치가 일육수(一六水)에 근원 하였으므로 선천(先天)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역리(易理)가 모두 수중(水中)에서 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사도 진표율사가 용추(용소)를 솥으로 메우고 솔을 올려놓은 위에 미륵불을 봉안한 것은 증산(龜山), 정산(鼎山)의 양산의 진리를 암시하여 도의 근원을 밝혀 놓은 것이다.<sup>734)</sup>

우당은 증산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sup>735)</sup>고 한 언설은 실제 증산을 보러 금산사로 오거나 금산사를 중심으로 종교 운동을 전개하라는 것이 아니며 금산사의 중창 원리를 미륵불과 솔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금산사의 미륵은 증산에 비유되므로<sup>736)</sup> ‘미륵불과 솔의 양산(兩山)의 진리’라 함은 곧 증산과 정산의 진리를 이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우당은 선천의 하도와 낙서의 역리가 물에서 비롯된 것처럼 후천의 진리는 금산사의 용추에서 근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산사를 중창한 진표가 용추를 솥으로 메우고 솔 위에 미륵불을 봉안하였던 것이 증산과 정산의 진리를 암시하였던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또 증산과 정산으로 이어지는 증산 신앙운동이 하나의 종교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근원의 진리, 천지의 이치 또는 도를 펼쳐나가는 것이라 보았다. 우당은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언설을 하기도 하였다.

천지신명들이 사람뿐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가므로 구천의 상제님께 호소를 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전 우주를 광제하시려고 오셨다. 전복 김제 금산사 미륵에 오셨다. 이 금불은 진표율사가 모셨는데 용추못에 미륵금불을

이다.”

73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14-15.

73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29절.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고 하셨습니다.”

736) 증산은 종도들에게 “나는 곧 미륵이다”라고 발언하며 금산사의 미륵금불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자신이 인세에 화현하기 전에 금산사 미륵불상에 30년간 머물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봉안하라는 현몽을 받고 만든 것이다. 용추못은 용 아홉 마리가 목욕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었는데, 도저히 물을 메울 수가 없었다. 흙으로 메우면 흙이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돌로 메워도 안 되고 했는데, 다시 계시가 있기를 “숯(목탄)으로 메워라. 안질이 있는 사람은 숯을 갖고 와서 여기 넣고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고 널리 알리면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못이 다 메워졌다. 여기에도 이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메우고 좌대로 쇠술을 얹고 그 위에 금불을 모셔라.”는 계시대로 술을 걸고 금불을 모셨다. 금산사 미륵전 밑으로 들어가면 쇠가 있다. 그게 술이다.

상제님께서 인세(人世)에 계시실 때 호가 증산(甞山), 도주님의 호는 정산(鼎山)이셨다. 시루 증(甞), 뿔 산(山), 술 정(鼎), 뿔 산(山)이다. 시루는 술 위에 얹혀야 조화가 나온다. 물도 있어야 하고 숯으로 불도 때야 하는데 용추못은 물이고, 숯은 불이니 조화가 나온다. 금불의 양쪽에 보호불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금불과 보호불, 그 옆의 조그만 불이 합쳐서 두 개의 뿔 산(山)자, 즉 출(出)자를 이룬다. 이것은 산(山)이 두 개 있는 형상으로 증산, 정산을 의미한다. 완전하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우리 아니면 모른다. 절에서 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후천은 미륵불의 시대이고 그때는 이와 같이 키가 커진다고 한다. 『전경』에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을 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이치를 보라는 말씀인 것이다. 증산교는 유명무실하다. 이름만 있지 교인이 없다. 교인이 떨어지니까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에 오라”는 상제님 말씀에 붙여가지고 금산사에서 신도회를 갖고 교인을 어떻게 모아보려 했지만 그게 되나? 안 되지!<sup>737)</sup>

인용문에서, 우당은 진표율사가 용추를 숯으로 메우고 그 위에 술을 걸고 미륵금불을 봉안한 금산사 중창 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금불과 보호불의 형상이 출(出)자의 형태를 보이고 이것이 양산(兩山) 즉 증산과 정산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우당은 금산사의 중창 원리를 전유하여, 증산과 정산이 내세하기 오래전부터 증산과 정산이 출현하여 도의 진리를 펼칠 것이 예시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당은 위와 같은 양산의 진리와 이치가 없는 다른 증산종단은 유명무실하며 정산의 법통만이 진리이자 진법임을 주장하였다.

이외 정산은 또 증산이 남긴 유문(遺文)을 해석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정산은 증산이 말한 글귀가 자신의 탄생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구절을 살펴보자.

737) 「우당 박한경 훈시」 1991년 2월 20일.

상제께서 무신년에 “무내팔자 지기금지 원위대강(無奈八字至氣今至願爲大降)”의 글을 지으시니 이리하도다. 欲速不達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九年洪水七年大旱, 千秋萬歲歲盡, 佛仙儒一元數六十, 三合爲吉凶度數, 十二月二十六日再生身 ○○<sup>738)</sup>

정산은 위 구절 가운데 ‘12月26日 再生身’을 음력 12월 4일로 탄생하여 1년 운회의 만도(滿度)를 채운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sup>739)</sup> 즉 증산이 12월 26일 재생신을 말한 것은 후천진주(後天真主)가 12월 4일생으로 태어나 천지우주를 운행의 원리를 완성한다는 의미이며, 곧 12월 4일 탄생한 정산 자신이 바로 증산의 종통을 계승한 진인(眞人)이라는 것이다.

## 2. 종교 활동의 의의

### 1) 도수에 의한 공부

위와 같은 종교적 논리로 증산의 종통 계승자임을 주장한 정산은 자신의 종교적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증산은 자신의 종교적 작업을 삼계와 창생을 구하기 위한 천지공사라 하였는데, 정산은 스스로의 종교 활동을 어떻게 특징 지었을까?

정산의 종교 활동을 이해하는 핵심어는 ‘도수(度數)’이다. 먼저 이 ‘도수’ 개념부터 살펴보자. 2장에서 논하였듯이 ‘도수’라는 말은 고전에서부터 쓰였던 개념으로 천지 자연의 법칙, 제도, 예의 절차, 천체의 운행의 수치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740)</sup> 증산은 이 ‘도수’ 개념을 전유하여 천지공사에 관련된 언설에서 자주 사용하였다. 관련 구절을 살펴보자.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sup>741)</sup>

73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3장 41절.

73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3. “도주님께서 진주(眞主:15세)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 시에 득도하심은 태을주(太乙呪)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이며 전경에 12월 26일 재생신(再生身)은 12월 4일로서 1년 운회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생을 뜻하심이다.”

740)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대순사상학술원, 2017, 217-222.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  
 려 하노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742)</sup>

인용문에서, 증산은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친다고 하였고 또 ‘천지의 도수’를  
 정리한다고 하였다. 이 예문에서 ‘도수’는 천지의 법칙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곧  
 증산은 선천 세상의 우주자연의 법칙을 개조하여 상생의 원리로 구현되는 후천  
 선경을 열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 삼계공사이자 천지공사라는 것이다. 또 증산  
 은 천지공사 가운데 각각의 공사를 ‘명부공사’, ‘신명공사’, ‘청국공사’ 등으로 칭  
 하기도 하였지만 ‘해원도수’, ‘음양도수’, ‘정음정양의 도수’, ‘문왕의 도수’ 등이라  
 말하였으므로 ‘□□도수’라는 말은 특정한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도수’는 천지 법칙의 변화과정, 기간 및 절차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  
 는데 즉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원리에 따라 천지자연 및 인간 사회가 변화한  
 다는 것이다.<sup>743)</sup>

정산은 이 ‘도수’의 개념으로 증산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자신의 종교  
 활동의 의의를 말하였다.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七월 칠석날이라, 그때에야 종도들이 칠성  
 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  
 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  
 도다.<sup>744)</sup>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  
 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少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

74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2절.

74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3절.

743)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225-226.

74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21절.

出，紀運金天藏物華，應須祖宗太昊伏，道人何事多佛歌”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745)</sup>

첫째 인용문에서 정산은 증산이 49일 공부 후 천지대도를 열었던 대원사에서 100일간 정성을 들이는 ‘백일 도수’를 행하였다. 정산은 증산의 공부가 천지신명을 심판한 것이며 응기하여 있던 기운을 풀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정산은 부산 마하사에서 49일 동안 공부한 뒤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자신이 풀어 나간다고 하였다. 즉 정산은 증산이 도수를 짜고 자신이 그 도수를 풀어가는 일을 한다고 하며 증산과 자신의 종교적 작업을 대비하였다. 이 부분을 천착하자면, 증산의 천지공사는 선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도수를 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산은 증산이 설계한 후천도수를 풀어나가 일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산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도수에 의한 공부’<sup>746)</sup> 또는 ‘□□도수’라 하였다. 곧 정산의 종교 활동은 바로 ‘도수에 의한 공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 교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산이 시행한 공부 또는 도수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1920년 음력 2월 통사동 재실에서의 공부, 1921년 5월 초 대원사에서 백일 도수, 1922년 초 납월 도수와 복현무 도수, 1923년 초 둔도수, 1923년 음력 8월 단 도수, 1924년 여름 폐백 도수, 1926년 봄 담뱃대 도수, 1929년 음력 9월 주(籌)를 놓는 공부, 1941년 인덕 도수와 잠복 도수 등이다. 그러나 당시 정산을 시봉하였던 핵심 간부 및 일반 신앙인들은 정산의 공부를 신성하게만 여겼지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산의 무극도 그리고 태극도와 우당이 창설한 대순진리회에서도 이와 같은 공부가 무슨 공부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리적으로 명징하게 해석하여 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산이 행한 ‘도수에 의한 공부’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 정산은 증산이 설계한 천지공사의 원리와 절차에 맞추어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였다는 것이다. 즉 신앙인들은 정산이 어떤 곳에서 얼마 동안 공부한 것이 모두 증산의 계획 하에 이뤄졌으며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시루와 술이 도로써 일체인 원리로 증산이 뜻하였던 바를 정산이

74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8절.

746)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절. “도주께서 기유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니라...”

그대로 받아 이행하였다고 본다.

둘째, 정산의 공부는 1909년 음력 4월 28일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시작하여 1958년에 50년이 되어 마무리가 된다. 증산은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sup>747)</sup>이라고 하였는데, 신앙인들은 이것이 정산의 50년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 1958년에 50년 공부가 마치자 정산은 “오십년 공부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금지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sup>748)</sup>고 하며 우당에게 유명으로 종통을 계승하고 별세하였다. 따라서 정산은 증산의 유지를 받들어 ‘50년 공부’에 임하였으며 자신의 종교 활동도 ‘50년 공부’라 하였고 이를 마친 1958년에 그 공부를 ‘종필(終畢)’하였던 것이다.

셋째, 신앙인들은 정산의 ‘50년 공부’는 곧 증산이 말한 진법을 짜는 공부라고 이해한다. 일찍이 증산은 도통하는 방법을 대두목에게 전한다고 하였고 진법을 말하였는데, 정산이 50년 공부의 종필로써 이 진법을 구현하였다는 것이다. 그 진법의 결정체가 바로 정산이 실시한 공부이며 그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도주께서 이해 11월에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侍學) 시법(侍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며 시학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고, 시법은 시학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써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올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다.<sup>749)</sup>

위와 같은 정산은 1957년 음력 11월 시학과 시법이라는 공부를 규정하고 그

747)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3장 37절. “상제께서 6월 어느 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布敎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 지사십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틈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

74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6절.

74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2절.

공부는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sup>750)</sup> 정해진 주문을 봉송(奉誦)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인원, 규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하고 신앙인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앙인들은 이 공부를 중심으로 정산이 제정한 수행법, 의례, 교리 등을 50년 공부의 결정이자 진법이라 여기며 신행에 매진하였다.

## 2) 교리의 체계화

정산은 당시 일반 신앙인은 물론 종단 간부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신성한 공부를 지속하는 한편 종단의 신앙체계와 교리를 확립하였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시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다.<sup>751)</sup>

정산은 1925년 종단 무극도를 창설하고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봉안하였다. 증산의 신격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있었음을 제2장에서 언급하였는데,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이해한 것은 창교주 가운데 정산이 유일하다. 또 정산은 무극도의 종지를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하고, 신조는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로 나누어 사강령은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로 삼요체는 성(誠)·경(敬)·신(信)으로 정하였다. 또 무극도의 목적은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임을 밝혔다.

정산이 이렇게 제정한 무극도의 종지, 신조, 목적은 그대로 계승되어 우당이 창설한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지, 신조, 목적이 되기도 하였다. 대순진리회의 기본 교리체계는 곧 정산의 교의인 것이며 우당은 이를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정산의 교리체계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사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선행 연구<sup>752)</sup>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고 그 대략적 특징에 대해서만

750) 태극도, 『수도규정』, 부산: 태극도, 1966, 3.

75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32절.



논의를 진행하겠다.

먼저, 정산의 증산관(甌山觀)에 대해 살펴보자. 월곡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칭하였지만 옥황상제로서의 증산이 어떤 우주적 존재인지 어떻게 우주를 주관하는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산은 이에 대해 간부들과 신앙인들에게 설법하였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 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 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sup>753)</sup>

위 글에서, 정산의 우주론(宇宙論)을 살펴볼 수 있으니, 정산은 하늘이 36천<sup>754)</sup>까지 있다고 하며 그 구조를 설명하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인 증산이 전기로써 우주 만물을 지배 자양한다고 하였다. 즉 정산은 ‘뇌성(雷聲)’을 천둥, 번개라는 일기현상을 넘어서서 우주에 편재한 전기로 이해하였고 전기와 수기를 동등한 것으로 해석하며 증산이 이 전기를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지고신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산 이해는 다른 증산종단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관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정산의 교리를 계승한 대순진리회는 증산의 신격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에 대해 교리적으로 상세히 확립하였다.

구천(九天)이라 함은 『전경(典經)』에 “...모든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구천(九天)에 하소연 하므로...(교운 1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우주(宇宙)를 총할(總轄)하시는 가장 높은 위(位)에 계신 천존(天尊)께 하

752)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이경원은 이 책에서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를 종지, 신조, 목적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였다.

75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5절.

754) 증산은 하늘은 9천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었다. (『전경』 행록 4장 4절 참조) 정산은 이를 더욱 세분하여 36천이라 한 것이다.

소연 하였다는 말이니 그 구천(九天)은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有)가 유형(有形) 무형(無形)으로 화성(化成)됨이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천존(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임을 뜻함이다.<sup>755)</sup>

이를 쉽게 풀어보자면, 구천(九天)은 하느님이 삼계를 주재하는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한다는 것이며, 응원(應元)이란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성됨을 말하고, 뇌성은 하느님이 뇌성(雷聲)으로써 우주의 기운을 운행하고 만물의 생성변화를 주관한다는 의미로, 보화(普化)란 우주 만물의 형성이 하느님의 덕화임을, 천존(天尊)이란 지고신의 존귀함을 이르는 것이라 이해되며, 강성상제(姜聖上帝)는 하느님의 존칭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교리해석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는 뇌성으로써 우주 만물을 형성하며 주재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리를 살펴볼 때, 무극도계의 증산 신격에 대한 이해는 증산을 하느님이라 보는 점에서 보천교계와 상통하나 보천교처럼 ‘옥황상제’로 신앙하지 않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신앙한다는 점과, 신격에 대해 교리적 해석을 통해 증산 신앙을 체계화 한 점, 우주론적인 해석을 통해 증산을 숭상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종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정산의 확립한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은 천지공사의 사상적 개요이자 천지공사의 목적이 된다. 즉 증

75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6-7.

산 천지공사의 사상이 종지이며, 천지공사의 목적이자 구현의 상태가 종지라고 볼 수 있다. 이경원의 논의에 따르면, “천지공사의 대체(大體)는 모두 종지의 개념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종지는 또한 천지공사를 통해 구체화”<sup>756)</sup> 된다.

종지 중 해원상생과 관련하여 다른 증산종단에서도 증산의 주요 이념 또는 사상으로 해원 또는 해원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음양합덕과·신인조화라는 특성을 핵심 이념으로 하는 증산종단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이념은 정산 사상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무극도 → 태극도 → 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종교 전통에서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가장 이른 간행물은 1956년 출간된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sup>757)</sup>이며, 이 책자에는 이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이론적 논의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道之謂道也者는 定而无極하고 動而太極하야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하나니 太極之理生生之數는 無盡無量하야 變通造化之功德을 不可思議일새 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太極이 生兩儀者는 陰陽也니, 陰陽者는 天陽地陰이며 日陽月陰이며 人陽神陰이 是也오, 又有 五行相生之理하니 金生水하고 水生木하고 水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金이 是也며, 又有 天地人 三才之道하니 天開於子하고 地闢於丑하고 人生於寅이 是也라. 天地陰陽이 合德하야 萬物이 始生하고 日月陰陽이 合德하야 萬物이 育焉하며 人神陰陽이 合德하야 萬有가 歸依하나니 神無人이면 後無托而所依하고 人無神하면 前無導而所依하나니 故로 陰陽이 合德하고 三才가 確立하고 五行이 具備하야 調理乾坤하며 統御萬有하나니 至奧至密하며 至玄至妙하야 不可測度이라. 九天上帝 觀鑑萬天하시며 大巡三界하실 새 神人依導의 因緣으로 人間에 下降하사 大道의 眞理眞法을 傳하사 九年間 天地公事를 行하시고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帝位에 昇化臨御하시니 卽 姜甌山 聖帝이시다. 盛哉라! 道也여. 神人依導之眞理로 人神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之理 具而備焉하니 慎哉勸哉어다.<sup>758)</sup>

위 인용문에서, 정산은 태극을 우주의 궁극적 원리로 보고 증산이 구천상제로서 이 태극을 주재 관장하는 천존(天尊)이라 인식하였다. 증산은 선천에서는 음

756) 이경원, 『대순진리회 교리론』, 22.

757) 책 말미에 ‘道人代表 朴景浩 等 謹抄’라고 되어 있다. 박경호(朴景浩)는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이다.

758) 朴景浩, 『太極道通鑑』, 太極道本部, 1956, 7-8.

양이 고르지 못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sup>759)</sup> 일음일양(一陰一陽)과 정음정양(正陰正陽)의 공사<sup>760)</sup>를 행하였는데, 정산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천지와 일월의 음양이 합덕하는 조화로운 세상이 바로 후천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음양합덕론은 태극과 함께 논의되어 정산 사상 가운데 우주론에 해당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이 음양합덕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신인의도(神人依導)’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신인의도’란 신은 사람에게 의탁하며 사람은 신에게 의지하는 관계 즉 음양대대의 관계로 보아 신과 사람이 조화하고 화합함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도통진경(道通眞境)에 도달하게 하는 원리이다.

### 3) 신앙의 중심 장소

제2장에서 창교주들이 교조 증산의 언설을 바탕으로 특정 공간을 본부로 정하고 그곳에 도장 등을 건립하여 종교 활동의 중심지로 삼는 것에 대해 논하였다. 정산은 1925년 무극도를 창도하고 전북 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건립할 때 역시 증산의 언행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무극도의 본부인 도장은 1936년 일제의 유사종교단체해산령과 1941년 치안유지법 강화로 무극도가 해산되면서 해체되었다.

이후 정산은 고향인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로 돌아갔으며 그곳에 정사 회룡재(廻龍齋)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를 두루 다니며 수행을 하였다.<sup>761)</sup> 정산은 몇몇 종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난 속에서 종교 활동을 지속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sup>762)</sup> 해방 후 정산은 기존 무극도장이 있었던 전북 태인이 아닌 부산(釜山)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종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산은 이렇게 종단의 물리적 구심점을 옮긴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밝혔다. 내용인즉, 정산은 “부산은 국보의 정기가 남단에 응결된 곳이며 군창지(群倉地) 생문방(生門方)이며 새 서울”이며, “부산이 곧 입금산(入金山)이라 증산상제께서 ‘내가 금산사(金山寺)로 들어간다’ 하신 곳이 바로 이 태극원점인 부산이며 가마산(釜山)이 곧 솥산(鼎山)인 줄도 알라.”<sup>763)</sup>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당은 보다 상세한 언설을 하였다.

75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2장 20절.

76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장 16절.

76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3-44절.

76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6절.

763) 《종교신문》 1990년 12월 12일.

부산(釜山)은 가마솥 부(釜)로서 입금산(入金山)이다. 부산 초량 옆에는 시루산도 있다. 시루와 똑같이 생긴 동산이다.<sup>764)</sup> 군산(群山)에서 수륙병진(水陸竝進)이라 하시며 서울로 가는 도수를 보셨는데, 군(群)은 무리가 많다는 뜻이다. 도수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목적지를 간다면 어디어디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다. 도주님께서 회문리(會文里: 글이 많이 모인다는 뜻)에서 탄강하시고 을축년 「1925년, 31세」에 도창현에서 무극도를 창건하셨으며, 신사년 「1941년, 47세」에 무극도가 해산된 지 4년 만에 부산으로 들어가셨다. 도주님께서 무자년 「1948년」 부산 보수도정에 상제님을 봉안하신 후 11년 동안 계셨고, 도주님 화천하시고 10년 만에 나도 떠났다.<sup>765)</sup>

해방 후는 마치 지금과 같이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때였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전라도 태인에 가서서 도장을 지으셨을 텐데 도주님께서 부산에 가서서 보수동에 도장을 세우셨다. 부산(釜山)은 팔금산(八金山)이다. 상제님께서 군산(群山)에서 수륙병진도수를 보셨는데, 군산은 부산을 의미한다. 그 당시 사회는 종교도 자유, 모든 것이 자유였는데 우리 도는 음도수(陰度數)로 들어갔다. 도장을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옮기시고 그 시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유행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므로 여기에서 파란곡절을 다 겪으셨다.<sup>766)</sup>

도주님 재세 시 을축년(乙丑年, 1925)에 태인에 도장을 건립하셨다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광복을 맞이하여 종교 자유가 시행되었지만 다시 태인으로 가지 않으셨다. 다른 종교 같으면 원래 그 자리인 태인에 다시 도장을 세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곳은 끝난 것이다. 도수다.<sup>767)</sup>

정산과 우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첫째 정산은 해방 이후 다시 전라도 태인에 도장을 세우지 않고 부산에서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도수(度數)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산은 자신의 종교 활동이 증산이 짠

---

764) 부산 초량 옆의 좌천동과 범일동 사이에는 증산공원이 있다. 공원 입구의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있다. “증산(龜山)은 산의 모양이 시루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국여지승람』 (1481년)에는 “釜山은 동평현(오늘날 당감동 지역이 중심지였음)에 있으며 산이 가마꼴과 같으므로 이같이 이름하였는데, 그 밑이 곧 부산포(釜山浦)이다.”라고 하여 산 모양이 가마꼴과 같으므로 부산(釜山)이라고 하였다.”

765) 「우당 박한경 훈시」 1984년 12월 27일.

766)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5월 8일.

767)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도수를 풀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그 도수에 펼쳐나가는 절차에 따라 공부 및 종단의 운영을 전개하여 나갔다. 우당은 정산이 부산으로 들어가 도장을 세우고 자신이 태극도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오는 일련의 절차가 증산이 군산(群山)에서 행한 수륙병진(水陸竝進)도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증산은 1906년 음력 2월 그믐에 김제 동곡에 종도들을 모은 뒤 일부 종도들은 대전으로 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하였다. 또 자신은 또 몇몇의 종도를 데리고 군산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인천항을 도착한 뒤 기차를 타고 입경(入京)하였다.<sup>768)</sup> 증산은 이를 수륙병진(水陸竝進)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육로와 수로로 동시에 서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당은 증산이 행한 수륙병진을 종단의 물리적 중심이 태인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옮겨가는 천지공사이며 그 공사가 절차대로 즉 도수대로 펼쳐진 것이라 보았다.

둘째, 증산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sup>769)</sup>고 한 언설을 부산으로 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부산의 한자 지명을 파자하면 입금산(入金山) 또는 팔금산(八金山)<sup>770)</sup>이 되는데, 이를 곧 금산(金山)으로 오라(入)라 풀이하며 부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증산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증산이 수륙병진도수를 행한 군산이 곧 부산을 의미하며 가마솔 부(釜) 자가 정산의 호에 쓰인 숯정(鼎)자와도 상통한다고 하였다.

정산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부산을 새로운 종교 운동의 중심지로 삼고 1945년 부산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1948년 음력 9월에 부산시 보수동(寶水洞)에 본부를 설치하고 도장을 건립하였다.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많은 신도들이 부산으로 집결하여 보수동을 중심으로 약 3천여 세대가 판자옥을 구축하고 난민생활을 하였다. 1955년 중순 정부는 판자옥 철거령을 내리며 국유지인 부산시 감천동(甘川洞)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신도 1,500여 세대가 집단 이주하였다. 정산은 정착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1956년 9월경에 완료하고 종단의 본부를 보수동에서 감천동으로 이전하며 도장을 건립하였다.<sup>771)</sup> 신도들이 감천동 산비탈에 집단적으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오늘날 부산의 유

76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공사 1장 17절-19절.

769)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29절.

770) 예로부터 부산(釜山)을 파자하면 팔금산(八金山)이 된다고 하였다.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덟 개의 산을 팔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들은 금정산, 백양산, 고원전산, 구봉산, 천마산, 장군산, 황령산, 금련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 팔금산(八金山)은 그 글자 모양으로 보아 입금산(入金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771)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8-19.

명 관광명소로 알려지게 된 태극도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

### 3절 정산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

#### 1. 무극도계 개괄

월곡의 보천교 운동은 월곡의 생전인 1924년 보천교 혁신운동 이후 그가 1936년 별세할 때까지 여러 교단의 핵심 간부들이 월곡에게 반기를 들고 이탈하여 보천교의 혁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였지만, 정산의 무극도 운동에서는 정산이 1958년 별세할 때까지 주요 간부의 이탈이나 새로운 교단 창립은 일어나지 않았다. 증산종단의 연합회인 증산종단연합회에서 총33개의 증산종단을 언급한 가운데 그 중 13개의 단체가 보천교계에 해당하지만, 무극도계라 지칭할 수 있는 주요한 종단은 태극도와 대순진리회의 2개 단체 정도이다.<sup>772)</sup>

그리고 보천교 운동의 경우 창교주인 월곡이 일제강점기인 1936년 별세하여 해방 후 교단을 재건하는 구심점이 약하여 친구파로 양분되었지만, 무극도는 1936년 유사종교단체해산령과 1941년 치안유지법 강화로 해산되었지만 해방 후 창교주인 정산 조철제가 다시 부산을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재개하면서 흠어진 신도들을 모으고 교단을 재건할 수 있었다.

정산은 1945년 해방 이후 과거 무극도 도장이 있었던 전북 태인을 종교 운동의 물리적 구심점으로 삼지 않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였다. 1948년에 부산 보수동에 본부를 설치하고 1950년에는 종단의 명칭을 태극도로 변경하였으며 1955년 부산 감천동으로 신도들과 함께 집단 이주하였다. 부산 감천동에 교단의 기초를 닦은 정산은 1958년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에게 종통을 계승하고 서거하였다.

정산의 교단은 그의 생전 분파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 이후의 종교 운동의 전개’에 대한 분석은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우당 박한경의 종교 활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당의 생애와 종교 활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그가 태극도에 입도하기 전 즉 종교 활동에 입문하기 전까지의 삶이다. 둘째, 우당이 태극도에 입도하여 교단의 핵심

---

772) 그 외 미미한 교단으로 태극도에서 분파한 양산도와 대순진리회에서 이탈한 용화일심회가 있다.



간부가 되고 정산의 신임을 얻는 과정이다. 셋째, 우당이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 받고 태극도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1968년까지 교단을 영도해 나가는 시기이다. 넷째, 우당이 태극도를 떠나 서울에서 새롭게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는 기간이다.

무극도계에서 분파는 우당이 태극도를 떠나 대순진리회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즉 우당이 태극도를 영도하는 기간 우당을 신봉하던 신도들은 우당을 따라 대순진리회를 창설하는 데 동참하였지만 우당을 따르지 않던 일명 반우당파 세력은 그대로 부산 태극도에 남아 활동을 지속하였다. 1968년 이후 부산 태극도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범증산교사』, 『한국신종교 실태조사』 등에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태극도 내 반우당파의 중심은 부전(副典) 류철규였다. 부전직은 태극도 최고직인 도전(都典)의 바로 아래 직분으로 종무감(宗務監)이라고도 칭하며 도전을 보좌하는 직분이다. 우당이 태극도를 떠난 이후 류철규는 ‘도전서리(都典署理)’에 취임하였고 얼마 뒤인 1968년 10월 25일 정산의 자제인 조영래(趙永來)를 ‘도전 권한대행(道典權限代行)’으로 추대하였다.<sup>773)</sup> 이후 류철규는 1978년 새로 교파를 별립하여 ‘양산도(兩山道)’를 세웠으나 교세는 미미하였다.<sup>774)</sup> 한편 조영래는 1980년 3월경 「도헌」을 개정하고 1981년 이갑성(李甲性)을 추대하여 도전으로 취임하게 하였다.<sup>775)</sup> 이갑성은 1989년 기사년 음력 3월 15일 태극도의 기본 경전인 『진경』을 발행하였으며 이듬해 별세하였다. 1990년 음력 3월 송재현이 도전으로 추대되어 1999년까지 역임하였으며 임기 만료에 따라 1999년 음력 3월 김영복이 도전직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776)</sup>

본 연구는 1968년 이후의 태극도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고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우당 박한경의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정산 이후 종교 운동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당의 생애와 종교 운동의 전개

773) 홍범초, 『범증산교사』, 433-436.

774) 『한국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1997, 179.

775) 홍범초, 『범증산교사』, 438-439.

776) [http://www.tgd.or.kr/site/news2/board-read.php?bbs\\_no=18&index\\_no=132](http://www.tgd.or.kr/site/news2/board-read.php?bbs_no=18&index_no=132)

우당 박한경은 오늘날 증산종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인물이며 증산 신앙운동사에 있어 주요한 창교주임에도 현재까지 학계에서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장절에서는 우당의 생애와 그가 전개한 종교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당의 생애와 그의 종교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자료로는 첫째 근래에 들어 대순진리회의 월간지인 《대순회보》에 실린 몇 건의 기록, 둘째 태극도 시절 태극도 발행 문서와 국가 기록공문서, 셋째 우당이 자신의 교화를 모아 1984년에 출판한 『대순지침』, 넷째 대순진리회 상급임원(간부)들이 우당의 교화를 받아 적은 기록인 「우당 박한경 훈시」,<sup>777)</sup> 다섯째 우당을 가까이에서 시봉하였던 상급임원들의 증언, 다섯째 우당의 자제 및 고향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다.<sup>778)</sup> 이러한 문헌 자료와 구술 자료를 종합하여 우당의 생애와 종교 활동에 대해 구성해보고자 한다.

## 1) 우당의 행적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은 1917년 음력 11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방곡리(方谷里)에서 출생하였다. 우당의 본관은 죽산(竹山)으로, 신라 경명왕의 손자(孫子)인 기오(奇悟)가 죽산 박씨의 시조가 된다. 기오로부터 16대손인 원형(元亨)은 예종 때 영의정에 올랐으며 ‘문헌(文憲)’의 시호를 받아 증시조가 되었다. 원형으로부터 16대손인 재선(在璿)이 충주로 이주하여 유선(有善)과 영선(永善) 두 형제를 두었고 영선이 우당을 낳았다.<sup>779)</sup>

우당의 장남인 박봉근(朴奉根)에 따르면, 우당은 방곡리의 마을 서당과 1930년에 설립된 진대(陣垔)사립학교<sup>780)</sup>를 거쳐 17세에 수안보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sup>781)</sup> 우당은 15-16세 경 백부인 유선에게 양자로 들어갔으며 1937년 봄 경정남(慶丁男)과 결혼하였다.<sup>782)</sup> 당시 진대사립학교를 운영하던 친구의 부탁으로 우

777) 대순종교문화연구소는 여러 상급임원들이 기록한 다양한 버전의 우당 훈시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현재 정식 출판은 되지 않았으나 종단 내부 및 외부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778) 인터뷰 및 증언 녹취록은 대순진리회 교무부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779) 竹山朴氏文憲公派世譜編纂委員會, 『竹山朴氏 文憲公派 譜』 下卷, 龍仁: 竹山朴氏 文憲公派世譜編纂委員會, 1989, 16-81.

780) 진대사립학교의 터 위치는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681-2번지로 추정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발자취를 찾아서-교편생활을 하신 학교터」, 《대순회보》 189, 2017, 27-29.

781) 박봉근(1938년생) 인터뷰 2016년 8월 9일;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71.

782) 동네 주민 백유현(1926년생) 인터뷰 2016년 7월 25일; 박봉근 인터뷰 2016년 8월 10

당은 1937년-1938년 사이 진대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8년에 우당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당시 진대사립학교에 다녔던 진대마을 주민에 따르면 진대사립학교는 초가집 형태였고 교실은 2개, 교사 휴게실 1개가 있었고 우당과 다른 교사 1명이 조선어, 일본어, 산술(산수), 창가(음악)를 40여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sup>783)</sup>

이후 우당은 1938년-1939년 사이 진대사립학교의 교편 생활을 마치고 처가가 있던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내웅마을로 이사하여 처가의 친척인 경씨 가문에서 운영하던 신흥서당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이 내웅마을은 청주 경씨의 집성촌으로 30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청주 경씨 집안은 이곳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신흥서당이라는 사설교육기관을 세우고 그 주변 마을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계몽을 위한 교육을 했다. 당시 내웅마을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씨 집안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열이 높았다고 한다.<sup>784)</sup> 경성중의 아들인 경석준에 따르면 이 신흥서당은 경성중(慶成重)과 그의 조카인 경석원(慶錫原)에 의해 1934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서당의 학생수는 총 40여 명이었고 교사는 우당과 경석철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sup>785)</sup> 우당은 이곳 신흥서당에서 1939년부터 1940년에 교편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경석준의 여동생 경연희에 따르면 신흥서당은 1940년 폐교되었다.<sup>786)</sup> 신흥서당도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는 마을주민들의 증언에서 신흥서당의 설립자와 교사들이 민족정신에 입각하여 폐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sup>787)</sup>

박봉근에 따르면 교편을 놓은 후 우당은 충주로 나와 사진관과 시계방을 하였으며 다시 이를 그만두고 중국 봉천(奉天) 지방으로 떠났다고 한다.<sup>788)</sup> 이와 관련된 상세한 행적은 알 수가 없다. 이후 우당의 주요한 행적은 1944년 일본에 징용을 간 것이다.

당시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수행 중이어서 물적,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군수산업의 확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을

---

일.

783) 정희원(1927년생) 인터뷰 2012년 8월 27일, 2016년 7월 25일.

784)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발자취를 찾아서-교편생활을 하신 학교터」, 《대순회보》 189, 2017, 31.

785) 경석준(1932년생)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2016년 7월 15일.

786) 경연희(1933년생) 인터뷰 2016년 7월 30일.

787) 정희원(1927년생) 인터뷰 2012년 8월 27일, 2016년 7월 25일.

788) 박봉근(1938년생) 인터뷰 2016년 8월 9일.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1939년부터 1943년까지 약 40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1944년에만 29만 명을 송출한 계획이었다가 추가로 10만 여명을 더 동원하고자 하였다.<sup>789)</sup> 이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징용을 당하던 시기에 우당도 일본에 강제 징용을 가게 된 것이다.

우당은 당시 중국에 있었다가 전쟁이 난다는 소문에 부모가 걱정한다는 부인의 편지를 받고 귀국하였다고 한다.<sup>790)</sup> 귀국하여서는 친동생인 박한영(朴漢英)이 일본징용영장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당은 집안과 동생을 걱정하여 대신 징용을 갔다. 당시 징용영장을 받은 당사자 대신 다른 식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는 징용제도가 지역가구할당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충청도 지방 다른 징용자들의 사연에서도 아버지, 삼촌 등을 대신하여 간 사례가 많다.<sup>791)</sup> 1957년-1958년에 피해자 본인 및 가족의 신고로 노동청에서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충청북도』를 살펴보면 1921년 생 박한영이 1943년 9월 18일 징용에 가서 1945년 11월 5일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792)</sup> 그러나 우당의 재판 관련 기록 및 진술에서는 그가 1944년 10월 경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가미키다(上北) 해군기지에서 강제 노역하였다고 되어 있다.<sup>793)</sup> 이러한 기록상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 1943년 징용영장이 나왔지만, 일본이 1944년 8월 8일 경찰의 감시 하에 강제징용을 단행하였으므로 실제 징용은 1944년 10월에 간 것이라 추측한다. 우당을 시봉하였던 여러 대순진리회 임원들도 우당이 1944년 일본으로 징용을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징용 시절에 생활과 관련하여 우당을 시봉하였던 대순진리회 임원은 우당이 공사장의 관리책임직을 하였다고 한다.<sup>794)</sup>

해방이 되자 우당은 귀국을 위해 폭침사건으로 잘 알려진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에 승선하였다. 하지만 우키시마마루호는 본래 부산항으로 귀국하려던 경로와는 달리 마이즈루만(舞鶴灣)으로 향하였고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경 시모사바가(下左波賀) 해상에 도달하는 순간 선체 하부에서 2-3차례 폭발이 일어나며 침몰하였다.<sup>795)</sup>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당은 어떻게 생환하였을까? 우당

789) 이복주, 「일제 말기 강제동원의 유형과 실태」, 건국대학교 석사, 2011, 9-17.

790) 박봉근(1938년생) 인터뷰 2016년 8월 2일.

791) 사이토 사쿠치·무카이 미토리·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진상』, 전재진 편역, 서울: 가람기획, 1996, 141-159.

792) 노동청, 『왜정시 피징용자명부-괴산군』, 659.

793)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71.

794) 성기석 보정 인터뷰 2014년 3월 24일.

79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2』, 이연식 번역, 서울: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172-176.

을 시봉하던 임원에 따르면 우당이 갑판 위에 올라와 있을 때 갑자기 배가 침몰하여 돛대를 붙잡고 있다가 바위 같은 것이 보여 거기에 올라타 보니 큰 거북이였다는 것이다. 우당은 이 거북이를 타고 이틀 동안 바다를 헤매다가 근처에 지나가는 배를 통해 구조되었다고 한다.<sup>796)</sup> 우키시마호 승선 생환자에 따르면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환자들은 병원에 수송되었고 나머지는 군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45년 9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는데,<sup>797)</sup> 아마 우당도 이즈음 부산에 들어와 충북 괴산의 집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큰아들인 박봉근도 우당이 추석이 지난 그믐에 돌아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sup>798)</sup>

## 2) 우당의 입도와 포덕사업

고향인 방곡리로 돌아온 우당은 1946년 새해를 맞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에 사는 이모택에 들렀으며 마침 그곳에 찾아온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무극도의 주문을 접하게 되었다. 우당은 이 주문에 깊은 울림을 느꼈는지 이를 알아보고자 무극도에 입도하였다고 하였다. 우당이 자신의 입도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임원들에게 말한 부분을 살펴보자.

내가 입도할 때 먼저 성금부터 올리고 입도의식은 여러 달 뒤에 행한 것은 도의 진리를 확연히 깨닫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도담(道談)을 들어가면서, 유불(儒佛)의 운로(運路)가 쇄퇴의 극에 달하였으니 반드시 해탈(解脫)의 선도(仙道) 운(運)이 미륵의 출세에 있음을 지각하였고, 또 당시 혼란시국이기 때문에 선현(先賢)들의 가장결(家藏訣)로 탐구하여 보기도 하였고, 다시 천하대세의 흐름을 넓이 관찰하고서 깊이 깨닫고 심기(心氣)를 정하고, 도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면 반드시 참석하여 도의 진리를 각득(覺得)하게 되었던 것이다.<sup>799)</sup>

내가 입도를 할 때 ‘구천 하감지위, 옥황 하감지위, 서가여래 하감지위...’ 같은 주문이 있었다. 그것은 상제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알아보려고 입도를 했었다.<sup>800)</sup>

796) 성기석 보정 인터뷰 2014년 3월 24일.

797) 사이토 사쿠치·무카이 미토리·전재진,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진상』, 146.

798) 박봉근 인터뷰 2007년 8월 2일.

799) 「우당 박한경 훈시」 1985년 8월 7일.

800) 「우당 박한경 훈시」 1991년 2월 12일.

우당은 증산이 만든 진법주(구천 하감지위 옥황 하감지위...) 등의 주문을 보고 그것이 궁금하여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선배 무극도 도인들로부터 도답을 듣고 또 스스로 탐구하여 뜻을 정하고 도의 진리를 각득(覺得)하였다는 것이다. 입도를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 우당이 이종형인 박성학의 권유로 입도하였다고 되어 있다.<sup>801)</sup> 우당은 입도의례인 입도치성을 행하기에 앞서 성금을 올리며 도의 진리를 알아보았고 이후 1946년 음력 4월경 입도치성을 행하였다. 정리하면 입도일은 처음 주문을 보고 도의 진리를 알아보겠다고 결심한 1946년 음력 1월 15일이고 입도치성은 음력 4월경에 실시한 것이다.

박봉근의 진술에 의하면, 우당은 이모택에서 진법주뿐만 아니라 태을주, 기도주 등도 전해들었고 주문과 도의 진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3개월 동안 집에서 아침을 먹고 이담리에 걸어와 저녁에 해가 진 뒤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당시 9세였던 박봉근은 아버지인 우당과 함께 음력 4월에 입도치성을 방곡리 자택에서 드렸다고 한다.<sup>802)</sup>

입도치성 후 우당은 포덕에 힘을 다하였다. 우당은 먼저 장연면 유하리 팔봉에 사는 처당숙 경형중(慶亨中)을 포덕하였고 경석규(慶錫圭)<sup>803)</sup> 등 처가 식구들을 입도시켰으며 수안보 등의 지인들에게 포교하였다. 그 뒤 충주, 괴산을 중심으로 하여 우당을 통해 입도한 신도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sup>804)</sup>

이렇게 포덕의 공적이 늘자, 정산은 1949년 7월 경 우당을 충주 방면 차포감(次布監)에 임명하였고, 1952년 9월에는 부포감(副布監)으로 승진시켰다.<sup>805)</sup> 또 정산은 우당으로 하여금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의 농촌지방까지 순회하도록 하며 포교에 힘쓰도록 하였다.<sup>806)</sup> 즉 우당은 1946년에 입도하여 포교에 진력하였으며 1952년까지 6여년의 짧은 기간 만에 종단의 핵심 간부가 되었던 것이다. 1955년 4월에 충주 방면 포감이었던 안상익이 사망하

801)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71.

802) 박봉근 인터뷰 2003년 12월 24일.

803) 경석규는 우당이 창설한 대순진리회에서 종무원장(宗務院長)직에 임명되었다.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정관인 「도헌」에 의하면 “宗務院長은 都典의 指示에 依하여 宗務院 業務全般을 管掌한다.(제27조)”고 하여 종무원장이 박우당 도전의 지시를 받아 종단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都典 有故時는 宗務院長, 中央宗議會議長 順으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제22조)”고 하여 박우당 도전 유고 시 종무원장이 종단의 업무를 대리한다고 하였다.

804) 박봉근 인터뷰 2003년 12월 24일.

805) 당시 충주 방면 포감은 안상익으로 그는 무극도 시절부터 정산을 따르던 주요 간부이다. 우당은 안상익의 후각이었다. 우당은 당시 종단 내에서 충주 방면이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하였다. 「우당 박한경 훈시」 1990년 2월 5일.

806)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71.

자,<sup>807)</sup> 5월에 정산은 충주 방면을 충주와 괴산 방면으로 나누고 부포감이었던 우당을 충주 방면 포감으로 류철규를 괴산 방면 포감으로 임명하였다.

정산은 1951년 즈음부터 직접 우당에게 교무를 지시하거나, 지방을 다니며 공부를 할 때 배종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전경』의 교운 2장을 참조할 수 있다. 『전경』의 교운 2장은 곧 정산의 종교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교운 2장에서 우당 박한경에 대한 언급이 총 15번 등장한다. 가장 이른 기록은 1951년 음력 3월 정산이 우당을 불러 청주 만동묘를 살피게 하고 만동묘 인근에 정산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sup>808)</sup> 이후 기록을 보면, 정산이 1954년 봄 부산 보수동 산정<sup>809)</sup>에서 공부를 할 때 우당과 여러 간부들이 시좌하였고,<sup>810)</sup> 이해 가을에는 정산이 합천 해인사에서 공부를 할 때 우당 등 비롯한 간부들이 배종하였다.<sup>811)</sup> 1955년 음력 8월에는 정부가 판자옥 철거령을 내려 당시 보수동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에 판자목을 짓고 난민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경상남도 당국의 알선에 의해 감천동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sup>812)</sup> 이때 정산은 우당을 불러 보수동에서 감천으로 옮길 뜻을 말하고 우당에게 감천에서의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우당은 당시 시봉 박중하의 집을 수리하여 마련하였고 1956년 음력 11월 정산은 감천으로 이거하였다.<sup>813)</sup> 1956년 음력 3월에는 정산이 우당 외 간부 2명을 대동하고 공주 동학사에 이르러 동학사 염화실에서 7일간 공부하였다.<sup>814)</sup> 이해 음력 8월에 정산은 충청도 지방을 두루 다니며 포교와 교화에 힘쓰고 있던 우당을 급히 부산의 도장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뒤 정산은 우당과 다른 간부 3인과 함께 데리고 지리산 쌍계사에 가서 공부하였다.<sup>815)</sup> 이렇게 당시 정산이 자신의 주요한 종교 활동에 우당을 배종하게 하거나 우당에게 교무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우당을 신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산이 우당을 신임하였고 우당이 교단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당이 작성한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

---

807) 신길우(안상익의 큰며느리) 인터뷰 2013년 3월 15일.

80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49절.

809) 정산은 해방 후 도명을 태극도로 변경하고 1948년 음력 9월에 도본부를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寶水洞)에 설치하였다.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7-18.

81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2절.

81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4절.

812)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18-19.

813)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814)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57절.

815)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0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태극도통감』은 무극도 → 태극도 → 대순진리회로 이어지는 전통에서 편찬된 최초의 간행물로 태극도의 취지, 교리개요, 신앙대상, 신조 등에 대해 간략한 기재되어 있다. 1956년 간행된 초판의 마지막 쪽에 ‘도인대표 박경호 근초(道人代表 朴景浩 謹抄)’<sup>816)</sup>라고 되어 있다. 박경호는 곧 우당이므로 우당이 태극도의 도인대표로 『태극도통감』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정산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간행물의 편찬은 정산의 재가 하에 우당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인대표 박경호’라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당이 태극도의 창교주인 정산 다음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우당 또한 직접 당시 태극도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옛날 도주님 재세 시에 포감이 지금의 선감인데, 영주·김천·경산포감 등이 있었다. 그들은 왜정(倭政)시절 구태인 무극도장 때부터 포감이었고, 나는 해방되고서 도에 들어가 훨씬 뒤에 포감이 되었다. 오래 되서 고생한 공이 큰가? 나중이라도 사업을 많이 한 공이 큰가? 잘 생각해보아라. 도주님께서서는 뿔을 때 늘 나를 먼저 뿔아 쓰셨고, 내가 가장 가까이 앉아서 도주님을 모셨다. 오래된 사람은 뒤에 있었다.···구천상제님의 유지(遺志)를 받들고 도주님이 펴신 법을 따르는 게 우리의 도리고 임무다.···영주포감하면 왜정 때 포감이고 제일 선임 임원이었지만 뒤로 섰다. 다른 데 같으면 연상(年上)을 따지고 하지만 우리는 공로를 쓴다.<sup>817)</sup>

도주님 재세 시 충주방면이 제일 컸다. 그때 어려울 때 충주 도인이 아니었으면 도주님의 일을 해 나가지 못했다. 수포감이 따로 있었고 내가 부포감이었다.<sup>818)</sup>

‘임원이 먼저 되었다, 나중에 되었다’하는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상제님의 유지와 도주님의 유훈을 받드는 일을 중요시해야 된다. 도주님 재세 시, 나는 해방 후에 입도를 했다. 어떤 사람은 무극도 때부터 와서 포감이 되었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고 했어도 나중에는 그것을 보시지 않았다. 나는 끝 무렵에 들어갔어도 방면이 아니고 태극도 전체의 수포감처럼 되어서 밑의 포감들을 지시해 나갔다.···오래됐다고 큰 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후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운수를 받는다.<sup>819)</sup>

816) 朴景浩, 『太極道通鑑』 初版, 太極道本部, 1956, 18.

817)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11월 21일.

818) 「우당 박한경 훈시」 1990년 2월 5일.

819) 「우당 박한경 훈시」 1991년 6월 12일



즉, 우당이 입도한 시기에 종단에는 1925년 창도한 무극도 때부터 수행한 원로들이 있었지만 정산은 우당을 가장 신뢰하였다.<sup>820)</sup> 또 우당은 태극도 전체에서 가장 포덕의 공적이 많았고 충주 방면뿐 아니라 태극도 전체의 수포감처럼 아래의 포감들을 지시해 나가는 등 종단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종단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정산은 연배나 수행 기간이 아닌 포덕 공적에 따라 상하의 질서를 세웠고 우당 또한 이러한 정산의 뜻을 따라 종단의 체계를 세웠다는 것이다.

### 3) 종통 계승과 태극도 영도

1958년 음력 2월 하순경 정산은 태극도의 최고 간부 전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니 그는 충도전이니라. 종전의 시봉 도전과는 전혀 다르니라”<sup>821)</sup>고 하명하였다. 당시 태극도의 본부에는 시봉원(侍奉院), 보정원(補正院), 전학원(典學院) 등의 조직이 있었으며 정산을 보좌하고 시봉하는 기구인 시봉원의 책임자가 도전(都典)이었으나, 이때에 이르러 정산은 우당을 충도전(總都典)으로 임명하고 기존의 도전직과는 전혀 다르다고 분부하였다.

이해 음력 3월 6일 정산은 간부 전원을 부른 후 우당에게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하고 별세하였다.

도주께서 정유년 12월 21일 자시부터 무술년 3월 3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 도수를 마치시니라. 5일에 심히 괴로워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밖에 시립케 한 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 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3월 6일 미시요 양력으로 1958년 4월 24일이오. 수는 64세로다.<sup>822)</sup>

820)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도주님께서는 재세 시 나를 믿어주셨다. 도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면 내가 적절히 했기에 꾸중을 모신 적은 없었다...”

82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4절.

822)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66절.

정산의 위와 같은 유명(遺命)으로 우당은 도전으로서 태극도의 영도자가 되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정산에게서 우당에게로 정통성이 계승된 것을 ‘유명에 의한 종통(宗統) 계승’이라고 한다. 정산의 별세와 우당의 종통 계승은 ‘명령전달’과 ‘공포사항’으로 인쇄되어 전 교인들에게 공지되었다.

#### 명령전달

오십년공부종필이며 지기금지사월래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행하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 공포사항

지존께옵서 무술 삼월 초육일 을미 시(오후 한 시 삼십칠 분)에 화천 하시다. 명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행사를 종전대로 도전령에 의하여 행함. 모든 도인은 조금도 낙심 말고 성경신을 다하여 수도에 전심할 것. 지존께서도 항상 크게 의심날 일이 있고 땀 뻘 일이 있다 하셨음.<sup>823)</sup>

위 명령전달과 공포사항으로 전 태극도 교인들은 정산의 별세와 우당의 종통 계승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태극도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정산의 별세와 부재라는 사건에도 얼마동안 크게 동요하지 않고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우당을 받들며 신행을 이어나갔다.

우당은 1958년 음력 3월 6일 정산의 별세와 함께 태극도를 영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도과정에서 우당은 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태극도 세력에 의한 내분과 정치세력 등의 외부의 탄압으로 인해 상당한 고난을 치르게 되었다. 1967년 2월 태극도에서 간행한 《태극도월보》<sup>824)</sup>의 창간호에서 태극도 간부들은 이러한 사건을 ‘수난사’라고 표현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건이 언급되었다.

사회 : ...우리 도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수난사라 할까 그것을 좀 신호장께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3)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86.

824) 1967년 2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하여 1970년 10월에 간행한 제39호까지 월간으로 출판되었다. 제39호까지 발행된 후 당시 태극도의 내분으로 휴간되었다. 태극도편찬원, 『도학원론』, 부산: 태극도 출판부, 1991, 295.

신상철(申祥澈) : …우선 중요한 사건을 추려서 대강 이야기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수난사에 대한 글을 쓸까 합니다. 근래에 있어서 보면 1959년도 지존께서 화전하신 후 그릇된 생각으로 분열을 피하여 재산분류사건. 또한 1960년도에도 그와 흡사한 우리 도 파괴를 위한 공작사건 이때는 정치세력까지 가담하였습니다. 1961년도에도 배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으며, 1962년도에는 민족 신앙통합을 계기로 인한 등록방해사건, 1964년도에는 우리 도의 간부를 모함하려는 그 여파로 이루어진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sup>825)</sup>

인용문은 태극도의 간부들이 좌담회를 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간부들은 우당의 종통 계승 이후 1959년부터 1964년지 교단 안팎으로 상당한 분란이 있었다고 하며 이를 ‘수난사’라고 표현하였다. 1962년과 1964년의 사건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959년, 1960년, 1961년도의 사건은 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태극도 내부의 세력에 의해 발생한 내홍이었다.

1959년의 사건은 태극도 내 양곡위탁판매업체인 ‘협동상회’와 도정업체인 ‘대원산업주식회사’의 책임 간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정산은 1955년 교인들이 먹을 것이 드물어 굶주리는 사례가 빈번하자 쌀을 직접 들여와 싸게 파는 싸전을 열고 이를 확대하여 위 두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게 하였다. 두 회사의 책임자로 임명된 간부들은 정산의 생전에도 착복한 사례가 있었으며,<sup>826)</sup> 우당이 태극도의 영도자가 된 후 더욱 불만을 품어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당시 교인의 3분의 1이 여기에 가담하여 태극도에서 이탈하였다.<sup>827)</sup>

1960년도의 수난은 협동상회 사건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인 김용화가 감천동 주민들과 연합하여 부산지구 계엄사와 수사 당국에 태극도를 횡령 및 선거부정을 저지른 복마전이자 불법단체로 고발한 사건이다.<sup>828)</sup> 이 일로 우당과 간부 94명은 7월에 사기, 횡령 등의 죄목으로 구속·기소되었다.<sup>829)</sup> 우당은 대순진리회 임원들에게 이러한 수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도주님께서서 화전을 하시고 도가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내가 종통을 이어받고

825) 태극도본부, 《태극도월보》 창간호, 부산: 태극도본부, 1967, 12-13.

826)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84-85.

827) 홍범초, 『범증산교사』, 423-424.

828) 「태극도 부정사건 수사 본격화」, 《동아일보》 1960년 5월 26일.

829) 「태극도 사건의 관련자 70여명 입건」, 《동아일보》 1960년 6월 1일;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문」, 4294형상 제601호, 1962년 2월 28일.

도주님께서 화천하셨는데, 치성금 명목으로 100원 이하를 받았다. 원래 나는 충주를 맡고 있었는데, 같은 임원으로 있다가 내가 영도자로 통솔을 하니까 거기에서 몇몇 임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시를 해도 아니꼽게 여겼고 결국 탈선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앞에서는 잘 했지만 뒤에서 나를 사기로 고소했다. 내가 집, 논, 밭을 다 팔게끔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6개월 형무소 생활을 했다. 1심에서는 사기죄로 4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당시 우리는 치성금으로 100원 이하를 내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명해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sup>830)</sup>

즉 태극도의 상급 간부들은 우당이 새로 태극도를 영도하는 것이 정산의 유명이었기 때문에 수용하였지만, 일부 간부들은 불만을 품었고 결국 우당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태극도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우당은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이러한 수난을 잘 극복하였다.

태극도 전복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1961년에 다시 우당과 태극도를 포고령 위반(무허가 집회)과 용공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5.16 군사정부에 고발하였다. 이에 우당과 간부 28명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구인 취조 후 육군 형무소에 구속되었다. 12월 실시된 군법회의에서 우당은 집행유예, 나머지 간부들은 모두 무죄 석방되었다.<sup>831)</sup>

정리하자면, 우당은 정산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태극도 내 세력에 의해 세 차례나 내홍을 치렀으며 사법당국에 고발 및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우당은 무죄로 풀려나 위와 같은 내홍을 잘 수습하며 교단을 정비하며 정산의 유훈을 실행하여 나갔다.

우당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내홍을 잘 수습하며 태극도의 영도자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하였으며 그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종단의 여러 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태극도 영도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당은 정산의 유법에 따라 부산 감천의 태극도 도장을 증축하였다. 정산 생전에 감천도장에는 성전인 대강전(大降殿)과 정산이 기거한 건물인 정사(精舍)의 두 채밖에 있지 않았다. 우당은 종통 계승 이후 대강전과 정사를 보수하고 청학관(靑鶴館), 백학관(白鶴館), 진양원(眞養院), 수진각(守眞閣) 등을 지었다.<sup>832)</sup> 우당은 도장 증축 또한 정

830)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12월 29일.

831)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12월 29일.

832)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6월 25일.

산의 유법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건물 가운데 특히 백학관은 정산이 생전에 직접 그려준 도면대로 지었다고 하였다.<sup>833)</sup>

우당이 태극도를 발전시켜 나가며 태극도의 수난을 정리하자, 1962년 8월 태극도의 간부들은 우당을 잘 보좌하지 못하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간부사임성명서(幹部辭任聲明書)’<sup>834)</sup>를 발표하며 사의(辭意)를 표명하였다. 그 내용은 곧 간부 일동이 작금에 이르는 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며 도주인 정산의 유명을 받들어 도전을 보좌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하며 간부직을 사퇴하고 종단을 위하여 음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우당은 종단의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정부의 사회단체등록령에 따라 종교단체로 등록하고자 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1963년 5월 문교부에 「태극도 현황 조사보고」 문건<sup>835)</sup>을 올렸다. 문교부는 이를 검토하고 1963년 6월 12일 ‘사회단체등록증’을 발부하며 태극도는 종교 단체로 등록하였다.<sup>836)</sup> 우당은 태극도

833) 「우당 박한경 훈시」 1988년 12월 4일.

834) 전문은 다음과 같다. “時下 炎天에 도인 여러분, 尊體錦安하심을 仰祝하나이다. 드리를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불초 본 간부 일동은 道主 유명을 받들어 금일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물의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都典을 보좌치 못한 것은 도인 여러분도 주지하는 사실이라 재론치는 않겠으나 이는 불초 본인 등의 성의가 부족한 동시 역량이 미치지 못한 소치라 하겠습니다. 如斯하와 불초 본인 등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都典의 심려하시는 바를 받들어 晩時之歎이 있어오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어 본도 사업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 간부 일동은 총 사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뒤에 앉아 도를 위하여 陰으로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하오니 도인 여러분은 조금도 해의치 마시고 도를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이 취지를 삼가 말씀드립니다. 서기 1962년 8월 일. 간부 일동.”

835) 부산시장, 「태극도 현황 조사 보고」, 부교중 1074.4-34○, 1963년 5월 10일. 당시 태극도에는 우당과 간부들이 1960년과 1961년에 구속 기소된 틈을 타 태극도를 동도교(東道教)에 귀속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이 분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이들을 ‘태극도 신파’라 명명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종교단체로 등록하면 정부의 감시 감독을 통해 분규가 잦아질 것이라 보았다. 다음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다. “태극도는 태극도로서의 순수한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이 되어야 하고 신파측(동도교 관련)은 불합리하며 또 동 도는 사교로서 단정한 구체적 요건이 없고 신도들의 대부분은 민주 반공사상이 투철하여 대체로 건전한 정신으로 나아갈 것이 명백하다. 동 도를 종단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사교로서 인정될 경우 현 감전동 소재 신도 약 7,000명 및 전국 신도 약 5만의 반발도 무시 못 할 것 같음(경찰국 의견과 같음)”

836)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사회단체등록증」 제263호, 1963년 6월 12일; 문교부, 「태극도 등록」, 부교중 1074.4-867, 196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태극도 등록」, 부교중 1074.4-982, 1963년 6월 17일. 부산시는 태극도에 종교단체등록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였다. “가. 종단기본재산은 가급적 63. 7. 30까지 재단법인설립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할 것. 나. 건전한 종교 활동으로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다. 정치적 개입을 일체 엄금하고 순수한 종교단체로서 새 발족하여 사교적인 언어 및 폐습을 일소하시기 바람. 라. 반국가

등록일인 1963년 6월 12일에 법인체의 정관인 「도헌」<sup>837)</sup>을 발행하고, 11월 21일에는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12월 19일에는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sup>838)</sup>

또 우당은 정산의 유훈을 계승하여 교인들의 생활 향상과 인근 주민의 복지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과 구호자선사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우당은 정산 생전인 1956년 시작한 공민학교<sup>839)</sup>를 1963년에 천덕 공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sup>840)</sup> 우당은 더 나아가 태극도 신도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고등공민학교(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1967년 3월 우당은 감천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천덕공민학교 내에 고등공민학교 편입생을 모집하였다.<sup>841)</sup>

이러한 우당의 교육사업은 1966년 간행된 『태극도안내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태극도안내서』는 “본도는 본도 본연의 사명을 완수키 위하여 전 도인이 합심하여 전도 사업에 진력하는 일방 사회교육, 자선구호 등 공익사업으로서 현재 실시 중 또는 계획 중인 사업”<sup>842)</sup>이 있다고 하여 태극도의 주요 활동으로 포교와 더불어 공익사업을 제시하였다. 당시 실시 중인 사업 중 교육사업은 감천고등공민학교를 무료로 경영하는 것과 독서실 설립 등이 있었다. 이후 태극도 재단은 1968년 1월 25일 감천고등공민학교를 정규 중학교로 승급시키려고 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969년부터는 정규 중학교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sup>843)</sup> 그러나 우당이 태극도에서 나온 이후 고등공민학교는 폐쇄 조치하였다.<sup>844)</sup>

---

적 행위를 하거나 부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물의를 이러키지 않도록 할 것. 마. 일인일기교육(기술습득)을 중점 실시하여 극빈한 생활로부터 갱생의 길을 찾도록 다각도로 연구 계획하여 실시할 것. 바. 본 종단의 모든 일은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일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나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837) 태극도, 「도헌」, 태극도, 1963년 6월 12일.

838)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태극도 설립등기 보고」, 관리번호: BA0155942, 1963년 12월 23일.

839) 오늘날의 초등학교이다. 정산 생전에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840) 태극도 포장 윤대환(1933년생) 인터뷰 2015년 10월 20일.

841) 태극도본부, 「감천고등공민학교 각 학년 편입생 모집」, 《태극도월보》 3, 부산: 태극도본부, 1967, 16.

842) 태극도본부 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 교화부, 1966, 12.

843) 태극도본부, 「감천고등공민학교 정규 중학교로 승급기로」, 《태극도월보》 7, 부산: 태극도본부, 1968, 13.

844) 태극도본부, 「학교 폐쇄와 사업체 정리」, 《태극도월보》 27·28 합본, 부산: 태극도본부, 1969, 15.

교육사업 외 우당은 공익사업으로 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일찍이 정산은 정식 병원이 아닌 작은 규모의 의료원을 두어 교인들의 위생과 건강을 돌보았는데, 우당은 이를 계승하여 1963년 ‘감천의원’을 개원하였다. 종단의 간행물에서도 의료사업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으니, 1966년 『태극도 안내서』에는 당시 실시 중인 사업으로 감천의원을 두어 구제 사업을 실시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sup>845)</sup>

이해에 의료사업 외에 주택개조, 도로사업, 경로당 설립 등의 자선사업을 실시하여 종단의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실업자 구제, 상수도 시설 등의 사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sup>846)</sup> 이듬해인 1967년에는 재단의 사업을 교화수도사업·사회교육사업·구호자선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각 세부적 사업실시에 요구되는 예산을 기획·편성하였다. 구호자선사업 안에 의료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일반구호보조, 주택보조, 도로포장, 하수구 시설, 위생분뇨 처리, 공동우물 보조, 경로당 증축 등의 자선사업을 계획하였다.<sup>847)</sup> 1967년 4월에는 구호자선사업으로 병원 주택을 신축하고 감천의원에 수술실을 설치하여 교인과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sup>848)</sup>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업을 중심으로 한 태극도의 구호자선사업은 우당이 태극도를 나온 이후 더 이상 실시되지 않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 4) 대순진리회 창설

정산의 유명으로 1958년부터 태극도를 영도한 우당은 1959년-1961년 사이의 혼란을 잘 수습하고 1967년까지 근 10년간 종단 태극도를 발전시켜나갔다. 이 시기까지 태극도의 교인들도 우당의 뜻을 받들며 실행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1967년부터 일부 태극도 간부들은 우당을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우당의 영도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되었다.

이듬해인 1968년 4월에는 반우당파가 종단의 공식 기구를 장악하고 우당파<sup>849)</sup>를 징계하였다.<sup>850)</sup> 그러자 우당파는 이에 반발하며 반우당파와 물리적으로

845) 태극도본부 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 교화부, 1966, 12.

846) 태극도본부 교화부, 『태극도안내서』, 13.

847) 태극도본부, 《태극도월보》 2, 부산: 태극도본부, 1967, 14.

848) 태극도본부, 《태극도월보》 4, 부산: 태극도본부, 1967, 16.

849) 홍범초는 이 두 파를 ‘이성파(理性派)’와 ‘과신파(過信派)’로 분류하였다. 이성파는 우당을 반대하는 파를 과신파는 우당을 추종하는 파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성파 과신이라는 표현에서 반대파에 치우친 견해라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반우당파’와 ‘우당파’로 지

충돌하기도 하였다. 우당은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4월 22일 ‘지시각서’를 내려 ‘도중의 모든 체계를 지키고 모략과 비방을 금지하고 수도에 충실할 것’ 등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서약서로 제출하라고 전체 교인에게 명하였다.<sup>851)</sup> 그리고 5월 22일 ‘교화문’을 통해 수도인의 본분을 재각성할 것을 당부하였다.<sup>852)</sup> 이렇게 사태 해결을 하고자 우당은 노력하였지만 양파의 감정적 대립과 물리적 충돌은 해결되지 않았고 태극도 전체가 극심한 대립으로 양분되었다. 우당은 7월 5일 교화문을 발표하여 임원은 직분을 다하고 교인들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대립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sup>853)</sup>

이후 7월 19일(음력 6월 24일) 증산의 화천치성을 거행한 이후 우당은 태극도 전체 교인들에게 성명서를 남기고 홀로 감천도장을 나왔다.<sup>854)</sup> 성명서에서 우당은 교인들에게 일치단결하여 증산과 정산의 덕화를 펴고 소원성취를 하기를 바란다며 마지막 당부를 하였다.<sup>855)</sup> 이후 우당은 태극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서울로 올라가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sup>856)</sup> 즉 우당은 태극도에서의 영도를 마치고 새로운 종교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우당이 태극도에서 물러나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우당파는 우당파를 비난하였고, 우당파는 가칭 ‘태극도 정신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반우당파에 맞서 투쟁하였다.<sup>857)</sup> 이로써 태극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한참 동안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였으며 교세도 침체하게 되었다.

우당은 1968년 7월 19일 증산의 화천치성을 거행한 후 홀로 태극도에서 나와 3개월 후인 1968년 말에 서울 부암동에 거처를 정하였다. 이 3개월간의 상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순진리회 창설에 기여한 원로 임원들

---

칭하고자 한다.

850) 「협의회 성명서」, 1968년 4월 7일.

851) 「지시각서」, 1968년 4월 22일.

852) 「기도, 치성, 수도공부는 수도인의 생명임을 재각성하라」, 1968년 5월 22일.

853) 「친애하는 도인에게 공고함」, 1968년 7월 5일.

854)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5월 8일. “태극도 말엽에 한 3년간 파당이 생겨서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해도 안 되었다. 결국은 나 혼자 나왔다.”

855) 「성명서」, 1968년 7월 19일.

856) 대순진리회에서는 우당이 태극도에서 나와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것을 ‘이궁(移宮)’이라고 표현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이궁이 갖는 의미」, 《대순회보》 199, 2017.) 즉 우당이 종교 활동의 중심지를 태극도에서 대순진리회로 이전한 것이지 태극도를 이탈하거나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태극도의 「도헌」에서 도전직은 종신제이며, 우당이 태극도 도전직을 사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극도에서 나왔다거나 태극도를 이탈하였다는 표현이 적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857) 태극도본부, 《태극도 월보》 15, 부산: 태극도본부, 1968, 8.



의 단편적인 증언을 모아 대략적으로 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당은 부산 아미동 고개를 넘어 부산 동래를 거쳐 해운대로 향하였고 다시 경주의 계림과 반월성 그리고 토함산 불국사에 갔다. 다시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머물렀다가,<sup>858)</sup> 1968년 10월 중순 즈음 서울 부암동으로 가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였다.<sup>859)</sup> 우당은 조용한 공부처를 물색하던 중 군포에 위치한 수리사가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즈음 배종자를 데리고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修理山)에 위치한 수리사(修理寺)<sup>860)</sup>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는 방(요사채)을 마련하였다.<sup>861)</sup> 우당은 부암동에 머물면서도 여러 차례 수리사를 드나들면서 공부를 하였다.<sup>862)</sup>

서울 부암동의 거처는 당시 우당을 따르던 신도의 2층 양옥집으로 그 위치는 부암동 306-14번지로 확인된다. 우당은 수종하던 임원들에게 이 집을 수리하게 한 뒤 2층에 증산의 진영을 봉안하고 1969년 1월 21일(음력 12월 4일) 정산의 화천치성을 실시한 뒤 부암동을 떠났다.<sup>863)</sup>

부암동을 나온 우당은 다시 수리사에 들어가 1969년 1월말-2월초부터 49일 공부를 실시하여 3월 중순쯤 마쳤다. 당시 수리사의 주지는 청운(靑雲) 스님<sup>864)</sup>으로 우당의 비범함을 느끼고 우당의 공부를 돕고 시종하였다. 우당은 이 기간 동안 방 한 칸에 화로 하나를 놓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밤낮으로 시행하였다.<sup>865)</sup> 우당은 공부를 마친 후 “나도 책임 때문에 하는 거지, 나를 위한 일이라면 못했을 것이다”<sup>866)</sup>며 공부의 고생에 대해 토로하였다고 한다.

수리사 49일 공부를 마친 우당은 서울 중곡동에 도장 자리를 잡고 대순진리회

858) 이재근 선감 인터뷰 2003년 5월 20일; 윤영준 보정 인터뷰 2003년 7월 31일; 조태룡 선감 인터뷰 2003년 10월 1일; 유기찬 선감 인터뷰 2004년 5월 21일; 이항령 교감 인터뷰 2011년 6월 16일; 성기석 보정 인터뷰 2011년 7월 22일.

859) 대순진리회 교무부, 「서울 부암동」, 《대순회보》 1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34-36.

860) 당시는 화성군 반월면 속달리였으며 1994년 군포시에 편입되었다.

861)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대순회보》 19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29.

862)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27.

863) 대순진리회 교무부, 「서울 부암동」, 《대순회보》 1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36-40.

864) 대치승으로 성이 심(沈)씨라 심주지로 불렸다고 하며 이후로도 우당과 인연을 이어갔다. 청운이 수리사 진입로 공사를 행할 때 우당은 사람을 보내 도와주었고, 군포에 포교당을 건립할 때도 우당이 목수를 보내 도움을 주었다. 청운의 아들인 지허(안산시 구룡산 천수사 주지)도 이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지허 인터뷰 2011년 7월 29일.

865)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대순회보》 19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29-34.

866)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34.

를 창설하였다. 공부 전부터 우당은 배종 임원들에게 새로운 도장 터를 알아보게 하여 여러 곳을 물색하여 우당에게 보고하였지만, 우당은 탐탁지 않게 여기며 서울 중곡동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중곡동을 둘러본 전승천 교감<sup>867)</sup>은 그곳이 적합한 곳임을 깨닫고 우당에게 보고하였으며, 우당은 “맞다 그 자리다. 그곳을 빠른 시일 내로 구입하도록 하여라”<sup>868)</sup>고 지시하였다.

터를 매입한 뒤, 우당은 1969년 4월 5일(음력 2월 19일) 청명일 기공식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5월 20일에는 땅파기를 시작하였으며 신전인 ‘본전(本殿)’을 짓기 시작하였다.<sup>869)</sup> 7월 18일(음력 6월 5일) 본전 정초식을 행하고 10월 5일 상량식을 실시하였으며 1970년 1월 11일(음력 12월 4일로 정산의 탄강일) 본전 3층에서 준공치성을 하였다. 이듬해인 1971년 6월 16일에는 본전 내부에 ‘영대(靈臺)’를 봉안하고 치성을 드렸으며, 1972년 2월 15일(음력 정월 초하루)에는 대순진리회 본부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현판식이 거행된 시기는 1972년이지만, 공식적으로 대순진리회는 그 창설 시기를 중곡도장의 개토(開土) 공사를 시작한 1969년 음력 4월로 본다.<sup>870)</sup> 또 정초식을 행한 음력 6월을 중곡도장의 창건 시기로 여긴다.<sup>871)</sup>

교서의 간행과 관련하여, 우당은 1969년 4월 대순진리회의 유래, 신앙의 대상, 취지, 연혁, 교리개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순진리회요람』을 발행하였고, 1974년 4월에는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을 발행하였다.

우당은 1972년 3월 포덕·교화·수도를 종단의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태극도에서도 시행하였던 공익사업을 체계화 하여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을 종단의 3대 중요사업으로 설정하였다.<sup>872)</sup> 종단의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에 대해 우당은 “포덕이란 상제님께서 광구천하와 광제창생하시려고 하신 9년간의

867) 청주 방면 전승천 교감은 전노인이라고 불렸다. 전노인은 예산 수덕사의 처사로 있다 1963년 태극도에 입도하였다. 우당이 태극도 감천도장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오자 전노인은 서울로 올라와 우당을 보필하였다. 전노인의 아들 전홍수는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된 한옥 건축 전문가로 우당의 분부를 받들어 1981년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개축 공사 이후 모든 대순진리회 도장 건축 공사를 맡아 행하였다. 전홍수 인터뷰 2011년 5월 3일.

868)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35.

869) 이재근 선감 인터뷰 2016년 9월 26일.

87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3. “1969년 4월에 도전께서는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시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다.”

87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3. “동년 6월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에 중앙본부 도장을 창건하시는 한편 모든 체제를 개혁 쇄신하여 건전하고...”

87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97.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sup>873)</sup>라고 하였고 교화는 “기본 교리를 상대방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sup>874)</sup>라고 하였으며 수도는 수행으로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sup>875)</sup>고 설명하였다. 즉 기본사업은 수도인들의 포교와 교리설명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종단의 내부사업인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공익사업으로 우당은 “3대 중요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종단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공신력이 높아져 덕화선양이 될 것이다.”<sup>876)</sup>라고 하였다. 구호자선사업으로는 이재민 구호·불우이웃돕기 등의 구제사업을 설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은 양로원·병원 등의 설립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교육사업으로는 장학회를 조직하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다.<sup>877)</sup>

우당이 이와 같은 종단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여 실행에 옮겼다. 1976년 4월 대순장학회를 발족하고 1984년 2월에는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이해 6월 서울 하계동에 대진고등학교를 세웠다. 1988년 2월에는 서울 중계동에 대진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1992년 3월에는 경기도 포천에 4년제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를 개교하였다. 1992년 12월에는 대진의료재단을 세우고 1995년 1월에 분당과 동두천에 제생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실시하였고 1998년 8월 분당제생병원을 개원하였다.<sup>878)</sup>

### 3. 우당이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우당은 태극도를 10여 년간 영도하고 이후 대순진리회를 창설하며 종단을 이끌어나갔다. 그는 증산에 대한 신앙과 정산의 유법(遺法)에 대한 승신을 표방하며 자신의 종교적 정통성이 증산·정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우당은 정산의 참된 계승자임을 주장하는 도통론(道統論)과 그가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을 고찰해 보겠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무극도에서 시작한 정산

87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21.

87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44.

87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45.

87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8.

87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9-103.

87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6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9, 16.

의 종교 운동이 해방 이후 현대까지 이어짐을 볼 수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 1) 우당의 도통론

우당의 종교적 정당성은 증산 → 정산 → 우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당이 스스로의 종교적 정당성을 확립하려면 먼저 증산에 대한 신앙을 정립하고 그 다음 증산 → 정산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고히 해야 한다. 즉 증산의 신성성과 신앙적 위상을 강조하고 여러 창교주 가운데 정산이 진법의 계승자이며 대두묵임을 말하는 종교적 교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 절에서 ‘시루와 솔의 논리’로서 일부 논하였다. 또 우당은 정산으로부터 ‘유명에 의한 종통 계승’을 통해서 태극도 영도의 정당성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증산 → 정산 → 우당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우당의 증산 신앙에 대한 교의이다. 즉 우당은 교리적으로 증산을 어떻게 설정하였으며 증산 신앙의 정당성을 어떻게 말하였는가이다. 둘째, 증산의 신성성이 도주(道主)인 정산에게 계승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우당은 어떠한 교의를 설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우당은 정산으로부터 이어진 정통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증산·정산에 견주어 자신의 종교적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아 대순진리회 창교주 우당이 제시한 종교적 정당성의 수사를 이해하고 이로써 이후 장에서 여타 증산종단의 (정당성에 관한) 교설과의 차별성을 논의하는 전제를 마련한다.

### (1) 우당의 증산관과 정산관

우당이 증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요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헌에서 우당은 증산을 ‘무상(無上)한 지혜와 무변(無邊)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權能)의 소유주(所有主)이시며 역사적 대종교가(大宗教家)’라 하였다. 즉 신격(神格)으로서의 증산은 지혜·덕화·권능을 소유한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이며 인격(人格)으로서는 대종교가인 강증산(姜甌山)이라는 것이다. 구천대원조화주신이 세계와 창생을 구하기 위해 인간 강증산으로 강림하였으며 그가 천지공사를 통해 만고의 원한을 풀고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우당은 증산이 40년간의 천지공사를 마치고 천상에 올라 제위에 임하였으므로 그 신격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

普化天尊上帝)’라고 하였으며, 증산의 유지를 계승한 정산의 유법을 숭신하고 귀의하고자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sup>879)</sup>

이처럼 우당은 증산에 대한 신앙과 증산의 유지 계승을 종단의 주요 교리로 삼았던 것이다. 또 우당은 『대순진리회요람』에서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인 ‘증산’으로 규정·표명하였다.<sup>880)</sup>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보는 우당의 증산관은 정산이 1925년 종단 무극도를 창도할 때 증산을 위와 같이 봉안한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sup>881)</sup>

우당의 증산관(甌山觀)은 그의 교설을 담은 책자인 『대순지침』을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우당은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이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sup>882)</sup> “포덕에서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無量)하신 덕화와 무변(無邊)하신 권지의 소유주(所有主)이심을 널리 알려 져야 한다.”<sup>883)</sup>고 하여 인간 강증산이 곧 구천상제이며 우주를 주재하는 권능의 주인이자 무한한 덕화와 권지의 소유주라고 밝혔다. 또 “상제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은(親恩)에 보답하는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수신이 되어야 한다.”, “구천대 원조화주신이신 구천상제님의 주재하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신앙인들이 구천상제의 주재 하에 있음을 자각하고 상제를 믿고 받들며 그 말씀을 실천·수행하여 도통진경에 이르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우당은 증산 상제의 존재론적 위상과 신성성, 증산 상제의 성업(聖業)과 신도들의 포교, 신도들의 증산 신앙과 수행에 대해 이처럼 밝히고 교화하였던 것이다.

우당은 “대순(大巡)하신 유지(遺志)를 계승(繼承)하여 50년 공부(工夫) 종필(終畢)로써 전(傳)하신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의 유법(遺法)을 숭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할 바를 삼고자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창설(創設)한 것”<sup>884)</sup>이기 때문에 우당의 증산관 및 제반 교리체계는 정산의 교설을 계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산의 서거 후 우당은 정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위치시켰던 것인가? 먼저 『대순지침』에서 우당의 정산에 대한 언설을 살펴보자.

87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8-9 참조.

880) 이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논의하였다.

881)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교운 2장 32절.

88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7.

88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21.

88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9.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道主)님께서 종통을 세우셨다.  
본 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  
부터 이어 내려왔다.(도헌 제13조)<sup>885)</sup>

인용문에서, 우당은 정산이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종통(宗統)’을 세웠다고 하였으며 종단의 ‘연원(淵源)’ 또한 종통을 세운 정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하였다. 우당은 특히 이 ‘종통’과 ‘연원’을 증산 → 정산 → 우당 자신으로 이어지는 종교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교리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우당은 “상제님 한 분만을 믿는다면 진리는 없다”,<sup>886)</sup> “도주님을 모르면 상제님을 옛날에 홀렸했던 분이라고 그냥 믿는 데 그친다”, “상제님 한 분만 가지고서는 안 이루어진다. 도주님이 들어가야 한다. 도주님이 안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다. 상제님·도주님 두 분 법이라야 한다.”,<sup>887)</sup> “도주님의 법은 상제님께서 전하신 법을 받들어 만드신 것이고, 도주님께서 짜놓으신 법을 받들어 하는 것이 나의 법이다. 나의 법은 상제님, 도주님의 법이다.”<sup>888)</sup> 라고 하여 증산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수행 및 진리는 오로지 정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정산에 의해서가 아닌 증산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니며 이치와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당은 이러한 교리를 통해 증산을 계승한 여러 창교주들 가운데 오직 정산의 교설이 정통(orthodoxy)임을 주장하였고 여타 증산종단의 교리는 ‘진리가 없고’ ‘맞지 않는’ 이단(heresy) 또는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평가하였다. 곧 우당은 정산을 증산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증산 신앙의 완성자로 보았으며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훈을 숭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우당은 정산의 정통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산을 계승한 자신의 정통성 또한 확립하였던 것이다.

## (2) 우당의 위상에 대한 교리

우당은 태극도 영도 시절 태극도의 월간지인 《태극도 월보》에 증산과 정산 및 자신의 종교적 역할을 비유하는 언설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에는 증산·정산에 견주어 우당 자신의 종교적 위상에 대해 잘 나타나 있다.

88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3-14.

886) 「우당 박한경 훈시」 1984년 12월 26일.

887) 「우당 박한경 훈시」 1989년 4월 12일.

888) 「우당 박한경 훈시」 1991년 2월 20일.

우리는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삼계공사를 보시므로써 무극대도의 물샐틈 없는 도수를 짜 놓으시고 지상선경의 운로를 열어 놓으셨다는 것과 도주님께서 그 대도의 종통을 계승하셨다는 것과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고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저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막론하고 설계·계획의 과정과 시공·시행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적인 순서일진대 상제님께서선 선경건설의 계획과 설계의 부분만을 맡아 다하시고 그 계획과 설계에 의한 시공과 시행의 부분은 상제님께서 하실 바가 아니라 그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기 위하여 “시유기시(時有其時)며 인유기인(人有其人)”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과정을 예를 들어본다면 가령 철도를 개설한다고 할 때 그 철도개설의 설계와 계획에 관한 일은 상제님의 일과 같을 것이요 그 공사와 시공에 관한 일은 도주님의 일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철도는 지금 이미 완성되었고 그 철도 위를 달릴 기차도 지금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기차를 탈 승객인 우리들에 대한 개찰과 그 개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준비사항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성스럽고 뜻 깊은 날을 맞아 상제님과 도주님의 위대하신 설계와 시공의 뜻을 이어받아 이 기차에 빠짐없이 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입니다.<sup>889)</sup>

인용문에서, 우당은 증산의 천지공사는 설계·기획의 단계로, 정산의 종통 계승 및 종교 활동은 시공의 단계라 해석하며 이를 철도 개설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우당은 시공의 다음 과정을 언급하며 철도 개설로 비유하여 기차에 타는 단계를 말하였는데, 인용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및 단계가 자신의 종교적 위상 및 역할이라고 신도들에게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즉 증산은 설계자로 정산은 시공자로 자신은 시행자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증산은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sup>890)</sup>고 하였는데, 대순진리회 신앙인들은 이를 증산을 일천(一遷), 정산을 이천(二遷), 우당을 삼천(三遷)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3인으로써 종통이 완성되었으며 우당 이후 더 이상 종통 계승자가 없다고 풀이하였다.<sup>891)</sup> 이 ‘삼천(三遷)’의 원리는 곧 증산의 ‘일’

889) 태극도본부, 《태극도월보》 3, 부산: 태극도본부, 1967.

890)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예시 87절.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이르셨도다.”

891) 대순진리회 교무부,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대순회보》 19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19-21.

즉 ‘천지공사’가 정산을 거쳐 우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 삼천으로 대순진리회의 종통이 완성되고 이 종통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 2) 종교 활동의 특성

### (1) 인도의 구현

우당은 증산의 천지공사를 ‘대순하신 공사는 인도(人道)를 개정(更正)하신 공사’<sup>892)</sup>라고 설명하였다. 또 증산이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sup>893)</sup>이라고 한 언설을 부연하여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개병. 그래서 해원상생의 도를 펴신 것이다.”<sup>894)</sup>라고 하며 증산이 도를 편 이유를 인륜도덕의 부재로 파악하였다. 즉 우당은 증산의 강세는 천지와 창생을 구하기 위함이며 세상의 모순에 대한 증산의 진단은 인륜도덕의 부재이고 그 처방은 곧 인륜도덕의 구현이라고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당은 증산의 강세와 종교 활동을 이와 같이 해석하였으며 ‘봉천(奉天)·경신(敬神)으로 인도재건(人道再建)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종주(宗主)’<sup>895)</sup>라고 하는 등 인륜도덕을 실천하고 인도를 구현하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당은 신앙인들이 인륜도덕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교설하였다. 우당은 “수도(修道)란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sup>896)</sup>라며 인륜을 바로 행하는 것이 수도라고 규정하였다. 우당이 신앙인들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 것은 교리적 당위이기도 하였지만 신앙인들의 탈선을 경계하고 올바른 수행의 길로 제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종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것이었다.

우당이 제일 강조하였던 것은 가정 윤리였다. 우당은 “융화 단결을 기본으로 하여 각 도인들은 가정화합에 힘써라.”<sup>897)</sup>라고 하는 등 가정화합을 강조하였으며 가정 화합과 함께 특히 자녀 교육에 성실을 기하라고 분부하였다.<sup>898)</sup> 우당이 자

892) 「우당 박한경 훈시」 1986년 2월 14일.

893)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행록 5장 38절.

894) 「우당 박한경 훈시」 1993년 4월 1일.

895) 「우당 박한경 훈시」 1984년 4월 9일.

89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37.

89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29.

89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30.



녀 교육에 대해 강조한 것은 과거 태극도 시절부터 자녀 교육에 대해 등한시 하였던 종단 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태극도 초기 시절 여러 간부들이 ‘무학도통(無學道通)’이라고 말하면서 학교 기관을 통한 자녀 교육의 무용(無用)함을 신도들에게 전파하였었다. 우당은 태극도 초기 시절 종단 내의 교육 경시 풍조는 정산의 참된 취지와 다르다고 한 것이며 정산이 학교 설립과 자녀 교육을 중시하였다고 하였고 자신도 정산의 뜻을 받들어 학교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 당시 교육 경시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자녀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였음을 말하였다.<sup>899)</sup>

그리고 우당은 ‘시한부(時限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앙인들을 계도하였다. 이 시한부론은 가정 윤리와 교육 경시 등의 풍조와 관련된다. 즉 병겁, 의통, 운수, 도통 등이 어느 시점에 임박하였다고 하며 신앙생활에만 몰입하다보면 일상 윤리와 교육 등이 경시될 수 있다. 우당은 “도(道)는 영원한 진리이니, 도에서 시한부를 운운함은 있을 수가 없다.”<sup>900)</sup>, “운수나 도통에 시한부가 있다고들 말하나 그것은 자멸행위이니라.”<sup>901)</sup>고 하여 시한부론, 시한부 종말론 등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우당은 시한부론뿐만 아니라 여타의 잘못된 신앙으로 신도들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계도하여 사이비 종교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상 사회 윤리와 도덕의 실천, 국법 준수 등을 강조하며 종단을 건전한 종교로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우당이 이와 같은 국가 사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 것은 증산종단이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및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였던 역사를 인지하고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인다. 과거 보천교 및 무극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유사종교, 사교라는 낙인 아래 당시 관과 언론으로부터 탄압을 당하였으며 특히 보천교는 이후 사이비 종교의 원조격으로 인식되었다.<sup>902)</sup> 우당은 일제강점기, 징용 생활, 해방 및 무극도 입도, 태극도 간부로서의 수행, 태극도 영도자로서의 임명, 태극도 운영, 태극도 탈퇴와 대순진리회 창설, 대순진리회의 운영과 발전 등의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증산 신앙운동을 참답게 펼칠 것인가 깊이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에 우

899) 「우당 박한경 훈시」 1992년 1월 11일.

90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24.

90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38.

902)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160-184.

당은 한국 사회에 증산 신앙운동으로서의 대순진리회를 건전하고 공신력 있는 종교 단체로 안착시키고 그럼으로써 증산 신앙을 널리 펼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3대 중요사업의 실행

우당은 신앙인들을 계도하여 올바른 신앙과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을 종단의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우당은 “종단사업은 포덕·교화·수도 공부와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으로 나눈다.”<sup>903)</sup>라고 하여 포덕·교화·수도를 종단의 ‘기본 사업’으로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종단의 ‘3대 중요 사업’으로 구분하였다.<sup>904)</sup> 기본 사업이라고 함은 종단 내적인 신도들의 신앙 활동과 실천을 말하며 3대 중요 사업은 곧 종단의 대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이르는 것이다.

우당이 이렇게 대순진리회의 사업을 기본 사업과 3대 중요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그가 “3대 중요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종단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공신력이 높아져 덕화선양이 될 것이다.”<sup>905)</sup>라고 한 것처럼 신앙인들의 종교적 실천뿐만 아니라 종단의 공공성과 대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당은 한국사회와 담을 쌓으며 신앙인들만의 공동체를 고수하거나 한국사회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등 폐쇄성을 고수하는 노선과는 정반대로 개방성과 공공성의 특징을 지니는 종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우당은 종단의 기본 사업뿐만 아니라 3대 중요 사업이 증산의 해원상생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 의의를 밝혔다.<sup>906)</sup> 즉 구호자선과 사회복지 및 교육의 3대 중요 사업은 증산의 해원상생 이념을 국가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며 반대로 3대 중요 사업의 근본적 실천 원리가 바로 증산의 해원상생 사상이라는 것이다. 또 이전에 논의하였듯이 우당이 태극도 영도 시절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병원을 개원하여 사회복지에 힘을 기울였었는데 이는 정산의 뜻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였다. 즉 3대 중요 사업은 증산의 사상과 정산의 유지를 받드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종교적 실천인 것이다.

90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7.

90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7 참조.

90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8.

906) 대순진리회 교무부,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2.

이와 같이 3대 중요 사업의 의의를 밝힌 우당은 이 사업을 역사적으로 전개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1969년 6월 서울 중곡동에 도장을 창건한 뒤 우당이 3대 중요 사업을 종단의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1972년 3월이다. 이때 대순진리회의 포덕, 교화, 수도 사업은 물론 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삼고 역행(力行)을 개시한 것이다.<sup>907)</sup>

3대 사업 각각에 대해 우당은 어떻게 말하였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구호자선사업에 대해서 우당은 “구호자선사업은 이재민구호, 불우이웃돕기(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의 구제사업을 펴 나가는 것이다.”<sup>908)</sup>이라 규정하였고 신도들의 성금을 모아 불우이웃을 돕거나 수재 의연금, 구호금 등으로 기부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1987년의 경우 7억 3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수재 의연금의 명목으로 각 언론기관에 기탁하였으며 기타 구호자선사업에 3천 6백여만 원을 의연(義捐)하였다.<sup>909)</sup> 또 대순청년회, 부인회 등을 조직하여 지역 환경보호를 비롯한 각종 봉사활동을 참여하기도 하고<sup>910)</sup> 불우아동돕기, 신체장애자 돕기, 이재민 돕기, 양로원·고아원 돕기, 나환자 돕기 등을 실시하였다.<sup>911)</sup> 1989년에는 구호자선사업의 규모를 대폭 늘려 1억 7천여만 원을 이 사업에 사용하였다.<sup>912)</sup> 종단 대순진리회는 구호자선사업을 점차 증대하며 지속하였고 1996년 1월 우당의 별세 이후에도 우당의 뜻을 받들어 이를 계속 실시하였다. 2006년의 경우 3대 중요 사업으로 총 63억여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 2억 1천여만 원이 구호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 행사후원금, 적십자회비)으로 사용되었다.<sup>913)</sup> 2018년도의 경우 총 130억여 원이 3대 중요 사업에 쓰였으며 이중 약 13억여 원이 구호자선사업에 지출되었다.<sup>914)</sup>

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당은 1980년 6월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

90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16.

90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99-100.

909) 대순진리회 교무부, 「해원상생운동 활발하게 전개」, 《대순회보》 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5.

910) 대순진리회 교무부, 「해원상생운동 전개」, 《대순회보》 1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5.

911) 대순진리회 교무부, 「해원상생운동 전개」, 《대순회보》 1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5.

912) 대순진리회 교무부, 「해원상생운동 전개」, 5.

913) 대순진리회 교무부, 「2006년도 종단 3대 중요 사업 통계 현황」,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7.

914)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8년도 종단 3대 중요 사업 통계 현황」, 《대순회보》 21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9, 13.

의 은혜이니, 안주에 보은(報恩)하는 믿음으로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라.”<sup>915)</sup>고 하면서 “앞으로 양로원, 병원 등을 설립하여 노고(老苦)와 병고(病苦)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국민의 복지시설사업도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sup>916)</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순진리회의 교세가 어느 정도 확대된 1992년 대진의료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분당 제생병원과 동두천 제생병원의 기공식이 열렸고 1998년 8월 분당 제생병원이 개원하였다. 2007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대진요양병원, 대진노인복지센터, 대진청소년수련원, 대진요양시설을 갖추고 있다.<sup>917)</sup>

셋째, 교육 사업은 3대 중요 사업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실시되었다. 우당은 1976년 4월 대순장학회를 발족하였으며 1984년 2월에는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다. 우당은 “장학회를 조직하여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영재들을 교육시켜 국가와 종단의 동량을 육성하여, 국가와 종단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918)</sup>,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야 한다.”<sup>919)</sup>고 하여 장학회의 목적과 학교법인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우당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2년 3월 종합대학교인 대진대학교를 개교하고 학교법인을 대진대학교로 변경하였다. 현재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산하에 대진고, 대진여고, 분당대진고, 대진디자인고, 일산대진고, 부산 대진전자통신고 등 총6개 학교를 두고 있다.<sup>920)</sup>

---

915)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01.

91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02.

917) <http://dsswf.com>

91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03.

91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03.

920) [http://daesoon.org/business/main.biz\\_3.php](http://daesoon.org/business/main.biz_3.php)

## 4절 소결

월곡 차경석이 증산의 화천 후 증산의 친자종도 가운데 거대교단을 이끈 중심 인물이라면, 정산 조철제는 증산의 종도가 아니면서 일제강점기 그 규모에서 보 천교 다음인 무극도를 창교한 인물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대표주자는 증산의 종도로는 월곡과 비종도로는 정산을 들 수 있다는 말이다.

정산의 가문은 함안의 명문가인 함안 조씨로 그의 조부인 취당 조영규는 고종 2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 홍문관 정자, 춘추관 기사관을 역임하였다. 취당은 배일사상가로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토혈 서거하였고 부친은 이러한 조부의 뜻을 받들어 항일운동을 도모하였다. 정산과 일가족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항일의 뜻을 펼치기 위해 만주로 망명하던 중 정산은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고 증산 신앙운동을 전개할 종교 체험을 경험하였다. 정산은 상제로 화현한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후 정산이 증산을 신앙하고 교단을 창립하는 등 종교운동을 전개할 계기가 되었다.

정산의 경우와 같이 증산계 종교운동은 이제 증산과의 물리적 접촉의 범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증산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도 착수되었다. 또 정산의 계시 체험에서처럼 증산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성한 존재이자 우주적 존재로서 경험되었다. 증산계 종교운동은 증산과의 직접 접촉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우주적 존재인 증산으로부터 계시와 가르침을 받아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될 수 있는 유형으로도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의 예를 들자면 월곡의 보천교 운동이 베드로형이라면 정산의 무극도 운동은 바울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증산종단 가운데 증산의 종도나 혈족이 아닌 창교주에 의해 형성된 교단을 증산종단친목회에서 작성한 『증산종단개론』을 토대로 살펴보자. 『증산종단개론』에는 총 33개의 교단이 소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보천교계를 제외하면 무극도, 순천도, 삼덕교, 선도교, 이증성의 교단, 미륵계, 김태진의 교단, 미륵불교, 청도대향원, 용화사, 제화교가 남는다. 이중 김태진의 교단은 증산의 종도인 김자현의 장자 김태진에 의해 창설되었고, 청도대향원은 증산의 독녀로 선도교 창시자인 강순임의 장자 김양호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미륵계는 증산의 종도인 김

형렬의 제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용화사와 제화교는 해방 이후에 설립되었고 교세도 미미하며 이중성의 교단은 소규모 그룹으로 영향력이 미약하였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증산의 종도나 혈족과 무관하게 창립된 단체는 무극도, 순천도, 삼덕교, 미륵불교의 4개 단체이다. 4개 단체 중 무극도는 다른 3개의 단체에 비해 교세와 영향력에 있어 단연 앞섰으며 증산종단 전체를 놓고 보아도 보천교 다음으로 교세가 컸다. 따라서 증산계 전체를 종도계와 비종도계로 나눌 때 종도계의 대표격은 보천교로 비종도계의 대표격은 무극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산의 무극도 운동을 제2장의 기틀로 살펴보자. 먼저 증산 이해와 관련하여 정산은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였다. 정산은 증산 신격에 대한 설명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인 증산이 전기로써 우주 만물을 지배 자양한다고 하였다. 즉 정산은 ‘뇌성’을 천둥, 번개라는 일기 현상을 넘어서서 우주에 편재한 전기로 이해하였고 증산이 이 전기를 통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지고신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증산 이해는 다른 증산종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관점으로 무극도 및 무극도를 이은 태극도, 대순진리회는 정산의 증산관을 계승하였다. 즉 1925년 정산이 확립한 증산 신격과 증산 이해는 이후 무극도 계열의 증산 신앙운동에 수용되었다.

천지공사론에 있어서 정산은 ‘도수’ 개념을 통해서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종교 활동의 의의를 말하였다. 정산은 증산은 도수를 짜고 자신은 ‘도수에 의한 공부’로써 그 도수를 풀어나가는 일을 한다고 하며 증산과 자신의 종교적 작업을 대비하였다. 즉 증산의 천지공사는 선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도수를 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산은 증산이 설계한 후천도수를 풀어나가 일을 이행한다는 말이다. 정산은 증산을 천지공사의 설계자로 자신은 그 설계에 따라 시행하는 이행자로 설정하여 증산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정산이 아니면 증산의 천지공사를 설계 단계에 그칠 뿐 이뤄질 수 없으며 오직 정산에 의해 천지공사가 다음 단계로 이행되고 ‘새로운 기틀’이 열려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산은 또 천지공사의 사상적 개요와 목적을 무극도의 종지인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확립하였다. 즉 증산 천지공사의 사상이 종지이며 천지공사의 목적이자 구현의 상태가 종지이다. 종지의 내용에서 정산은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신비성뿐만 아니라 사

상적 특성을 추출하여 증산 사상을 철학적·이념적 영역으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통론의 측면에서 보면 정산은 첫째, 증산으로부터 받은 영적 계시를 통해 정통성을 주장하였다. 정산의 두 번의 주요한 계시 체험을 하였다. 먼저 가족들과 만주로 망명 중인 1909년 음력 4월 28일에 봉천명(奉天命)이라 칭하는 계시를 받고, 만주 봉천 지방에서 1917년 음력 2월 10일 증산의 삼계대순(三界大巡) 진리에 감오득도(感悟得道)하고 종통(宗統) 계승의 계시를 받았다. 둘째, 정산은 증산의 중요 유품을 획득하였고 이것이 증산의 예시에 의한 것이라 하며 정통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았다. 정산은 증산의 누이동생으로부터 봉서를 전달받았고 보천교 본부에 있는 둔괘를 입수하고 공부를 행하였다.

무극도 계열에서는 이러한 정산의 정통성을 ‘종통 계승’이라 표현하며 교리적으로 이를 시루와 술의 논리로 설명한다. 시루는 곧 증산을 술은 정산을 의미하며 이 시루와 술의 원리는 금산사 중창 원리와 연결된다. 금산사 중창 설화에서 금산사는 연못을 숯으로 메우고 그 위에 술을 걸고 술 위에 미륵불을 봉안하였는데, 미륵불은 곧 증산을 술은 정산을 상징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종통 계승의 교리는 금산사의 중창 원리를 전유하여 증산과 정산이 내세하기 오래전부터 증산과 정산이 출현하여 도의 진리를 펼칠 것이 예시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구원론과 관련하여 정산은 자신이 행한 ‘도수에 의한 공부’는 ‘50년 공부’로 이 공부의 결정체가 진법이며 자신이 제정한 교리, 의례, 수행법 등이 그 진법이라고 하였다. 종지 상에서는 ‘도통진경’이 구원론과 직결된다. 증산은 대두목에게 도통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대두목이 제정한 방법 즉 진법에 의해 수행을 하였을 때 1만 2천 도통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산의 종통 계승자라 주장하는 정산은 대두목으로서 50년 공부를 통해 도통하는 방법 즉 진법을 세웠고 신앙인들은 이러한 진법에 의해 수행할 때 ‘도통한 참다운 경지’ 즉 ‘도통진경’에 이르게 된다.

‘도통진경’은 신앙인들의 종교적 목적인 동시에 ‘도의 원리로 구현된 경지’ 즉 세계가 구현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산은 1925년 종단 설립 시 종단의 목적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으로 하였는데, 무자기·정신개벽·지상신선실현은 신앙인이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이 세계의 구원 상태이자 목적이라고 양분할 수 있다. 도통진

경은 이러한 목적이 구현된 총체적인 경지이자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산 종교사상의 구원론에 해당한다.

정산을 이어 태극도를 영도하고 이후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우당 박한경은 정산의 증산 신앙, 천지공사론, 도통론, 구원론 등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우당은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취지를 증산의 대순한 유지를 계승하여 50년 공부 종필로써 전한 조정산 도주의 유법을 승신하여 귀의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혔다. 여기서 우당은 정산의 종교 활동 즉 진법은 증산의 유지를 계승한 것이며 자신은 이러한 정산의 유법을 승신하며 귀의하기 위해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당은 정산의 증산관과 교리 해석 및 수행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통론에서 교리 해석을 부가하였고 구원론 및 수행론에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추가된 부분은 우당의 도통론으로 정산에게서 자신에게 이어지는 정통성이 정산의 유명(遺命)에 의한 것이라 하며 종통 계승의 정당성을 말하였다. 우당은 정산을 증산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증산 신앙의 완성자라 보았으며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을 숭봉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신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곧 우당만이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계승자라는 말이다. 대순진리회의 교리 체계에서 증산에게서 정산으로 이어지는 계승은 ‘계시에 의한 종통 계승’으로 정산에게서 우당으로 이어지는 계승은 ‘유명에 의한 종통 계승’으로 지칭된다. 증산은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였는데, 증산 → 정산 → 우당으로 이어지는 종통 계승이 바로 ‘삼천’이라 해석되며 증산이 기획한 천지공사가 종통 계승을 통해 이뤄진다고 이해된다. 발전시킨 부분은 인도의 측면을 강조하여 대사회활동과 일상 윤리를 강조하고 종단의 공공적 활동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시한부론, 무학도통론 등을 경계하여 합리적이며 건전한 종교 활동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결론

조선 말 동학농민혁명운동의 발상지인 정읍은 일제강점기 다시금 전 조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언론은 정읍을 ‘차천자(車天子)가 있는 곳’, ‘보천교 본부가 있는 곳’으로 언급하며 보천교를 민중을 기만하는 사교로 보천교 신도들은 미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민중으로 비판어린 기사를 쏟아냈다. 식민권력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보천교가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하여 식민권력에 대항할 것을 두려워하며 감시와 취체를 강화하였고 보천교를 압제하고 탄압하였다. 일제당국에 피체된 보천교 민중은 심문을 통해 자신들은 증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하며 증산의 종도인 월곡 차경석을 창교주로 받든다고 하였다. 또 그들은 장차 옥황상제인 증산이 출세할 때 그 권능으로서 조선을 독립시키며 월곡을 조선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 믿고 있었으며, 입교를 하고 조직을 구성하며 조선 독립을 위한 성금을 모아 상해임시정부에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즉 증산의 종교적 권능과 보천교의 조직력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와의 연계로써 조선이 독립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고 신앙하였다.

이러한 심문 내용을 접한 식민권력은 보천교를 조선 독립을 기도하는 비밀결사조직으로 생각하고 공권력과 물리력으로 보천교를 탄압하는 한편 간부 조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천교를 공개하도록 압박하였다. 보천교가 공개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일제는 보천교가 증산을 신앙하며 월곡의 교주로 하는 종교 단체임을 이해하고 입교, 교리, 조직구성, 주요 간부 명단, 성금 운용, 조선 독립기도 등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시대일보 인수 사건과 보천교 혁신운동의 사례에서 일본의 밀정이 얼마나 보천교를 상세히 감시하고 식민권력에 보고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만큼 식민권력의 입장에서 보천교는 두려운 단체이자 경계와 탄압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보천교가 일제의 계략에 넘어가 시국대동단을 구성하며 민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포화를 맞고 있을 때 ‘제2의 보천교’, ‘보천교의 자매격’ 등으로 불리며 정읍에서 일어난 단체가 바로 정산 조철제의 무극도이다. 당시 언론은 정산을 ‘조천자’라 부르며 보천교의 차천자와 비교하였으며 정읍을 차천자와 조천자가 있는 곳으로 비꼬기도 하였다. 보천교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던 식민권력은 새롭게 일어나는 ‘제2의 보천교’ 무극도도 탄압의 그물망

안에 포섭하였다. 일제는 무극도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작성한 비밀문서에는 경상북도의 경우 신종교 증보천교와 무극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민족종교를 탄압하기 위해 식민권력의 지원을 받아 편찬된 『조선의 유사종교』에서도 증산계 단체로 분류된 11곳 중 보천교와 무극도를 제외한 9개 단체는 교세가 미약하고 쇠퇴 중이라고 하였다.

일제가 탄압을 위해 분석한 내용이지만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월곡의 보천교와 정산의 무극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운동을 주제로 삼아 두 운동에서의 창교주들의 생애와 종교 활동 과정, 전개한 종교 운동의 특성, 두 창교주 사후 종교 운동의 전개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두 운동은 곧 교조인 증산을 신앙하는 운동이다. 즉 증산의 교설을 신앙운동의 기원이자 근본으로 하여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두 창교주의 증산의 교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달랐으며 그들이 창설한 종단도 각각 궤적을 달리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장에서는 증산 신앙운동의 기원이 되는 증산의 교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월곡과 정산이 증산의 교설을 각각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자신들의 종교 운동에 적용하였는지를 3장과 4장에 적용하여 기술하였고 각 장의 소결에서 정리하였다. 이제 두 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월곡과 정산 그리고 그들을 계승한 청음·남주와 우당의 종교 운동에 관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첫째, 이 창교주들이 증산을 어떠한 존재 또는 신격으로 이해하였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월곡은 증산을 가까이 시종하며 증산의 기행이적을 목격하거나 들었으며 증산을 권능의 소유주이자 하느님이라 신봉하였다. 그는 증산이 생전에 스스로를 옥황상제라 하였다는 말을 들을 것을 토대로 증산을 옥황상제로 숭봉하였고 수운 최제우의 종교 체험에서의 상제가 바로 증산이라고 생각하였다. 월곡은 증산의 화천 후 종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증산을 ‘옥황상제’로 봉안하고 1922년 처음 교단의 핵심신조인 12계명을 제정할 때 첫째를 ‘존상제(尊上帝)’ 즉 옥황상제인 증산을 존송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다 월곡은 1928년 정월 증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교리체계를 폐기하고 치성의례에서도 증산의 탄생일과 화천일을 제외하며 주요 간부들로부터 증산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보천교 교단의 2인자이자 신파의 대표인물인 청음 이상호와 그의 아우

남주 이정립은 1924년 9월 전개한 보천교 혁신운동의 주요한 근거로 월곡이 증산의 대도를 올바르게 펴지 않으며 민중과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있음을 내세웠다. 즉 두 형제는 월곡이 잘못된 증산 신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참된 증산의 유훈과 사상을 밝히고자 경전 편찬에 주력하였다. 형제는 1926년 편찬한 『증산천사공사기』의 서문에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하여 선경의 기틀을 열었으나 법언이 전하지 못하고 행적이 기록된 바가 없으므로 미신과 사설에 부회하여 대도의 진의가 밝혀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 형제는 1928년 월곡의 교리체계 변경을 월곡이 증산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것이라 생각하며 월곡의 종교 운동을 난법으로 규정하였다.

월곡이 증산의 화천 후 증산의 친자종도로서 거대 교단을 이끈 중심 인물이라면, 정산 조철제는 종도가 아니면서 일제강점기 그 규모에서 보천교 다음인 무극도를 창교한 종교 지도자이다. 정산은 상제로 화현한 증산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후 정산이 증산을 신앙하고 교단을 창립하는 등 종교 운동을 전개할 계기가 되었다. 정산의 경우와 같이 증산계 종교운동은 증산과의 물리적 접촉 범위를 넘어 인간으로서 증산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 의해서도 시작되었다. 정산의 무극도 운동은 그러한 유형의 증산계 종교운동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증산 이해와 관련하여 정산은 증산을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다. 정산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인 증산이 전기로써 우주 만물을 지배 자양한다고 하였다. 즉 정산은 ‘뇌성’을 우주에 편재한 전기로 이해하였고 증산이 이 전기를 통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지고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증산 신격과 증산 이해는 다른 증산종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관점으로 이후 무극도계 증산 신앙운동에 계승되었다.

정산으로부터 유명에 의해 종통 계승을 받아 정산을 계승한 우당은 증산이 구천상제이며 우주를 주재하는 권능의 주인이자 무한한 덕화와 권지의 소유주라 밝혔다. 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를 종단의 신앙의 대상으로 확립하며 신앙인들에게 구천상제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실천 수행을 교화하였다.

둘째, 천지공사론과 관련하여 월곡은 주로 증산의 권능에 의한 정치적 변혁을 천지공사의 핵심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믿었던 증산은 천상에 옥황상제의 위(位)에 있다가 도수가 되면 지상에 내려와 세계를 통치하는 신성왕이었다. 즉 특정한 때에 증산이 출세하여 그 권능으로써 일제를 물러나게 하고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것이며 증산의 종도인 월곡은 조선의 왕이 되고 보천교 간부들

은 지위에 따라 관직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증산의 천지공사가 실현되는 것이며 월곡은 이러한 천지공사에서 중대한 사명을 맡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즉 월곡은 천지공사론의 교리와 그 종교사상적 내용 즉 증산의 광구천하와 구제창생의 취지를 전파하기보다는 운세론을 바탕으로 한 증산의 시한부 출세론에 집중하였다. 당시 월곡과 월곡에게 공명한 보천교 민중들은 교리와 사상보다는 시운과 정치적 변혁에 더 관심을 가졌으며 이런 점에서 월곡의 종교운동에서 천지공사론은 전면적으로 내세워지지 않았다.

반면 청음·남주 형제는 천지공사론이 교조 증산의 핵심 교의이며 천지공사의 심오한 뜻을 이해해야 증산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청음은 증산을 수종하며 천지공사를 참관하였던 종도들에 대해 그들이 천지공사의 오의(奧義)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즉 증산의 종도로 대표되는 월곡이 천지공사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올바른 증산 신앙도 펼칠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청음은 천지공사를 최고신인 증산이 만고의 신명을 소집하여 선천 세상의 모든 폐단을 고치거나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진법을 세운 후 천지신명으로 하여금 그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청음은 1929년 편찬한 『대순전경』에서 천지공사론과 관련된 장을 구성하여 총 81절을 기록하였고 이후 판본에서도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또 남주는 증산계 종교운동에서 처음으로 교리 해설서를 내어 천지공사론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여 천지공사론에 담긴 이념과 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정산의 경우 ‘도수’ 개념을 통해 증산의 천지공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종교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정산은 증산은 도수를 짜고 자신은 ‘도수에 의한 공부’로써 증산이 짜놓은 도수를 풀어간다고 하며 증산과 자신의 종교적 작업을 대비하였다. 증산의 천지공사가 선천 상극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 상생도수를 설계한 것이며 정산은 바로 증산이 설계한 후천도수를 풀어나가는 일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정산이 아니면 증산의 천지공사는 설계 단계에 그칠 뿐 이뤄질 수 없으며 오직 정산에 의해 천지공사가 다음 단계로 이행되고 새로운 기틀이 열려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산은 천지공사의 사상적 요체와 그 목적을 무극도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으로 확립하였다. 즉 천지공사의 사상이 종지이며

천지공사의 목적이자 구현의 상태가 종지라 볼 수 있다. 종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산은 천지공사론에서 나타나는 증산의 권능, 신이, 시운, 변혁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천지공사론에 담긴 사상적·철학적·이념적 영역을 추출하여 종단의 핵심 교리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우당은 이러한 정산의 교리해석을 계승하여 종단 운동의 기초로 삼았다. 특히 우당은 해원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실시하였다. 우당은 3대 중요사업이 증산의 해원상생 이념을 국가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라 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셋째, 도통론은 천지공사에서 교운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증산을 계승하는 후계자에 대한 논의로 증산을 계승한 창교주들이 특히 이에 대한 전유와 교리해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증산은 자신의 계승자를 ‘대두목’이라 표현하였으며 진법과 난법의 개념으로써 참다운 계승 운동과 그릇된 신앙운동이 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창교주들은 자신이 곧 대두목이며 자신이 전개한 증산계 종교운동이 진법임을 강조하였다. 먼저 월곡은 증산의 직계 종도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증산이 여러 발언과 천지공사를 통해 자신에게 종교적 사명을 맡겼다고 주장하였다. 월곡은 증산을 임금에 비유한다면 자신은 임금을 보좌하는 병조판서나 장군 같은 존재라 생각하였다. 즉 월곡은 자신을 하느님을 증산을 보좌하여 우주의 정사(政事)를 받들어 펼쳐나가는 핵심 인물로 여겼던 것이라 추측된다.

청음은 보천교 간부 시절 월곡이 증산의 천지공사의 사명을 맡은 계승자임을 믿었고 월곡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교리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청음·남주는 월곡이 증산의 종도이지만 천지공사의 진의를 알지 못하며 그가 증산의 가르침을 그릇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형제는 보천교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보천교를 탈퇴하여 독자적인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두 형제는 자신들이 증산의 교설과 행적을 담은 경전을 처음으로 편찬한 것이 증산의 천지공사를 받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것을 주요한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다. 또 교단을 창립할 때 증산의 종도인 박공우로부터 의통 인패가 전달된 것을 교운공사의 증험이라 이해하였다.

정산은 계시 체험과 증산의 중요 유품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을 정통성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무극도 계열에서는 정산의 정통성을 ‘계시에 의한 종통 계승’이라고 하며 시루와 술의 논리로 설명한다. 무극도 계열에서는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라고 한 증산의 발언을 금산사의 중창 원리인 미륵불과 술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며 미륵불은 곧 증산 술은 정산을 상징한다고 본다. 정산을 계승한 우당은 정산의 ‘유명에 의한 종통 계승’을 정통성의 근거로 하였다. 우당은 정산을 증산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증산 신앙의 완성자라고 보았으며 증산의 유지와 정산의 유법을 숭봉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신앙이라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원론과 관련하여 월곡은 식민권력의 타도, 조선 독립, 관직 임명 등 현세적 측면을 위주로 하였으나 청음·남주는 증산에 대한 바른 신앙과 천지공사론에 대한 온전한 이해 즉 교리의 내재화라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였다. 정산의 무극도 운동의 경우에는 일제 패망, 조선 독립과 같은 내용 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정산은 ‘50년 공부’로써 참된 교리, 의례, 수행법을 제정하며 그것을 진법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진법 수행을 통해서만 도통진경 즉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증산을 교조로 하여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신앙하며 일제강점기 파멸된 나라를 바로 하고 고난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해 개진된 월곡의 보천교 운동과 정산의 무극도 운동을 살펴보고 이후 전개된 청음·남주와 우당의 종교 활동과 그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민족적 고통의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보천교와 무극도 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민중 해방 및 구원의 메시지를 조선 민중에게 전파하였고, 압제와 질곡에 시달리고 있었던 민중들은 그 메시지에 감화하여 식민권력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입교와 포교에 진력하였다. 신앙인들은 외래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닌 한국인 하느님을 믿으며 그 하느님을 계승한 대두목을 추종하면서 해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 독립, 민중 해방, 후천 개벽 등을 염원하였다. 그러한 민중의 염원에도 일제의 탄압에 신도들은 구속되고 조직은 와해되며 본부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암흑 속에서 시작된 증산계 종교운동의 씨앗과 기틀은 해방 후 다시 싹이 트며 발전하여 오늘날 한국종교 지형의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증산계 종교운동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운동을 주도한 월곡과 정산의 종교적 세계와 그에게 공명한 민중들의 염원과 종교적 실천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또한 후속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증산계 종교운동의 주요한 두 계열인 보천교계와 무극도계의 계보와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교단 발행 자료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9.
- \_\_\_\_\_, 「문답으로 알아보는 종통」, 《대순회보》 11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_\_\_\_\_,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9.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_\_\_\_\_,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_\_\_\_\_,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_\_\_\_\_, 《대순회보》 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6.
- \_\_\_\_\_, 《대순회보》 6,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 \_\_\_\_\_, 「도전님 훈시」, 《대순회보》 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 \_\_\_\_\_, 「해원상생운동 활발하게 전개」, 《대순회보》 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8.
- \_\_\_\_\_, 「해원상생운동 전개」, 《대순회보》 1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_\_\_\_\_, 「해원상생운동 전개」, 《대순회보》 15,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_\_\_\_\_, 《대순회보》 6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9.
- \_\_\_\_\_, 「2006년도 종단 3대 중요 사업 통계 현황」,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_\_\_\_\_, 「27년 동안의 헛도수」, 《대순회보》 6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7.
- \_\_\_\_\_, 「도주님의 숨결이 어려 있는 안면도를 다녀와서」, 《대순회보》 11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_\_\_\_\_, 「구세제민의 현장, 원산도」, 《대순회보》 120,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_\_\_\_\_, 「무극도장의 자취를 찾아서」, 《대순회보》 13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1.

- 판부, 2012.
- \_\_\_\_\_, 「무극도 진업단과 개간지」, 《대순회보》 178,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
- \_\_\_\_\_, 「9년만의 회국」, 《대순회보》 183,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6.
- \_\_\_\_\_, 「황새마을을 찾아서」, 《대순회보》 191,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_\_\_\_\_, 「서울 부암동」, 《대순회보》 194,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_\_\_\_\_, 「도전님의 수리사 49일 공부」, 《대순회보》 19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_\_\_\_\_,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대순회보》 198,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_\_\_\_\_, 「도전님의 이궁이 갖는 의미」, 《대순회보》 199,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7.
- \_\_\_\_\_, 「2018년도 종단 3대 중요 사업 통계 현황」, 《대순회보》 217,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9.
- 대한불교법상종, 『대한불교 법상종 미륵불 총본산 종지』, 대전: 호서출판사, 1975.
- 미륵불교 본부, 『彌勒大道眞理 明理大全』, 전북: 영원인쇄소, 1955.
- 미륵불교 총본부, 『근본과 생명의 자리를 찾는 지름길』, 서울: 태광문화사, 1977.
- 朴景浩, 『太極道通鑑』 初版, 太極道本部, 1956.
- 보천교중앙본소, 『보광』 창간호, 보광사, 1923.
- 보천교중앙총정원, 『교전』, 보천교중앙총정원, 1981.
- \_\_\_\_\_, 『보천교지』, 보천교중앙총정원, 1964.
- 雪一心, 『애국의 거불』, 출판사 미상, 1949.
- 안경전, 『증산도의 진리』, 서울: 대원출판, 1993.
- 「우당 박한경 훈시」,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 이상호, 『대순전경』 초판, 京城: 東華敎會道場, 1929.
- \_\_\_\_\_, 『대순전경』 3판, 김제: 증산교회본부, 1947.
- \_\_\_\_\_, 『대순전경』 6판, 김제: 증산교회본부, 1965.
- \_\_\_\_\_, 『典經略驗』, 弘文堂印刷所, 1955.



- \_\_\_\_\_, 『증산천사공사기』, 京城: 相生社, 1926.
- 이영호, 『보천교 연혁사』 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 \_\_\_\_\_, 『보천교 연혁사』 하,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 \_\_\_\_\_, 『보천교 연혁사』 속편, 보천교중앙총정원, 1958.
- 이정립, 『고부인신정기』, 김제: 증산대도회본부, 1963.
- \_\_\_\_\_, 『金山茶話』, 서울: 大法社編輯局, 1949.
- \_\_\_\_\_, 『大巡哲學』, 金堤: 甌山教本部 教化部, 1947.
- \_\_\_\_\_, 『민족적 종교운동』, 김제: 증산교본부, 1960.
- \_\_\_\_\_, 『신종교운동』, 三英社印刷所, 1950.
- \_\_\_\_\_,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 \_\_\_\_\_, 『증산교요령』 6판, 김제: 증산교본부, 1990.
- \_\_\_\_\_, 『천후신정기』, 김제: 증산교본부, 1984.
- 저자미상, 『敎祖略史』,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 정수산, 『敎理正典』, 미륵불교 총본부, 1949.
- \_\_\_\_\_, 『彌勒佛大道 三綱大典』, 미륵불교 총본부, 1948.
- \_\_\_\_\_, 『說法記』, 미륵불교 총본부, 1949.
- 竹山朴氏文憲公派世譜編纂委員會, 『竹山朴氏 文憲公派 譜』 下卷, 龍仁: 竹山朴氏文憲公派世譜編纂委員會, 1989.
- 증산도 도전편찬위원회, 『증산도 도전』 2쇄, 서울: 대원출판사, 1996.
- \_\_\_\_\_, 『증산도 도전』, 서울: 대원출판사, 2003.
- 증산종단친목회, 『증산종단개론』, 증산종단친목회, 1971.
- 최선애, 『법상종 약사』, 대전: 호서출판사, 1975.
- 태극도, 『수도규정』, 부산: 태극도, 1966.
- 태극도 교화부, 『수도요람』 2판, 새글인쇄주식회사, 1967.
- 태극도, 「도헌」, 태극도, 1963년 6월 12일.
- 태극도본부, 《태극도월보》 창간호, 부산: 태극도본부, 1967.
- \_\_\_\_\_, 《태극도월보》 2, 부산: 태극도본부, 1967.
- \_\_\_\_\_, 「감천고등국민학교 각 학년 편입생 모집」, 《태극도월보》 3, 부산: 태극도본부, 1967.
- \_\_\_\_\_, 《태극도월보》 4, 부산: 태극도본부, 1967.
- \_\_\_\_\_, 「감천고등국민학교 정규 중학교로 승급기로」, 《태극도월보》 7, 부산:

태극도 본부, 1968.

\_\_\_\_\_, 《태극도 월보》 15, 부산: 태극도본부, 1968.

\_\_\_\_\_, 「학교 폐쇄와 사업체 정리」, 《태극도월보》 27·28 합본, 부산: 태극도본부, 1969.

태극도본부 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 교화부, 1966.

태극도편찬원, 『도학원론』, 부산: 태극도 출판부, 1991.

## 2. 고문헌

『國朝榜目』, 奎貴 11655 v.12.

『正朝實錄』.

## 3. 일제 공문서

關東廳警務局, 「普天教革新會幹部ノ動靜ト教徒移民政策」, 秘 關機高收 제 3145호, 1925년 2월 5일.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京城: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경성 본정경찰서장,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本高秘 제6894호, 1924년 9월 2일.

경성 종로경찰서장, 「普天教徒ノ行動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1760호, 1924년 2월 20일.

\_\_\_\_\_, 「時代日報對普天教ニ對スル思想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7447호의 2, 1924년 06월 10일.

\_\_\_\_\_, 「普天教會及時代日報社ノ動靜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 警高秘 제7594호의 2, 1924년 06월 14일.

\_\_\_\_\_, 「時代日報ニ對スル普天教ノ態度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1』, 京鍾警高秘 제8577호, 1924년 07월 6일.

\_\_\_\_\_, 「株式會社時代日報社發起人會狀況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3, 1924년 08월 11일.

\_\_\_\_\_, 「時代日報社第一回理事會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0144호의 4, 1924년 08월 11일.

\_\_\_\_\_, 「時代日報續刊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

- 警高秘 제10144호의 18, 1924년 9월 2일.
- \_\_\_\_\_, 「普天教革新會宣傳文印刷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1899호의 2, 1924년 9월 20일.
- \_\_\_\_\_, 「普天教革新會公庭明渡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2730호의 2, 1924년 10월 11일.
- \_\_\_\_\_, 「普天教看板奪取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3597호의 2, 1924년 11월 1일.
- \_\_\_\_\_, 「普天教ノ紛爭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京鍾警高秘 제13597 호의3, 1924년 11월 3일.
- 경성지방법원검사정, 「普天教新舊派ノ內訌ニ關スル件」, 『檢察行政事務에 關한 記錄 2』, 地檢秘 제847호, 1924년 11월 3일.
- 「高警 第36610號, 太乙教徒檢舉ニ關スル件」,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년 12월 26일,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8권, 국사편찬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全羅北道, 『無極大道教概況』,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M2-87, 1925.
- \_\_\_\_\_, 『普天教一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B393, 1926.
- 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 上卷,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2.
- \_\_\_\_\_, 『朝鮮總督府施政年譜』, 朝鮮總督府, 1911.
- 朝鮮總督府 警務局長, 「普天教革新會幹部ノ動靜ト教徒移民政策」, 高警 제 573호, 1925년 2월 19일.
-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昭和八年十三年』, 東京: 嚴南堂, 1966.
-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調査-思想犯罪から觀た最近の朝鮮在來類似宗教」, 《思想彙報》22, 1940.
- 『執行原簿』,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CJA0018944, 1919년 2월 3일.
-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279號, CJA0002172, 1921년 5월 16일.
-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大正十年 刑第158號, CJA0002172, 1921년 6월 2일.
-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6월 22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刑第502號, CJA0002172, 1921년 6월 27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 1921년 7월 2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大正十年 刑控第472號, CJA0000618, 1921년 7월 27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0월 12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03, 1921년 11월 16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565號, CJA0002172,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大邱覆審法院 刑事 第二部, 刑控 第396446655號, CJA0001310, 1921년 11월 26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21725, 1921년 11월 말-12월 초.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CJA0000120, 1923년 4월 4일.

「判決文」, 全州地方法院 錦山支廳, 大正十二年 刑第108-109號, CJA0001770, 1923년 5월 21일.

「判決文」, 京城覆審法院, 大正十二年 刑控第185號, CJA0000120, 1923년 5월 25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蔚珍支廳, 大正十二年 刑第260號, CJA0001573, 1923년 11월 21일.

「判決文」, 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 CJA0001575, 1927년 6월 21일.

平安南道, 『洋村及外人事情一覽-平安南道』,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M2-100, 1924.

『刑事事件簿』,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CJA0018852, 1919년 2월 3일.

#### 4. 한국 공문서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4293형공 제988호, 1961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문」, 4294형상 제601호, 1962년 2월 28일.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사회단체등록증」 제263호, 1963년 6월 12일.

문교부, 「태극도 등록」, 부교증 1074.4-867, 1963년 6월 12일.

부산시장, 「태극도 현황 조사 보고」, 부교중 1074.4-34〇, 1963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태극도 등록」, 부교중 1074.4-982, 1963년 6월 17  
일.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태극도 설립등기 보고」, 관리번  
호: BA0155942, 1963년 12월 23일.

##### 5. 외국 출판 간행물

Chidester, David. *Salvation and Suicide: An Interpretation of Jim Jones. the Peoples Temple, and Jonestow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3.

Goshen-Gottstein, Alon. *Religious Genius—Appreciating Inspiring Individuals Across Traditions*. Cham: Palgrave Macmillan, 2017.

Kristensen, W.B.. *Religionshistorisk studium*. Oslo, 1954.

Lee, Gyungwon. *An Introduction to New Korean Religions*. trans. by Key Ray Chong, Seoul: Moonsachul, 2016.

Smith, Jonathan Zittell. *I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w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Stark, Rodney & Bainbridge, William Sims. *A Theory of Religion*. New York: Peter Lang, 1987.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Vol.4, ed. by Guenther Roth & Claus Wittich, trans. Ephraim Fischhoff,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株式會社, 1921.

宋炯穆, 「植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總督府の新宗教政策と宗教地形の變化-1920年代前半における普天教の活動を中心に」, 立命館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日本史學專修 碩士論文, 2012.

趙景達, 「植民地朝鮮における新興宗教の發展と民衆(上)-普天教の抗日と親日」, 『思想』 2001年2月, 東京: 岩波書店, 2001.

朝鮮興文會, 『朝鮮諸宗教』, 京城: 京城新聞社, 1922.

村山知順,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_\_\_\_\_, 「朝鮮の類似宗教」, 『朝鮮の宗教及信仰』, 京城: 朝鮮總督府, 1935.

#### 4. 국내 저서

김응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 서울: 아르케, 2001.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전주: 신아출판사, 2010.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 보천교』, 대전: 상생, 2017.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김탁, 『증산 강일순』, 한국학술정보, 2006.

\_\_\_\_\_,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1992.

\_\_\_\_\_, 『한국의 보물 해인-용궁의 보물에서 후천개벽의 정보로』, 서울: 북코리아, 2009.

노길명, 『한국의 신흥종교』, 대구: 가톨릭신문사, 1988.

\_\_\_\_\_,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8권 - 문화투쟁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류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상 연구』, 서울: 마당기획, 2000.

류병덕·김홍철·양은용, 『한·중·일 삼국 신종교 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1982.

류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_\_\_\_\_, 『한국신흥종교』, 이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4.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박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문화공보부,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문화공보부, 1970.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독립운동총서6 종교·교육 투쟁』, (주) 민문고, 1995.

박광수, 『한국 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집문당, 2012.

박광수 외, 『‘사상휘보’ 민족종교 관련 기사-조선총독부 고등법원(1934-43년)』, 서울: 집문당, 2016.

- 박찬승, 『언론운동』,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종렬, 『차천자의 꿈: 시대일보 사건과 증산교 포교전략』, 고양: 장문산, 2002.
- 백영제·김다화·이명희, 『감천문화마을 이야기』, 부산: 도서출판 두손کم, 2011.
- 백원철·안후상·이병열·이대건, 『19세기 사상의 거처 - 근대 민중종교운동과 고창』, 서울: 기억, 2013.
-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부산: 부산시, 1965.
- \_\_\_\_\_, 『시세일람』, 부산: 부산시, 1959.
- 샤프, 에릭,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서문성, 『전통사찰의 창건설화』, 서울: 도서출판 창, 1997.
- 성주현, 『식민지 시기 종교와 민족운동』, 서울: 선인, 2013.
- 스미스, 윌프레드 캔트웰, 『종교의 의미와 목적』, 김희성 옮김, 분도출판사, 1991.
- 아오노 마사아키, 『제국 신도의 형성 - 식민지 조선과 국가신도의 논리』, 배귀득·심희찬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17.
-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
-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과 자료』, 서울: 고려한림원, 1997.
- \_\_\_\_\_, 「종교집단 내의 갈등해소대책-증산교 분열원인의 유형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윤이흠 등, 『한국종교연구사 및 연구방법』,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4.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1, 서울: 집문당, 1986.
- \_\_\_\_\_, 『한국종교연구』 2, 서울: 집문당, 1988.
- \_\_\_\_\_,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 \_\_\_\_\_, 『한국종교연구』 4, 서울: 집문당, 1999.
- \_\_\_\_\_, 『한국종교연구』 5, 서울: 집문당, 2003.
- \_\_\_\_\_, 『한국종교연구』 6, 서울: 집문당, 2004.
- 의병대장 이진룡 장군 기념사업회, 『이진룡 의병장 자료전집』, 서울: 국학자료원, 2005.

-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대흥기획, 1992.
- \_\_\_\_\_, 『한국신흥종교총감』, 서울: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3.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_\_\_\_\_, 『대순진리회 교리론』, 서울: 문사철, 2013.
- \_\_\_\_\_, 『대순진리회 신앙론』, 서울: 문사철, 2012.
- \_\_\_\_\_, 『한국 신흥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 \_\_\_\_\_, 『한국의 종교사상-궁극적 실재의 제 문제』, 서울: 문사철, 2010.
- 이능화, 『百教會通』, 경성: 조선불교월보사, 1912.
- \_\_\_\_\_, 「朝鮮古代神敎已行」, 『조선불교통사』 하편, 新文館, 1918.
- \_\_\_\_\_, 『朝鮮基督教及外交史』, 京城: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 \_\_\_\_\_, 『조선도교사』, 이종은 역주, 서울: 보성문화사, 1986.
- \_\_\_\_\_, 『조선불교통사』 상·중편, 新文館, 1918.
- 이용선, 『암흑기의 신화-차천자』, 서울: 홍익출판사, 1968.
-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편찬위원회,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 자료집 1』, 도서출판 기억, 2017.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2』, 이연식 번역, 서울: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_\_\_\_\_, 『대순진리강화』,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8.
- \_\_\_\_\_, 『대순진리입문』,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_\_\_\_\_, 『증산종교사상』,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1976.
- \_\_\_\_\_,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_\_\_\_\_, 『한국고유신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70.
- \_\_\_\_\_, 『한국 종교와 종교학』,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엮음, 서울: 청년사, 2003.
- 張奉善, 『井邑郡誌』, 全北: 履露閣, 1936.
- 장옥, 『용화도장 지킴이』, 서울: 선학사, 2004.
- 장형복 편저, 『감천2동 향토지』, 감천2동 향토회, 2004.
- 조경달 지음, 『식민지 조선과 일본』, 최혜주 옮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5.
- 진즈부르그, 카를로, 『치즈와 구더기』, 김정하·유제분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1.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東明社, 1946.

최종성, 『동학의 테오프락시』, 서울: 민속원, 2009.

최종성 외 역주, 『역적여환등추안: 중·풍수가·무당들이 주모한 반란의 심문 기록』, 서울: 민속원, 2010.

최종성 역주, 『요승처경추안』, 서울: 지식과 교양, 2013.

최종성 외 역주, 『차충결추안: 도참을 믿고 생불을 대망했던 민중들의 심문 기록』, 서울: 민속원, 2010.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총람』, 서울: 한누리, 1992.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한국종교연감』,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3.

한국종교학회,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咸安趙氏 斗巖公派宗中, 『咸安趙氏 斗巖公派世譜』 권1, 부산: 아름기획, 1996.

咸安趙氏 忠毅公派世譜 編纂委員會, 『咸安趙氏 忠毅公派世譜』, 慶南: 大耕出版社, 2007.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한누리, 1988.

\_\_\_\_\_,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_\_\_\_\_, 《월간 천지공사》 5,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_\_\_\_\_, 《월간 천지공사》 6,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_\_\_\_\_, 《월간 천지공사》 7,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_\_\_\_\_, 《월간 천지공사》 8,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_\_\_\_\_, 《월간 천지공사》 19,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_\_\_\_\_, 《월간 천지공사》 31,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1.

\_\_\_\_\_, 『증산교 첫걸음』, 한누리, 1981; 홍범초, 『증산교개설』, 창문각, 1982.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국체의 본의’를 읽다』, 형진의·임경화 편 역, 서울: 어문학사, 2017.

## 5. 국내 논문

강돈구, 「신종교 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7.

- 고남식,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 『종교연구』 50, 한국종교학회, 2008.
- \_\_\_\_\_, 「구천상제의 강세신화와 지상천국」, 『대순사상논총』 15, 대순사상학술원, 2002.
- \_\_\_\_\_,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한국신종교학회, 2010.
- \_\_\_\_\_, 「증산의 도가적 경향과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 『대순사상논총』 17, 대순사상학술원, 2004.
- 김다희, 「문화마을 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감천문화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동명대학교 석사, 2017.
- 김용곤, 「신흥종교 취락에 관한 연구: 보천교 발상지 대흥 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31, 전북사학회, 2007.
- \_\_\_\_\_,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행방」, 『신종교연구』 5, 한국신종교학회, 2001.
- \_\_\_\_\_, 「보천교의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9, 한국종교사학회, 2001.
- \_\_\_\_\_, 「보천교의 교육활동」, 『신종교연구』 14, 한국신종교학회, 2006.
- \_\_\_\_\_, 「입암산과 종교」, 『신종교연구』 8, 한국신종교학회, 2003.
- \_\_\_\_\_, 「정읍농악과 신흥종교」, 『한국종교사연구』 10, 한국종교사학회, 2002.
- \_\_\_\_\_, 「풍수와 땅 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보천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2, 2000.
- \_\_\_\_\_, 「형평사와 보천교」, 『신종교연구』 21, 한국신종교학회, 2009.
-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2002.
- \_\_\_\_\_,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 \_\_\_\_\_,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 김종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9.
- \_\_\_\_\_,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6,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 김창수, 「도시마을 창조전략-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회, 16/1, 2012.
- 김철수, 「김철수 친필유고」, 『역사비평』 5, 역사비평사, 1989.
- \_\_\_\_\_, 「일제하 식민권력의 종교정책과 보천교(普天敎)의 운명」, 『선도문화』 2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16.
- 김홍철, 「대한불교 미륵종」, 『한국종교』 2,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5.
- \_\_\_\_\_, 「이정립의 대순철학사상」,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4.
- \_\_\_\_\_, 「증산종교사상」, 『한국종교사상사』 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 \_\_\_\_\_, 「한국신종교 인물전 2」,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_\_\_\_\_, 「해방 후 50년의 한국 신종교 연구사」, 『종교연구』 15, 한국종교학회, 1998.
- 김탁, 「강증산의 원시반본사상」, 『한국종교』 1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3.
- \_\_\_\_\_, 「이능화와 한국신종교의 연구」, 『종교연구』 9, 한국종교학회, 1993.
- \_\_\_\_\_,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원 박사, 1995.
- \_\_\_\_\_, 「증산교의 교리 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원 석사, 1986.
- \_\_\_\_\_, 「한국 신종교의 조상승배」, 『종교연구』 20, 한국종교학회, 2000.
- \_\_\_\_\_, 「한국종교사에서의 증산교와 민간신앙의 만남」,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 \_\_\_\_\_, 「한국종교사에서의 도교와 증산교의 만남」, 『도교문화연구』 8, 한국도교문화학회, 1994.
- \_\_\_\_\_, 『한국종교사에서의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 한누리미디어, 2000.

- \_\_\_\_\_, 「한국종교사에서의 불교와 증산교의 만남」, 『동양고전연구』 3, 동양고전학회, 1994.
- 노길명, 「신흥종교 창시자와 추종자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 간의 관계 - 증산교를 중심으로」, 『증산사상연구』 3, 증산사상연구회, 1976.
- \_\_\_\_\_, 「증산교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사상연구』 2, 증산사상연구회, 1975.
- \_\_\_\_\_,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증산종교운동」, 『한국종교』 20,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5.
- 류병덕, 「개화기 일제시의 민족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의 제문제』 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_\_\_\_\_, 「유사종교론」, 『한국신흥종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 \_\_\_\_\_, 「한국 신흥종교의 실상과 그 연구 현황」, 『한국종교사연구』 5집, 한국종교사학회, 1996.
- \_\_\_\_\_, 「한국 신흥종교의 유사종교 규정에 관한 연구」, 『논문집』 4집, 원광대학교, 1969.
- 박광수, 「제주도 단군성주교 현장 조사 연구」, 『한국종교』 3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6.
- \_\_\_\_\_, 「한국 신흥종교의 지형과 종교문화연구 서설」,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흥종교 지형과 문화』, 서울: 집문당, 2015.
- 박광현, 「검열관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에 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 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 박맹수, 「동학계 신흥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특성」, 『종교연구』 70, 한국종교학회, 2013.
- 박인규, 「대순사상의 구원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대순사상학술원, 2018.
- \_\_\_\_\_,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대순사상학술원, 2017.
- \_\_\_\_\_,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신흥종교연구』 40, 한국신흥종교학회, 2019.
- \_\_\_\_\_, 「대순진리회 종통론의 특성 연구」, 『대순사상논총』 24/2, 대순사상

- 학술원, 2015.
- \_\_\_\_\_, 「주문의 수행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2014.
-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 성경암, 「말세와 무극대운」, 《월간 천지공사》 2, 예산: 범종산교연구원, 1988.
- 손은하·차철욱, 「환경색체의 변화를 통해 본 마을 이미지-부산시 사하구 감천 2동 태극마을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2, 인문콘텐츠학회, 2011.
- 신광철, 「장병길의 비교종교학적 관점과 한국종교 연구」, 『종교문화비평』,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7.
- 신희경,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례로 본 실천적 문화교육 방안 연구-중국 베이징 798예술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 2015.
- 안유림,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한국기독교와 역사』 28, 2008.
- 안후상, 「강증산의 사상과 보천교운동」, 『식민지 시대 사회상에 비친 동학 관련 신종교·민간신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07.
- \_\_\_\_\_,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 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1996.
- \_\_\_\_\_,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6, 한국종교사학회, 1996.
- \_\_\_\_\_, 「보천교와 동학」, 『황토현』 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8.
- \_\_\_\_\_,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 \_\_\_\_\_, 「보천교의 반일성(反日性) 연구를 위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종교』 39, 원광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 2016.
- \_\_\_\_\_,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 4, 한국신종교학회, 2001.
- \_\_\_\_\_,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1992.
- \_\_\_\_\_, 「보천교: 차월곡(車月谷) 출생에 관한 소고」,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 \_\_\_\_\_,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 배경」, 『신종교연구』 26, 한국신

- 종교학회, 2012.
- \_\_\_\_\_,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 - 온라인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0,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 \_\_\_\_\_, 「일제 강점기 선도계열의 민족운동 - 태인 무극대도를 중심으로」, 『태인 무극대도의 역사문화적 회고와 전망 - 2018년 정읍 역사문화연구소 3차 학술대회 발표집』, 정읍역사문화연구소, 2018.
- 양은용, 「교조약사의 구조와 성격」, 『한국종교』 35,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2.
- 윤선자, 「1910년대 일제의 종교규제법령과 조선천주교회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7.
- \_\_\_\_\_, 「1915년 포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기관 설립 현황」, 『한국기독교와 역사』 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1998.
- \_\_\_\_\_, 「일제의 종교정책과 신종교」, 『한국근현대사연구』 1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대순사상학술원, 2013.
- 윤이흠, 「종교집단 내의 갈등해소대책 - 증산교 분열원인의 유형을 중심으로」,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이강오, 「보천교: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각론에서」, 『논문집』 8, 전북대학교, 1966.
- \_\_\_\_\_,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증산교계 총론-그 연혁과 교리의 개요」, 『논문집』 7, 전북대학교, 1966.
- 이경원·백경언, 「증산계 신종교 운동의 역사와 사상적 변천에 대한 조명」,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한국 신종교 지형과 문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5.
- 이상훈, 「생활공간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사회 연대 변화 연구-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 2015.
- 이원선, 「하면된다는 역척과 집념 - 판자집 2천동 개량이 남긴 교훈들」, 『새마

을』 6/3, 1979.

이창기,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임영창,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 『증산사상연구』 15집, 증산사상연구회, 1989.

장원아, 「1920년대 보천교의 활동과 조선사회의 대응」, 서울대학교 석사, 2013.

조성운,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하남구, 「부산기 감천2동 태극도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2012.

한승훈, 「조선후기 혁세적 민중종교연구: 17세기 용녀부인 사건에서의 미륵신앙과 무속」, 서울대학교 석사, 2012.

호설자, 「문화 예술단지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2016.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사상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_\_\_\_\_, 「효정 이순탁의 생애와 사상」, 『한국경제학보』 4/2,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홍범초, 「보천교 초기 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 10,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5.

\_\_\_\_\_, 「증산종단의 초교파운동사」, 《월간 천지공사》 창간호,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_\_\_\_\_, 「천지공사의 현의」, 《월간 천지공사》 3,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_\_\_\_\_, 「증산종단의 국조 숭봉 2」, 《월간 천지공사》 3,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8.

\_\_\_\_\_, 「천지도수의 확정」, 《월간 천지공사》 4,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89.

\_\_\_\_\_, 「증산종단의 경전은 왜 통일되어야 하는가」, 《월간 천지공사》 25, 예산: 범증산교연구원, 1990.

- \_\_\_\_\_, 「증산의 천지공사에 나타난 미륵사상」,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 \_\_\_\_\_,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증산종단의 기본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사연구』 3, 한국종교사학회, 1973.
- \_\_\_\_\_, 「증산종단의 종교사상으로 본 단군」, 『고조선단군학』 2, 단군학회, 2000.
- \_\_\_\_\_, 「증산종단의 초교파운동」,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2001.
- 황선명, 「민족종교사상 연구의 몇 가지 쟁점」, 『종교연구』 6, 한국종교학회, 1990.
- \_\_\_\_\_, 「보천교 잃어버린 코문-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 『신종교연구』 2, 한국신종교학회, 2000.

## 6. 신문 자료

《국제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종교신문》  
 《증외일보》



## Abstract

# A Study on Religious Movements Following *Jeung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ed on *Cha Wolgok's Bocheongyo* and *Jo Jeongsan's* *Mugeukdo*

Park, Ingyu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he founders, who succeeded the religious teachings of *Kang Jeungsan*(1871-1909) and founded the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had faith in *Jeungsan*. And I research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and its religious features of new religious movements following *Jeungsan*. In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ns, the organizations following *Jeungsan* have been referred to as *Jeungsangyo*, *Jeungsan* groups, *Jeungsan* sects, etc. In this paper, I refer to the follow-up religious movements pursuing *Jeungsan's* teaching as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The sources of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are the faith toward *Jeungsan* and his teachings. The belief toward *Jeungsan* as the 'Working God' presiding over Three World with ultimate power is a core source of the movements. The works that were carried out to save the world and its creation by *Jeungsan* are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The theory of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is a core doctrine that penetrates the whole of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and is a unique doctrine that is distinct from other religions. The theory of Reordering Works of Heaven and Ear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resolving the grievances was able to reach the believers with the message of

the salvation of Korean people and the liberation of the people under the Japanese empire rule. Besides, *Jeungsan* called his legitimate successor 'The Great Leader' and said that the religious movements of this 'Great Leader' was 'The Authentic Teaching'. In carrying out this 'Authentic Teaching', the devotees believe that they can attain the enlightenment as a religious goal.

After *Jeungsan*'s demise,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were develop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the sacred power and doctrine of *Jeungsan*. Japanese colonial period is the time when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were born and developed. The post-liberation religious organizations following *Jeungsan* regard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s their pre-history. Otherwise, they critically succeed or they stress that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former movements. Ther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the early history of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and the main period whe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asis of the movements were 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most prominent organization among *Jeungsan* groups was *Bocheongyo* founded by *Wolgok Cha Gyeongseok*(1880-1936), and the next influential group was *Mugeukdo* of *Jeongsan Jo Cheolche*(1895-1958). The direct disciple of *Jeungsan*, *Wolgok* worked on the mission and organized the religious group system based on the teachings of *Jeungsan*. After the failure of March first movement, the Korean people who were frustrated with the desire to liberate the nation gradually entered into *Bocheongyo* and organized the group and collected the donation. The research on *Bocheongyo* is quite significant since it was the huge religious movement that was popularized by the people and considerable numbers of *Jeungsan* groups were originated from *Bocheongyo*.

While *Bocheongyo* is the religious organization established by the direct disciple of *Jeungsan*, *Mugeukdo* is the organization which started through the religious experience of the founder who was not a disciple. Based on the experience of revelation and enlightenment, *Jeongsan* developed *Mugeukdo* into the second-largest group next *Bocheongyo* among *Jeungsan* groups ami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t the time, the media discussed *Mugeukdo* as next

runner to *Bocheongyo* and Japanese police kept a strict watch on it next to *Bocheongyo*. From this point of view, *Bocheongyo* and *Mugeukdo* can be regarded as two mountain ranges of *Jeungsan* religious movemen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19, *Wolgok*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organization. In 1921, he conducted the sacrificial service to heaven and declare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as 'Bohwa'. In 1922, he opened the organization into the public as the name of '*Bocheongyo*'. After that, *Bocheongyo* was expanded nationwide, but in 1924 as *Chengum Lee Sangho* who was the central figure of intellectual groups of *Bocheongyo* initiated the innovative campaign toward *Wolgok*, *Bocheongyo* was involved in big trouble. *Wolgok* organized *Sigukdaedongdan* in coordination with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to subdue the inner disorder of the organization, but it was severely criticized by the press and received the people's backlash while engaging in the controversy of the pro-Japanese. Since then, *Bocheongyo* had gone into the history of decline and disintegration.

The leader of intellectuals of *Bocheongyo*, *Chengum* and *Namju* contributed to the systemization of the doctrine of *Bocheongyo*. They attempted to settle down *Bocheongyo* in Joseon Dynasty such as trying to take over the newspaper *Sidaeilbo* but initiated innovative campaign due to conflict of opinion with *Wolgok*. *Chengum* and *Namju* brothers published the scripture containing *Jeungsan*'s teaching for the first time and founded the other new religious organization believing in *Jeungsan*.

In the process of exile to Manchuria with the family, *Jeongsan* received revelation from the supreme being, which was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ligious organization. *Mugeukdo* that was established in 1925 by *Jeongsan*, has developed into the religious organization that was called 'the second *Bocheongyo*' and compared to *Bocheongyo*. However, *Mugeukdo* was dissolved in 1941 due to the laws of security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Jeongsan* resumed his religious activities around *Busan* and formed a faith village. In 1950, *Jeongsan* change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into *Taegukdo* and strengthened the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 In 1958, he

bestowed the orthodox religious authority upon *Wudang Park Hangeong* and passed into heaven. *Wudang* succeeded *Jeongsan* and led *Taegukdo* for 10 years, and moved the center of religious activity to Seoul and set up a new religious organization called *Daesoon Jinrohoe*.

Keywords: *Jeungsan Kang Ilsoon*, *Wolgok Cha Gyeongseok*, *Jeongsan Jo Cheoljae*, *Bocheongyo*, *Muguekdo*, *Daesoon Jinrihoe*, *Chengum Lee Sangho*, *Namju Lee Jeonglip*, the Japanese colonial era, national religion, independence movements

Student Number: 2014-30953